수호전

水滸傳 · 시내암 120회본(충의수호전)

제6권 (제61회 ~ 제72회)

시내암 (施耐庵, 약 1296–137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6-03

책 정보

원전

시내암 『수호전(水滸傳)』 120회본(충의수호전, 袁無涯 간행본 계열), 引首 +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水滸傳_(120回本)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3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宋江 → 송강, 林沖 → 임충)

- 별호는 본명으로 통일(及時雨 → 송강, 黑旋風 → 이규, 花和尚 → 노지심)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詞曰 → 시·사 형식 유지

>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61회 — 오용이 지혜로 옥기린을 속이고, 장순이 밤에 금사도를 뒤집어놓다 6

제62회 — 연청이 냉전을 쏘아 주인을 구하고, 석수가 법장을 습격하며 누각에서 뛰어내리다 34

제63회 — 송강의 군사가 북경성을 공격하고, 관승이 양산박을 취하기를 의논하다 74

제64회 — 호연작이 달밤에 관승을 꾀어 잡고, 송공명이 눈 오는 날 색초를 사로잡다 98

제65회 — 탑을 든 천왕이 꿈속에 나타나 성스럽게 보이고, 낭리백 조수가 물 위에서 원한을 갚다 121

제66회 — 시천이 취운루에 불을 지르고, 오용이 지혜로 대명부를 취하다 148

제67회 — 송강이 말보삼군을 상하고, 관승이 수화이장을 항복시키다 169

제68회 — 송공명이 밤에 증두시를 습격하고, 노준의가 사문공을 생포하다 191

제69회 — 동평부가 구문룡 사진에게 잘못 빠지고, 송공명이 의리로 쌍창장을 풀어주다 215

제70회 — 몰우전 비석이 영웅을 때리고, 송공명이 군량을 버리고 장사를 사로잡다 237

제71회 — 충의당 석갈이 천문을 받고, 양산박 영웅들이 자리를 정하다..... 254
제72회 — 시진이 꽃을 꽂고 금원으로 들어가고, 이규가 정월 대보름에 동경을 뒤집어놓다 281

제61회 — 오용이 지혜로 옥기린을 속이고, 장순이 밤에 금사도를 뒤집어놓다

吳用智賺玉麒麟 張順夜鬧金沙渡

이야기는 이러하다. 용화사의 승려가 옥기린 노준의의 이름을 거론하며 송강과 오용에게 말했다. “소생이 이 놀라운 말솜씨를 믿고 북경으로 달려가 노준의를 양산박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야, 주머니 속 물건을 꺼내는 것처럼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저와 함께 갈 배짱 두둑한 동료 한 명이 부족할 뿐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흑선풍’ 이규가 큰 소리로 외쳤다. “군사 형님, 이 아우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자 송강이 꾸짖었다. “아우님, 잠시 멈추시오! 만약 불을 지르거나 사람을 죽이고, 집을 털거나 관청을 습격하는 일이라면 당신이 딱 맞겠지만, 이건 첩자로 활동하는 일이라오. 당신은 성격이 워낙 불같으니 가서 일을 그르칠 게 뻔하오.” 이규가 투덜거렸다. “다들 내가 못생겼다고 싫어해서 나를 안 보내주려는 거 아닙니까?” 송강이 달랬다.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대명부에는 감시하는 관리들이 아주 많소. 혹시라도 정체가 탄로 나면 아까운 목숨만 버리게 될까 봐 걱정

되는 것이오.” 이규가 소리쳤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가야겠습니다.” 오용이 나섰다. “만약 내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준다면 데려가겠소. 못 지키겠다면 그냥 산채에 남아있으시오.” 이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세 가지는커녕 서른 가지라도 다 지키겠습니다!” 오용이 엄숙하게 말했다. “첫째, 당신의 술버릇은 불길처럼 거세니, 오늘부터 돌아올 때까지 절대 술을 입에 대지 말 것. 둘째, 길 위에서는 도동(道童, 도사의 시동) 차림을 하고 나를 따르되, 내가 부를 때 토를 달지 말 것. 셋째, 가장 어려운 것인데, 내일부터는 절대로 말을 하지 말고 마치 벙어리처럼 행동할 것. 이 세 가지를 지킨다면 데려가겠소.” 이규가 대답했다. “술을 안 마시고 도동 차림을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을 꾹 다물고 말을 못 한다니, 그건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오용이 못 박았다.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모든 일이 어그러질 것이오.” 이규가 꾀를 내며 말했다. “그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입에 엽전 한 푼을 물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송강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아우님, 정 가겠다면 말리지 않겠으나 만약 실수가 생긴다 해도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이규가 호기롭게 외쳤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도끼 두 자루만 챙겨가면, 가서 나쁜 놈들 머리통을 수천 개는 찍어버리고 오겠습니다!” 모든 두령이 웃음을 터뜨렸으나, 이규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충의당에서 떠나는 길을 배웅하는 잔치를 벌였다. 밤이 되어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오용은 짐을 꾸리고 이규에게 도동 차림을 시킨 뒤 짐을 지고 산을 내려가게 했다. 송강과 여러 두령은 금사탄까지 따라 나와 배웅하며, 오용에게 부디 조심하고 이규가 사고를 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라고 거듭 당부했다. 오용과 이규는 사람들과 작별하고 산을 내려갔고, 송강 일행은 산채로 돌아갔다.

한편, 오용과 이규 두 사람이 북경으로 향했다. 나흘이나 닷새 정도 길을 가며 매일 저녁이면 주막을 찾아 쉬고, 이른 아침이면 불을 지펴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런데 길을 가는 내내 오용은 이규가 사사건건 속을 뒤집어 놓는 통에 진절머리가 났다. 며칠을 달려 북경 성 밖의 주막에 도착해 하룻밤 묵게 되었다.

그날 밤, 이규가 밥을 하러 부엌에 갔다가 점소이를 주먹으로 한 대 쳤는데, 그 바람에 점소이가 피를 토하고 말았다. 점소이가 방으로 찾아와 오용에게 일렀다. "손님네 벙어리 도동이 너무 사납습니다! 제가 불을 지피는 게 조금 늦었다고 저를 때려 피를 토하게 만들다니요." 오용은 황급히 사과하며 점소이에게 치료비로 십여 관의 돈을 쥐여주었다. 그러고는 속으로 이규를 원망하며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밤을 지내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마쳤다. 오용이 이규를 방으로 불러 일렀다. "이 고집불통 녀석아, 한사코 따라오겠다고 하더니 길 내내 나를 약 올려 죽일 셈이냐! 오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건 장난이 아니니, 제발 내 목숨을 앗아가지 말거라!" 이규가 대답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오용이 다시 말했다. "내가 너에게 암호를 하나 더 알려주마. 만약 내가 고개를 가로저으면, 너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규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에서 성 안으로 들어갈 채비를 마쳤다. 오용은 검은 비단으로 눈썹 위까지 덮는 두건을 쓰고, 소매 끝에 검은 테를 두른 흰 비단 도복을 입었으며, 알록달록한 색실로 짠 여공색 띠를 허리에 둘렀다. 발에는 네모난 앞코의 푸른 천 신발을 신었고, 손에는 황금빛이 도는 구리 방울과 방울채를 들었다. 이규는 몇 가닥 남은 누런 머리카락을 모아 두 개의 비녀로 정성껏 틀어 올리고는, 검은 호랑이 같은 몸에 거친 무명 짧은 도포를 입었다. 허리에는 색색의 짧은 띠를 두르고, 발에는 흙먼지가 잘 묻지 않는 투박한 장화를 신었다. 어깨에는 머리 위까지 오는 긴 나무 지팡이를 메고, 그 위에는 종이 팻말 하나를 매달았는데 거기에는 '천기(天機)를 논하고 운명을 점치니, 복채는 은 한 냥'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용과 이규는 차림새를 모두 갖춘 뒤 방 문을 잠그고 주막을 나서서 북경의 남문을 향해 걸어갔다. 채 일 리도 가지 않아 성문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과연 북경은 대단한 도시였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성벽은 높고 지형은 험하며, 해자는 넓고 깊다.
성벽을 따라 뾰족한 방어 시설이 얽혀 있고, 사방에는 창칼을 막는 구조물이 빽빽하다.
북소리 울리는 망루는 웅장하고, 형형색색의 깃발들이 어지러이 흩날린다.
성벽 길은 평탄하고, 칼과 창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곳간의 곡식과 재물은 넘쳐나고, 사람들의 삶은 번화하다.
동서쪽 정원에는 악기 소리 하늘을 찌르고, 남북쪽 가게에는 재물이 땅에 가득하다.

천 명의 용맹한 장수들이 성을 지키고, 백만 백성들이 이 큰 나라에 살고 있다.

이때 천하 곳곳에서 도적들이 들끓고 있었기에, 각 주와 부, 현에는 모두 군마를 배치하여 성문을 지키게 했다. 오직 이곳 북경만은 하북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데다, 양중서가 대군을 거느리고 지키고 있으니 어찌 그 위용이 정연하고 당당하지 않겠는가?

한편, 오용과 이규는 비틀비틀 걸어가 성문 아래에 도착했다. 성문을 지키는 군사만 해도 사오십 명은 되어 보였는데, 그들은 문을 지키는 관리 한 명을 가운데 모시고 정연하게 앉아 있었다. 오용이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자, 군사가 물었다. "선비님은 어디서 오셨소?" 오용이 대답했다. "소생은 성은 장, 이름은 용이라 합니다. 이 아이는 성이 이 씨인 도동입니다. 강호를 떠돌며 점을 치는 일을 하는데, 이번에 큰 고을에 와서 사람들에게 운명을 논해주려 합니다." 그러고는 곁에서 가짜 통행증을 꺼내 군사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도동 놈의 눈매를 좀 보게. 딱 도둑놈이 사람을 훑어보는 눈깔 같지 않은가!" 이규는 그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으나, 오용이 급히 고개를 가로저어 말리자 그제야 머리를 숙였다. 오용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 문지기 군사들에게 사정하며 말했다. "말씀드리기 참으로 송구합니다! 이 도동 놈이 귀도 먹고 말도 못 하는 데다, 그저 무식하게 힘만 센 놈입니다. 집안에서 난 종놈이라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왔는데,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실례를 범했으니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말을 마친 오용은 곧장 길을 떠났다. 이규는 그 뒤를 따라 쿵쾅거리며 성 안 저잣거리로 들어갔다. 오용은 손에

든 방울채를 흔들며 입으로 네 구절의 구호를 읊었다. “감라는 일찍 출세했으나 강자아(태공망)는 늦게야 뜻을 폈고, 팽조와 안회는 수명이 같지 않았네. 범단은 가난하고 석숭은 부유하니, 팔자에 타고난 때가 제각각이라네.” 오용이 다시 덧붙였다. “이것은 때이며, 운이며, 명입니다. 삶과 죽음, 귀함과 천함을 아는 것이지요. 앞날을 묻고자 한다면 먼저 은 한 냥을 내놓으시오.” 말을 마치고 다시 방울채를 흔들었다. 북경 성 안의 아이들 오륙십 명쯤이 그 모습을 구경하며 깔깔거리고 웃었다. 오용은 노 원외(노준의)의 전당포(解庫) 문 앞까지 가서 노래를 부르고 웃으며 왔다 갔다 하니, 아이들이 몰려들어 소란스럽게 구경했다.

노준의는 해고청(解庫廳, 창고 관리 사무소) 앞에 앉아 관리들이 물건을 거두어들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거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자, 당직 서는 이에게 물었다. “거리가 어찌 이리 떠들썩하느냐?” 당직 서는 이가 대답했다. “나으리, 정말 웃기는 광경입니다! 거리에서 외지에서 온 점쟁이 하나가 점을 치고 있는데, 운명을 한 번 보려면 은 한 냥을 내놓으라니 아무도 선뜻 나서질 못합니다. 그 뒤를 따르는 도동 놈은 눈매가 아주 험악하기 짝이 없고, 걸음걸이도 제멋대로라 아이들이 그 모습이 웃기다며 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노준의가 말했다. “큰소리를 치는 것을 보니 필시 학식이 넓은 자일 터. 당직은 가서 그를 청해 오너라.” 당직 서는 이가 서둘러 달려가 외쳤다. “선생님, 노나으리께서 뵙기를 청하십니다!” 오용이 물었다. “누가 나를 부르는가?” “노나으리께서 청하셨습니다.” 오용은 도동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발을 들여놓으며 이규에게는 거위 목 모양의 의자에 가만히 앉아 기다리라고 일렀다. 오용이 앞으로 걸어 나와

노준의를 마주하니, 그 인물이 어떠했는가? 이에 <만정방>이라는 사(詞)가 있어 이를 증명한다.

눈빛은 형형하고 두 눈동자는 맑으며, 눈썹은 팔자 모양으로 갈라졌고, 몸은 은빛처럼 구 척에 달했네.
위엄은 서슬 퍼렇고, 모습은 마치 하늘의 신선 같구나.
익숙하게 휘두르는 막대기 하나로, 몸을 지키는 용의 절기는 비할 데 없네.
도성 안에서 대대로 청백하게 살아온, 조상 대대로 부유한 명문가라네.
전쟁터 적진에 마주하면, 만 마리 말의 대열을 가르고 천 명의 군사를 쓸어버리네.
게다가 충성심은 해처럼 밝고, 기개는 구름을 찌를 듯 높구나.
의롭게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니, 그 영웅적인 이름 천하에 가득 퍼지네.
노 원외의 두 글자 이름은 준의(俊義)요, 별호는 옥기린이라 불리네.

그때 오용이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자, 노준의도 몸을 굽혀 답례하며 물었다. “선생님은 고향이 어디시오? 성함과 자는 어떻게 되시는지?” 오용이 대답했다. “소생은 성은 장, 이름은 용이라 하며, 스스로 담천구라 자칭합니다. 본래 산동 사람으로, 황극선천수를 계산하여 사람의 생사귀천을 알아맞힐 줄 압니다. 점을 치는 값은 은 한 냥을 내셔야 비로소 운명을 봐 드립니다.” 노준의는 그를 후당의 작은 별채로 모셔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며 자리에 앉혔다. 찻물을 마신 뒤, 당직 서는

이에게 은 한 냥을 가져오게 하여 점값으로 올리며 말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소생의 운명을 좀 살펴주십시오.” 오용이 말했다. “생년월일시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준의가 말했다. “선생님, 군자는 재앙을 묻지 복을 묻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부유한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으니, 그저 지금의 행방과 앞날을 추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서른두 살이며, 갑자년 을축월 병인일 정묘시에 태어났습니다.” 오용은 쇠로 만든 산가지 한 움큼을 꺼내 탁자 위에 늘어놓고 한참을 계산하더니, 산가지를 집어 탁자에 탁 치며 크게 외쳤다. “괴이하구나!” 노준의가 깜짝 놀라 물었다. “소생의 운명이 길합니까, 흉합니까?” 오용이 말했다. “나으리께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있는 그대로 직언을 올리겠습니다.” 노준의가 말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듯,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오용이 말했다. “나으리의 명을 보니, 지금으로부터 백 일 안에 반드시 피를 보는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칼날에 목숨을 잃게 될 운명입니다.” 노준의가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 노 아무개는 북경에서 태어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조상 중에 법을 어긴 자가 없고, 친척 중에 재혼한 여인도 없습니다. 게다가 저 노준의는 매사에 신중하여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고, 재물에 눈이 멀어 탐하지 않거늘, 어찌 피를 보는 재앙이 있겠습니까?” 오용은 안색을 싹 바꾸더니 급히 원래의 은을 돌려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탄식하며 말했다. “천하 사람들이 원래 다 아첨하고 비위 맞추는 것만 좋아하는구려! 에이, 관두세! 분명히 평탄한 길을 가리켜 주었건만, 충언을 악담으로 듣는구려. 소생은 이만 물러가겠소.” 노준의가 말했다. “선생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방금 하신 말씀은 농담으로 던져본 것이니, 부디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용이 말했다. “소생이 직언을 올릴 터이니, 부디 이

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노준의가 말했다. "전적으로 듣겠습니다. 부디 숨김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오용이 말했다. "나으리는 그동안 운수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세군(歲君)을 범하여 흉한 운수에 막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백 일 안에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지게(목이 베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운명이니 피할 길이 없습니다." 노준의가 물었다. "피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오용이 다시 산가지를 놓아 계산해 보더니 노준의에게 답했다. "오직 동남쪽 손방(巽方) 천 리 밖으로 떠나야만 이 큰 난관을 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조금 놀라긴 하겠으나, 큰 화는 입지 않을 것입니다." 노준의가 말했다. "만약 이 난을 면할 수 있다면 반드시 두둑이 보답하겠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운명에 네 구절의 점괘 노래가 있으니, 나으리께 들려드릴 테니 벽에 적어 두십시오. 훗날 이 말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 소생의 영험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노준의가 붓과 벼루를 가져오게 하여 흰 벽에 적게 했다. 오용이 입으로 네 구절을 읊었다. "갈대꽃 무성한 곳에 작은 배 한 척 떠 있네. 준걸이 문득 이곳을 떠나 노니는구나. 의사가 만약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스스로 몸을 돌이켜 난을 피하니 근심이 없으리라." 노준의가 글을 다 적자, 오용은 산가지를 챙겨 절을 하고 물러났다. 노준의가 붙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조금 더 앉으시지요. 점심때가 지났으니 식사라도 하시지요." 오용이 대답했다. "나으리의 후한 호의는 감사하오나, 점을 치는 일을 그르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노준의가 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고, 이규는 몽둥이를 든 채 문밖으로 따라 나왔다. 오용은 노준의와 작별하고 이규를 데리고 곧장 성 밖으로 나왔다. 숙소로 돌아온 오용은 방값과 밥값을 계산하고 짐을 챙겼다. 이규가 점괘 판을 꺼내 들자, 오용이 이규에게 말했다. "큰일이 벌어졌다! 밤낮을 가리지

말고 서둘러 산채로 돌아가자. 함정을 파고 기계를 준비하여 노준의를 맞이할 채비를 해야 한다. 그는 머지않아 반드시 올 것이다!"

한편, 오용과 이규가 산채로 돌아간 일은 차치하고, 노준의는 점괘를 본 뒤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앉지도 서지도 못할 만큼 불안해했다. 이것이 바로 천강성들이 모여들 운명이었으니, 점쟁이가 한 말을 듣고 하루도 견디지 못한 노준의는 당직 서는 이에게 명령하여 여러 관리들을 불러 모아 일을 상의하게 했다. 잠시 후 사람들이 모두 모였는데, 그중 집안 살림을 총괄하는 우두머리 관리는 성은 이씨요 이름은 고였다. 이고는 본래 동경 사람인데, 북경에 아는 이를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노준의의 집 앞에서 추위에 쓰러진 적이 있었다. 노준의가 그의 목숨을 구해주어 집에서 돌보아 주었는데, 이고가 부지런하고 글씨와 계산에 능한 것을 보고 집안 살림을 맡겼다. 5년 만에 노준의는 그를 도관(都管, 집안의 안팎 살림을 총괄하는 우두머리 집사)의 자리에까지 발탁해 올렸다. 집안 안팎의 모든 살림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고, 수하에는 마흔에서 쉰 명에 달하는 살림꾼들을 거느리고 있어 집안 사람들은 모두 그를 이 도관(李都管)이라 불렀다. 그날 크고 작은 일을 맡은 관리들이 모두 이고를 따라 대청 앞으로 나와 인사를 올렸다.

노준의가 사람들을 한 번 훑어보더니 말했다. "어찌하여 내 사람이 보이지 않는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계단 앞으로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키는 여섯 자가 넘고 나이는 스물네댓 살쯤 되어 보였는데, 세 가닥의 수염이 입가를 덮고 있었으며 턱수염은 가늘었고 허리는 가늘지만 어깨는 떡 벌어진 체격이었다. 머리에는 목과 꽃 모양이 수놓아진 두건

을 쓰고, 은사로 무늬를 넣은 흰색 비단 저고리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거미 무늬가 있는 붉은 띠를 둘렀고, 발에는 황토색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다. 머리 뒤에는 짐승 모양의 금고리를 달았고 목에는 향기로운 비단 손수건을 둘렀으며, 허리에는 명인 부채를 비스듬히 꽂고 귀밑머리에는 늘 사계절 꽃을 꽂고 있었다.

이 사람은 북경 토박이로, 어려서 부모를 모두 여의고 노준의의 집에서 자랐다. 노준의는 이 사람의 살결이 눈처럼 하얀 것을 보고 솜씨 좋은 장인을 불러 온몸에 화려한 꽃무늬 문신을 새겨주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옥기둥 위에 푸른 비단을 깔아놓은 듯하였다. 만약 문신한 몸을 겨루는 자리(錦體)라면 그가 누구를 상대하든 모두 그에게 질 것이었다. 게다가 온몸의 화려한 문신뿐 아니라, 피리 불고 거문고 타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물론, 글자 맞추기 놀이며 말 잇기 놀이까지 못 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었다. 또한 여러 지방의 사투리를 다 할 줄 알고 온갖 직업의 시정 은어까지 훤히 알았다. 게다가 그 무예 또한 비길 사람이 없었으니, 천노(川弩, 쇠뇌) 한 자루에 짧은 화살 세 대만으로 교외에 사냥을 나가면 결코 헛쏘는 법이 없어 화살이 닿으면 사냥감이 떨어졌고, 저녁에 성으로 돌아올 때면 적게 잡아도 자잘한 짐승 백여 마리는 되었다. 만약 활쏘기 시합(錦標社)이 열리면 거기 걸린 상품은 모두 그의 차지가 될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매우 영리하여 처음만 들어도 끝을 알았다. 본래 성은 연(燕)씨요 항렬은 첫째이며, 관명(정식 이름)은 외자로 '청(青)'자 하나였다. 북경 성안 사람들은 부르기 좋게 모두 그를 '낭자(浪子) 연청'이라 불렀다. 일찍이 《침원춘(沁園春)》이라는 사(詞) 한 편이 오직 연청의 좋은 점을 노래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입술은 붉은 주를 바른 듯하고, 눈동자는 칠을 한 듯 검으며, 얼굴은 옥을 쌓아 올린 듯 아름다웠다. 남다른 영무함과 구름을 찌를 듯한 기개를 갖추었으며, 타고난 자질 또한 총명하였다. 그 풍채는 천연히 당당하여 양산박의 호걸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다.

시로 이르되,

이주(伊州)의 옛 노래를 부르면 그 소리가 들보를 휘감아 돌고, 과연 예능의 정점에 서서 풍류의 세계에서 으뜸가는 이름이라. 북소리와 장단이 구름을 울리고 생황 소리 드높게 울려 퍼지며 깊은 정을 나누는데, 몽둥이 휘두르고 주먹과 발길질을 날리는 솜씨는 사백여 군주를 놀라게 하리라. 사람들이 모두 영웅의 우두머리라 칭송하니, 바로 '낭자' 연청이로다.

알고 보니 연청은 노준의의 심복이었기에, 그 역시 대청으로 들어와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리고 두 줄로 늘어서서 멈춰 섰다. 이고는 왼쪽에, 연청은 오른쪽에 섰다.

노준의가 입을 열어 말했다.

"내가 어젯밤 사주를 보았더니, 백 일 안에 피를 보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 하더구나. 동남쪽으로 천 리 밖으로 떠나 피하는 수밖에 없겠어. 동남쪽에 태안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천하 사람들의 생사화복과 재앙을 관장하는 동악 태산의 천제인성제 금전이 있다지 않느냐. 우선 그곳에 가서 향을 피우며 재앙을 물리치고 죄를 씻어내고 싶구나. 둘째로는 이 재앙을 피하고, 셋째로는 장사도 좀 하면서 타지 구경도 해볼 생각이다. 이고, 너는 나를 위해 평범한 수레 열 대를 구해오

너라. 산동의 물건을 열 수레 가득 실은 뒤, 너도 짐을 챙겨 나와 함께 길을 떠나자꾸나. 연청은 집안일을 잘 돌보도록 해라. 창고 열쇠는 오늘 중으로 이고에게 넘겨주도록 하고. 나는 사흘 안에 길을 떠날 것이다."

이고가 말했다.

"주인님,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흔히들 '점괘를 판다더니 도리어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점쟁이의 허튼소리는 듣지 마시고, 그냥 집에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노준의가 말했다.

"내 운명에 이미 정해진 일이다. 내 뜻을 거스르지 마라. 만약 재앙이 닥치고 나면,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는다."

연청이 말했다.

"주인님, 부디 이 못난 아우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번 길은 산동 태안주로 가시는 길인데, 바로 양산박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래 양산박에는 송강 일당의 강도들이 모여들어 집을 털고 물건을 빼앗고 있는데, 관군들도 그들을 잡으러 근처에 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주인님께서 향을 피우러 가시는 것이라면, 상황이 좀 잠잠해진 뒤에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젯밤 그 점쟁이가 한 허튼소리는 믿지 마십시오. 분명 양산박의 악당이 음양사로 변장하여 주인님을 부추기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젯밤 제가 집에 없었던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만약 제

가 집에 있었다면, 말 몇 마디로 그 점쟁이를 단번에 무너뜨려 아주 볼만하게 만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노준의가 말했다.

"너희는 쓸데없는 소리 말거라. 누가 감히 나를 속인단 말이냐! 양산박의 그 도적 놈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보기엔 그저 풀뿌리나 다름없는 놈들이다. 나는 기어이 그놈들을 직접 잡으러 갈 것이다. 그동안 익힌 무예를 세상에 떨쳐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장부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병풍 뒤에서 부인이 걸어 나왔다. 그는 노준의의 아내로, 나이 스물다섯에 성은 가(賈) 씨이며 노준의와 혼인한 지 겨우 5년이 되었다. 아내 가 씨가 말했다.

"서방님, 한참 동안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부터 '밖에 나가 한 리를 가는 것이 집 안에 있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점쟁이의 허튼소리는 듣지 마십시오. 이 바다처럼 드넓은 가업을 다 내버려둔 채, 어찌하여 겁을 집어먹으며 호랑이 굴과 용의 못 같은 위험한 곳에 가서 장사를 하려 하십니까? 그저 집에 머무시며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줄이며 조용히 정좌하고 계시면 자연히 아무 탈이 없을 것입니다."

노준의가 말했다.

"아녀자인 당신이 무엇을 안다고 그러시오? 차라리 재앙이 있다고 믿을지언정, 없다고 믿어서는 안 되는 법이오. 예부터 재앙과 길흉은 점쟁이의 입에서 나오니, 그 점괘는 반드시 길흉을 예고하는 것이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 당신은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시오!"

연청이 다시 말했다.

"소인은 주인님의 덕을 입어 봉법(棒法, 몽둥이 기술)을 조금 익혔습니다. 소을(연청)이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주인님을 모시고 길을 떠나다 혹여 도적 떼라도 나타나면 소인이 서른에서 쉰 명 정도는 가볍게 물리치겠습니다. 이도관에게 집을 지키게 하고, 소인이 주인님을 곁에서 모시며 길을 떠나겠습니다."

노준의가 말했다.

"장사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니 이고를 데려가야겠다. 그는 장사일에 밝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니 말이다. 그래서 너는 집에 남아 집을 지키도록 하거라. 장부를 관리할 사람은 따로 있으니, 너는 그저 집을 지키는 주인 노릇만 하면 된다."

이도관이 다시 말했다.

"소인이 요사이 각기(脚氣) 증세가 있어, 오래 걷기가 매우 힘듭니다."

노준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군사를 천 일 동안 기르는 것은 단 하루를 쓰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내가 너를 데리고 길을 떠나려 하니 벌써부터 이런저런 핑계를 대

는구나. 만약 또 누구든 나를 가로막는다면, 내 주먹 맛이 어떤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도관은 겁에 질려 얼굴이 흙빛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감히 입을 떼지 못한 채 각자 흩어졌다.

이도관은 그저 울분을 삼키며 홀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태평차(太平車, 짐을 싣는 수레) 열 대를 빌리고, 짐꾼 열 명과 수레를 끌 가축 마흔에서 쉰 마리를 불러 모았다. 짐을 수레에 다 싣고 화물들을 단단히 묶어 정비하자, 노준의도 스스로 채비를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신에게 복을 비는 지전(神福)을 사르고 집안의 남녀 하인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신당부했다. 그날 밤, 노준의는 먼저 이도관에게 당직자 두 명을 데리고 짐을 모두 수습하여 성 밖으로 나가게 했다. 이도관이 떠나자, 노준의의 아내는 수레 행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다음 날 새벽 오경(五更) 무렵, 노준의는 일어나 목욕을 마친 뒤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그는 무기를 챙겨 들고 후당으로 가서 조상님들의 신주(향화) 앞에서 작별 인사를 드렸다. 길을 떠날 채비를 마친 노준의가 아내에게 당부했다.

"집을 잘 지키고 있게. 길어야 석 달, 짧으면 사오십 일이면 돌아올 것이오."

가씨가 대답했다.

"여보, 길 위에서 몸조심하세요. 소식 자주 전해주시고요."

말을 마치자 연청이 그 앞에서 절을 올렸다. 노준의가 연청에게 일렀다.

"소을아, 집에 있으면서 매사에 앞장서서 잘 챙기고, 밖으로 나가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노닥거려서는 안 된다."

연청이 대답했다.

"주인님께서 이렇게 떠나시는데, 소인이 어찌 게을리하겠습니까?"

노준의는 몽둥이를 들고 성 밖으로 나갔다. 노준의의 훌륭한 무예를 찬양하는 시가 한 수 있다.

절벽에 매달려 상서로운 눈을 비웃고,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버티며 광풍을 뒤흔드네.
비록 몸에는 이빨과 발톱이 없어도,
물에서 솟구쳐 나온 파산(巴山)의 꼬리 없는 용이라네.

이도관이 다가오자 노준의가 그에게 말했다.

"자네는 먼저 일꾼 둘을 데리고 앞서가게. 깨끗한 객점이 나오면 먼저 자리를 잡고 식사를 준비하며 기다리게나. 수레와 짐꾼들도 도착하는 대로 바로 먹을 수 있게 해 두어야 길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네."

이도관도 몽둥이를 하나 챙겨 들고 먼저 일꾼 둘과 함께 길을 떠났다. 노준의는 당직을 서는 몇 명의 수하와 함께 수레를 몰고 뒤따라 나

섰다. 길을 가다 보니 산세와 물줄기가 수려하고 길은 넓고 비탈은 평탄하여, 노준의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생각했다.

'내가 집에만 있었다면 어찌 이런 경치를 볼 수 있었겠는가!'

사십여 리를 가니 이도관이 주인인 노준의를 맞이하여 점심을 먹게 했고, 식사를 마친 이도관은 다시 먼저 길을 떠났다. 다시 사오십 리쯤 더 가자 객점에 도착했는데, 이도관은 수레와 인마의 숙식을 챙겼다. 노준의는 객실 안으로 들어와 몽둥이를 기대 세워두고 삿갓을 걸어둔 뒤, 허리춤의 칼을 풀고 신발과 버선을 갈아신었다. 숙식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불을 지펴 밥을 지어 모두가 먹은 뒤 수레와 가축을 챙겨 다시 길을 떠났다.

그렇게 밤에는 묵고 새벽에는 길을 떠나며 며칠을 가니, 어느 객점에 도착하여 숙식을 하게 되었다. 다음 날 날이 밝아 길을 나서려는데, 점소이가 노준의에게 다가와 말했다.

"나으리,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십 리도 채 안 되는 곳에서 바로 양산박 어귀 앞을 지나게 됩니다. 산 위에 계신 송강 대왕께서는 비록 오가는 손님들을 해치지는 않으시나, 나으리께서도 조용히 지나가셔야 합니다. 괜히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노준의가 그 말을 듣고 대답했다.

"과연 그렇군."

그러고는 수하들에게 명하여 옷궤를 내려오게 한 뒤,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서 보따리 하나를 꺼내게 했다. 보따리 안에서는 네 폭의 하얀 비단 깃발이 나왔다. 노준의는 점소이에게 대나무 장대 네 개를 구해다가 깃발을 하나씩 묶었다. 깃발에는 광주리만 한 크기의 큼직한 글자 몇 자를 써 넣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북경의 의로운 노준의는,
먼 길 짐을 싣고 고향을 떠나네.
오직 악한 무리를 잡으려는 마음뿐이니,
그때야 비로소 사나이의 뜻을 드러내리라.

이도관을 비롯한 일행은 그 깃발을 보고는 일제히 울상을 지으며 괴로워했다. 점소이가 물었다.

"나으리, 혹시 산 위의 송 대왕과 친척이라도 되십니까?"

노준의가 대답했다.

"나는 북경의 재산가일 뿐, 저 도적놈들과 무슨 친분이 있겠느냐! 나는 일부러 저 송강이라는 놈을 잡으러 가는 길이다!"

점소이가 말했다.

"나으리, 목소리를 좀 낮추십시오. 저까지 연루되면 어떡합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나으리께서 만 명의 군마를 거느리고 오신다 해도 그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노준의가 호통을 쳤다.

"헛소리 마라! 너희 모두 저 도적놈들과 한패로구나!"

점소이는 연신 곡소리를 냈고, 수레를 끄는 짐꾼들은 모두 넋이 나간 표정이 되었다. 이도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주인님, 제발 저희를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이 목숨이나마 부지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그것은 나천대초(羅天大醮) 같은 큰 재를 올리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노준의가 꾸짖었다.

"네놈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저런 제비나 참새 같은 놈들이 어찌 기러기와 고니 같은 자와 맞서려 한단 말이냐? 나는 평생 익힌 이 한 몸의 무예를 펼칠 임자를 만나지 못했다. 오늘 다행히 이런 기회를 만났으니, 지금 여기서 펼쳐 보이지 않으면 또 언제 하겠느냐! 내 수레의 자루 속에는 이미 잘 삶은 삼밧줄 한 자루를 준비해 두었다. 만약 저 도적놈들이 죽을 운이라 내 손에 걸리기만 하면, 박도(朴刀)로 하나씩 베어 넘길 테니, 너희는 나를 도와 그놈들을 수레에 묶어라! 짐 따위는 버려도 상관없으니, 일단 수레를 챙기고 사람부터 잡아라. 저 도적 우두머리를 붙잡아 경사(京師, 수도)로 압송하여 공을 세우고 상을 받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만약 한 명이라도 따르지 않겠다면, 차라리 여기서 너희부터 먼저 죽이겠다!"

앞에는 네 대의 수레를 세워 비단 깃발 네 개를 꽂았고, 뒤로는 여섯 대의 수레가 뒤따랐다. 이도관과 일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노준의는 박도를 꺼내 몽둥이(장대)에 끼우고 세 갈래 고정쇠로 단단히 고정한 뒤, 수레를 몰아 양산박 길로 향했다.

이도관 일행은 험한 산길을 마주하며 한 걸음 뗄 때마다 겁에 질렸지만, 노준의는 오직 길을 재촉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출발하여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쯤 되었을 때, 멀리서 아름드리 거목 수백수천 그루가 빽빽하게 들어선 커다란 숲이 보였다. 숲 가장자리에 막 다다랐을 무렵,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한 번 울려 퍼지자 이도관과 두 명의 당직자는 숨을 곳도 없이 깜짝 놀랐다. 노준의는 수레를 한쪽에 세우게 했다. 짐꾼들은 모두 수레 밑으로 숨어 들어가 곡소리를 냈다. 노준의가 호통을 쳤다.

"내가 적을 찔러 쓰러뜨리거든, 너희는 나를 도와 그자를 묶어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숲 가장자리에서 사오백 명의 졸개들이 걸어 나왔고, 뒤편에서는 징 소리가 울리며 또 다른 사오백 명의 졸개들이 퇴로를 차단했다. 그때 숲속에서 포 소리가 한 번 울리더니, 용맹한 호걸 한 명이 땅을 박차고 튀어나왔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진홍색 두건을 쓰고, 금색 꽃무늬가 비스듬히 수놓아진 옷을 입었으며,

철갑을 두른 봉황 모양 투구를 쓰고, 비단 옷에는 화려한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다.

수염에는 피가 낭자하고, 호랑이 같은 위엄은 사납고도 웅장하였다.

커다란 도끼를 한 쌍이나 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모두 겁에 질려 주저앉았다.

이때 이규가 양손에 도끼를 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노 원외, 이 벙어리 도동을 알아보시겠소?" 노준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호통을 쳤다. "내 평소 너희 같은 강도 놈들을 잡으러 가려던 참이었다! 오늘 특별히 여기까지 왔으니, 어서 송강 그놈을 산 아래로 내려보내 항복하게 하라! 만약 계속 미련하게 군다면, 순식간에 너희 모두를 죽여 한 놈도 남기지 않겠다!" 이규가 허허 크게 웃으며 말했다. "원외, 당신은 오늘 우리 군사의 묘책에 걸려들었으니, 어서 와서 자리에 앉으시오!" 노준의는 크게 노하여 손에 든 박도를 휘두르며 이규에게 맞섰고, 이규도 양손의 도끼를 휘두르며 맞받아쳤다. 두 사람이 세 합을 채 버티지 못하자, 이규는 잽싸게 원 밖으로 뛰어 나가더니 몸을 돌려 숲속을 향해 달아났다. 노준의는 박도를 치켜들고 그 뒤를 쫓았다. 이규가 숲속 나무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달아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노준의가 성큼성큼 숲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규가 무성한 소나무 숲 사이로 번개같이 사라져 버린 탓에, 노준의가 숲을 가로질러 가보니 사람은커녕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가 막 몸을 돌리려는데, 소나무 숲 옆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그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원외, 가지 마시오! 나를 알아보시겠소?" 노준의가 보니, 검은 승복을 입고 철선장을 거꾸로 든 덩치 큰 스님이었다. 노준의가 꾸짖었다. "네놈은 어디서 온 스님이냐!" 노지심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 몸은 '화화상' 노지심이라 하오. 지금 군사의 명령을 받들어 원외를 모셔 산으로 가고자 나왔소." 노준의는 마음이 급해져서 크게 욕을 퍼부었다. "이 대머리 중놈이 감히 무례하게 구느냐!" 그는 손에 쥔

보도를 휘두르며 스님을 향해 들이닥쳤다. 노지심도 철선장을 휘두르며 맞섰다. 두 사람이 세 합도 못 가 싸우는 사이, 노지심이 박도를 쳐내고는 몸을 돌려 달아났다. 노준의가 그를 뒤쫓으려는데, 마침 졸개들 속에서 행자 무송이 나타나 양손에 계도를 들고 달려들었다. 노준의는 스님을 쫓던 것을 멈추고 무송과 맞붙었다. 그러나 이 또한 세 합을 채 넘기지 못하고 무송이 발 빠르게 도망쳐 버렸다. 노준의가 허허 웃으며 말했다. "너희를 쫓지 않겠다! 너희 같은 놈들이 무엇이 대수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산비탈 아래에서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노 원외, 어찌 그리도 깨닫지 못하시오! '사람은 늪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쇠는 화로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도 못 들으셨소? 형님이 짜놓은 계책인데 어디로 도망가시려는 겁니까!" 노준의가 호통을 쳤다. "네놈은 누구냐!" 그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다. "소인은 바로 적발귀 유당이라 하오." 노준의가 욕설을 내뱉었다. "도적 놈, 거기 서라!" 그는 박도를 휘두르며 유당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이 세 합 정도 맞붙었을 때, 옆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다. "호걸 '몰차란' 목홍이 여기 있소!" 유당과 목홍이 각각 박도를 들고 노준의를 양쪽에서 공격했다. 한창 싸우던 중 세 합도 못 가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노준의가 "받아라!" 하고 외치자, 유당과 목홍은 급히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노준의가 몸을 돌려 뒤에 나타난 호걸과 맞붙으니, 바로 '포천조' 이응이었다. 세 명의 우두머리가 노준의를 '丁'자 모양으로 에워쌌으나, 노준의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싸울수록 기세가 더욱 드세졌다. 한창 격렬하게 싸우던 그때, 산꼭대기에서 징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자 세 명의 우두머리는 각자 빈틈을 보이며 일제히 자리를 피했다. 노준의는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으나 그들을 쫓지는 않았다. 다시 숲 근처로 돌아와 수레와 일행을 찾았으나, 수레 열

대와 사람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노준의가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니, 멀리 산비탈 아래에서 한 무리의 졸개들이 수레와 일행을 앞세워 몰고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도관 일행을 줄줄이 묶어 뒤에 매달아 놓고, 징과 북을 울리며 소나무 숲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노준의가 그 광경을 보자 가슴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머리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는 박도를 치켜들고 곧장 그들을 뒤쫓았다. 산비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두 명의 호걸이 호통을 치며 나타났다. "어디를 가느냐!" 한 명은 '미염공' 주동이었고, 다른 한 명은 '삽시호' 뇌횡이었다. 노준의는 그들을 보고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다. "이 도적 놈들아, 당장 수레와 일행을 내놓아라!" 주동이 긴 수염을 만지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노 원외, 어찌 이리도 눈치가 없으시오? 우리 군사의 묘책에 걸려들었으니, 설령 옆구리에 날개가 돋아난다 해도 결코 벗어날 수 없소. 어서 대채로 와서 자리에 앉으시오." 노준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박도를 휘두르며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주동과 뇌횡이 각자 병기를 들고 맞섰으나, 세 합을 채 버티지 못하고 두 사람은 몸을 돌려 달아나 버렸다. 노준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놈들 중 하나라도 붙잡아야 수레를 되찾을 수 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산비탈을 돌아 쫓아갔으나, 두 호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 산꼭대기에서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개를 들어 보니 바람에 '체천행도(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한다)'라는 네 글자가 수놓아진 황색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살펴보니, 붉은 비단에 금을 입힌 화려한 양산 아래 송강이 앉아 있었고, 그 왼쪽에는 오용이, 오른쪽에는 공손승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백여 명의 수행원들

이 일제히 소리 높여 인사했다. "원외, 그간 별고 없으셨습니까!" 노준의는 그 모습을 보자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라 산 위에 있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욕을 했다. 그러자 오용이 달래며 말했다. "원외, 부디 노여움을 가라앉히십시오. 송공명은 평소 원외의 명성을 흠모해 왔기에, 특별히 이 오용을 보내 문앞까지 찾아와 원외를 산으로 모시게 했습니다. 함께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고자 함이니, 부디 꾸짖지 마십시오." 노준의가 크게 소리쳤다. "무도한 도적 놈들이 감히 나를 속이다니!" 그때 송강의 뒤에서 '소이광' 화영이 나타나 활을 잡고 화살을 메기더니, 노준의를 노려보며 외쳤다. "노 원외, 헛된 힘을 쓰지 마시오! 먼저 화영의 신기한 화살 맛부터 보게 될 것이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살 한 대가 휙 날아가더니, 노준의가 쓰고 있던 전립의 붉은 술을 정확히 맞혔다. 깜짝 놀란 노준의는 몸을 돌려 달아났다. 산 위에서는 땅을 울리는 북소리가 들려왔고, '벽력화' 진명과 '표자두' 임충이 군마를 이끌고 깃발을 흔들며 함성을 지르며 산 동쪽에서 들이닥쳤다. 또한 '쌍편장' 호연작과 '금창수' 서녕 역시 군마를 거느리고 깃발을 휘날리며 산 서쪽에서 나타나니, 노준의는 퇴로가 막혀 갈 곳이 없었다. 어느덧 날은 저물어가고 발은 아픈 데다 배까지 고파지니, 당황한 나머지 앞뒤 가리지 않고 산속의 외진 오솔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황혼 무렵이 되자 안개는 먼 물결을 가리고 짙은 안개는 깊은 산을 에워쌌으며, 희미한 달빛과 별빛 아래 풀숲은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가려는 듯 헤매다 보니 어느덧 압취탄에 다다랐다. 눈앞에는 온통 갈대꽃이 만발하고 아득한 물안개만이 가득했다. 노준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했다. "사람들의 좋은 말을 듣지 않더니, 오늘 결국 이런 황망한 일을 당하는구나."

노준의가 번뇌에 빠져 있을 때, 갈대숲 사이로 작은 배 한 척을 젓는 어부 한 명이 나타났다. 어부는 배에 몸을 의지한 채 외쳤다. "손님, 참으로 대담하시구려! 이곳은 양산박 무리가 출몰하는 곳인데, 이 깊은 밤중에 어찌 여기까지 오셨소!" 노준의가 말했다. "내가 길을 잃어 헤매다 묵을 곳을 찾지 못하고 있소.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시오!" 어부가 대답했다. "이 근처 넓은 길로 나가면 저잣거리가 하나 나오는데, 서른 리 넘게 길을 돌아가야 하오. 게다가 길이 복잡해서 찾기가 매우 어렵소. 하지만 물길로 가면 고작 서너 리 정도면 닿을 수 있지요. 나에게 돈 열 관을 주신다면, 배로 모셔다드리겠소." 노준의가 말했다. "만약 나를 건네다 주어 저잣거리 객잔을 찾게 해준다면, 은자를 더 넉넉히 얹어주겠소." 어부는 배를 기슭으로 가져와 노준의가 배에 오르는 것을 도와준 뒤, 철로 된 삿대를 짚어 물 위로 밀어냈다. 물 위를 서너 리쯤 나아갔을 무렵, 앞쪽 갈대숲 사이에서 노 젓는 소리가 들리더니 작은 배 한 척이 날아오듯 다가왔다. 배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앞사람은 맨몸으로 긴 삿대를 들고 있었고 뒷사람은 노를 젓고 있었다. 앞사람은 삿대를 가로로 고정해 세우고는 입으로 산가를 부르며 노래했다.

태어나 글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 차라리 양산박에 머물며 살리라.
활을 갈고 닦아 맹수를 쏘아 맞힐 준비를 하고, 향기로운 미끼로 거대한 물고기를 낚을 채비를 하네.

노준의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오른쪽 갈대숲 사이에서도 두 사람이 작은 배 한 척을 저으며 나타

나는 것이 보였다. 뒷사람은 노를 젓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잉잉거리며 울려 퍼졌다. 앞사람은 노를 가로로 고정해 세우고는 역시 입으로 산가를 부르며 노래했다.

하늘과 땅이 나라는 못된 몸을 낳았으니,
타고난 성품은 본래 사람 죽이기를 즐긴다네.
만 냥의 황금도 전혀 탐내지 않고,
오직 옥기린을 잡을 마음뿐이라네.

노준의는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할 뿐이었다. 그때 가운데서 작은 배 한 척이 날아오듯 빠르게 저어 오더니, 뱃머리에 한 사람이 서서 쇠끝을 박은 나무 삿대를 거꾸로 들고는 역시 입으로 산가를 부르며 노래했다.

갈대꽃 무리 속 작은 배 한 척,
영웅들이 갑자기 이곳을 거쳐 가네.
의로운 이가 만약 이 이치를 안다면,
스스로 몸을 돌려 재난을 피하니 근심이 없으리.

노래를 마치자 세 척의 배가 일제히 읍하며 인사했다. 가운데는 완소이, 왼쪽은 완소오, 오른쪽은 완소칠이었다. 세 척의 작은 배가 일제히 노준의를 향해 돌진해 왔다. 노준의는 그 광경을 보고 속으로 더욱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던 그는 다급히 어부를 향해 연거푸 소리쳤다. “어서 배를 강가로 붙여 주시오!”

그러자 어부가 하하하 크게 웃으며 노준의에게 말했다. “위로는 푸른 하늘이요, 아래로는 푸른 물이로다. 나는 심양강(潯陽江)에서 태어나 양산박으로 왔으니, 삼경(밤 11시~1시)에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사경(새벽 1시~3시)에도 성을 바꾸지 않았노라. 내 별호는 혼강룡 이준이 바로 나다! 원외(부유한 자를 부르는 칭호)께서 정녕 항복하지 않으신다면, 목숨만 헛되이 버리게 될 것이오!”

노준의는 크게 놀라 호통을 치며 말했다. “죽는 것은 네가 아니면 나다!” 노준의는 박도를 움켜쥐고 이준의 가슴 한복판을 향해 찔러 들어갔다. 이준은 박도가 찔러 오는 것을 보고는 노 모양의 방패(棹牌)를 꽉 붙잡더니, 몸을 뒤로 휙 던져 공중제비를 돌며 풍덩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바람에 배가 수면 위에서 뱅글뱅글 돌았고, 박도마저 물속으로 빠져버렸다.

그때 뱃고물 쪽에서 한 사람이 물밑에서 쑥 솟아오르며 소리를 질렀으니, 바로 ‘낭리백조(浪裏白條)’ 장순이었다. 그는 뱃고물을 양손으로 끼어 붙잡고 발로는 물결을 디디며 배를 한쪽으로 확 기울여 버렸다. 배 밑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되자, 영웅 노준의는 그대로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이야말로 봉황을 치고 용을 가두는 계략을 펼쳐, 천지를 뒤흔들 만한 인물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다.

결국 노준의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2회 — 연청이 냉전을 쏘아 주인을 구하고, 석수가 법장을 습격하며 누각에서 뛰어내리다

放冷箭燕青救主 劫法場石秀跳樓

이야기는 이러하다. 노준의가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 해도 물에는 영 소질이 없었다. 그래서 '낭리백조' 장순이 배를 뒤집는 바람에 그대로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장순은 물속에서 노준의의 허리를 껴안고 반대편 기슭으로 헤엄쳐 나가 박도를 낚아챈 뒤, 노준의를 데리고 육지로 빠르게 달려왔다.

미리 준비해 둔 횃불을 든 오륙십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노준의가 상륙하자마자 둥그렇게 에워쌌다. 그들은 노준의의 허리띠를 풀고 젖은 옷을 벗기며 곧장 밧줄로 묶으려 했다. 그때 '신행태보' 대종이 명령을 내리며 크게 외쳤다. "노 원외의 귀한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그러고는 즉시 사람을 시켜 비단으로 수놓은 옷 한 꾸러미

를 가져다 노준의에게 입혔다. 이어 여덟 명의 하인이 가마 하나를 메고 오더니, 노 원외를 부축해 가마에 태우고 길을 떠났다.

멀리서 보니 이미 이삼십 개의 붉은 비단 등불이 한 무리의 행렬을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다. 북소리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송강과 오용, 공손승이 앞장서고 그 뒤로 여러 두령이 뒤따르며 일제히 말에서 내렸다. 노준의는 당황하여 급히 가마에서 내려왔다. 송강이 먼저 무릎을 꿇자, 뒤따르던 두령들도 줄지어 모두 무릎을 꿇었다. 노준의 역시 무릎을 꿇고 답례하며 말했다. "이미 사로잡혔으니, 그저 빨리 죽여주기만을 바랄 뿐이오!" 송강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우선 원외께서는 가마에 오르시지요."

사람들은 일제히 말을 타고 북소리와 악기 소리에 맞춰 행진하며 세 관문을 지나 충의당 앞에 이르러서야 말에서 내렸다. 그들은 노준의를 대청으로 모시고 등불을 밝게 켰다. 송강이 앞으로 나서서 정중히 말했다. "원외의 명성은 익히 들어 귀에 못이 박힐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평생의 한을 푸는 듯 기쁩니다. 다만 저희 형제들이 무례하게 행동한 점은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오용도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어제 형님의 명을 받들어 제가 직접 문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점괘를 봐준다는 핑계로 원외를 산으로 유인한 것은, 함께 대의를 모아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송강은 노준의에게 첫 번째 상석에 앉으라고 청했다. 노준의가 예의를 갖추어 답했다. "재주도 없고 식견도 없는 제가 호랑이의 위엄을 범했으니, 만 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어찌하여 저를 희롱하십니까?" 송강이 웃으며 달래듯 말했다. "어찌 희롱하겠습니까. 실은 원외의 위엄과

덕망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간절히 우러러왔습니다. 부디 이 비천한 곳을 버리지 마시고, 산채의 주인이 되어 저희와 함께 엄한 명령을 받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준의가 대답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명은 따르기 어렵소." 오용이 덧붙였다. "그 일은 나중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시지요."

그들은 즉시 술과 음식을 차려 대접했다. 노준의는 달리 방도가 없어 술을 몇 잔 마실 수밖에 없었고, 하인들의 안내를 받아 후당으로 가서 쉬었다.

다음 날, 송강은 양을 잡고 말을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는 노준의를 불러 잔치에 참석하도록 여러 번 권한 끝에, 노준의가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상석에 앉혔다. 술자리가 몇 차례 돌자 송강이 일어나 잔을 들고 정중히 말했다. "어젯밤에는 무척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산채가 좁아 말을 쉬게 하기에도 부족한 곳이지만, 원외께서는 '충의'라는 두 글자를 봐서라도 송강이 자리를 양보할 터이니 부디 거절하지 마십시오."

노준의가 대답했다. "두령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죄도 지은 적이 없고, 재산도 조금 있을 뿐입니다. 살아서는 대송의 백성이요, 죽어서는 대송의 귀신이 될 터인데,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명은 따르기 어렵습니다."

오용과 여러 두령들이 한 명씩 나서서 설득해 보았으나, 노준의는 더욱더 산적의 무리에 들지 않겠다고 버텼다. 이에 오용이 말했다. "원외께서 정녕 뜻을 굽히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어찌 강제로 하겠습니

까? 원외의 몸은 붙잡아 둘 수 있어도 마음까지 붙잡을 수는 없는 법이지요. 다만 저희 형제들이 원외를 모시기 위해 애썼는데, 정 함께 합류하기 어려우시다면 우선 며칠만 이 작은 산채에 머무르신 뒤에 댁으로 돌아가시지요."

노준의가 말했다. "제가 여기 머무는 것은 괜찮으나, 집에 있는 노비와 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찌할지 걱정입니다." 오용이 말했다. "그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이고를 보내 수레와 짐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될 터인데, 원외께서 며칠 늦게 돌아가신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오용이 이고에게 물었다. "이 총관, 그대의 수레와 화물은 모두 그대로 있는가?" 이고가 대답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송강은 큰 은괴 두 개를 이고에게 주고, 작은 은괴 두 개를 하인들에게 주어 수고비를 대게 했으며, 수레를 끄는 열 명의 일꾼들에게도 은 열 냥을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노준의가 이고에게 당부했다. "내 처지를 자네가 잘 알지 않는가. 집에 돌아가면 내 아내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게. 내가 서너 날 안에 곧 돌아갈 것이라고 말이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던 이고는 그저 "걱정 마십시오"라고 대답만 하고는 곧장 충의당 아래로 내려갔다. 오용이 즉시 일어나 말했다. "원외께서는 마음 편히 잠시 앉아 계십시오. 제가 이 총관을 배웅하여 산 아래로 내려보내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오용은 이고를 배웅한다는 핑계로 먼저 금사탄으로 가서 기다렸다. 잠시 후, 이고와 두 명의 하인이 수레와 짐, 그리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왔다. 오용은 오백 명의 졸개들을 거느리고 길 양옆을 에워싸게 한 뒤, 버드나무 그늘 아래 앉아 이고를 가까이 불러 말했다.

"네 주인은 이미 우리와 의논하여 결정을 내렸으니, 이제 이곳의 두 번째 교의(상석)에 앉기로 했다. 이것은 그가 산에 오르기 전, 미리 집 벽에 써 놓은 네 구절의 반시(反詩)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마. 벽에 적힌 스물여덟 글자 중 각 구절마다 글자 하나씩이 숨겨져 있지. '노화탕리일편주(蘆花蕩裏一扁舟)'라 하면 '노(盧)' 자를 품고 있고, '준걸나능차지유(俊傑那能此地遊)'라 하면 '준(俊)' 자를 품었으며, '의사수제삼척검(義士手提三尺劍)'이라 하면 '의(義)' 자를, '반시수참역신두(反時須斬逆臣頭)'라 하면 '반(反)' 자를 품고 있다. 이 네 구절의 시 속에 '노준의 반역(盧俊義反)'이라는 네 글자가 숨겨져 있었단 말이다! 오늘 산에 올라온 것을 너희가 어찌 알았겠느냐? 원래는 너희 모두를 죽여서 우리 양산박의 도량이 좁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으나, 오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돌려보내 줄 터이니, 네 주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지도 마라!"

이고 일행은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절할 뿐이었다. 오용은 그들을 배로 나루를 건너게 해 주었다. 일행은 길을 떠나 북경을 향해 달려갔다. 그야말로 금 낚싯바늘을 벗어난 큰 물고기가 꼬리치고 머리 흔들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격이었다.

이야기는 두 갈래로 나뉜다. 이고 일행이 집에 도착한 이야기는 제쳐두고, 우선 오용이 충의당으로 돌아와 다시 술자리를 마련한 이야기

부터 하자. 오용은 교묘한 말로 노준의를 달래며 유혹했고, 잔치는 밤이 깊어 이경(밤 9시~11시 사이)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다음 날, 산채에서는 다시 축하 잔치가 베풀어졌다. 노준의가 말했다. "여러 두령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붙잡아 두려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오나, 저는 하루가 일 년 같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만 작별을 고하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제가 재주가 부족하여 다행히 원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소박한 술상을 준비할 터이니, 마주 앉아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시다. 부디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루가 더 지나고, 다음 날은 송강이, 그다음 날은 오용이, 또 그다음 날은 공손승이 차례로 잔치를 베풀었다. 사설을 길게 늘어놓을 것 없이, 서른 명 남짓한 상청(上廳) 두령들이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며 잔치를 주관했다.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다. 노준의는 이제 정말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송강이 말했다. "원외를 붙잡아 두려는 것이 아니오나, 워낙 급히 돌아가셔야 하는 형편이라 그러하오. 내일 충의당에서 소박한 술상을 차려 송별회를 열겠소."

다음 날, 송강은 다시 직접 배웅하려 했으나, 다른 두령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우리 형님께서 원외를 십분(극진히) 공경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마땅히 십이분(그보다 더 극진히) 공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

찌 형님의 잔치만 드시고 우리 것은 마다하십니까. '벽돌은 어찌 두텁고 기와는 어찌 얇으냐'는 말이 딱 이것이로군요!"

그 사이에서 이규가 크게 소리쳤다. "나는 목숨을 걸고 북경까지 달려가 당신을 모셔 왔는데, 어찌 우리 형제들이 차린 잔치조차 먹지 않겠다는 거요? 만약 계속 거절한다면 나는 당신과 눈썹 끝을 묶어 결투를 벌여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오!"

오학구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손님을 이렇게 모시는 법은 처음 봅니다. 참으로 거칠기 짝이 없군요. 원외, 이들의 박한 정성이나마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며칠 더 머물다 가십시오."

어느덧 나흘 닷새가 더 지났으나 노준의는 완강히 떠나겠다고 고집했다. 그러자 신기군사 주무가 두령들을 거느리고 충의당에 나타나 말했다.

"우리가 비록 아우뻘 되는 처지라 해도, 형님을 위해 힘을 보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유독 우리의 술에만 독약이라도 들었단 말입니까? 만약 노 원외께서 기분이 상해 우리의 잔치를 거절하신다면, 저야 상관없습니다만, 혹여 어린 아우들이 사고라도 칠까 걱정될 뿐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자 오용이 일어나 말했다. "모두들 너무 걱정 마시오. 내가 원외께 잘 청해볼 테니 며칠 더 머물다 가시게 하면 될 것 아니오. 예부터 말하기를,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데에는 끝내 나쁜 뜻이 없다'고 하지 않았소."

노준의는 사람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며칠을 더 머물게 되었다. 그렇게 전후로 하여 대략 서른에서 쉰 날 정도가 지났다. 북경을 떠난 것이 5월이었으니, 양산박에 온 지도 어느덧 두 달여의 시간이 흘러 있었다. 다만 그 광경을 보자니,

가을바람은 서늘하게 불고 옥빛 이슬은 차갑게 맺히니, 어느덧 중추절이 가까워졌다.

노준의는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송강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송강은 노준의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을 보고 말했다.

"그 일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금사탄에서 배웅해 드리지요."

노준의는 크게 기뻐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고향 떠나온 지 어느덧 세월만 흘러가고,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은 늘 집을 향하네.
내 몸에 날개 없어 한스러워라,
하늘 바람 빌려 물 건너 집으로 날아가고 싶네.

다음 날, 예전에 입던 옷과 칼, 몽둥이를 노준의에게 돌려주었고, 양산박의 여러 두령도 모두 산 아래까지 배웅하러 나왔다. 송강은 금과 은이 담긴 쟁반을 내밀며 건네주려 했다. 그러자 노준의가 사양하며 말했다.

"제가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비단, 돈과 재물은 집에 아주 넉넉히 있습니다. 그저 북경까지 갈 여비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시는 물건을 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송강과 여러 두령은 금사탄까지 노준의를 직접 배웅한 뒤 작별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으니,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멈춘다.

송강이 진영으로 돌아간 일은 차치하고, 노준의가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여 밤낮없이 달려 열흘 만에 북경에 도착했다. 해가 이미 저물어 성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에, 그는 근처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아침, 노준의는 주막을 나서 성안을 향해 급히 달려갔다. 아직 한 리 남짓한 길을 더 가야 하는데, 머리띠는 너덜너덜하고 옷은 해진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노준의를 보자마자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다. 노준의가 눈을 들어 보니, 바로 '낭자' 연청이었다. 노준의가 물었다.

"소을(연청의 아명), 네 몰골이 어찌 이 모양이냐?"

연청이 말했다.

"여기는 이야기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노준의는 흙담 뒤로 몸을 숨기며 연청을 돌아앉게 한 뒤 자세한 사정을 물었다. 연청이 말했다.

"주인님께서 떠나신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이고가 돌아오더니, 마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양산박의 송강에게 귀순하여 제2좌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고는

관가에 고발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미 마님과 한통속이 되어, 제가 주인님을 거스르고 반항했다며 저를 나무라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제 옷가지들을 모조리 빼앗고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게다가 친척과 지인들에게는 만약 저를 집에 머물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집안 재산의 절반을 털어서라도 그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저를 거두어주지 않았습니다. 성안에서 도저히 지낼 수가 없어 성 밖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다가, 겨우 암자 하나에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주인님을 찾아 양산박으로 가려 했으나, 감히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만약 주인님께서 정말로 양산박에서 오시는 것이라면 제 말을 듣고 다시 양산박으로 돌아가 방도를 논의하십시오. 만약 성안으로 들어가신다면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노준의가 호통을 쳤다.

"내 아내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놈아,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느냐!"

연청이 다시 말했다.

"주인님은 뒤통수에 눈이 없으신데 어찌 속사정을 아시겠습니까? 주인님께서는 평소 무예를 닦는 데만 힘을 쏟으셨지, 여색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예전부터 이고와 정을 통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문을 열어 그를 맞아들여 부부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인님께서 가시면 반드시 독수를 당하실 것입니다!"

노준의가 크게 분노하여 연청을 꾸짖었다.

"우리 가문이 북경에서 5대째 대를 이어 살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 이고 따위가 머리가 몇 개나 된다고 감히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 혹시 네놈이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내게 뒤집어씌우는 것이 아니냐! 내가 집에 가서 사실을 확인해 본 뒤, 만약 네 말이 틀렸다면 절대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연청은 통곡하며 바닥에 엎드려 노준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다. 노준의는 발로 연청을 걷어차 넘어뜨리고는 성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성안으로 달려 들어간 노준의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집안의 크고 작은 관리들이 모두 깜짝 놀라 그를 맞이했다. 이고가 황급히 달려 나와 노준의를 대청으로 모시고는 머리를 조아리며 절했다. 노준의가 물었다.

“연청은 어디 있느냐?”

이고가 대답했다.

“주인님, 사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괜히 노여워하실까 두려우니, 일단 좀 쉬신 뒤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때 가씨가 병풍 뒤에서 울며 나타났다. 노준의가 말했다.

“부인, 울지 말고 연 소을이 어찌하여 이곳에 왔는지부터 말해보시오.”

가씨가 말했다.

"서방님, 일단 묻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노준의는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겨 반드시 연청이 온 경위를 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고가 다시 말했다.

"주인님, 우선 옷부터 갈아입으시고 아침 식사부터 하시지요. 그때 말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노준의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노준의가 막 젓가락을 들었을 때, 앞문과 뒷문에서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삼백 명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노준의는 너무 놀라 멍해져 있었고, 곧바로 포졸들에게 묶인 채 한 걸음마다 몽둥이질을 당하며 관아로 끌려갔다. 마침 양중서가 공청(公廳, 관아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좌우로 늑대와 호랑이처럼 험악하게 생긴 포졸 일흔여 명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그들은 노준의를 양중서 앞으로 끌고 왔다. 가씨와 이고도 곁에 무릎을 꿇었다.

청 안에서 양중서가 크게 호통을 쳤다.

"네 이놈! 너는 북경의 본래 백성이자 양민인데, 어찌하여 양산박에 투항하여 도적 떼에 가담하고 제2좌의 자리에 앉았단 말이냐? 이제는 안팎으로 결탁하여 북경을 치려 하다니! 이제 붙잡혔으니, 무슨 변명을 하려느냐!"

노준의가 말했다.

"소인이 잠시 어리석었습니다. 양산박의 오용이 점괘를 보는 선생으로 위장하여 집에 찾아왔는데,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여 양산박으로 데려가 두 달 넘게 연금했습니다. 오늘 다행히 몸을 빼내어 집으로 돌아온 것이니, 결코 나쁜 뜻은 없었습니다. 부디 굽어살펴 주십시오."

양중서가 꾸짖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양산박에 있을 때 사정을 몰랐다면 어찌 그토록 오래 머물 수 있었겠느냐! 지금 네 아내와 이고가 고발을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거짓이란 말이냐!"

이고가 말했다.

"주인님, 이미 여기까지 오셨으니 어서 자백하십시오. 집안 벽에 머리글자를 숨긴 반시(反詩)를 써 붙여 놓았으니,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씨가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연루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옛말에 '한 사람이 반역하면 구족이 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준의는 청 아래 무릎을 꿇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고가 말했다.

"주인님, 억울해하실 것 없습니다. 거짓은 없애기 쉬워도 진실은 없애기 어려운 법입니다. 어서 자백하여 매를 맞는 일을 면하십시오."

가씨가 덧붙였다.

"서방님, 거짓은 관가에 들여보내기 어렵지만 진실은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사고를 치면 제 목숨도 끝장입니다. 정이 있는 살과 피는 없어도, 정 없는 매는 무서운 법입니다. 차라리 자백을 하시면 매를 맞는 정도에서 끝날 것입니다."

이고가 위아래로 돈을 써서 손을 써두자, 장공목이 청 안에서 보고했다.

"이 완고한 놈은 매를 때리지 않으면 도무지 자백하려 들지 않습니다!"

양중서가 말했다.

"옳은 말이다! 때려라!"

좌우의 포졸들이 노준의를 바닥에 엎어놓고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매질을 시작했다. 살점이 터져 나가고 피가 솟구치니 노준의는 서너 번이나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노준의는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내 팔자에 횡사할 운명인가 보구나. 차라리 자백하겠다!"

장공목이 즉시 자백서를 받아 적게 한 뒤, 백 근 무게의 사형수용 칼(枷)을 씌우고 못을 박아 대옥(大牢, 감옥)에 가두었다. 관아 앞뒤로 구경하던 사람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날 노준의는 감옥으로 끌려가 서른 대의 살위봉(殺威棒, 위엄을 세우기 위한 몽둥

이)을 맞은 뒤, 뜰 한복판으로 끌려가 (옥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옥졸은 캉(炕, 온돌마루) 위에 앉아 있었다.

양원(兩院, 두 관청)의 감옥을 관장하며 형리(劊子) 일까지 겸한 그 절급(節級)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네가 나를 알아보겠느냐?"

노준의는 그를 보았으나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그가 누구인지는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두 관청의 옥사 관리 채복은
당당한 풍채가 구름을 찌를 듯하네.
허리에는 푸른 띠를 단단히 묶고
머리에는 각진 관을 높이 썼구나.
형 집행을 물을 때면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하고
칼을 휘둘러 형틀을 씌울 때면 귀신도 혼이 나가네.
온 고을이 그의 무쇠 같은 팔을 칭송하니
사람 죽이는 곳마다 그 기세가 드높도다.

양원(兩院, 두 관청)의 옥을 관장하며 형 집행 형리까지 겸한 이 사람은 성은 채(蔡)요 이름은 복(福)이라, 채복이라 부르는데 북경 토박이다. 그는 수단이 아주 막강하여 사람들이 그를 '철비박(鐵臂膊)'이라 불렀다. 그 곁에는 채복의 친동생인 채경이 서 있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감옥 속에서 채경이라 불리니, 눈썹은 짙고 눈은 커서 성품이 강인하구나.
진홍빛 저고리 위에는 물새를 그려 넣고, 갈색 옷 안에는 목향꽃을 수놓았네.
굽이치는 옷깃은 검은빛으로 짙게 물들었고, 휘날리는 띠는 노란빛으로 옅게 칠했네.
작은 머리띠에는 금고리가 찬란하게 빛나고, 귀 옆에는 꽃 한 송이가 꽂혀 있구나.

하급 감옥 관리인 채경은 태어나길 꽃을 좋아하는 성미라, 하북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그를 '일지화' 채경이라 불렀다. 그는 수화곤(水火棍, 절반은 검고 절반은 붉게 칠한 관아의 몽둥이)을 짚은 채 형 채복의 곁에 서 있었다. 채복이 말했다.

"이 사형수를 저쪽 감옥에 잠시 가두어 두어라. 나는 집에 잠시 다녀오마."

채경은 채복의 말에 따라 노준의를 데리고 갔다.

채복은 몸을 일으켜 감옥 문을 나섰다. 그런데 저 멀리 담장 아래에서 한 사람이 밥통을 손에 들고 근심 어린 얼굴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채복이 자세히 보니 바로 '낭자' 연청이었다. 채복이 물었다.

"연소을 아우, 여긴 어쩐 일인가?"

연청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절급(節級) 형님, 가련하게도 저희 주인 노 원외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셨는데, 밥을 가져다드릴 돈조차 없습니다! 소인이 성 밖에서 빌어 겨우 이 밥 반 통을 얻어 주인님의 허기를 달래드리려 합니다. 절급 형님,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을 마친 연청은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절했다. 채복이 말했다.

"무슨 사정인지 알겠으니, 어서 가서 밥을 가져다드려라."

연청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 인사를 올린 뒤, 직접 감옥 안으로 들어가 밥을 전했다.

채복이 주교를 건너오는데, 한 찻집의 다박사가 그를 불러 아뢰었다.

"절급 형님, 저희 찻집 2층에 손님 한 분이 계신데, 형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 기다리고 계십니다."

채복이 2층으로 올라가 보니, 바로 총관 이고였다. 서로 예를 갖춘 뒤 채복이 물었다.

"총관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고가 말했다.

"약은 사람끼리는 서로 속이지 않고, 영리한 사람끼리는 서로 기만하지 않는 법이지요. 제 사정은 이미 절급 형님 마음속에 다 있지 않습

니까. 오늘 밤, 그저 그자의 명줄을 깨끗이 끊어 주십시오. 효도할 일은 없더라도, 여기 황금 쉰 냥을 가져왔으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관청의 관리들에게 줄 뒷돈은 제가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채복이 웃으며 말했다.

"정청의 경계석에 '백성은 다스리기 쉬우나 하늘을 속이기는 어렵다'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못 보았나? 자네가 마음을 속이고 양심을 저버리는 짓을 내가 모를 줄 아나! 자네는 노준의의 재산을 가로챘고, 그의 아내와 눈이 맞아 가정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는 황금 쉰 냥으로 그의 목숨까지 없애려 하는군. 나중에 형관(提刑官, 형사 담당 관리)이 내려와 조사하기라도 하면, 내가 이런 송사에 휘말려 어찌 감당하겠나?"

이고가 다시 말했다.

"혹시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쉰 냥을 더 보태겠습니다."

채복이 말했다.

"이고, 자네는 정말 고양이 꼬리를 잘라 고양이 밥에 섞어 넣는 격이로구나! 북경에서 이름난 노 원외가 고작 황금 백 냥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단 말인가? 만약 내가 그를 죽이길 원한다면, 거짓말이 아니라 황금 오백 냥은 가져와야 할 것이야."

그러자 이고가 즉시 대답했다.

"황금이 여기 있으니 전부 절급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저 오늘 밤에만 일이 잘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채복은 황금을 받아 몸에 숨기고는 일어나서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시신을 메러 오너라."

이고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한 뒤 기쁜 마음으로 물러갔다.

채복이 집에 돌아와 막 문을 들어서려는데, 누군가 갈대 발을 걷어 올리며 곧장 따라 들어왔다. 그 사람이 외쳤다.

"채 절급 형님, 뵙겠습니다."

채복이 보니, 그 사람은 용모가 매우 수려하고 차림새 또한 아주 정갈했다. 검은 빛이 도는 푸른색 둥근 깃 옷을 입고 허리에는 양지옥 장식 띠를 둘렀으며, 머리에는 꿩깃 관을 쓰고 발에는 진주가 박힌 신을 신고 있었다. 그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와 채복을 향해 절을 올렸다. 채복은 황급히 답례하며 물었다.

"귀한 분이 성함이 어찌 되시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소?"

그 사람이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시지요."

채복은 그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하여 손님 자리에 앉혔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절급 형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소인은 창주 횡해군 출신인 시진(柴進)이라 합니다. 대주(大周) 황제의 직계 후손이며, 별호는 '소선풍'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고 재물을 아끼지 않아 천하의 호걸들과 교유하다가, 불행히 죄를 지어 양산박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송강 형님의 명을 받들어 노 원외의 소식을 알아보고자 이곳에 왔는데, 뜻밖에도 부패한 관리들과 간사한 여인, 불륜을 저지르는 사내의 모함에 빠져 노 원외가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이 모두 절급 형님의 손에 달려 있더군요. 생사를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온 것은, 만약 노 원외의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며 그 큰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일이 잘못된다면,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해자까지 들이닥쳐 어진 자든 어리석은 자든, 늙은이든 어린아이든 가리지 않고 성을 부수고 모두 참수할 것입니다! 형님께서 의롭고 충성을 다하는 호걸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만, 드릴 것이 마땅치 않아 우선 황금 천 냥을 약소한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만약 이 시진을 잡으려 하신다면 지금 당장 포승줄을 가져오십시오. 결코 눈썹 하나 찡그리지 않겠습니다."

채복은 이 말을 듣고 겁에 질려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한참 동안 대답을 못 했다. 시진이 일어나서 말했다.

"호걸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 주저하지 마시고, 어서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채복이 말했다.

“장사께서는 일단 돌아가 주십시오. 소인이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시진이 절하며 말했다.

“승낙해 주셨으니, 반드시 이 큰 은혜를 갚겠습니다.”

시진은 밖으로 나가 종자를 불러 황금을 꺼내 채복에게 건네주고는 인사를 올린 뒤 떠났다. 밖에서 대기하던 종자는 바로 ‘신행태보’ 대종이었으니, 그 역시 (걷지 못한다는 별명과는 정반대로) 보통내기가 아니었다!

채복은 이 소식을 듣고는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감옥으로 돌아가 형제인 채경에게 이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채경이 말했다.

"형님은 평소 결단력이 누구보다 빠르시니, 이런 사소한 일쯤이야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흔히들 '사람을 죽이려면 피를 보아야 하고, 사람을 구하려면 끝까지 구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황금 천 냥이 여기 있으니, 저와 형님이 힘을 합쳐 잘 써봅시다. 양중서와 장공목은 둘 다 이익을 밝히는 자들이니, 뇌물을 받으면 반드시 노준의의 목숨을 보전해 줄 것입니다. 유배를 보내는 일은 상황을 봐서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안 된다면 양산박의 호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채복이 말했다.

"네 말이 내 생각과 딱 맞구나. 너는 우선 노 원외를 잘 보살피고, 아침저녁으로 좋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소식을 전해주거라."

채복과 채경 두 사람은 이렇게 의논하여 결정한 뒤, 남몰래 황금을 써서 관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뿌려 일을 매듭지었다.

다음 날, 이고는 아무런 소식이 없자 채복의 집으로 찾아와 재촉했다.

채경이 돌아가며 말했다.

"우리가 마침 그를 처단하려던 참이었는데, 양중서 어른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이미 윗선에서 목숨을 살려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형님께서 직접 윗사람들에게 돈을 써서 잘 말해두시면 될 일이지, 저희가 무엇을 어렵게 하겠습니까?"

이 즉시 이고는 사람을 보내 윗사람들에게 뇌물을 전달하도록 청했다.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는 관리(과전인)가 가서 부탁하자, 양중서가 말했다.

"이건 감옥을 관리하는 절급(채복)의 업무인데, 설마 나더러 직접 손을 대라는 말이냐? 이틀 정도 지나면 알아서 죽겠지."

양쪽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미루는 사이, 장공목은 이미 황금을 챙기고는 서류상의 기한을 차일피일 늦추기 시작했다.

채복은 즉시 다시 관리들에게 뇌물을 뿌리며 조속히 처결해 달라고 압박했다. 장공목이 관련 서류를 가져와 보고하자, 양중서가 물었다.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소?"

장공목이 대답했다.

"소인이 살펴본 바로는, 노준의에게 고발인이 있기는 하나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비록 양산박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하나, 이는 협박에 못 이겨 끌려든 것일 뿐 진짜 범인이라 묻기는 어렵습니다. 척장(脊杖) 마흔 대를 치고, 삼천 리 밖으로 자자(刺字)하여 유배 보내는 것이 어떨지 상공의 뜻을 여쭙고 싶습니다."

양중서가 말했다.

"공목의 견해가 매우 명확하니, 내 생각과도 딱 맞소."

양중서는 즉시 채복을 불러 감옥에서 노준의를 끌어내게 했다. 그리고 대청에서 노준의의 긴 차꼬를 풀어준 뒤, 자백서와 서류를 읽고 척장 마흔 대를 확정했다. 이어 스무 근짜리 철엽 반두가(머리에 씌우는 철제 칼)로 바꾸어 씌운 뒤 대청 앞에 못 박아 고정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동초와 설패에게 노준의를 압송하여 사문도로 유배 보내라고 명했다.

본래 동초와 설패는 개봉부에서 공인(포졸)으로 일할 때, 임충을 창주로 압송하던 길에 임충을 끝내 해치지 못하고 돌아왔다가, 고태위가 트집을 잡는 바람에 자자형을 받고 북경으로 유배를 왔던 자들이었다.

양중서는 이 두 사람이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보고 유수사(留守司)에 머물며 일하게 했었는데, 오늘 또 노준의의 압송을 맡기게 된 것이다.

그 즉시 동초와 설패는 공문을 받아 들고 노준의를 데리고 관아를 떠났다. 그들은 노준의를 사신이 머무는 객사(사신방)에 가두어 둔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가 짐을 꾸리고 곧바로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시로 이르되,

여색에 빠지지 않는 대장부의 몸으로
무엇 때문에 집을 떠나 아내를 그리워하는가?
방 안에서 사자후를 내뿜는 사나운 아내가
옥기린 노준의를 단숨에 파멸로 몰아넣을 줄 누가 알았으랴!

한편, 이고는 이 소식을 듣고 그저 괴로워 탄식할 뿐이었다. 그는 곧 사람을 보내 압송을 맡은 두 공인(포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다. 동초와 설패가 주막에 도착하자 이고가 그들을 맞이하여 별실로 안내한 뒤, 술과 음식을 정성껏 차려 대접했다. 술을 세 잔쯤 마셨을 때 이고가 입을 열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노준의는 나의 원수입니다. 이제 그를 사문도로 유배 보내는데 길이 멀고 험한 데다, 노준의는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어 두 분이 여비만 헛되이 쓰게 생겼습니다. 돌아오려면 서너 달은 족히 걸릴 텐데, 내가 따로 보낼 것은 없지만 여기 큰 은괴 두 덩이를 드릴 테니 우선 손에 쥐는 정표로 삼으십시오. 길어야 이틀 노정, 짧으면 몇 리만 가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의

얼굴에 새긴 금인(金印, 자자한 표식)을 떼어 와 증거로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한 뒤에 두 분께 각각 마늘쪽 모양의 황금 쉰 냥씩(蒜條金)을 더 얹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공문 한 장만 처리하면 되고, 유수사 사무실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동초와 설패는 서로를 쳐다보며 한참 동안 망설였다. 큰 은괴 두 덩이를 눈앞에 두고 어찌 탐욕이 생기지 않겠는가. 동초가 말했다.

"다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자 설패가 거들었다.

"형님, 이 이고 나리도 괜찮은 사내대장부이니, 우리도 이 일을 잘 매듭지어 그분과 가까이 지내 둡시다. 나중에 급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분께 보살핌을 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고가 말했다.

"나도 은혜를 저버리거나 의리를 잊는 사람은 아니니, 두 분께 천천히 보답하겠습니다."

동초와 설패는 은괴를 챙긴 뒤 작별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가 짐을 꾸린 후, 그날 밤 바로 길을 떠났다. 노준의가 말했다.

"소인이 오늘 매를 맞아 매 맞은 자리가 너무 아프니, 부디 내일 출발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설패가 욕설을 퍼부었다.

"입 닥치지 못할까! 재수 없게 너 같은 빈털터리 귀신을 만나서 내 팔자가 이 모양이구나! 사문도까지 갔다 돌아오려면 육천 리가 넘는 길인데 여비가 얼마나 들겠느냐! 너는 가진 돈도 한 푼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비용을 대란 말이냐!"

노준의가 애원했다.

"소인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을 헤아려 주셔서, 부디 너그럽게 살펴주십시오."

동초가 맞받아쳤다.

"너희 같은 부자 놈들은 평소에 털끝 하나 내어주지 않더니, 오늘 하늘이 눈을 뜨고 너에게 곧장 응징을 내리는구나! 원망하지 마라, 우리가 네 길을 잘 인도해 줄 테니."

노준의는 분통이 터졌으나 꾹 참으며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동쪽 성문을 나서자, 동초와 설패는 옷가지와 보따리, 우산까지 모조리 노준의의 칼(가형)에 매달아 버렸다. 평생 부자로 살던 노준의가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어버리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날씨마저 늦가을이라 노란 낙엽은 흩날리며 떨어지고, 기러기 떼는 줄지어 날아가는구나. 노준의가 근심과 우울에 잠겨 있을 때, 어디선가 쓸쓸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시가 이르되,

어느 집 옥피리 소리 가을 정취를 연주하는지,
까닭 없이 어지러이 울려 나그네 마음을 괴롭히네.
애끊는 소리는 스스로 듣기 힘든 것이지,
피리 소리가 애끊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로다.

두 공인은 길을 가는 내내 좋은 척 나쁜 척 어르고 윽박지르며 노준의를 압송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십사오 리쯤 가다 보니 앞에 마을이 나타났다. 그들은 객점을 찾아 들어가 쉬기로 했다. 점소이(小二哥)가 그들을 뒷방으로 안내하여 짐을 내려놓자, 설패가 말했다.

"우리는 고생고생하는 공인인데, 어찌 도리어 죄수 놈 수발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너는 밥 먹고 싶으면 어서 가서 불이나 때라!"

노준의는 칼을 쓴 채 부엌으로 가서 점소이에게 땔감을 얻어다 한 묶음으로 엮은 뒤,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폈다. 점소이가 그를 대신해 쌀을 일어 밥을 짓고 그릇을 닦아 주었다. 노준의는 평생 부자로 살았기에 이런 일에는 영 서툴렀다. 땔감은 또 어찌나 축축한지 불이 붙기는커녕 금방 다 꺼져버렸고, 간신히 힘을 다해 입으로 불어보려다 그만 재가 눈에 들어가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했다. 그러자 동초가 옆에서 중얼중얼 또 욕설을 퍼부었다.

밥이 다 되자 두 사람은 제 몫을 다 퍼 가버렸고, 노준의는 감히 밥을 달라고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이 한바탕 먹고 난 뒤 남은 식은 밥과 식은 국을 노준의에게 주어 먹게 했다. 설패는 그 와중에도 쉬지 않고 한바탕 욕을 해댔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설패는 다시 노준의에게 발 씻을 물을 데워 오라고 시켰다. 물이 다 끓고 나서야 노준의는 방에 들어가 바

닥에 앉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제 발을 씻은 뒤, 펄펄 끓는 물 한 대야를 가져다 노준의를 속여 발을 씻게 했다. 노준의가 겨우 짚신을 벗자, 설패가 그의 두 다리를 잡아채 끓는 물속에 쳐넣으니, 노준의는 너무 아파 견디기 힘들었다. 설패가 말했다.

"우리가 네 수발을 들어 주는데, 도리어 인상을 쓰느냐!"

두 공인은 제멋대로 구들 위로 올라가 잠을 잤다. 그러고는 쇠사슬로 노준의를 방문 뒤편에 묶어버렸다. 노준의가 사경(四更, 새벽 2시 무렵)이 되도록 끙끙 앓는 사이, 두 공인이 일어나 점소이에게 밥을 짓게 했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짐을 꾸려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노준의가 제 발을 살펴보니, 발은 이미 물집이 잡혀 퉁퉁 불어 있어 땅을 딛기조차 힘든 상태였다.

그날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데다 길까지 미끄러워, 노준의는 한 걸음 뗄 때마다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설패는 수화곤(水火棍, 붉고 검게 칠한 관아의 몽둥이)을 집어 들고는 노준의의 허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동초는 겉으로는 말리는 척하면서도, 길을 가는 내내 노준의를 윽박지르며 괴롭혔다. 마을 객점을 떠나 십여 리쯤 가니 커다란 숲이 나타났다. 노준의가 말했다.

"소인이 정말 더는 버티기가 힘듭니다. 부디 가엾게 여기시어 잠시만 쉬게 해 주십시오!"

두 공인은 노준의를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마침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어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었다. 설패가 말했다.

"우리는 일찍 일어난 탓에 몹시 피곤하니 이 숲에서 잠시 눈 좀 붙이려 한다. 다만 네놈이 도망칠까 걱정이구나."

노준의가 말했다.

"소인에게 날개가 달렸어도 날아 도망칠 수 없습니다."

설패가 대꾸했다.

"네 수작에 넘어가지 않게, 우선 묶어 두어야겠다."

설패는 허리춤에서 삼밧줄을 풀어 노준의의 배를 두른 뒤, 소나무에 한 번 졸라매고는 발까지 뒤로 잡아당겨 나무에 꽁꽁 묶어버렸다. 설패가 동초에게 말했다.

"형님, 형님은 숲 밖에 서 계십시오. 혹시 누가 지나가다 마주치면 헛기침으로 신호를 주십시오."

동초가 말했다.

"아우야, 어서 서둘러 손을 쓰게."

설패가 말했다.

"걱정 말고 가서 밖을 잘 살피십시오."

말을 마친 설패는 수화곤을 치켜들고 노준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둘을 원망하지 마라. 네 집 관리인 이고가 우리에게 길에서 너를 해치우라 시켰으니, 사문도에 가더라도 어차피 죽을 목숨이다. 차라리 일찍 보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승에 가서도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내년 오늘이 네 첫 제삿날이 될 것이다."

노준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고개를 떨군 채 죽음을 받아들이려 했다. 설패는 두 손으로 수화곤을 움켜쥐고 노준의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쳤다. 밖에 있던 동초는 갑자기 '퍽' 하고 무언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라 숲속으로 뛰어 들어와 보았다. 그런데 노준의는 여전히 나무에 묶여 있고, 설패는 도리어 나무 아래에 벌렁 나자빠져 있었으며, 수화곤은 한쪽에 팽개쳐져 있었다. 동초가 말했다.

"이것 참 괴이한 일이로다! 혹시 저놈이 힘을 너무 세게 쓰다가 도리어 자빠진 것인가?"

동초가 얼굴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설패는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명치에는 서너 치(三四寸) 길이의 작은 화살대가 드러나 박혀 있었다. 동초가 막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 동북쪽 나무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이 '맞아라!' 하고 외치며 손을 놓자, 그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와 동초의 목에 명중했다. 동초는 두 발로 허공을 차다 그대로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그 사람은 나무 위에서 훌쩍 땅으로 뛰어내리더니, 날카로운 해완첨도(解腕尖刀, 예리한 단도)를 뽑아 노준의를 묶은 밧줄을 끊고 머리에

씌운 반두가(盤頭枷)를 쪼개 부수어 버렸다. 그러고는 나무 곁에서 노준의를 껴안고 목놓아 울었다. 노준의가 눈을 떠 보니 그가 바로 '낭자(浪子)' 연청임을 알아보고 외쳤다.

"소을(小乙)아, 혹시 네 혼백이 나를 만나러 온 것이냐?"

연청이 말했다.

"소인이 유수사(留守司) 앞에서부터 저 두 놈을 줄곧 바짝 뒤쫓았습니다. 저놈들이 주인님을 사신방(使臣房)에 가두는 것을 보았고, 또 이고가 저들을 불러내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소인은 저놈들이 주인님을 해치려는 것이라 짐작하여, 밤새도록 성 밖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주인님께서 객점에 계실 때 소인은 바깥에서 지키고 있다가, 오경(五更) 무렵 일어나 먼저 이곳에 와 기다렸습니다. 저놈들이 분명 이 숲에서 손을 쓸 것이라 생각했지요. 제가 쇠뇌의 화살 두 대로 저 두 놈을 해치웠는데, 주인님께서도 보셨습니까?"

이 '낭자' 연청이 가진 쇠뇌와 세 발의 빠른 화살은 그야말로 백발백중이었다. 쇠뇌가 좋은 점이 무엇인지 시로 이르되,

검은 나무로 단단히 깎아 만든 활몸은
산뿌리처럼 붉은 뿔을 맞대어 박았네.
손가락은 맑은 수정처럼 가볍게 얹히고
시위는 금색 실을 반쯤 당겨 놓았구나.
등에는 비단 주머니를 두르고
활은 채워지지 않은 가을 달처럼 굽었으며,

새 깃털은 정교하게 매달려
유성처럼 급히 쏘아져 나가는구나.

노준의가 말했다.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것은 고마우나, 저 두 공인을 쏘아 죽였으니 죄가 더욱 무거워졌구나. 이제 어디로 가겠느냐?"

연청이 말했다.

"애초에 송강이 주인님을 곤경에 빠뜨린 것이니, 오늘 양산박으로 가지 못한다면 달리 갈 곳이 없습니다."

노준의가 말했다.

"다만 내가 매를 맞은 상처가 도져서 발바닥 살이 다 터져 한 걸음도 뗄 수가 없구나."

연청이 말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주인님을 등에 업고 가겠습니다."

연청은 공인들의 몸을 뒤져 은전 몇 량과 돈을 챙기고는, 쇠뇌를 챙기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수화곤까지 집어 들었다. 그러고는 노준의를 등에 업고 곧장 동쪽을 향해 걸어갔다. 십여 리를 채 가지 못해 등에 업은 노준의가 너무 무거워 더는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작은 객주 하나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방을 잡아 몸을 뉘었다. 그러고는 술과 고기를 좀 사서 우선 허기를 달래며 두 사람은 잠시 그곳에서 쉬기로 했다.

한편, 지나가던 사람이 숲속에서 공인 두 명이 화살에 맞아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근처의 사장(社長, 마을 관리)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을 이정(里正, 마을 우두머리)에게 보고하자, 이 소식은 곧 대명부의 수령에게까지 전해졌다. 대명부에서는 즉시 관리들을 보내 검사하게 했는데, 죽은 이들은 유수사의 공인 동초와 설패였다. 보고를 받은 양중서는 관아에 명령을 내려 대명부 관할 내에서 범인을 잡아오도록 하였고,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범인을 잡으라고 엄히 일렀다.

관아의 관리들이 모두 현장에 달려와 살펴보더니 말했다.

"이 쇠뇌와 화살을 보니 분명 '낭자' 연청의 짓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백여 명의 공인들을 나누어 각지로 보내라. 각 장소에 방을 붙여 그 두 사람의 생김새를 알리고, 인근 마을과 객주, 시장의 집들에 샅샅이 수색하여 반드시 잡아내라고 공표하라."

한편, 노준의는 객주 방 안에서 매 맞은 상처를 돌보며 쉬고 있었다. 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기에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객주의 점원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문과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두 사람의 생김새를 전해 들었다. 점원이 그 묘사를 듣고는 급히 사장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우리 가게에 두 사람이 있는데, 모습이 아주 기이합니다. 혹시 그놈들이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사장은 이 보고를 듣고 곧바로 관아의 관리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연청은 끼니를 때울 것이 없자 쇠뇌를 챙겨 근처에서 새나 작은 짐승이라도 잡아먹으려 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사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들었다. 연청이 숲속에 숨어 상황을 살피니, 백여 명의 공인들이 창과 칼로 에워싸고 노준의를 수레에 묶은 채 밀어 가고 있었다. 연청은 당장 뛰쳐나가 구하고 싶었으나 무기도 없었기에 그저 속만 태울 뿐이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양산박에 가서 송강에게 이 사실을 알려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주인님의 목숨을 망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길을 가던 중 밤이 깊어지자 배는 고파오는데, 수중에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나무가 듬성듬성 자라 있는 어느 언덕이 나타났다. 연청은 그 숲속에 자리를 잡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청했다. 마음속은 근심과 답답함으로 가득했는데, 문득 나뭇가지 위에서 까치들이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까치를 쏘아 떨어뜨린 다음, 마을에 가서 물을 좀 얻어와서 삶아 먹으면 허기라도 달랠 수 있겠구나.'

숲 밖으로 걸어 나와 고개를 들어보니, 까치들이 연청을 향해 재잘거리고 있었다. 연청은 조심스럽게 쇠뇌를 꺼내 들고, 남몰래 하늘에 점을 치며 간절히 기도했다.

"연청에게 남은 화살은 이제 이 한 발뿐입니다. 만약 이 화살이 주인님의 목숨을 구하는 데 쓰인다면, 화살이 날아갈 때 영험한 새가 땅으

로 떨어지게 하시고, 만약 주인님의 운명이 이미 다했다면 화살이 닿을 때 영험한 새가 날아가 버리게 하소서."

그는 화살을 먹이고는 나지막이 외쳤다.

"여의자(如意子)야, 내 일을 그르치지 마라!"

쇠뇌가 울리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까치의 꼬리 부분을 명중시켰고, 화살은 까치를 매단 채 언덕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연청이 급히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갔으나 까치는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찾는 사이, 앞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 차림새는 이러하였다.

앞서 오는 사람은 돼지 코 모양의 두건을 쓰고, 머리 뒤쪽에는 금과 은으로 감싼 두 개의 고리를 달고 있었다. 상의로는 향기로운 검은 비단 저고리를 입고 허리에는 금을 입힌 띠를 둘렀으며, 무릎까지 오는 부드러운 버선에 삼베 신발을 신고 눈썹 높이까지 오는 긴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뒤따라 오는 사람은 흙먼지를 막는 흰 범양(范陽) 삿갓을 쓰고, 찻빛 갈색의 실로 짠 소매 옷을 입고 있었다. 허리에는 다홍색 전대(纏袋)를 둘렀고, 발에는 흙길을 다니는 가죽신을 신고 있었다. 등에는 옷보따리를 멨으며, 손에는 짧은 몽둥이를 들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다.

이렇게 찾아온 두 사람은 연청과 딱 마주쳤다. 연청은 몸을 돌려 그 두 사람을 살피며 생각했다. '마침 여비도 없는데, 저 둘을 주먹으로 때려눕히고 보따리를 빼앗으면 양산박으로 가기에 딱 좋겠구나.' 연청은 쇠뇌를 챙겨 들고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앞만 보고 걷

고 있었다. 연청이 따라붙어 펠트 삿갓을 쓴 사람의 등을 주먹으로 쳐서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러고는 앞서가는 사람을 마저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렀으나, 오히려 그 사내에게 몽둥이로 왼쪽 다리를 정통으로 맞아 땅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뒤따라오던 사내가 일어나 연청을 짓누르더니, 허리칼을 뽑아 얼굴을 향해 내리치려 했다. 연청이 크게 소리쳤다. "호걸님, 저를 죽이셔도 상관없으나, 주인님께 소식을 전할 사람은 누가 된단 말입니까!" 그 사내는 칼을 내리치려던 손을 멈추고 연청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이놈아, 무슨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이냐?" 연청이 "무슨 소식을 전하려는지 물으시는 겁니까?"라고 대답하자, 앞서가던 호걸이 연청의 손을 끌어당기다 손목에 새겨진 문신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물었다. "네놈이 노 원외 댁의 그 '낭자' 연청이 아니냐?" 연청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차라리 다 말해버리고, 저들에게 잡혀가 주인님의 영혼과 함께하리라!' 연청이 말했다. "제가 바로 노 원외 댁의 '낭자' 연청입니다. 지금 양산박으로 가서 소식을 전해, 송강 형님께서 제 주인님을 구하게 하려 합니다." 두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허허 웃으며 말했다. "진작 죽이지 않기를 잘했구나. 알고 보니 바로 연소을(燕小乙) 아우였군! 우리 두 사람을 알아보겠느냐?" 검은 옷을 입은 이는 다름 아닌 양산박의 두령 '병관삭' 양웅이었고, 뒤에 있던 이는 '박명삼랑' 석수였다. 양웅이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지금 형님의 명을 받들어 노 원외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북경으로 가는 길이다. 군사(오용)와 대원장(戴院長, 대종)도 뒤따라 산을 내려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연청은 그들이 양웅과 석수임을 확인하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양웅이 말했다. "사정이 그렇다면, 나와 연청은 산채로 올라가 형님께 보고를 드릴 테니, 너는 직접 북경으로 가서 소식을 알아보고 다시 알려다오." 석수가 "그게 좋겠

소"라고 답했다. 양웅은 보따리를 연청에게 지웠고, 연청은 그것을 짊어진 채 양웅을 따라 밤을 도와 양산박으로 향했다. 양산박에서 송강을 만난 연청은 그간의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송강은 크게 놀라 즉시 두령들을 모아놓고 좋은 방책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한편, 석수는 자신의 옷가지만 챙겨 북경 성 밖까지 도착했다. 날이 이미 저물어 성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에 성 밖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성안으로 들어서니,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석수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저잣거리 한 복판에 이르니 집집마다 문을 닫아걸고 있었다. 석수가 상점 주인들에게 물어보니, 한 노인이 대답했다. "손님, 당신은 모르시나 본데, 우리 북경에 노 원외라는 굴지의 부자가 있었소. 그런데 양산박 도적들에게 납치되어 끌려갔다가 겨우 도망쳐 돌아왔더니, 도리어 억울한 관재구설에 휘말려 사문도(沙門島)로 유배를 가게 되었지 뭐요. 게다가 어찌 된 일인지 오는 길에 공인(公人) 두 명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다지 뭡니까. 어젯밤에 붙잡혀 왔는데, 오늘 오시 삼각(午時三刻, 정오 무렵)에 이곳 저잣거리 형장(市曹)으로 끌려 나와 참형에 처해질 예정이라오. 손님도 구경 한번 해보시구려."

석수는 그 말을 듣고 시조(市曹, 저잣거리 형장)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살펴보았다. 사거리에는 주루가 하나 있었는데, 석수는 그 주루로 들어가 길가에 보이는 다락방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앉았다. 주인이 다가와 물었다. "손님, 일행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술 한 잔 하시겠습니까?" 석수가 부릅뜬 눈으로 쏘아붙이며 말했다. "큰 사발에 술을 내오고 고기도 큼직하게 썰어 오기나 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주

인이 깜짝 놀랐다. 그는 술 두 각(角)과 소고기 한 접시를 큼직하게 썰어 가져왔다. 석수는 큰 사발에 술을 들이켜고 큼직한 고깃점을 호쾌하게 먹어 치웠다. 한참을 앉아 있는데 아래쪽 거리에서 북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석수가 창밖을 내다보니 집집마다 문을 닫고 가게들도 모두 문을 걸어 잠근 상태였다. 주인이 올라와 말했다. "손님, 취하셨습니까? 아래쪽에 관아의 일이 터졌으니, 어서 술값을 치르고 다른 곳으로 피하십시오!" 석수가 대꾸했다.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다고! 어서 내려가기나 해, 괜히 나한테 매 맞지 말고!" 주인은 감히 대꾸도 못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에는 징과 북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다. 과연 다음과 같았다.

북소리 두 번 깨질 듯 울리고, 몽둥이 한 번 쳐 깨진 징소리 울리네.
검은 깃발 구름처럼 휘날리고, 버들잎 창날은 눈처럼 뒤섞이네.
죄인패가 앞에서 인도하고, 백혼곤이 뒤에서 따르네.
옥을 지키는 절급(節級)은 험상궂고, 칼을 든 공인(公人)들은 사납고 용맹하네.
높은 말 위에 앉은 감참관은 살아있는 염라대왕보다 더하고,
칼과 검의 숲 속에서 형을 집행하는 장법리(掌法吏)는 목숨 쫓는 귀신 같네.
가련하다, 사거리 한복판에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사람을 막 죽이려 하는구나!

석수가 주루 창밖을 내다보니, 사거리의 법장(法場) 주변은 사람들로 빽빽이 둘러싸여 있었다. 십여 쌍의 칼과 몽둥이를 든 망나니들이

앞뒤로 호위하며 노준의를 묶어 주루 앞으로 끌고 와 무릎을 꿇렸다. 철비박 채복은 처형용 칼을 들고 있었고, '일지화' 채경은 칼(枷)의 끝을 붙잡은 채 말했다. "노 원외, 잘 보시오. 우리 형제 두 사람이 당신을 구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일이 너무 어그러져 버린 것이오. 저 앞 오성당(五聖堂)에 당신이 앉을 자리를 이미 마련해 두었으니, 그 한 가닥 혼이라도 그곳에 가서 (제삿밥을) 받으시오." 말을 마치자 인파 속에서 누군가 외쳤다. "오시 삼각(午時三刻), 곧 정오 무렵이 되었다!" 한쪽에서 칼을 풀자마자 채경은 어느새 노준의의 머리를 붙잡았고, 채복은 재빨리 처형용 칼을 뽑아 손에 쥐었다. 그 사건을 맡은 공목(孔目)이 큰 소리로 죄명패를 다 읽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한 소리로 화답했다. 그 함성 소리가 울리는 바로 그 순간, 위층에 있던 석수는 허리춤의 칼을 뽑아 들고 그 소리에 맞춰 크게 외쳤다. "양산박 호걸들이 모두 여기 있다!" 채복과 채경은 노준의를 내팽개치고 밧줄을 풀어 던지고는 먼저 달아났다. 석수는 주루 위에서 단숨에 뛰어내려 강철 칼을 치켜들고, 마치 오이를 자르고 채소를 썰 듯이 사람들을 마구 베어, 미처 달아나지 못한 자 십여 명을 베어 넘겼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 노준의를 붙잡아 끌고 남쪽을 향해 달아났다.

알고 보니 석수는 북경의 길을 잘 몰랐고, 설상가상으로 노준의는 너무 놀라 넋이 나간 채 갈수록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다. 이 소식을 들은 양중서는 크게 놀라, 막하(帳前)의 두목들을 불러내 군마를 거느리게 하고는, 길을 나누어 보내 성의 네 문을 모두 닫게 했다. 또 앞뒤로 관아의 포졸들을 풀어 그들을 에워싸 잡으려 했다. 아무리 용맹한 호걸이라 한들, 이렇듯 높고 험한 성벽과 보루를 어찌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육지를 가르고 나아가려 해도 어금니와 발톱이 없고, 푸

른 하늘로 날아오르려 해도 깃털이 모자란 격이었다. 결국 노준의와 석수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3회 — 송강의 군사가 북경성을 공격하고, 관승이 양산박을 취하기를 의논하다

宋江兵打北京城 關勝議取梁山泊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석수와 노준의 두 사람은 성안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사방에서 군마가 몰려들자, 병사들이 갈고리를 던져 걸어 넘기고 올가미 밧줄을 던져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가련하게도 사납고 용맹한 영웅들도 그제야 적은 수로는 많은 무리를 당해 낼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모두 붙잡혀 양중서 앞으로 끌려갔다. 양중서는 '법장(처형장)을 습격한 도적들을 끌고 오라'고 명했다.

석수는 관청 마당에 끌려 나온 채로 눈을 부릅뜨고 부라리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해치는 도둑놈아! 나는 우리 형님의 명을 받들었다. 머지않아 군사를 이끌고 와서 네놈의 성을 쳐부수고 평지로 만들어버린 뒤, 네놈을 세 토막으로 썰어버릴 것

이다! 우선 이 어르신께서 네놈들에게 이 사실을 똑똑히 알려주러 오신 것이다!"

석수가 관청 앞에서 '도적놈, 도적놈' 하며 수도 없이 욕을 퍼붓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멍하니 넋을 잃었다. 양중서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큰 칼(가)을 가져오라 명하여 두 사람에게 씌운 뒤 사형수 감옥에 가두게 했다. 그러면서 채복에게 명하여 두 사람을 각별히 관리하고 절대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일렀다. 채복은 양산박의 호걸들과 안면을 터두려는 생각에 두 사람을 같은 감옥에 가두고, 매일 좋은 술과 고기를 대접했다. 덕분에 두 사람은 고생은커녕 오히려 몸이 좋아질 정도였다.

한편, 양중서는 본주에 새로 부임한 왕태수를 불러 관청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성안의 인명 피해 상황을 점검하게 했다. 죽은 자는 칠팔십 명에 달했고, 머리나 얼굴을 다치거나 피부가 까지고 다리가 부러진 자들은 셀 수도 없었다. 관청에 보고된 명단에 따라 양중서는 관청의 돈을 내어 다친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화장(火葬)하여 처리하게 했다.

다음 날, 성 안팎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양산박에서 보낸 머리 없는 방(沒頭帖子)이 수십 장 발견되었습니다. 감히 숨길 수 없어 그대로 올립니다." 양중서는 그 글을 보고 혼이 하늘 밖으로 날아가고 넋이 구천으로 흩어질 만큼 혼비백산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양산박의 의사 송강은 대명부에 알리며, 천하에 공포하노라.

지금 대송 제국은 부패한 관리들이 권력을 잡고, 탐욕스러운 아전들이 권세를 휘두르며, 선량한 백성들을 때려죽여 온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북경의 노준의는 본래 호걸의 선비이거늘, 이제 내가 그를 산으로 올라오도록 청하여 함께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함부로 간사한 뇌물에 휘둘려 선량한 이를 죽이려 한단 말인가! 이에 석수를 먼저 보내 이 뜻을 알리게 하였으나, 뜻밖에도 두 사람 모두 붙잡히고 말았다.

만약 두 사람의 목숨을 보존하고 음란한 여인과 간부(姦夫)를 내어준다면, 우리는 더 이상 너희를 침범하지 않겠다. 하지만 만약 고의로 우리의 날개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팔다리(股肱)와 같은 이를 해친다면, 즉시 영채를 뽑아 군사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원한을 갚을 것이며, 대군이 닿는 곳마다 옥과 돌이 함께 타버리듯 가리지 않고 멸할 것이다.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을 쳐 없애고 어리석고 완고한 자들을 멸절하리니, 천지가 모두 도울 것이요 귀신이 함께 보살필 것이다. 담소하며 성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결코 가벼이 용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로운 남편과 절개 있는 여인, 효성 지극한 자식과 순한 손자, 의를 좋아하는 양민, 그리고 청렴하고 신중한 관리들은 부디 놀라지 말고 각자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라. 이 뜻을 모두에게 알려 알게 하노라.

당시 양중서는 머리 없는 방의 내용을 읽고는 즉시 왕태수를 불러와 상의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소?"

왕태수는 성품이 온순하고 유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양중서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양산박 무리는 조정에서 몇 차례나 잡으려 해도 잡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 한 군(郡)의 힘으로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만약 저 망명한 무리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조정의 구원병이 제때 도착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을 것입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는 이러합니다. 첫째, 우선 두 사람의 목숨을 보존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정에 표문(表文)을 올려 보고하고, 둘째, 채 태사님께 서신을 올려 이 사실을 알리며, 셋째, 이곳의 군마를 성 밖으로 내보내 진을 치게 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북경의 안녕을 지키고 군사와 백성이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을 성급히 죽였다가는, 정말로 도적떼가 성에 들이닥쳤을 때 첫째로 구원할 병사도 없을뿐더러, 둘째로 조정의 문책을 받을 수도 있고, 셋째로 백성들이 놀라 성안이 혼란에 빠질 것이니 매우 곤란해질 것입니다."

양중서가 듣고 말했다. "지부(知府)의 말이 지극히 타당하오."

그러고는 먼저 감옥을 관리하는 절급(節級) 채복을 불러 명했다. "이 두 도적놈은 예사로운 자들이 아니다. 너희가 너무 엄하게 다스리다가는 자칫 목숨을 잃게 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했다가는 도망칠까 두렵구나. 너희 형제 두 사람은 아침저녁으로,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느슨하게 하되, 각별히 단단히 지켜 처분이 내릴 때까지 잘 관리하고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마라."

채복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은근히 기뻐했다. '이렇게 분부해 주시니 바로 내 마음에 딱 맞는구나!' 채복은 명령을 받들고 감옥으로 가서 두 사람을 위로하며 보살폈으니,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멈춘다.

한편, 양중서는 즉시 병마도감인 '대도' 문달과 '천왕' 이성을 불러 청사 앞으로 오게 하여 상의했다. 양중서는 양산박에서 보낸 머리 없는 방의 내용과 왕태수가 제안한 대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두 도감을 다 듣고 난 이성이 말했다.

"그 초적 떼가 어찌 감히 근거지를 비우고 멋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상공께서는 굳이 마음을 써서 번거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이성이 비록 재주가 없으나 녹봉을 많이 받고 있으니, 공을 세워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군졸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진을 치겠습니다. 만약 초적들이 오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상의하시지요. 하지만 만약 그 강도 무리가 운이 다하여 제멋대로 근거지를 떠나 무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면, 장담컨대 단 한 명도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양중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금색 꽃이 수놓인 비단 옷감을 꺼내 두 장수에게 상으로 내렸다. 두 사람은 감사를 표하고 양중서와 작별한 뒤, 각자 영채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다음 날, 이성이 막사로 올라가 크고 작은 관군들을 불러 모아 상의하고 있을 때였다. 옆으로 위풍당당하고 늠름한 풍채를 지닌 한 사람이 지나가더니, '급선봉' 삭초가 나타나 인사를 건넸다. 이성이 명령을 내렸다.

"송강의 초적 떼가 조만간 성을 에워싸고 우리 북경을 공격할 것이니, 너는 네 부대를 이끌고 성에서 35리 떨어진 곳으로 나가 진을 쳐라. 내가 곧 뒤따라 군사를 거느리고 가겠다."

삭초는 장령을 받들고 다음 날 자기 부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갔다. 그는 35리 지점인 비호유에 이르러 산기슭에 진을 쳤다. 다음 날, 이성 역시 정·편장수들을 거느리고 성에서 25리 떨어진 괴수파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주변에는 창과 칼을 빽빽하게 배치하고, 사방에 사슴뿔 울타리를 깊숙이 숨겼으며, 세 면에는 함정을 파놓았다. 모든 군사는 주먹을 불끈 쥐며 전의를 다졌고, 여러 장수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양산박 군마가 도착하기만 하면 바로 공을 세울 준비를 마쳤다.

이야기는 양쪽으로 갈라진다. 원래 이 머리 없는 방은, 오용이 연청과 양웅에게서 소식을 전해 듣고 또 대종을 시켜 노준의와 석수가 모두 붙잡혔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에 쓴 것이었다. 노준의와 석수 두 사람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일부러 익명으로 거짓 방문(榜文)을 지어 인적 없는 곳에 뿌리고 다리와 길목에 붙여둔 것이었다. 대종이 양산박으로 돌아와 이 모든 사정을 두령들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충의당에서 북을 쳐 사람들을 모았고, 크고 작은 두령들이 차례대로 자리에 앉았다. 송강이 입을 열어 오용에게 말했다.

"당초에 군사께서 좋은 뜻으로 노준의를 산으로 청해 의를 모으려 하셨는데, 오늘 뜻밖에도 그를 고생하게 만들고 석수 형제까지 함정에 빠지게 했으니, 어떤 계책을 써야 이들을 구할 수 있겠소?"

오용이 대답했다. "형님, 안심하십시오. 소생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계책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북경의 재물과 군량을 빼앗아 우리 산채의 쓰임에 보태는 것입니다. 내일이 길일이니, 형님께서는 두령들의 절반을 나누어 산채를 지키게 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저와 함께 성을 치러 가시지요."

송강이 말했다. "군사의 말이 참으로 옳소."

송강은 즉시 '철면공목' 배선을 불러 크고 작은 군사들을 배정하고, 내일 출발할 채비를 갖추게 했다. 그러자 '흑선풍' 이규가 나섰다. "제 이 커다란 도끼 두 자루가 오랫동안 개시(開市)도 못 해 봤습니다. 주(州)를 치고 현(縣)을 턴다는 말을 들으니, 이놈들도 곁에서 좋아 어쩔 줄을 모릅니다. 형님, 제게 부하 오백 명만 붙여 주십시오. 북경을 들이쳐 양중서를 고기떡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고와 그 계집도 갈가리 찢어 죽여 버리겠습니다. 노준의와 석수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가 비록 용맹하다 하나, 북경은 다른 주나 부(府)와는 비할 바가 아니오. 게다가 양중서는 채 태사의 사위인 데다, 수하에 이성과 문달같이 만 명을 당해낼 만한 용맹한 장수들을 거느리고 있으니 절대 적을 얕봐서는 안 되오."

이규가 크게 소리쳤다. "형님께서는 어찌 그리 남의 기세만 키워주고 우리 위엄을 깎아내리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만약 또 지게 된다면, 결코 산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정 그리 가고 싶다면 선봉을 맡기겠소. 용맹한 사내 오백 명을 붙여줄 테니, 첫 진을 맡아 내일 산을 내려가시오."

그날 밤, 송강과 오용은 상의하여 인원을 모두 배정했다. 배선은 명령서를 써서 각 진영으로 보냈고, 모두 배정된 순서에 따라 한순간도 어긋남 없이 시행했다.

때는 가을 끝자락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라, 군사들은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기에 수월했고 군마들 또한 살이 올라 튼튼했다. 오랫동안 전투를 치르지 않았던 군졸들은 저마다 싸우고 싶은 의욕이 넘쳤으며, 억울한 사정을 품은 이들은 모두 복수할 생각뿐이었다. 이들은 명령을 받게 되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창과 칼을 챙기고 안장과 말들을 단단히 매어 둔 뒤, 주먹을 불끈 쥐며 한시라도 빨리 산을 내려가기를 고대했다.

제1진: 선봉 초소는 '흑선풍' 이규가 맡으며, 부하 오백 명을 거느린다.

제2진: '양두사' 해진, '쌍미갈' 해보, '모두성' 공명, '독화성' 공량이 맡으며, 부하 천 명을 거느린다.

제3진: 여장수 '일장청' 호삼낭, 부장 '모야차' 손이낭, '모대충' 고대수가 맡으며, 부하 천 명을 거느린다.

제4진: '박천조' 이응, 부장 '구문룡' 사진, '소위치' 손신이 맡으며, 부하 천 명을 거느린다.

중군 주장이자 총두령(都頭領)인 송강이 맡고, 군사 오용이 보좌한다.

중군 장막(본진)을 에워싸 호위하는 두령 네 명은 '소온후' 여방, '새인귀' 곽성, '병위치' 손립, '진삼산' 황신이다.

전군 두령은 '벽력화' 진명이며, 부장은 '백승장' 한도와 '천목장' 팽기이다.

후군 두령은 '표자두' 임충이며, 부장은 '철적선' 마린과 '화안산예' 등비이다.

좌군 두령은 '쌍편' 호연작이며, 부장은 '마운금치' 구팽과 '금모호' 연순이다.

우군 두령은 '소이광' 화영이며, 부장은 '도간호' 진달과 '백화사' 양춘이다. 또한 포수 '굉천뢰' 능진을 거느리고 식량과 군수품을 보급하며 지원한다.

군사 정보를 정찰할 정찰대 두령은 '신행태보' 대종이다.

군사 배치가 모두 결정되자, 날이 밝자마자 각 두령은 차례대로 행군을 시작하며 당일 진격에 나섰다. 부군사 공손승과 유당, 주동, 목홍 네 두령만이 남아서 마보군(말과 보병)을 거느리고 산채를 지키기로 했다. 세 곳의 수진(水寨, 수군 진영)은 이준 등이 알아서 지키고 있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삭초는 비호유 진영에 앉아 있었다. 그때 유성같이 빠른 전령(流星報馬)이 달려와 보고했다. “송강의 군마가 크고 작은 병력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진영에서 약 20~30리 떨어진 곳까지 와 곧 도착할 듯합니다!” 삭초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성에게 급히 전갈을 보내 괴수파 진영에 알리게 했다. 이성은 보고를 받자마자 한편으로는 전령을 시켜 성안에 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전마를 준비하여 곧장 전방 진영으로 나갔다. 삭초가 그를 맞이하여 상세한 상황을 보고했다.

다음 날 오경(五更)에 밥을 지어 먹고, 날이 밝자마자 진영을 걷어 모두 출발했다. 그들은 유가에 이르러 진형을 벌이고 1만 5천의 군마를 늘어세웠다. 이성과 삭초도 갑옷과 무장을 완전히 갖추고 군기(門旗) 아래에서 전마를 멈춰 세웠다. 동쪽 평야를 바라보니 멀리서 먼지가 일며 500여 명의 무리가 나는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이성이 채찍 끝으로 그쪽을 가리키자, 군졸들은 발로 단단한 쇠뇌를 밟아 장전하고 손으로 강궁을 힘껏 당겼다. 양산박의 호걸들은 유가에서 일렬로 늘어서 진을 쳤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모두가 붉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저마다 선홍빛 전포를 맞춰 입었네.
백로처럼 다리에는 각반을 단단히 매고,
호랑이처럼 허리에는 배두렁이를 굳게 동여맸구나.
삼지창은 곧게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네모진 사릉간(四棱鐧, 네 모서리 쇠채)은 비껴 차가운 안개를 끌고 가네.

버들잎 창과 불꽃 끝 창이 그물처럼 빽빽하고,
청동 칼과 언월도가 눈처럼 어지럽게 휘날리네.
땅 위에는 붉은 깃발이 불꽃처럼 일렁이고,
허공에는 붉은 깃발이 노을처럼 눈부시구나.

동쪽 진영에는 한 명의 호걸이 홀로 말을 타고 앞으로 나서고 있었으니, 바로 '흑선풍' 이규였다. 그는 양손에 도끼를 쥐고 괴상한 눈을 부릅뜬 채 어금니를 꽉 깨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양산박의 호걸, '흑선풍'을 알아보겠느냐!" 말 위에 있던 이성이 그 모습을 보고 삭초에게 크게 웃으며 말했다. "매일같이 양산박 호걸이라 떠들더니, 고작 이런 지저분한 도적 놈들이었단 말인가! 전혀 대수롭지 않구나. 선봉, 자네도 보았는가? 어찌하여 저 도적을 먼저 잡지 않는가?" 삭초가 웃으며 대답했다. "닭을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습니까. 장수들이 알아서 공을 세울 것이니 주장이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삭초의 말 뒤에 있던 한 장수가 앞으로 나섰다. 성은 왕이고 이름은 정이며, 장창을 휘두르며 부하 마군 백 명을 이끌고 쏜살같이 돌격해 왔다. 이규는 담력이 남달라 용맹했으나, 비록 갑옷으로 몸을 보호하고 있었다 해도 몰려드는 마군의 충격을 당하자 그만 사방으로 정신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삭초가 군사를 이끌고 유가 쪽으로 거침없이 몰아붙이는데, 산비탈 뒤편에서 징과 북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지더니 두 무리의 군마가 튀어나왔다. 왼쪽에는 해진과 공량이, 오른쪽에는 공명과 해보가 각각 오백 명의 졸병을 거느리고 달려들었다. 삭초는 그들에게 지원군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놀라 추격을 멈추고 말을 돌려 퇴각했다. 이성이 물었다. "어찌하여 적을 잡지 않고 돌아오는가?" 삭초가 대답했다. "산을 넘어 그들을 잡으려 했더

니, 저놈들에게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복병들이 일제히 일어나니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이 말했다. "이런 도적 놈들이 무엇이 두렵단 말이냐!" 그는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끌고 유가로 총공격을 퍼부었다. 그런데 앞쪽에서 깃발을 흔들며 함성을 지르고 징과 북을 울리며 또 다른 한 무리의 군마가 나타났다. 그 선두에 말을 타고 나타난 이는 한 명의 여장수였는데, 용모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이를 증명하는 「염노교(念奴嬌)」 사(詞)가 있어 이르되 다음과 같다.

피부는 옥처럼 희고 깨끗하며, 연꽃 같은 용모는 타고난 기품이 넘쳐흐른다. 황금 갑옷은 눈부시게 빛나고 비늘 갑옷은 움직일 때마다 번뜩이며, 은색 머리띠에는 붉은 비단이 감겨 있다. 가느다란 옥 같은 손으로는 쌍검을 쥐고 있다. 이토록 영웅적인 기세로 눈매는 가을 물결처럼 매혹적이니, 온갖 아름다움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보마를 몰아 앞장서 달려오니, 서슬 퍼런 칼날이 바람처럼 휘둘러지며 관군을 베어 넘긴다. 뽀얀 얼굴 위로 먼지가 날리고 전포는 땀에 젖었으나, 가슴과 겨드랑이에는 살기가 가득하다. 아군을 고무시키고 적군을 벌벌 떨게 만드니, 여장수 중에서도 참으로 보기 드문 기개가 있다.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올 때면, 두 뺨에는 은은한 미소가 피어오른다.

한편, 호삼낭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는데, 붉은 깃발 위에는 '여장수 일장청(女將一丈青)'이라는 금빛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왼쪽에는 고대수가, 오른쪽에는 손이낭이 함께 천여 명의 군마를 거느리고 있었으니, 하나같이 키가 들쭉날쭉 제각각인 데다 사방 각지에서 모여든 자들이었다. 이성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저런 군사들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선봉은 나와 함께 앞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라. 나는 병력

을 나누어 사방의 도적 놈들을 소탕하겠다." 삭초가 명령을 받들고는 금빛 도끼를 손에 쥔 채 타고 있던 말을 박차고 앞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일장청' 호삼낭은 말을 돌려 뒤를 돌아보더니, 산골짜기 쪽을 향해 달아나 버렸다. 이성이 군사를 나누어 사방에서 추격을 시작하며 몰아붙이는데, 한창 추격하던 중 땅이 울리는 함성과 함께 안개가 하늘을 가릴 듯 피어오르더니, 한 무리의 군마가 날아오듯 뒤쫓아왔다. 이성이 급히 군사를 이끌고 십사오 리쯤 후퇴했으나, 앞뒤를 돌볼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유가로 물러나고 있었다. 그때 왼쪽에서는 해진과 공량이 부하들을 이끌고 달려들었고, 오른쪽에서는 공명과 해보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또다시 들이닥쳤다. 세 명의 여장수 또한 말을 돌려 뒤를 쫓아오니, 이성의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며 무너져 내렸다. 이성이 급히 진영으로 돌아가려는데, '흑선풍' 이규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이성과 삭초는 겨우 군사들을 헤치고 길을 열어 도망쳤다.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한 차례 큰 패배를 당한 뒤였다. 송강의 군사들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군사를 거두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진을 쳤다.

한편, 이성과 삭초는 황급히 사람을 성안으로 보내 양중서에게 보고하게 하고, 밤을 도와 문달에게 전령을 보내 본부의 군마를 이끌고 와서 전투를 돕도록 했다. 이어 이성은 괴수파 진영 내에서 퇴각할 방책을 논의했다. 문달이 웃으며 말했다. "그까짓 옴이나 버짐 같은 하찮은 병통을 어찌 마음에 두겠습니까! 미천한 제가 내일 한판 결판을 내어 반드시 완승을 거두겠습니다." 그날 밤 대책을 세운 뒤 군사들에게 명을 내려, 사경(새벽 1~3시 무렵)에 밥을 짓고 오경(3~5시 무렵)에 무장을 갖추어 날이 밝는 대로 진격하기로 했다. 북을 세 번 울리자 진영을

거두어 모두 일어났고, 곧장 유가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니 송강의 군마가 이미 와 있었는데, 그 기세가 마치 거센 바람과도 같았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시가 있어 그 기세를 노래하니 이러하다.

구름처럼 몰려드는 군사들은 푸른 하늘로 솟구치고, 자욱한 먼지는 동서남북을 가로막는구나. 십만 대군이 내뿜는 함성은 땅을 뒤흔들고, 수레에 실린 화포 소리는 뇌성벽력처럼 울려 퍼진다. 둥둥 울리는 북소리는 산골짜기를 진동시키고, 펄럭이는 깃발은 하늘을 향해 휘날리네. 창끝은 허공을 가르며 옥룡이 꿈틀대는 듯하고, 칼날의 빛은 태양 아래 푸른 용처럼 번뜩인다. 여섯 부대의 기세가 드높으니 귀신조차 눈물을 흘리고, 삼군의 용맹함은 호랑이와 같아 가히 대적할 자 없네. 하늘의 별들이 내려와 세상에 강림하니, 갑옷 입은 용사들은 하늘을 뚫고 내려오는 듯하다. 은빛 투구와 금빛 갑옷은 눈처럼 빛나고, 강궁과 쇠뇌는 좀처럼 뚫을 길이 없구나. 사람마다 오직 충의를 다하고자 할 뿐, 장수를 베고 왕을 잡는 것은 공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 대도 문달은 제 분수도 모르고, 광언을 내뱉으며 솜씨를 뽐내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비호유에서 사방에서 군사가 일어나니, 별처럼 빠르게 달리고 번개처럼 쫓아 앞을 가로막지 못한다. 잔해를 수습하며 진영을 정비하는 모습은, 마치 토끼가 갈대밭 사이로 숨어드는 듯하구나.

그날, 대도 문달은 즉시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군마를 늘어세우고, 강궁과 쇠뇌로 자기 진영의 진지를 굳게 지키도록 했다. 화려하게 채색한 타고(鼉鼓, 악어가죽 북)를 둥둥 울리고, 형형색색의 수놓은 깃발들이 바람에 휘날렸다. 한편 송강의 진영에서는 이미 한 명의 대장이 붉

은 깃발을 높이 들고 나타났는데, 그 위에는 은색 글자로 '벽력화 진명'이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그 차림새는 이러하였다.

머리에는 붉은 칠을 한 삿갓을 쓰고, 몸에는 선명한 진홍색 도포를 입었으며, 어깨에는 짐승 문양이 새겨진 연환쇄갑(쇠사슬 갑옷)을 걸쳤다. 발에는 구름무늬가 수놓인 초록빛 전투화를 신었고, 봉황의 날개 모양이 새겨진 빛나는 투구 아래로는 사자 문양이 그려진 보배로운 허리띠가 매달려 있었다. 손에는 늑대 이빨 모양의 돌기가 달린 혼돈봉을 쥐고 있으니,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참으로 보기 드문 영웅의 기개였다.

진명이 말을 멈춰 세우고 매서운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북경의 부패한 관리와 탐관오리들은 똑똑히 들어라! 진작부터 너희 성을 치려 했으나, 혹여나 선량한 백성들이 해를 입을까 염려되어 참아왔다. 노준의와 석수를 순순히 우리에게 넘겨라! 음란한 여인과 간사한 사내들도 함께 내놓는다면, 즉시 군사를 물리고 전쟁을 멈출 것이며 결코 침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겠다! 만약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피운다면, 곤강의 불길이 치솟듯 너희 모두가 한꺼번에 타 죽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할 말이 있다면 어서 말하라, 시간을 끌지 말고!"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문달이 크게 노하여 우두머리 장수에게 물었다. "누가 저 도적을 힘껏 잡아 올 것이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뒤편에서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한 명의 대장이 앞장서서 말을 몰아 나왔다. 그 차림새는 이러하였다.

눈부신 햇살 아래 투구는 번쩍이고, 겹겹이 두른 철갑은 무겁구나.
꽃무늬와 비취색 수놓은 비단 도포는 붉고, 금띠는 쌍봉황 모양으로 빛난다.
까치 그림 활은 활집 안에 갈무리되어 있고, 늑대 이빨 모양 화살은 화살통 속에 꽂혔네.
조각된 안장 위 오색 용마는 안정되고, 커다란 도끼는 손안에서 만지작거리네.

이 자는 북경의 상장인 삭초였다. 성격이 매우 급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를 '급선봉'이라 불렀다. 그가 진영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네 이놈! 조정의 명을 받은 관리로서 나라가 네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착한 일은 마다하고 도적 떼가 되어 산적질을 한단 말이냐! 내가 너를 붙잡으면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니, 죽어도 싸다!"

진명 또한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기에, 이 말을 듣자 마치 화로에 숯을 던지고 불 위에 기름을 부은 듯 격분했다. 그는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가며 낭아곤(狼牙棍)을 휘두르며 곧장 달려들었다. 삭초도 말을 몰아 진명을 향해 정면으로 맞섰다. 두 마리의 사나운 말이 서로 맞부딪치고 양측의 병기가 함께 치켜올려지자,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스무 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때 송강 군의 선봉대에서 한도가 돌아서 나오더니, 말 위에서 활을 당겨 화살을 먹였다. 한도는 삭초가 가까워지기를 기다렸다가 휙 하고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삭초의 왼쪽 팔에 정통으로 맞았다. 삭초가 큰 도끼를 내팽개치고 본진을 향해 말을 돌려 달아나자, 송강이 채

찍 끝으로 그 방향을 가리켰다. 그러자 대소 삼군이 일제히 몰려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시체가 들판을 뒤덮고 피가 강물처럼 흘러, 적군은 크게 패하여 무너졌다. 양산박 군사는 유가까지 추격한 뒤 곧바로 괴수파의 작은 진영을 점령했다.

그날 밤 문달은 곧장 비호유로 달려가 군사 수를 점검해 보니, 병력의 삼분의 일이 줄어 있었다. 송강은 괴수파 진영 안에 진을 쳤다. 오용이 말했다. "적군이 패하여 도망쳤으니 마음속에 겁이 생겼을 것입니다. 만약 이 기세를 몰아 추격하지 않으면, 도리어 적들이 용기를 회복하여 나중에 제압하기 어려워질까 염려됩니다." 송강이 말했다. "군사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송강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그날 밤 승전한 정예 군사들을 네 갈래로 나누어 밤을 도와 출격시키고, 성을 향해 거세게 몰아치라고 하였다.

한편, 문달은 비호유로 달려갔으나 그 모습이 마치 집 잃은 개나 그물에서 빠져나가는 물고기처럼 허둥지둥 급박했다. 그가 진영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 하급 군관이 달려와 보고했다. "근처 산 위에서 불이 났습니다!" 문달이 군사들을 이끌고 말에 올라 살펴보니, 동쪽 산 위에 횃불이 셀 수 없이 많아 온 산과 들판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문달이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적을 맞으러 나섰으나, 산 뒤편에서 또 다른 기마대가 나타났다. 앞장선 장수는 '소이광' 화영이었고, 부장으로 양춘과 진달을 거느리고 들이닥쳤다. 문달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군사를 거느리고 비호유로 회군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쪽 산 위에서 셀 수 없는 횃불이 보였다. 앞장선 장수는 '쌍편' 호연작이었으며, 부장으로 구붕과 연순을 이끌고 돌진해 왔다. 뒤편에서 또 함성이 터져 나오니, 이번에는 '벽력화' 진명이 부장 한도, 팽기와 함께 힘을 합쳐 살기등등하게 달려들고 있었다. 문달의 군마들이 크게 혼란에 빠지자, 진영을 거두고 모두 일제히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때 앞에서 다시 함성이 들리고 불빛이 번쩍이더니, '굉천뢰' 능진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좁은 길을 통해 비호유 쪽으로 꺾어 들어오며 포를 쏘아 올렸다. 문달은 군사들을 이끌고 길을 틀어 성을 향해 도망치듯 달려갔다.

그런데 앞쪽에서 북소리가 울리는 곳을 보니, 이미 한 무리의 기마대가 길을 막아서고 있었다. 불빛 사이로 '표자두' 임충이 나타나 부장 마린, 등비와 함께 퇴로를 차단했다. 사방에서 북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지고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각자 살길을 찾아 흩어졌다. 문달은 커다란 칼을 휘두르며 길을 내어 도망치다가 이성과 맞닥뜨렸고, 힘을 합쳐 싸우며 계속해서 도망쳤다. 날이 밝을 때가 되어서야 겨우 성 밑에 도착했다.

양중서는 이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는 서둘러 군사를 점검하여 성 밖으로 나가 패퇴한 병사들을 맞이하고, 성문을 굳게 닫은 채 결사 항전하며 성을 지키게 했다. 다음 날, 송강의 군마들이 추격해 와 동문 아래에 진을 치고 성을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

한편, 양중서는 유수사(留守司, 지방 관청의 수비 업무를 맡는 곳)에 모여 군사들과 대책을 논의했으나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다. 이성이 말했다. "적병이 성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으니 상황이 매우 급합니다. 만

약 지체하다가는 반드시 성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상공께서는 우선 긴급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복을 보내십시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북경으로 달려가 채 태사님께 알리고, 조속히 조정에 보고하여 정예 병력을 파견해 구원하게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둘째로는 긴급 공문을 작성하여 인근 부와 현에 알려, 그들도 서둘러 병력을 보내 지원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북경 성내의 대명부에 명하여 민부를 소집하게 하고, 성벽 위로 올려 한마음으로 협력해 성을 지키는 데 힘을 합치게 해야 합니다. 굴려 떨어뜨릴 통나무와 포석(擂木砲石)을 준비하고, 발로 밟아 쏘는 노(弩)와 강궁, 석회를 담은 잿병(灰瓶)과 끓는 쇳물(金汁)을 밤낮으로 대비한다면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중서가 말했다. "긴급 보고서를 작성할 테니, 누가 가서 전해주겠소?" 그는 즉시 장수 왕정을 불러 갑옷과 무기를 갖추게 하고, 몇 명의 기마병과 함께 밀서를 들려 보냈다. 왕정은 성문을 열고 조교를 내려 동경(東京)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하고, 인근 부에도 공문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게 했다. 또한 먼저 왕 태수에게 명하여 민부를 모으고 성벽을 지키게 하였다.

한편, 송강은 여러 장수를 나누어 배치하여 군사를 이끌고 성을 포위하게 했다. 동, 서, 북 세 방향에 진을 쳤으며, 남문만 비워두고 포위하지 않았다. 매일 한 방향씩 군사를 몰아 성을 공격했다. 또한 산채에서는 장기전을 대비해 끊임없이 군량을 확보해 두었다. 그들의 목적은 반드시 북경을 함락시켜 노준의와 석수를 구해내는 것이었다. 이성과 문달은 연일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싸웠으나 승기를 잡지 못했다. 삭초는 화살을 맞은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였다.

한편, 송강의 군사들이 성을 공격하는 동안, 장수 왕정은 밀서를 지니고 세 명의 기마병과 함께 동경의 태사부 앞까지 달려가 말에서 내렸다. 문지기가 안으로 보고를 올리자, 채 태사가 왕정을 안으로 들여보내게 했다. 왕정은 후당(後堂)까지 들어가 절을 올린 뒤 밀서를 바쳤다. 채 태사가 밀서를 뜯어보고는 크게 놀라 상세한 내막을 물었다. 왕정은 노준의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지금 송강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기세가 너무 대단하여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이어 유가, 괴수파, 비호유 세 곳에서 벌어진 전투 상황을 모두 보고했다. 채경이 말했다. "말과 군사들이 지쳤을 테니, 우선 관역(館驛)에 가서 쉬고 있거라. 내가 관원들과 상의한 뒤에 부르겠다." 왕정이 다시 아뢰었다. "태사 어른, 대명부는 지금 달걀을 쌓아놓은 것처럼 위태로워 당장이라도 함락될 위기입니다. 만약 성을 빼앗긴다면 하북의 여러 현과 군은 어찌 되겠습니까? 부디 태사 어른께서 서둘러 군사를 일으켜 적을 소탕해 주십시오!" 채경이 말했다. "더 말할 것 없으니 물러가라." 왕정이 물러갔다.

태사는 즉시 그날 관아의 관리를 보내 추밀원(樞密院) 관원들을 청하여 급히 모여 군사 중대사를 논의하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청(東廳)의 추밀사 동관이 삼아태위(三衙太尉)들을 이끌고 절당(節堂)에 도착하여 태사를 알현했다. 채경은 대명부의 위급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뒤 물었다. "이제 어떤 계책을 쓰고 어떤 명장을 써야 적병을 물리치고 성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말이 끝나자 관리들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모두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보사태위(步司太尉)의 뒤편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바로 병마를 관장하는 아문방어사 보의(衙門防禦使 保義) 선찬이었다. 그의 성은 선이고 이름은 찬이다. 그는 얼굴이 솥바닥처럼 검고 콧구멍은 하늘을 향했으며, 곱슬머리에 붉은 수염을 가졌고, 키는 8척에 달하는 건장한 체구였다. 강철 칼을 휘두르는 그의 무예는 매우 뛰어났다. 예전에 왕부에서 군마(郡馬, 군왕의 사위) 노릇을 한 적이 있어 사람들이 '추군마'라고 불렀다. 연주전(連珠箭, 연달아 쏘는 화살 솜씨)으로 오랑캐 장수(番將)를 이기자, 군왕이 그의 무예를 아껴 사위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군주(郡主)가 그의 못생긴 외모를 싫어하여 원한을 품고 죽는 바람에, 그는 중용되지 못한 채 병마보의사(兵馬保義使) 직책만 맡고 있었다. 동관은 아첨에 능한 자라 그와 사이가 좋지 못해 늘 그를 의심하곤 했다.

이때 선찬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서 태사에게 아뢰었다. "소장이 예전에 고향에서 알고 지낸 이가 있습니다. 그는 한나라 말기 삼국시대의 의용무안왕(義勇武安王, 관우)의 적통 후손으로, 성은 관이고 이름은 승입니다. 풍채가 조상인 운장(관우)과 매우 닮았으며, 청룡언월도를 휘두르니 사람들이 '대도 관승'이라 부릅니다. 지금은 포동의 순검(巡檢)으로 있으나 낮은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병서를 읽어 무예에 정통하며, 만 명의 적도 당해내지 못할 용맹을 지녔습니다. 만약 예와 재물로 그를 정중히 모셔 상장군으로 삼는다면, 적의 진영을 쓸어버리고 광도를 멸하여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채경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선찬을 사신으로 삼아 문서와 말, 장비를 갖추게 하여 밤을 도와 급히 포동으로 보내 관승을 정중히 모셔와 북경에서 대책을 논의하게 했다. 모든 관리가 물러갔다.

이야기는 이와 같다. 선찬은 문서를 챙겨 말을 타고 출발했다. 서너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하루 만에 포동 순검사 앞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렸다. 마침 관승은 관아 안에서 학사문과 함께 고금의 흥망성쇠에 대해 논하고 있었는데, 북경에서 사신이 왔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학사문과 함께 마중을 나갔다. 서로 예를 갖춘 뒤 관청 대청에 모시고 앉았다. 관승이 물었다.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어찌하여 이 먼 곳까지 직접 오셨습니까?"

선찬이 대답했다. "양산박의 도적들이 북경을 공격하고 있어, 제가 태사 어른 앞에서 형님을 간곡히 추천하였습니다. 형님께서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다스릴 계책이 있으며, 적장을 베어 넘길 재능을 갖추셨기에, 특별히 조정의 칙지와 태사 어른의 명을 받들어 비단과 재물, 말과 장비를 갖추어 정중히 모시러 왔습니다. 형님께서는 사양하지 마시고 즉시 채비를 하여 북경으로 함께 가셔야 합니다."

관승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선찬에게 말했다. "이 아우는 성은 학이고 이름은 사문인데, 제가 의동생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의 어머니가 '정목안'이 태몽으로 나타나 그를 잉태하였기에, 사람들이 그를 '정목안'이라 부릅니다. 이 아우는 열여덟 가지 무예에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태사 어른의 부름을 받았으니 함께 가서 힘을 합쳐 나라에 보답함이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선찬이 기쁘게 대답하며 서둘러 길을 떠나자고 재촉했다.

그 길로 관승은 아랫사람들에게 분부하여, 학사문과 함께 관서의 장정 십여 명을 거느리고 도마와 말, 갑옷과 행장을 챙겼다. 그들은 선찬을 따라 밤을 도와 길을 떠나 북경에 도착한 뒤, 곧장 태사부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문지기가 채 태사에게 보고하자, 채경은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게 했다. 선찬은 관승과 학사문을 데리고 절당까지 가서 예를 올린 뒤, 그들은 계단 아래에 섰다.

채경이 관승을 살펴보니 과연 인재다운 풍모가 넘쳐흘렀다. 당당한 8척 5, 6의 체구에, 가느다란 세 가닥의 수염이 턱을 덮었고, 눈썹은 귀밑까지 이어져 있었다. 봉황 같은 눈은 하늘을 향해 치켜떴으며, 얼굴은 잘 익은 대추처럼 붉고 입술은 주사를 바른 듯 선명했다. 태사가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장군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소?" 관승이 대답했다. "소장은 서른둘입니다." 채 태사가 말했다. "양산박의 도적들이 북경의 성곽을 포위하고 있으니, 명장이여, 부디 묘책을 내어 이 포위를 풀어주시오."

관승이 아뢰었다. "도적들이 물가에 자리를 잡고 세력을 떨치고 있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제 둥지를 버리고 함부로 움직이니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격입니다. 만약 북경만 구하려 든다면 인력만 헛되이 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정예병 수만 명을 빌려주십시오. 먼저 양산박을 치고 나서 도적들을 잡아야 그들이 앞뒤를 돌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태사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선찬에게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위나라를 포위하여 조나라를 구하는 '위위구조'의 계책이니, 내 마음과 딱 맞는구나." 채경은 즉시 추밀원 관원을 불러 산둥과 하북의 정

예병 1만 5천 명을 차출하게 했다. 학사문을 선봉으로, 선찬을 후방 지원으로 삼고, 관승을 영병지휘사(領兵指揮使)로 임명하였으며, 보군 태위 단상을 배치하여 군량을 보급하게 했다. 삼군을 포상한 뒤, 정해진 날짜 안에 대도광부(大刀闊斧, 크게 결단하여 행동함)의 기세로 양산박을 향해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기세는 마치 용이 바다를 떠나 안개와 구름을 타고 승천할 수도 없고, 호랑이가 평원으로 내려와 어찌 발톱을 세우고 위용을 떨칠 수 있겠는가?

시로 이르되, 하늘의 중추절 달빛에 눈이 멀어, 쟁반 위 전각을 비추는 구슬을 놓쳤구나.

결국 송강의 군마는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4회 — 호연작이 달밤에 관승을 꾀어 잡고, 송공명이 눈 오는 날 색초를 사로잡다

呼延灼月夜賺關勝 宋公明雪天擒索超

이야기는 이러하다. 포동의 관승은 커다란 대도를 휘두르는 데 능숙하며, 영웅다운 기개가 세상을 덮을 만큼 뛰어나고 의용 또한 남달랐다. 그는 태사의 명을 받들어 일만 오천의 군사를 이끌고 세 부대로 나눈 뒤, 동경을 떠나 양산박을 향해 진격하였다.

이야기는 양쪽으로 갈라진다. 한편 송강과 여러 장수는 매일같이 북경(北京, 대명부)의 성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했다. 이성과 문달 쪽에서는 감히 맞서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소초는 화살을 맞아 상처가 깊은 데다 아직 회복되지 않아 출전할 사람이 없었다. 송강은 성을 공격해도 깨뜨리지 못하자 마음속으로 근심이 깊어졌다. 산을 떠나온 지 꽤 되었는데 승패가 나지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었다. 그날 밤, 그는 중군 장막 안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현녀천서'를 꺼내 읽고 있었다. 한창

책을 보던 중, 문득 성을 포위한 지 오래되었는데 구원병이 오는 기미가 없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대종을 돌려보냈으나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 그는 멍하니 정신이 아득해지고 먹는 것과 자는 것조차 불안해졌다.

그때 마침 소교(하급 군관)가 달려와 보고했다. "군사께서 오셨습니다." 오용이 중군 장막 안으로 들어와 송강에게 말했다. "우리가 군사를 이끌고 포위한 지 꽤 되었는데, 어찌하여 구원병은 오지 않고 성안에서도 싸우러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얼마 전 말 세 기가 성 밖으로 달려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분명 양중서가 사람을 보내 동경에 급보를 전하러 간 것일 터입니다. 그러면 채 태사가 반드시 군사를 급히 보낼 것이고, 그 사이에는 분명 훌륭한 장수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적이 위위구조(圍魏救趙)의 계책을 써서 이곳의 위기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양산박 본진을 치러 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형님께서는 이를 반드시 염려하셔야 합니다. 우선 군사들에게 채비를 시키되, 함부로 모두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말을 마칠 무렵, '신행태보' 대종이 도착하여 보고했다. "동경의 채 태사가 관보살의 현손이자 포동군의 '대도' 관승에게 명하여, 한 부대의 군마를 이끌고 양산박으로 급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산채의 두령님들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시니, 형님과 군사께서는 어서 군사를 거두어 돌아와 산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오용이 말했다.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서둘러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에 먼저 보병을 전진시키고, 기병 두 부대만 남겨 비호유 양옆에 매복시킵니다. 성안에서 우리가 퇴각하는 것을 알면 반드시 추

격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군대가 먼저 동요할 것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군사의 말이 지극히 옳소."

송강은 즉시 명령을 내려 '소이광' 화영에게 군사 오백 명을 이끌고 비호유 왼편에 매복하게 했다. '표자두' 임충에게는 군사 오백 명을 이끌고 비호유 오른편에 매복하게 했다. 이어 '쌍편' 호연작에게는 기병 스물다섯 명을 거느리고 릉진을 데려가게 하되, 풍화포(風火砲) 등의 화포를 챙겨 성에서 십여 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했다. 적의 추격병이 나타나면 즉시 신호포를 쏘아 양쪽의 복병이 함께 달려들어 추격병을 몰살하게 하라는 지시였다. 동시에 명령을 내려 앞선 부대는 깃발을 거꾸로 늘어뜨리고 북을 치지 않은 채, 마치 비가 흩어지고 구름이 흘러가듯 적과 마주쳐도 싸우지 말고 천천히 퇴각하도록 했다. 보병 부대는 한밤중에 일어나 차례대로 움직였으며, 다음 날 사패(오전 10시경) 전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모두 퇴각하였다.

성 위에서 보니 송강의 군사들이 깃발을 거꾸로 늘어뜨리고 도끼와 칼을 어깨에 멘 채, 쉴 새 없이 몰려나오며 진영을 걷어 올리고 산채로 돌아가려는 기세였다. 성 위에서 이를 자세히 살핀 뒤 양중서에게 보고했다. "양산박 군사들이 오늘 모두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중서는 보고를 듣자마자 즉시 이성과 문달을 불러 상의했다. 문달이 말했다. "아마도 동경의 구원병이 양산박을 치러 가는 모양입니다. 저 놈들이 근거지를 잃을까 두려워 황급히 돌아가는 것이니, 이 기세를 몰아 추격하여 반드시 송강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 밖에서 전령이 달려와 동경에서 온 문서를 전달하며, 도적의 소굴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저들이 퇴각한다

면 즉시 추격해야 합니다." 양중서는 곧바로 이성과 문달에게 명령하여 각각 한 부대의 군마를 이끌고 동쪽과 서쪽 양 갈래로 나누어 송강의 군사를 추격하게 했다.

한편 송강은 군사를 이끌고 퇴각하다가 성안에서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목숨을 걸고 달아났다. 비호유 근처까지 이르렀을 때, 등 뒤에서 화포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다. 이성과 문달은 깜짝 놀라 전마를 멈추고 살펴보니, 뒤쪽에서 깃발이 어지럽게 휘날리고 전쟁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이성과 문달이 급히 군사를 돌리려는데, 왼쪽에서는 '소이광' 화영이, 오른쪽에서는 '표자두' 임충이 각각 오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양옆에서 들이닥쳤다. 미처 손쓸 틈도 없이 간계에 빠졌음을 깨달은 그들은 서둘러 군사를 돌려 퇴각했다. 그때 앞쪽에서 호연작이 기병 한 부대를 이끌고 나타나 한바탕 크게 몰아치니, 이성과 문달은 투구가 벗겨지고 갑옷이 흩어질 정도로 혼비백산하여 성안으로 도망쳐 들어가 문을 닫아걸고 나오지 않았다. 송강의 군사들은 차례로 퇴각을 이어갔다. 양산박 근처에 다다랐을 무렵, 뜻밖에도 '추군마' 선찬이 길을 가로막고 나타났다. 송강은 군사들에게 잠시 진을 치라고 명령한 뒤, 몰래 사람을 보내 외진 길을 통해 수로와 육로의 군사들에게 연락하여 양쪽에서 구원해 오도록 약속했다.

한편, 수채(水寨, 수군 진영)의 두령인 '선화아' 장횡이 아우 '낭리백조' 장순과 의논하며 말했다. "나와 네 형제 둘은 예부터 이 진영에 있었으나 아직 공을 세운 적이 없구나. 남들이 잘난 체하며 떠드는 것만 보고 속만 태우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포동의 '대도' 관승이 세 갈래로 군사를 몰아 우리 진영을 치러 오고 있다. 차라리 우리 둘이 먼저 저들

의 진영을 습격하여 관승을 사로잡는다면, 큰 공을 세워 형제들 앞에서 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장순이 말했다. "형님, 저와 형님은 그저 약간의 수군을 거느리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하러 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남들의 웃음거리만 될 뿐입니다."

장횡이 말했다. "네가 그렇게 소심해서 언제 공을 세우겠느냐? 가기 싫으면 관두어라. 나 혼자서라도 오늘 밤 가겠다."

장순이 간곡히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그날 밤, 장횡은 작은 배 쉰여 척을 준비했는데, 배마다 서너 명에서 대여섯 명 정도의 인원만 태웠다. 모두 가벼운 무장을 한 채 쓴 대나무 창을 들고 蓼葉刀(료엽도, 잎 모양의 칼)를 챙겨 들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서늘한 이슬이 내리는 고요한 밤을 틈타, 작은 배들을 몰아 한로(旱路)까지 나아갔다. 이때는 대략 이경(二更, 밤 9시~11시 사이)쯤이었다.

한편, 관승은 중군 장막 안에서 등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길목을 지키던 하급 군관이 몰래 달려와 보고했다. "노화탕 근처에 작은 배 마흔에서 쉰 척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긴 창을 들고 갈대밭 사이사이에 매복하고 있는데,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어 급히 보고드립니다."

관승은 그 말을 듣고 살며시 냉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몰래 신호를 내려 모든 군사에게 똑같이 준비하도록 명령했다. 삼군(三軍)이 명령을 받자 각자 자리를 잡아 매복했다.

한편, 장횡은 이삼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갈대밭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살금살금 진영 가장자리까지 접근했다. 그리고 장애물을 헤치고 곧장 중군 장막으로 달려갔다. 장막 안에는 등불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관승은 수염을 만지며 앉아서 병법서를 보고 있었다. 장횡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긴 창을 휘두르며 장막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때 갑자기 징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 기세가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며 산이 넘어지고 강이 뒤집히는 듯하여, 장횡은 깜짝 놀라 창을 내팽개치고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 사방에서 복병들이 무섭게 일어나니, 물을 잘 다루는 장횡이라 한들 어찌 평지에서 쳐놓은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이삼백 명의 군사 중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한 채 모두 사로잡혀 장막 앞으로 끌려왔다.

관승이 그들을 보고 웃으며 꾸짖었다. "무도한 도적놈들이 감히 나를 능멸하려 들다니!"

관승은 장횡을 수레에 가두어 포박하고, 나머지 부하들도 모두 잡아들였다. "송강을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동경으로 압송하겠다."

관승이 장횡을 사로잡은 것과는 별개로, 수채(水寨)에서는 세 명의 완씨 형제 두령이 진영 안에서 의논하던 중 사람을 보내 송강에게 명령을 듣고 오게 했다. 그때 장순이 도착하여 보고했다. "형님께서 저의 간곡한 만류를 듣지 않으시고 관승의 진영을 습격하러 가셨다가, 뜻밖에도 사로잡혀 수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완소칠이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우리 형제들은 생사를 함께하며 길흉화복을 같이 구해왔거늘, 네가 그의 친형제이면서 어찌 그를 혼자 가게 내버려 두어 잡히게 만들었느냐? 네가 구하러 가지 않겠다면, 우리 세 형제라도 가서 구해오겠다!"

장순이 말했다. "형님의 명령을 받지 못했기에 감히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완소칠이 다시 말했다.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네 형님이 이미 여덟 토막이 나 있을 것이다!"

완소이와 완소오도 "그 말이 옳습니다"라며 거들었다. 장순은 세 형제의 기세에 눌려 결국 그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사경(四更, 새벽 1시~3시 사이)이 되자, 크고 작은 수채의 두령들이 모여 각각 백여 척의 배를 준비한 뒤 일제히 관승의 진영을 향해 돌진했다. 육지의 소규모 군사들이 물 위에 개미 떼처럼 몰려드는 전선들을 보고는 깜짝 놀라 강가로 달려가 주수(主帥)에게 급히 보고했다. 관승이 웃으며 말했다. "식견도 없는 도적놈들이니 조금도 걱정할 것 없다!" 그러고는 즉시 수장(首將)을 불러 귓속말로 이렇게저렇게 지시를 내렸다.

한편, 세 명의 완씨 형제가 앞장서고 장순이 뒤를 따르며 함성을 지르며 진영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런데 진영 안을 보니 창과 칼은 똑바로 세워져 있고 깃발도 쓰러지지 않은 채,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세 형제는 크게 놀라 급히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

그때 장막 앞에서 징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좌우 양옆에서 기병과 보병이 여덟 갈래로 나뉘어 나타났다. 그들은 마치 키로 곡식을 까불듯이, 혹은 바구니로 가두듯 겹겹이 에워싸며 몰려들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장순은 '풍덩' 소리를 내며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세 형제도 도망칠 길을 찾아 급히 물가로 달려갔으나, 뒤쫓아온 후군이 갈고리를 던지고 밧줄을 날렸다. 결국 '살아있는 염라대왕'이라 불리는 완소칠마저 붙잡혀 거칠게 끌려가고 말았다. 완소이, 완소오, 장순은 그나마 '혼강룡' 이준이 데려온 동위, 동맹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목숨을 건져 돌아갈 수 있었다.

완소칠이 붙잡혀 수레에 갇힌 것은 차치하고라도, 수군이 양산박에 소식을 전해왔다. 이에 유당은 장순을 수로를 통해 송강의 진영까지 보내 이 소식을 보고하게 했다. 송강은 오용과 함께 어떻게 하면 관승을 물러나게 할지 의논했다. 오용이 말했다. "내일 결전을 치러 승패가 어떻게 갈리는지 지켜보시지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전투 북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지더니, '추군마' 선찬이 삼군을 거느리고 대채(大寨, 양산박 본진)까지 들이닥쳤다. 송강이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가 선찬이 깃발 아래서 말머리를 돌리며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외쳤다. "어느 장수가 나설 것인가, 저놈부터 먼저 잡아라!"

그러자 '소이광' 화영이 말을 몰고 긴 창을 든 채 곧장 선찬을 향해 달려들었다. 선찬도 칼을 휘두르며 맞서 싸웠다. 서로 치고받으며 위아래로 공방을 주고받은 지 열 합쯤 되었을 때, 화영이 일부러 빈틈을 보이며 말을 돌려 달아났다. 선찬이 뒤쫓아오자 화영은 재빨리 창을 고

쳐 잡고 활을 들어 화살을 챙겼다. 그는 말 안장에 비스듬히 앉아 원숭이처럼 가벼운 팔 동작으로 몸을 돌리며 화살 한 대를 날렸다. 선찬은 활시위 울리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듣고 급히 칼로 막아냈으나, '챙' 하는 굉음과 함께 화살은 칼등에 맞고 튕겨 나갔다.

화영은 화살이 빗나간 것을 보고 곧바로 두 번째 화살을 집어 들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선찬의 가슴을 겨냥해 쏘았다. 선찬은 등자(鐙, 말 안장 옆에 발을 딛는 곳)에 몸을 숨겨 겨우 피했다. 선찬은 화영의 활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고는 감히 추격하지 못한 채 급히 말머리를 돌려 본진으로 도망쳤다. 화영은 선찬이 쫓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서둘러 말을 돌려 선찬이 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세 번째 화살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선찬의 등 뒤를 노려 화살을 쏘았다. '챙' 하는 소리가 울리며 화살이 선찬의 등 뒤 호심경(護心鏡, 가슴 보호용 거울)에 정통으로 맞았다. 선찬은 황급히 말을 달려 진영으로 돌아가 관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관승이 이 소식을 듣고는 즉시 부하를 불러 외쳤다. "어서 전마(戰馬)를 끌고 오너라!" 그 말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길이가 한 장(丈)에 달하고, 발굽에서 등까지의 높이가 여덟 척이나 되었으며, 온몸에 잡스러운 털 하나 없이 마치 타오르는 숯처럼 붉은빛이 감돌았다. 말에는 가죽 갑옷을 씌우고 세 줄의 복대(肚帶)를 둘렀다. 관승은 무장을 완전히 갖추고 칼을 들고 말에 올라타 곧장 진영 앞으로 나아갔다. 깃발이 열린 곳으로 말을 몰고 나오니, 이를 증명하는 서강월(西江月) 한 수가 있다.

한나라 공신의 후예요, 삼국 시대 양장(良將)의 현손이라.
수놓은 깃발 휘날리며 하늘의 군사를 움직이고, 금빛 갑옷과 초록 도포는 서로 어우러지네.
적토마는 보랏빛 노을 속을 힘차게 달리고, 청룡도는 차가운 얼음처럼 서슬 퍼렇구나.
포동군에서 태어난 영웅, 의롭고 용맹한 대도 관승이라.

송강이 관승을 보니 범상치 않은 풍모가 흘러넘쳤다. 그는 오용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으로 감탄하고는, 뒤를 돌아 많은 장수에게 말했다. "장군이 참으로 영웅답구나. 명성이 헛되지 않았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충이 분노하며 말했다. "우리 형제들이 양산박에 들어온 이래로 크고 작은 수십 번의 전투를 치르면서도 기세가 꺾인 적이 없거늘, 군사께서는 어찌하여 스스로 위신을 깎아내리려 하십니까!" 말을 마친 임충은 곧바로 창을 들고 말을 몰아 관승을 향해 돌격했다.

관승이 이를 보고 크게 호통을 쳤다. "양산박의 도적 놈들아, 네놈들이 어찌 감히 조정에 맞서려 하느냐! 오직 송강 네놈만 나와 결판을 내자!"

송강은 깃발 아래에서 임충을 꾸짖어 멈춰 세우고는, 직접 말을 몰아 진영 앞으로 나갔다. 그는 몸을 굽혀 관승에게 예를 갖추며 말했다. "운성현의 말단 관리 송강이 이곳에 와서 삼가 뵙나이다. 장군께서는 부디 죄를 물어 주십시오."

관승이 물었다. "네놈은 일개 관리이면서 어찌 감히 조정에 반역을 꾀하느냐?"

송강이 대답했다. "그것은 조정이 어둡고 간신들이 득세하여 권력을 휘두르며, 무도한 관리들을 세워 천하 백성들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송강 등은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는 것이니, 결코 딴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관승이 크게 소리쳤다. "천병(天兵)이 여기 왔음에도 여전히 저항하며 교묘한 말로 나를 속이려 들다니, 감히 나를 기만하려 하느냐! 당장 말에서 내려 항복하지 않는다면 네놈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벽력화' 진명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낭아곤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관승에게 달려들었다. 관승 역시 말을 몰아 진명과 맞서 싸웠다. 임충은 진명이 공을 가로챌까 두려워 맹렬히 달려들어 곧장 관승을 겨냥했다. 세 명의 기병이 먼지 구름 속에서 등불이 돌아가듯 뒤엉켜 싸웠다.

송강은 관승이 다칠까 염려되어 즉시 징을 울려 군사를 물러나게 했다. 임충과 진명이 진영 앞으로 말을 돌리며 말했다. "저놈을 생포하려던 참인데, 형님께서는 어찌하여 싸움을 멈추고 군사를 물러나게 하십니까?"

송강이 말했다. "아우님, 우리는 충의를 지키며 살고 있지, 강한 힘으로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원치 않네. 설령 진영에서 저자를 잡는다 해도, 저자가 굴복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남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

야. 내가 보기에 관승은 용맹한 장수이자 본래 충성스러운 신하의 집안이며 조상은 신령스러운 분이니, 만약 저 사람을 우리 산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자리를 내놓겠네."

임충과 진명은 모두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날 양측은 각자 군사를 거두고 물러났다.

한편, 관승은 진영으로 돌아와 말에서 내려 갑옷을 벗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힘으로 두 장수를 당해내지 못해 막 그들에게 질 판이었는데, 송강이 도리어 군마를 거두었으니,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구나.'

관승은 곧바로 졸병들에게 명하여 함거(陷車)에 갇힌 장횡과 완소칠을 밀고 오게 한 뒤 물었다. '송강은 운성현의 말단 아전에 지나지 않거늘, 네놈들은 어찌하여 그에게 복종하느냐?'

완소칠이 대답했다. '우리 형님은 산둥과 허베이에 명성이 자자하여, 모두가 〈급시우(及時雨) 호보의(呼保義)〉라 부르는 송공명(송강)이시다. 예의도 모르는 너 같은 자가 어찌 그것을 알겠느냐!'

관승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함거를 밀고 나가게 했다.

그날 밤 관승은 진영 안에서 의구심이 가시지 않아 앉지도 눕지도 못한 채 불안해했다. 그는 중군 밖으로 걸어 나가 하늘을 보았는데, 달빛은 하늘에 가득하고 서리꽃은 땅에 가득하여 탄식해 마지않았다. 이

때 길목을 지키던 하급 군관이 달려와 보고했다. '수염 난 장수 하나가 말 한 필에 채찍 하나만 든 채 원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관승이 물었다. '그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느냐?'

군관이 대답했다. '갑옷도 무기도 갖추지 않았고 성명도 밝히려 하지 않으며, 오직 원수님을 뵙고 싶다고만 합니다.'

관승이 말했다. '정 그렇다면 그를 불러오너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막사 안으로 들어와 관승에게 절하여 뵈었다. 관승이 살펴보니 낯이 익어 등불 아래에서 대략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 관승이 누구냐고 묻자 그 사람이 말했다. '좌우의 병사들을 물려 주십시오.'

관승이 말했다. '괜찮으니 말하라.'

그 사람이 말했다. '소장이 바로 호연작입니다. 일전에 조정을 위하여 연환마(連環馬) 부대를 거느리고 양산박을 정벌하러 왔었으나, 뜻밖에 도적의 간계에 빠져 군기(軍機)를 그르치는 바람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진중에서 임충과 진명이 장군을 사로잡으려 할 때, 송강이 급히 군사를 거둔 것은 진정 장군께서 다치실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송강은 본래 귀순할 뜻을 품고 있었으나, 다만 뭇 도적들이 따르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송강이 몰래 이 호연작과 상의하여 막 뭇 사람들을 귀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뜻을 같이 해 주신다면, 내일 밤 가벼운 활과 짧은 화살을 챙겨 빠른 말을 타고 샛

길로 곧장 적의 진영에 침투하여, 임충 같은 도적들을 생포해 경사(京師)로 압송함으로써 함께 공훈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관승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를 막사 안으로 청해 술을 차려 대접했다. 두 사람은 송강이 오로지 충의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과, 불행히도 무고하게 도적의 무리에 들게 된 사정을 서로 자세히 털어놓으며 속마음을 드러내니, 조금도 의심하는 기색이 없었다.

다음 날, 송강이 군사를 일으켜 싸움을 걸었다. 관승은 호연작과 상의하며 말했다. "오늘 먼저 적의 장수를 이겨 기세를 꺾어 놓으면, 오늘 밤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겠구나."

한편, 호연작은 빌려온 갑옷을 챙겨 입고 각자 말을 탄 채 진영 앞으로 나아갔다. 송강이 진영 위에서 호연작을 향해 크게 꾸짖었다. "양산박은 그대에게 조금도 소홀히 대하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밤중에 몰래 떠나려 하는가!"

호연작이 대답했다. "너희 같은 도적 놈들이 무슨 큰일을 하겠느냐!"

송강은 즉시 '진삼산' 황신에게 출전하라 명했다. 황신은 상문검(喪門劍)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호연작을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두 말이 맞붙어 열 합도 채 되지 않아, 호연작이 채찍을 휘둘러 황신을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송강의 진영에 있던 병사들이 달려 나와 황신을 짊어지고 뒤로 물러났다.

관승은 크게 기뻐하며 대소군 삼군에게 일제히 공격하여 적을 섬멸하라 명했다. 그러자 호연작이 말했다. "추격해서 몰아붙여서는 안 됩

니다. 오용 그놈은 신기한 계책이 뛰어나니, 계속 뒤쫓다가는 도적 놈들의 계략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관승은 그 말을 듣고 급히 군사를 거두어 본진으로 돌아갔다. 중군 막사에 도착한 관승은 술을 차려 호연작을 대접하며 '진삼산' 황신의 일에 대해 물었다.

호연작이 대답했다. "그자는 본래 조정의 관리인 청주 도감이었으나, 진명, 화영과 함께 도적의 무리에 섞이게 된 자입니다. 오늘 먼저 이 도적을 죽여 기세를 꺾어 놓았으니, 오늘 밤 몰래 진영을 습격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관승은 크게 기뻐하며 장령을 내려 선찬과 학사문 두 갈래로 지원군을 보내게 하고, 자신은 직접 오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가벼운 활과 짧은 화살을 챙겨 호연작의 안내를 받기로 했다.

밤 이경(二更, 밤 9시~11시 사이)에 출발하여 삼경(三更, 밤 11시~새벽 1시 사이) 무렵, 그들은 곧장 송강의 진영으로 달려갔다. 대포 소리를 신호로 삼아 안팎에서 협공하며 일제히 진격했다.

그날 밤 달빛이 대낮처럼 밝았다. 황혼 무렵에 이미 갑옷을 다 갖춰 입고, 말에는 방울을 떼었으며, 사람은 가벼운 전포를 걸치고, 병졸들은 재갈을 문 채 빠르게 달려 일제히 말에 올랐다. 호연작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산길을 돌아 약 반 경(更, 한 시간 가까이)쯤 갔을 때, 앞쪽에서 길목을 지키던 삼사십에서 오십 명가량의 매복 초병들과 마주쳤다. 초병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

다. '오시는 분이 호 장군님이 아니십니까? 송공명께서 저희더러 여기서 맞이하라 하셨습니다.'

호연작이 호통쳤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 말 뒤를 따라오너라!'

호연작이 말을 몰아 앞서 나가고, 관승이 말을 타고 그 뒤를 따랐다. 다시 산모퉁이를 하나 돌자, 호연작이 창끝으로 멀리 있는 붉은 등불 하나를 가리켰다. 관승이 말 고삐를 당겨 멈춰 서서 물었다. '저 붉은 등불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호연작이 대답했다. '저곳이 바로 송공명의 중군입니다.'

관승이 급히 인마를 재촉하여 붉은 등불에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대포 소리가 한 번 울렸다. 군사들이 관승을 따라 앞으로 돌격해 나아갔다. 그러나 붉은 등불 아래에 이르러 보니 아무도 없었고, 호연작을 불러도 그 역시 자취를 감춘 뒤였다.

관승은 크게 놀라 계략에 빠졌음을 알고 황급히 말머리를 돌렸다. 그 순간 사방의 산 위에서 일제히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혼비백산한 군사들은 갈 길을 가리지 못한 채 각자 살길을 찾아 도망쳤다. 관승이 서둘러 말을 돌릴 때, 곁에는 겨우 몇 기의 기병만이 남아 따르고 있었다. 산모퉁이를 막 벗어나자, 숲가 등 뒤에서 대포 소리가 한 번 더 울렸다. 그러더니 사방에서 갈고리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관승을 안장에서 끌어내리고, 칼과 말을 빼앗고 갑옷을 벗긴 뒤, 앞뒤에서 밀치고 몰아 양산박 대채(大寨)로 끌고 갔다.

한편, 임충과 화영은 한 갈래의 군마를 이끌고 나아가 학사문을 가로막고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 멀리 보이는 학사문의 차림새는 어떠했는가? 서강월(西江月) 한 수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구름을 찌르는 천 길 호방한 기상에,
온몸 근골마다 서린 굳센 정신.
창을 비껴들고 말을 달려 싸움 먼지를 일으키니,
천하의 영웅도 감히 가까이 못 오네.
몸에는 비단으로 수놓은 전포를 입고,
칠성갑(七星甲)에는 용 비늘이 달렸네.
하늘의 천정(天丁)이 본래 학사문이라,
말을 박차고 앞장서 진을 나서네.

임충이 크게 호통을 쳤다. "너희 주장인 관승이 계략에 빠져 사로잡혔다! 이름도 모를 애송이 장수는 어찌하여 말에서 내려 항복하지 않느냐?"

학사문은 크게 분노하여 곧장 임충을 공격했다. 두 말이 마주치며 수없이 합을 겨루는 동안, 화영이 창을 들고 나서서 싸움을 도왔다. 학사문은 기세가 꺾이자 즉시 말머리를 돌려 도망치려 했다. 그때 옆구리 쪽에서 '일장청' 호삼랑이라는 여장수가 튀어나와 붉은 솜올로 만든 올가미를 던져 학사문을 말 아래로 끌어내렸다. 뒤따르던 보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붙잡아 양산박 대채로 압송했다.

이야기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한편, 이곳에서는 진명과 손립이 한 갈래의 군마를 이끌고 선찬을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마침 그와 맞닥뜨렸다. 그 선찬의 차림새는 어떠했는가? 서강월(西江月) 한 수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짧게 말린 노란 수염 머리카락에,
움푹 패인 검은 먹빛 얼굴이라.
두 눈을 뜨니 고리 두 개 같고,
콧구멍은 하늘을 향해 솟았구나.
손에 든 강철 칼은 눈부시게 빛나고,
몸에 두른 갑옷은 쇠사슬로 이어졌네.
붉은 말 타고 비단 안장 얹으니,
군마의 영웅이 그 위용을 떨치네.

그때 선찬이 말을 박차며 크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비천한 도적놈들아! 나를 막아서는 자는 죽고, 피하는 자는 살 것이다!' 진명이 크게 분노하여 말을 뛰어오르며 낭아봉을 휘둘러 곧장 선찬을 공격했다. 두 말이 맞부딪쳐 몇 합을 겨루었다. 손립이 옆에서 들이닥치자 당황한 선찬의 도법이 옛 격식을 잃었고, 결국 진명의 곤봉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졌다. 삼군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다.

한편, '박천조' 이응이 크고 작은 군병을 거느리고 관승의 진영으로 급히 달려가, 먼저 사로잡혀 있던 장횡과 완소칠, 그리고 붙잡힌 수군들을 구해냈다. 이어 모든 군량과 마필을 탈취한 뒤, 사방으로 흩어져 패퇴하던 잔병들을 불러 모아 귀순을 권했다. 송강이 무리를 모아 산으

로 오르니, 이때 동쪽 하늘이 차츰 밝아오고 있었다. 충의당에 자리를 나누어 앉자, 어느새 사로잡힌 관승, 선찬, 학사문이 각각 압송되어 왔다.

송강은 그들을 보자마자 황급히 당에서 내려와 군졸들을 물리고 직접 포박을 풀어 주었다. 그리고 관승을 부축해 한가운데 교의에 앉힌 뒤,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이마를 땅에 대며 죄를 청해 말했다. '목숨을 내건 미친 무리가 장군의 위엄을 범하였으니, 부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관승은 황급히 답례하였으나 입을 다문 채 말이 없고 손발 둘 바를 몰랐다. 호연작 또한 앞으로 나아와 죄를 청하며 말했다. '소인이 장령(將令)을 받았으니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디 거짓으로 속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승이 여러 두령들을 둘러보니 의기가 매우 깊은지라, 선찬과 학사문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가 이곳에 사로잡혔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두 사람이 대답했다. '오로지 장군의 명에 따르겠습니다.' 관승이 말했다. '얼굴을 들고 도성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우리 세 사람은 차라리 어서 죽기를 바라오!'

송강이 말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장군께서 이 미천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함께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실 것이요, 만약 원치 않으신다면 억지로 붙들지 않고 지금 곧 도성으로 돌려보내 드리겠습니다.'

관승이 말했다. '사람들이 충의로운 송공명이라 일컫는 것이 빈말이 아니었구려. 오늘 우리는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고 나라가 있어도

의탁할 곳이 없으니, 장군의 휘하에서 한낱 졸병으로라도 남기를 바라오.' 송강은 크게 기뻐했다. 그날 한편으로 잔치를 베풀어 경하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람을 보내 도망친 패잔병들을 불러 모으니 또 오륙천에서 칠천의 인마를 얻었다. 군중에 늙은이와 어린이가 있으면 즉시 은자를 나누어 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또 한편으로 설영(薛永)을 보내 편지를 지니고 포동(蒲東)으로 가 관승의 가솔을 데려오게 하였으니, 이는 더 말하지 않는다.

송강이 한창 연회를 즐기던 중, 문득 노준의와 석수가 북경(대명부)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그러자 오용이 말했다.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오용에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다시 군사를 일으켜 북경을 치러 갈 터이니,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관승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으니, 소장이 앞장서서 선봉을 맡고 싶습니다." 송강은 크게 기뻐했다. 다음 날 아침, 명령을 내려 선찬과 학사문에게 원래 거느리던 군마를 다시 나누어 주게 한 뒤, 그들을 앞장세워 선봉으로 삼았다. 그 외에도 북경을 공격하려던 나머지 장수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합류했다. 이어 이준과 장순에게 수군용 갑옷과 장비를 챙겨 따르게 한 뒤, 차례로 북경을 향해 진격했다.

한편, 양중서가 성안에서 (회복한) 소초와 함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며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다. 마침 탐마(探馬, 정찰병)가 달려와 보고했다. "관승과 선찬, 학사문이 군사들과 함께 모두 송강에게 잡혀 양산박에 합류하였습니다. 양산박의 군마들이 지금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양중서는 이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 멍하니 정신을 놓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소초가 나아가 말했다. "지난번에는 도적이 쏜 암전(冷箭, 기습 화살)에 맞았으니, 이번에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습니다." 양중서는 즉시 소초에게 상을 내리고, 본부 병력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게 했다. 이성과 문달도 뒤따라 군사를 움직여 지원하기로 했다. 때는 한겨울이라 날씨가 매우 추웠고, 연일 먹구름이 빽빽하게 뒤덮인 데다 북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송강의 군사가 도착하자 소초는 비호유 아래에 진을 쳤고, 이튿날 병사를 이끌고 적을 맞으러 나갔다. 송강은 전부인 여방과 곽성을 데리고 높은 언덕에 올라 관승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북소리가 세 번 울리자 관승이 진영을 나섰다. 맞은편에서 소초가 말을 타고 나왔는데, 당시 소초는 관승을 알아보지 못했다. 따라온 군졸이 말했다. "저자가 바로 새로 배반하고 돌아온 대도 관승입니다." 소초는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대꾸도 없이 곧장 관승을 향해 달려들었다. 관승 역시 말을 박차고 칼을 휘두르며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이 열 합도 채 되지 않아 싸우고 있을 때, 중군에 있던 이성이 소초의 도끼질이 위축되어 관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직접 쌍도를 휘두르며 진영에서 나와 관승을 협공했다. 이때 선찬과 학사문이 이를 보고 각자 병기를 들고 달려와 싸움을 도왔으니, 다섯 기의 말이 한데 뒤섞여 난전이 벌어졌다. 높은 언덕에서 이를 지켜보던 송강이 채찍 끝으로 한 곳을 가리키자, 대군이 물결치듯 몰아치며 공격했다. 이성의 군사는 대패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밤을 틈타 성안으로 도망쳐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다. 송강은 군사를 재촉하여 성 바로 아래까지 진격해 진을 쳤다. 이튿날, 소초가 직접 군사 한 부대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 충돌했다. 오용은 이를 보고 군교들에게 거짓으로 맞서 싸우게 하며 명령했다. "적이 쫓아오

면 그 기세를 이용해 즉시 퇴각하라." 소초는 이번에도 한 차례 승기를 잡자 기뻐하며 성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은 먹구름이 사방을 뒤덮더니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오용은 이미 계책을 세워두고 몰래 보병을 보내 북경성 밖 산기슭의 좁은 물길 근처에 함정을 파게 한 뒤, 그 위를 흙으로 덮어 놓게 했다. 밤새 눈보라와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눈이 두 자(약 60cm) 정도는 쌓여 있었다. 성 위에서 송강의 군마를 내려다보던 수비병들은 저마다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하여 동서로 갈팡질팡하며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를 본 소초가 즉시 군사 삼백 명을 뽑아 성 밖으로 추격해 나갔다. 송강의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이때 수군 두령인 이준과 장순이 연전갑(軟戰, 충격을 흡수하는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채 말을 달려 적을 맞으러 나왔다. 그들이 소초와 맞붙는 듯하더니, 갑자기 창을 버리고 달아나며 소초를 함정이 파인 곳으로 유인했다. 소초는 성미가 급한 데다 앞뒤를 살필 겨를이 없었다. 한쪽은 길이고 다른 한쪽은 골짜기(개울)였다. 이준은 말을 버리고 골짜기 물속으로 뛰어들며 앞을 향해 외쳤다. "송공명 형님, 어서 피하십시오!" 소초는 그 소리를 듣자 앞뒤 가릴 것 없이 말을 몰아 진영을 뚫고 달려들었다. 그 순간 산 너머에서 포성 한 발이 울려 퍼졌고, 소초는 말과 함께 함정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뒤에 숨어 있던 복병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이 상황이라면 소초가 아무리 신통방통한 재주를 부린다 한들, 온몸에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었다.

시로 이르되, 은빛 덮개 깊이 숨겨 덫을 놓고, 부서진 옥 가루 평평히 깔아 함정을 만들었네.

급선봉 소초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결국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5회 — 탑을 든 천왕이 꿈속에 나타나 성스럽게 보이고, 낭리백 조수가 물 위에서 원한을 갚다

托塔天王夢中顯聖 浪裏白條水上報冤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의 군대에서는 이번 대설을 틈타 오용이 낸 계책대로 눈 속에서 소초를 사로잡았다.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성안으로 도망쳐 소초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했다. 양 중서(梁中書)는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려 장수들에게 성을 굳게 지키기만 하고 절대로 싸우러 나가지 말라고 일렀다. 노준의와 석수를 죽이고 싶었으나, 자칫 송강을 자극했다가는 조정에 구원병이 급히 오지 못해 화가 더 빨리 닥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둔 채 다시 조정에 보고하여 채 태사의 처분을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송강은 진영으로 돌아와 중군 장막에 앉았다. 일찍이 복병이 소초를 압송해 와 송강의 휘하에 데려다 놓았다. 송강은 소초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군사들을 물러나게 했다. 그러고는 직접 소초의 포박을 풀어 장막 안으로 정중히 모신 뒤, 술을 대접하며 다정한 말로 달랬다.

"우리 형제들을 보시오. 절반 이상이 조정의 관리들이었소. 조정이 밝지 못해 탐관오리들이 득세하고 부패한 관리가 권력을 휘두르며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히니, 모두가 송강을 도와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오. 만약 장군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면, 함께 충의를 바탕으로 뜻을 같이해 주시오."

양지가 앞으로 나서서 다시 한번 예의를 갖추어 정성껏 권했다. 소초는 본래 천강성의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송강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항복했다. 그날 밤, 장막에서는 축하 잔치가 벌어졌다.

다음 날, 성을 공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며칠 동안 연달아 공격했으나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송강은 근심과 답답함에 휩싸였다. 그날 밤, 장막 안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쌩쌩 불며 한기가 엄습했다. 송강이 고개를 들어 보니, 탁탑천왕 조개가 나아가려다 말고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아우야, 네가 돌아가지 않으면 대체 언제 돌아가려느냐?"

송강은 깜짝 놀라 급히 몸을 일으켜 물었다.

"형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억울하게 죽은 원수를 갚지 못하니 마음이 밤낮으로 불안합니다. 그동안 제사를 지내 드리지 못했는데, 이렇

게 영험함을 보이시는 것을 보니 필시 저를 꾸짖으려는 것이 아닙니까?"

조개가 말했다.

"그 때문이 아니다. 아우야, 뒤로 물러나거라. 양기가 너무 강해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없구나. 내가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리러 왔다. 네게 백일 동안 피를 볼 재앙이 닥칠 것이니, 강남의 지령성(地靈星)을 만나야만 고칠 수 있다. 어서 군사를 거두는 것이 상책이다."

송강이 더 자세히 물으려고 앞으로 달려들며 말했다.

"형님, 음혼이 여기까지 오셨으니 부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순간 조개가 송강을 한 번 밀치더니, 송강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 알고 보니 꿈이었다. 송강은 즉시 하급 군사를 불러 군사인 오용을 불러 꿈 내용을 들려달라 했다. 오용이 중군 장막에 도착하자 송강이 그 기이한 일을 이야기했다. 오용이 말했다.

"조개 천왕께서 신령스럽게 나타나셨으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몹시 추워 군사들이 오래 머물기 어려우니, 우선 산으로 돌아갑시다. 겨울이 다 가고 봄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이 녹고 얼음이 풀리면 그때 다시 성을 공격해도 늦지 않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군사의 말이 매우 옳소. 다만 노원외와 석수 형제가 포박당한 채 하루가 일 년 같을 것이니, 우리 형제들이 구하러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

리고 있을 것이오.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저놈들이 그들의 목숨을 해칠까 두렵구려.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진퇴양난이오."

계책을 정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이 되었다. 송강은 정신이 몽롱하고 몸이 쑤시고 아프며, 머리는 도끼로 찍는 듯하고 몸은 찜통에 찌는 듯한 통증을 느껴 누운 채 일어나지 못했다. 여러 두령이 모두 송강의 앞으로 와서 살피니, 송강이 말했다.

"등 쪽이 너무 뜨겁고 아프구나."

사람들이 살펴보니 등이 마치 달군 무쇠판처럼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오용이 말했다.

"이 병은 옹(癰) 아니면 저(疽)입니다. 제가 의서를 보니 녹두 가루가 심장을 보호하여 독기가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니, 이를 사다가 형님께 드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용이 사람을 시켜 약을 구해 치료하게 했으나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때 '낭리백조' 장순이 말했다.

"예전에 제가 심양강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등 병을 얻어 온갖 약을 써도 낫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건강부의 안도전을 모셔왔더니 단번에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돈이 생길 때마다 사람을 시켜 그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지금 형님의 병세를 보니, 동쪽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해 급히 오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형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그를 청해 오겠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형님께서 꿈속에서 조개 천왕님께 '백일 동안 재앙이 닥칠 것이나, 강남의 지령성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니, 혹시 이 사람이 바로 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아우야, 만약 네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면 지체 말고 어서 나를 위해 가다오. 사양할 것 없이 오직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밤낮을 가리지 말고 달려가 그를 청해 내 목숨을 구해주길 바란다."

오용은 즉시 황금 백 냥을 내어 의원에게 주고, 은 스무남은 냥 정도를 여비로 챙겨 장순에게 분부했다.

"지금 즉시 떠나거라.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그를 데리고 와야 하며, 절대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 진영을 거두어 산으로 돌아갈 터이니, 산채에서 그와 함께 만나자. 아우는 서둘러 빨리 와야 한다."

장순은 사람들과 작별하고 봇짐을 멘 채 앞을 향해 떠나갔다.

한편, 군사 오용이 장수들에게 명을 전했다.

"잠시 군사를 거두고 전투를 멈춘 뒤 산으로 돌아가자."

수레에는 송강을 태운 채 밤을 도와 길을 떠났다. 북경 성 안에서는 이미 매복 작전이 펼쳐졌던 터라, 적들은 그저 송강이 자신들을 유인하

는 것이라 짐작할 뿐 감히 뒤쫓아오지 못했다. 다음 날, 양 중서가 보고를 받고 말했다.

"이번에 물러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군."

이성과 문달이 말했다.

"오용 그놈은 궤계가 매우 많으니, 그저 성을 굳건히 지킬 뿐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는 양갈래로 나뉜다. 장순은 송강을 구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길을 재촉했다. 마침 겨울이 다 가고 비 대신 눈이 내리는 시기라 길은 매우 험난했다. 게다가 서두르느라 비옷조차 챙기지 못했다. 열흘 남짓을 걸어 양자강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이날은 북풍이 거세게 불고 얼어붙은 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눈이 흩날리며 큰 눈이 쏟아졌다. 장순은 눈보라를 뚫고 큰 강을 건너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아갔다. 풍경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강 안의 정취는 또 다른 맛이 있어 '서강월'이라는 시로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시 생략)

얼어붙은 구름 사이 외로운 기러기 울고,
마른 나무 위엔 차가운 까마귀 맴도네.
공중에 내리는 눈은 배꽃 같아서,
조각조각 흩날리며 어지러이 뿌려지네.
다리 곁엔 술집 깃발이 옥처럼 빛나고,

나루터엔 은빛 배들이 펼쳐져 있구나.
앞 마을엔 서너 집이 아스라이 보이니,
저녁 강 풍경은 한 폭 그림 같아라.

장순은 홀로 양자강가에 도착했으나, 건너줄 나룻배가 한 척도 보이지 않자 그저 탄식할 뿐이었다. 강가를 둘러보며 걷다 보니, 부러진 갈대와 꺾인 蘆葦(노위, 갈대)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장순이 외쳤다.

"사공! 어서 나룻배를 가져와 나를 태워 주시오!"

그러자 갈대숲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대나무 모자를 쓰고 도롱이를 걸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가 물었다.

"손님, 어디로 가십니까?"

장순이 대답했다.

"강을 건너 건강부로 가야 하는데, 일이 매우 급하오. 배삯을 넉넉히 줄 테니 나를 좀 태워 주시오."

사공이 말했다.

"태워 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오늘 너무 늦어서 지금 강을 건너면 쉴 곳이 없습니다. 우선 제 배에서 쉬고 계시다가, 사경(새벽 1시~3시 사이)쯤 되어 바람이 잦아들고 달빛이 밝아지면 건너가도록 합시다. 대신 배삯을 좀 더 얹어 주셔야 합니다."

장순이 말했다.

"그게 좋겠구려."

그러고는 사공을 따라 갈대숲 안으로 들어갔다. 물가에 작은 배 한 척이 밧줄에 묶여 있었는데, 멍석 아래에서 마른 체격의 젊은 사내가 불을 쬐고 있었다. 사공은 장순을 부축해 배에 태운 뒤 선실 안으로 안내했다. 장순은 젖은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는 그 젊은 사내에게 불에 말리라고 일렀다. 장순은 스스로 봇짐을 풀어 솜이불을 꺼내 몸과 함께 선실 안에 눕고는 사공에게 말했다.

"여기 파는 술이 있소? 좀 사서 마시면 좋겠는데."

사공이 대답했다.

"술은 없지만, 배가 고프시면 밥 한 그릇은 드실 수 있습니다."

장순은 밥 한 그릇을 먹고는 그대로 머리를 뉘었다. 연일 이어진 고된 여로에 지친 데다 몸이 너무 피곤했던 터라, 초경(저녁 7시~9시 사이)쯤 되어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숯불 앞에 앉아 겉옷을 말리던 젊은 사내는 장순이 잠든 것을 보고 사공에게 말했다.

"형님, 저것 좀 보십시오."

사공이 다가와 장순의 머리맡을 슬쩍 만져보니 금은보화가 든 것이 느껴졌다. 사공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너는 가서 배를 떼어라. 강 한복판에 가서 손을 써도 늦지 않다."

젊은 사내는 멍석을 밀치고 땅으로 뛰어 내려가 밧줄을 풀었다. 그러고는 배에 올라 장대로 배를 밀어 강 한복판으로 나아갔다. 사공은 선실 안에서 밧줄을 가져와 장순을 한데 묶어버린 뒤, 배 앞머리 판자 밑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그제야 잠에서 깬 장순은 두 손이 묶여 몸부림을 쳐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사공이 큰 칼을 쥐고 장순을 내리누르자, 장순이 말했다.

"호걸님, 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금을 다 드리겠습니다!"

사공이 말했다.

"금도 갖고 싶고, 네 목숨도 갖고 싶구나."

장순이 연신 소리쳤다.

"차라리 나를 단번에 죽여주시오! 그래야 원혼이 되어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 아니오!"

사공은 칼을 내려놓더니 장순을 물속으로 퍽 하고 던져버렸다.

사공은 봇짐을 풀어 안을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다. 사공은 그 재물을 젊은 사내와 나눌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그를 불러 말했다.

"오 형제, 이리 좀 와 보게."

젊은 사내가 선실 안으로 기어 들어오자, 사공은 한 손으로 그를 낚아채더니 단칼에 난도질하여 동강을 내고는 그를 물속으로 밀어 던져

버렸다. 사공은 배 안에 남은 혈흔을 깨끗이 닦아낸 뒤, 홀로 배를 저어 떠나갔다.

한편, 장순은 물밑에서 사흘 밤낮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갑자기 물에 빠졌으나 강바닥에서 밧줄을 물어 끊고 헤엄쳐 남쪽 기슭으로 건너갔는데, 숲속에서 은은한 등불 빛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장순이 기슭으로 기어 올라가 몸이 온통 물에 젖은 채 숲 안쪽을 살펴보니, 그곳은 마을의 주막이었다. 한밤중에 술을 빚느라 벽 틈 사이로 등불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장순이 문을 두드리며 불러 세우자, 한 노인이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다. 노인이 물었다.

"혹시 강에서 강도를 만나 목숨을 구하려고 물로 뛰어든 것이오?"

장순이 대답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지요, 어르신. 소인은 건강부로 일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너무 늦어 강 건너편에서 배를 찾던 중, 뜻밖에도 흉악한 놈들을 만나 입고 있던 옷과 금은보화를 모조리 빼앗기고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다행히 헤엄을 칠 줄 알아 목숨만은 건졌으니, 어르신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장순을 뒷방으로 데려가 수건을 건네주어 젖은 옷을 말리게 하고, 따뜻한 술을 데워 대접했다. 노인이 물었다.

"이보게, 성이 무엇인가? 산둥 사람인데 이곳에는 무슨 일로 왔는가?"

장순이 말했다.

"소인은 장 씨라고 합니다. 건강부의 안도전 의원이 제 형제와 다름없는 사이라, 그를 보러 특별히 찾아온 것입니다."

노인이 다시 물었다.

"산둥에서 왔다면 혹시 양산박을 지나온 적이 있는가?"

장순이 대답했다.

"마침 그곳을 지나온 참입니다."

노인이 말했다.

"그곳의 송두령은 지나가는 손님을 해치지도 않고 사람의 목숨을 죽이지도 않네. 그저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할 뿐이지."

장순이 말했다.

"송두령께서는 오로지 충의를 바탕으로 하기에 선량한 백성을 해치지 않으시고, 오직 부패한 관리들만을 꾸짖으십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다.

"내 듣기로 송강 그 무리는 인의가 넘쳐서 가난한 자를 돕고 노인을 구제한다더군. 어찌 이곳의 도적떼와 같겠나? 만약 그들이 이곳에 온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즐겁겠는가. 저 더러운 관리 놈들에게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장순은 그 말을 듣고는 말했다.

"어르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소인이 바로 '낭리백조' 장순입니다. 저희 송공명 형님의 등에 종기가 심해져서, 제가 황금 백 냥을 가지고 안도전을 모셔 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심하여 배 위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저 두 도적 놈에게 두 손이 묶인 채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밧줄을 물어 끊고 이곳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노인이 말했다.

"자네가 그곳의 호걸이라면 내 아들을 불러 대접하겠네."

잠시 후, 뒷방에서 한 젊은 사내가 걸어 나왔다. 그는 장순을 보자마자 절을 하며 말했다.

"소인이 형님의 대명성은 익히 들었으나, 인연이 닿지 않아 뵙지 못했습니다. 소인은 성이 왕이고 여섯째입니다. 발이 빨라 사람들은 저를 '활섬파' 왕정륙이라 부릅니다. 평생 물 위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일을 좋아해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으나 제대로 전수받지 못하고, 지금은 강가에서 술을 팔며 살고 있습니다. 아까 형님을 해친 두 놈은 저도 잘 압니다. 하나는 '절강귀' 장왕이고, 그 마른 사내는 화정현 사람인데 '유리추' 손오라고 불리는 놈입니다. 그 두 놈은 늘 이 강에서 사람을 겁탈하곤 합니다. 형님, 안심하십시오. 여기서 며칠 머무시다가 그놈들이 술을 마시러 오면 제가 반드시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순이 말했다.

"아우의 호의에 감사하오. 나는 우리 송공명 형님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진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라오. 날이 밝는 대로 성안에 들어가 안도전 의원을 모시고 돌아와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왕정륙은 자신의 옷을 모두 내어 장순과 갈아입게 하고, 정성껏 술을 차려 대접했다. 이튿날, 날이 개고 눈이 녹자 장순에게 은 십여 냥을 쥐여주며 건강부로 떠나보냈다.

장순은 성안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괴교 아래로 향했다. 그곳에 가보니 안도전이 마침 문 앞에서 약재를 팔고 있었다. 장순은 안도전의 집으로 들어가 그를 보자마자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렸다. 이때 안도전의 훌륭함을 찬양하는 시가 한 수 있어 이를 적어 두었으니 다음과 같다.

비방 백 편이 주머니 속에 가득하니,
금침과 옥칼날은 스승에게 전수받았네.
다시 살려내는 편작에는 미치기 어렵겠으나,
만 리까지 이름 떨친 이는 안도전이라네.

안도전의 가문은 대대로 내과와 외과를 모두 전수받아 무엇이든 고쳐낼 수 있었는데, 그 명성이 멀리까지 자자했다. 안도전은 장순을 보고는 이렇게 물었다.

"아우님, 수년 만에 뵙는데 어찌 이 먼 곳까지 오셨소?"

장순은 안도전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강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과 송강이 양산박에 오르게 된 사정 등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이어 송강이 등에 생긴 종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특별히 신의를 모셔 오려 했다는 사실과, 양자강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바람에 빈손으로 오게 되었다는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러자 안도전이 말했다.

"송공명 형님으로 말하자면 천하의 의로운 호걸(義士)이시니, 한 번 찾아뵙는 것이 가장 좋겠소. 다만 제 아내가 죽고 집에 남은 친척이 아무도 없어, 멀리 떠나기가 어렵구려."

장순이 간곡히 청했다.

"만약 우리 형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저 장순 또한 산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안도전이 대답했다.

"다시 의논해 봅시다."

장순이 백방으로 애원한 끝에야 안도전은 마침내 승낙했다. 알고 보니 안도전은 건강부의 이교노라는 기녀와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있었다. 이교노는 미모가 매우 뛰어났기에 안도전이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었는데, 이를 증명하는 시가 있어 다음과 같다.

향기로운 성품은 온화하고 더욱 성숙해졌으며,
옥병에 담긴 밝은 달처럼 맑음이 눈부시구나.
흔들리는 보석 비녀 꽂고 봄을 찾아 떠나니,
물결 위 이슬 젖으며 달빛을 띠고 걷는구나.
붉은 얼굴 꽃받침처럼 화사하게 웃음 짓고,
거문고 노래 끝나니 채운도 머물러 멈추네.
부디 마음속에 늘 서로를 기억하기를 바라니,
장안의 떠돌이 사랑처럼 가볍게 잊지 마오.

그날 밤, 안도전은 장순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술상을 차려 대접했다. 이교노는 장순을 숙부라 부르며 깍듯이 대했다. 술을 몇 잔씩 나누다 보니 어느덧 기분 좋게 취기가 올랐다. 안도전이 이교노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이 아우와 함께 산동 땅으로 한 번 다녀오겠소. 길어야 한 달, 짧아도 스무 날 남짓이면 다시 당신을 보러 돌아올 것이오."

그러자 이교노가 말했다.

"난 당신이 가는 게 싫어요.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다시는 내 문턱을 넘지 마세요!"

안도전이 달랬다.

"약주머니는 이미 다 챙겨 두었으니,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떠날 수 있소. 그러니 마음 놓으시오. 다녀오기만 할 뿐, 당신을 잊거나 늦게 오는 일은 없을 것이오."

이교노는 애교를 부리며 안도전의 품에 안겨 말했다.

"정말 내 말을 듣지 않고 가버린다면, 당신 몸이 조각조각 흩어지도록 저주를 내릴 거예요!"

장순은 이 말을 듣고는 저 여편네를 물로 확 씻어 삼켜버리고 싶을 만큼 기가 막혔다. 날이 저물자 안도전은 술에 취해 쓰러졌고, 장순은 그를 부축해 이교노의 방으로 데려가 침상에 눕혔다. 그러자 이교노가 장순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우리 집에는 당신이 잘 곳이 없답니다."

장순이 대답했다.

"형님께서 술이 깨면 함께 떠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순이 이렇게 말하며 붙잡는 바람에 그는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문 앞의 작은 방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장순은 마음속이 근심으로 타들어 가니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초경(初更, 저녁 7시~9시 사이) 무렵,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장순이 벽틈으로 살피니, 한 사람이 잽싸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기생어미인 노파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였다. 노파가 물었다.

"여태껏 오지 않더니 대체 어디 있었소? 오늘 밤은 태의(太醫, 안도전)가 방에서 취해 쓰러져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그 사람이 말했다.

"여기 금 열 냥을 가져왔으니, 누님께서 이 돈으로 비녀나 몇 개 맞추시오. 어머님께서 어떻게든 방편을 마련하시어, 그 아이(이교노)와 내가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구려."

노파가 대답했다.

"그럼 내 방에 머물고 계시오. 내 딸을 불러오리다."

장순이 등불 빛 아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바로 '절강귀(截江鬼)' 장왕이었다. 알고 보니 이놈은 강에서 재물을 좀 얻으면 곧장 이 집으로 와서 그 돈을 쓰곤 했다. 장순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참을 수 없었다. 더 자세히 들어보니, 노파는 방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이교노에게 장왕을 수발들게 하려 하고 있었다. 장순은 당장이라도 들이닥쳐 그놈을 잡고 싶었으나, 일을 그르쳐 그 도적놈을 놓칠까 두려워 일단 참고 기다렸다.

삼경(三更, 밤 11시~새벽 1시 사이)쯤 되자, 주방의 하인 둘도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노파 역시 등불 앞에서 취한 눈을 끔뻑이며 졸고 있었다. 장순은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주방으로 다가가니, 부엌칼 하나가 아궁이 위에 번뜩이며 놓여 있었다. 노파는 옆에 있는 의자에 쓰러져 있었다. 장순은 안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집어 들고 먼저 노파를 죽였다. 하인들을 죽이려 했으나 부엌칼이 그리 날카롭지 않아, 한 명을

베자마자 칼날이 이미 뭉툭하게 말려버렸다. 그 두 사람이 비명을 지르려 하자, 마침 곁에 있던 장작 패는 도끼를 집어 들어, 한 번에 한 명씩 도끼로 내리쳐 죽여버렸다. 방 안에 있던 여인(이교노)이 그 소리를 듣고 황급히 문을 열고 나왔다가 장순과 마주치자, 장순은 도끼를 들어 그녀의 가슴을 내리쳐 쓰러뜨렸다. 장왕은 등불 빛 아래서 여인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는 뒷창문을 밀어젖히고 담을 넘어 달아났다. 장순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여, 즉시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피를 묻힌 뒤 흰 벽에 써 내려갔다.

"사람을 죽인 자는 안도전이다!"

그는 이 글을 수십 군데에 써 놓았다.

오경(五更, 새벽 3시~5시 사이)이 되어 날이 밝아올 무렵, 방 안에서 술이 깬 안도전이 이교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장순이 말했다.

"형님, 아무 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도전이 일어나 보니 시체 네 구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겁에 질려 온몸이 마비된 듯 부르르 떨었다. 장순이 다시 말했다.

"형님, 벽에 써 놓은 글이 보이십니까?"

안도전이 울먹이며 말했다.

"자네가 나를 죽이려 드는구먼!"

장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형님께는 두 가지 길뿐입니다. 만약 소란을 피우면 저는 당장 달아나겠지만, 형님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무사히 넘어가고 싶다면, 집에서 약주머니를 챙겨 밤을 도와 곧장 양산박으로 달려가 우리 송강 형님을 구하십시오. 이 두 길 중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도전이 탄식하며 말했다.

"아우님, 어찌 이리도 앞뒤 가리지 않고 무모한가!"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분칠한 여인들은 무정하게 돈만 사랑하니, 떠나가는 길에 어찌하여 더 머뭇거리는가.
원통한 넋은 양대(陽臺)의 꿈속으로 가지 못하니, 미련한 안도전이 가소로워 웃음이 나는구나.

날이 밝자 장순은 여비를 챙겨 안도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문을 두드려 열고 들어가 약주머니를 챙겨 나온 뒤, 성을 나와 곧장 왕정육의 주점으로 향했다. 왕정육이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어제 장왕이 이곳을 지나갔는데, 아쉽게도 형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장순이 대답했다.

"나는 큰일을 도모해야 하니, 사소한 원수는 나중에 갚을 것이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정육이 알렸다.

"장왕 그놈이 옵니다!"

장순이 말했다.

"놀라게 하지 말고, 그놈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봅시다."

보니 장왕이 여울목으로 가서 배를 살피고 있었다. 왕정육이 소리쳤다.

"장 형님! 배를 좀 세워 주시오. 내 친척 두 명을 태워 건너가야겠소!"

장왕이 대답했다.

"배를 빨리 몰아 오시오!"

왕정육이 이 말을 장순에게 전했다. 장순이 안도전에게 말했다.

"안 형님, 옷을 좀 빌려 주십시오. 제 옷은 형님께 드리고, 저는 형님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배를 가로채러 가겠습니다."

안도전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장순이 말했다.

"다 계획이 있으니 형님께서는 묻지 마십시오."

안도전이 옷을 벗어 장순과 갈아입었다. 장순은 머리건을 쓰고 삿갓을 눌러써 얼굴을 가렸다. 왕정육은 약주머니를 등에 메고 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장왕이 배를 기슭에 대자 세 사람이 배에 올라탔다. 장순은 배 뒷부분으로 기어 들어가 선미 판자를 들어 올렸는데, 다행히 칼이 그대로 있었다. 장순은 칼을 챙긴 뒤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갔다. 장왕이 노를 저어 배를 떼어내니, 끼익거리는 소리가 나며 배는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장순은 선실 덮개를 벗어 던지며 외쳤다.

"사공, 어서 이리 와 보시오! 선실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소!"

장왕은 계략인 줄도 모르고 머리를 선실 안으로 들이밀었다. 장순은 기다렸다는 듯 그놈을 덥석 움켜쥐며 호통쳤다.

"이 강도 놈아, 엊그제 눈 오는 날 이 배를 탔던 손님을 알아보겠느냐!"

장왕은 그 모습을 보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장순이 다시 꾸짖었다.

"네놈이 내 황금 백 냥을 가로채고 내 목숨까지 해치려 했지! 그 마른 청년은 어디로 갔느냐?"

장왕이 떨며 말했다.

"형님, 소인이 재물을 얻고 나니 그놈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비가 붙을까 두려워 죽여서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장순이 물었다.

"나를 알아보겠느냐?"

장왕이 대답했다.

"대협을 몰라뵙고 죄를 지었으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장순이 호통을 쳤다.

"나는 심양강(潯陽江) 가에서 태어나 소고산 아래서 자라며 물고기를 팔던 놈이다! 누가 나를 모르겠느냐! 강주에서 소란을 피운 뒤 양산박으로 올라가 송강 형님을 모시며 천하를 종횡하니, 누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네놈은 나를 배에서 끌어내려 양손을 묶고 강 한가운데로 던지지 않았느냐. 내가 물에 능하지 못했다면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오늘 원수를 만났으니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장순은 그대로 장왕을 끌어당겨 선실 안에 가두고, 손발을 밧줄로 꽁꽁 묶어 하나로 뭉쳐놓았다. 그러고는 저 넓은 양자강 아래로 그대로 던져버렸다!

"이로써 칼질 한 번은 면하게 해주마!"

장왕의 목숨은 황혼이 지기 전에 귀신이 될 처지가 되었다. 이를 본 왕정육은 탄식하며 안타까워했다. 장순은 배 안을 뒤져 엊그제 빼앗겼던 금괴와 은전들을 모두 찾아내 꾸러미에 챙겼다. 세 사람은 배를 저어 기슭에 닿았다. 장순이 왕정육에게 말했다.

"아우님의 은혜는 생사를 같이해도 잊지 못할 것이오. 만약 나를 버리지 않겠다면, 부친과 함께 주점을 정리하여 양산박으로 오시오. 함께 대의를 따르자는 말이오. 아우의 생각은 어떠하오?"

왕정육이 대답했다.

"형님의 말씀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

말을 마친 뒤 헤어지기로 하고, 장순과 안도전은 북쪽 기슭을 따라 길을 떠났다. 왕정육은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작은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짐을 꾸려 양산박으로 달려가기로 했다.

한편, 장순과 안도전은 북쪽 기슭에 올라 약주머니를 등에 메고 곧장 길을 떠났다. 안도전은 글이나 읽는 선비라 걷는 데 익숙하지 않아, 서른 리 남짓을 채 가지 못해 벌써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장순은 마을 주막에 들러 술을 사서 그를 대접했다. 한창 술을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한 손님이 다가오더니 소리쳤다.

"아우님, 어찌 이리 늦었소!"

장순이 살펴보니, 바로 '신행태보' 대종이 손님으로 변장하여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장순은 황급히 안도전에게 그를 소개하고는 송강 형님의 소식을 물었다. 대종이 대답했다.

"지금 송 형님께서는 정신이 혼미하여 물 한 모금, 밥 한 술도 넘기지 못하고 계시니, 곧 죽음을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장순은 눈물을 비 오듯 흘렸다. 안도전이 물었다.

"종기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대종이 답했다.

"피부와 살이 초췌하고 밤새도록 비명을 지르며 통증을 멈추지 못하니, 목숨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도전이 말했다.

"살과 피부가 아직 통증을 느끼는 상태라면 오히려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시기를 놓칠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대종이 말했다.

"그것은 걱정 마십시오."

그러고는 갑마(甲馬, 신행법에 쓰는 부적) 두 장을 꺼내 안도전의 다리에 매어주었다. 대종은 스스로 약주머니를 짊어지고 장순에게 당부했다.

"아우님은 천천히 오시오. 나는 태의(太醫)를 모시고 먼저 가겠소."

두 사람은 주막을 떠나 신행법(神行法)을 펼치며 앞서 달려갔다.

한편, 장순은 마을 주막에 머물며 이삼 일을 보냈다. 그러던 중 왕정육이 과연 짐 꾸러미를 짊어지고 부친과 함께 찾아왔다. 장순은 그들을 맞이하며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 오로지 아우님과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었소."

왕정육이 물었다.

"안 의원님은 어디 계십니까?"

장순이 대답했다.

" '신행태보' 대종이 마중을 나와 이미 안 의원님을 모시고 먼저 떠났소."

왕정육은 장순, 그리고 그의 부친과 함께 몸을 일으켜 양산박으로 향했다.

한편, 대종은 안도전을 이끌고 신행법을 펼쳐 밤을 도와 양산박에 도착했다. 진영 안의 크고 작은 두령들이 마중 나와 그들을 송강의 침소 안으로 모셨다. 침상 위를 살펴보니 송강은 입으로 겨우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안도전이 먼저 맥을 짚어보고는 말했다.

"두령님들께서는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맥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몸이 무겁긴 하나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열흘이면 곧 예전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절을 올렸다. 안도전은 먼저 쑥뜸을 떠서 독기를 뽑아낸 뒤 약을 쓰기 시작했다. 겉에는 약을 붙여 다스리고, 안으로는 약을 복용하게 했다. 닷새가 지나자 점차 피부색이 붉고 하얗게 돌아오고 살결에 윤기가 돌며 음식도 조금씩 넘기기 시작했다.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종기가 다 아물지는 않았으나 식사는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 장순이 왕정육 부자를 데리고 와서 송강과 여러 두령에게 절을 올리며, 강에서 강도를 만나 겪었던 일과 물 위에서 억울함을 갚은 일을 상세히 고했다.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며 말했다.

"하마터면 형님의 병을 고칠 시기를 놓칠 뻔했구려!"

송강은 병이 나아지자마자 오용과 상의하여 북경을 공격해 노준의와 석수를 구출하기로 했다. 그러자 안도전이 간언했다.

"장군, 아직 종기가 다 아물지 않았으니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무리하게 움직이면 병이 도져 고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형님께서는 마음 쓰지 마시고 그저 몸을 돌보며 기력과 원기를 회복하는 데만 전념하십시오. 비록 제가 재주가 부족하나, 바로 지금 봄가을의 좋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북경 성을 격파하여 노준의와 석수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음탕한 계집과 간악한 놈을 잡아낼 것입니다. 형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군사가 이토록 힘을 보태준다면, 송강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소!"

오용은 즉시 충의당에서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 북경 성 안은 불길이 치솟고 창날이 빗발치는 지옥으로 변할 것이며, 대명부 또한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게 될 것이었다.

바로 이러하니,

담소 나누는 사이 귀신조차 간담이 서늘하고, 호걸들을 지휘하니 모두의 마음이 쏠리네.

결국 군사 오용이 어떤 계책을 내놓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6회 — 시천이 취운루에 불을 지르고, 오용이 지혜로 대명부를 취하다

時遷火燒翠雲樓 吳用智取大名府

이야기는 이러하다. 오용이 송강에게 말했다.

"오늘 형님께서 무사하시고, 안도전 태의가 진영에서 형님의 병을 돌보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양산박의 커다란 복입니다. 형님께서 병석에 누워 계실 동안, 제가 여러 차례 사람을 대명부로 보내 소식을 알아본 덕분에 양중서가 밤낮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가 성을 칠까 봐 겁을 먹은 것이지요. 또한 사람을 시켜 북경 성 안팎의 저잣거리에 이름 없는 방을 낱낱이 붙여, 주민들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원한에는 다 이유가 있고 빚에는 다 주인이 있는 법이니, 우리 대군이 군에 도착하면 알아서 따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양중서는 더욱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경의 채 태사도 관승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천자 앞에서 감히 입도 뻥긋 못 하고 있습니다. 그저 싸움을 피하고 항복을 받아들이자는 주장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양중서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며, 노준의

와 석수의 목숨은 살려두어 나중에 손을 쓸 수 있게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송강은 이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군사를 재촉하여 산을 내려가 북경을 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자 오용이 말했다.

"지금부터 겨울 끝자락에서 초봄 사이는 정월 대보름이 다가오는 시기라, 북경에서는 관례대로 등불을 크게 밝히며 축제를 엽니다. 저는 이 기회를 틈타 성안에는 미리 복병을 심어두고, 성 밖에서는 군사를 몰아 진격하여 안팎에서 협공함으로써 성을 함락시키고자 합니다."

송강이 말했다.

"정말 절묘한 계책입니다! 군사께서 어서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오용이 다시 말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성안에 불을 질러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중 누가 먼저 성안에 들어가 불을 지르겠습니까?"

그때 계단 아래로 한 사람이 달려 나오며 말했다.

"이 아우가 가겠습니다!"

모두가 쳐다보니, 바로 고상조 시천이었다. 시천이 말했다.

"제가 어릴 적에 북경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성안에 취운루라는 누각이 있는데, 위아래로 크고 작은 방이 백여 개나 됩니다. 정월 대보름 밤이면 분명히 매우 떠들썩할 것입니다. 그 틈을 타 몰래 성안으로 잠입

하겠습니다. 정월 보름날 밤에 취운루에 올라가 불을 질러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그사이 군사께서는 사람과 말을 부려 옥을 습격하십시오. 이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오용이 말했다.

"나도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너는 내일 새벽에 먼저 산을 내려가 있거라. 정월 대보름날 밤 첫 경(一更, 밤 7시~9시 사이)쯤에 누각에 불을 지른다면 그것이 바로 네 공로가 될 것이다."

시천은 대답하고 명령을 받들어 물러갔다.

오용은 다음 날 해진과 해보를 사냥꾼으로 변장시켜 북경 성내의 관원부로 보내 야생 고기를 바치게 했다. 정월 대보름 밤, 불길이 치솟는 것을 신호로 삼아 유수사(留守司, 성을 지키는 관청) 앞으로 가서 보고를 하러 가는 관병들을 가로막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은 명령을 받들어 물러갔다.

이어 두천과 송만을 쌀을 파는 상인으로 변장시켜 수레를 끌고 성안으로 들어가 머물게 했다. 정월 대보름 밤, 신호로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즉시 동문을 먼저 점령하라고 일렀다. “이것이 너희 둘의 공로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명령을 받들어 물러갔다.

또 공명과 공량을 하인으로 변장시켜 북경 성내 저잣거리의 처마 밑에서 머물게 했다. 누각에 불이 나는 것을 보는 즉시 오가는 길을 열며 서로 응원하라고 했다. 두 사람은 명령을 받들어 물러갔다.

다시 이응과 사진을 손님으로 변장시켜 북경 동문 밖에 머물게 했다. 성안에 신호로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먼저 문을 지키는 군사들을 베고 동문을 탈취하여 길을 열어두라고 했다. 두 사람은 명령을 받들어 물러갔다.

또한 노지심과 무송을 떠돌이 승려로 변장시켜 북경 성 밖 암자에 머물게 했다. 성안에 신호로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즉시 남문 밖으로 가서 대군을 가로막고 진격로를 들이받으라고 했다. 두 사람은 명령을 받들어 물러갔다.

이어 추연과 추윤을 등불 파는 상인으로 변장시켜 북경 성안으로 바로 들어가 여관을 찾아 머물게 했다. 누각에 불이 나는 것을 보는 즉시 사옥사(司獄司, 죄수를 관리하는 관청) 앞으로 가서 지원하라고 했다. 두 사람은 명령을 받들어 물러갔다.

또 유당과 양웅을 공인(公人, 관청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장시켜 북경 주아(州衙, 지방 관청) 앞에 가서 머물게 했다. 신호로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즉시 보고를 하러 가는 모든 인원을 가로막아, 적들이 앞뒤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두 사람은 명령을 받들어 물러갔다.

공손승 선생은 구름처럼 떠도는 도사로 변장하게 하고, 능진을 도동으로 삼아 그를 따르게 했다. 그리고 풍화포와 굉천포 등 화포 수백 개를 지니게 하여 북경 성내의 요충지에서 대기하다가, 신호로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즉시 발사하게 했다. 두 사람은 명령을 받들어 물러갔다.

장순은 연청을 따라 수문(水門)을 통해 성안으로 들어가 곧장 노준의의 집으로 달려가 음부(淫婦, 간음한 여인)와 간부(奸夫)를 잡아내게 했다. 왕애호, 손신, 장청, 호삼낭, 고대소, 손이낭은 세 쌍의 마을 부부로 변장시켜 성안에 등불 구경을 하러 들어간 뒤, 노준의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게 했다.

채진은 악화와 함께 군관으로 변장하여 채절급의 집으로 곧장 가서 그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하도록 했다.

이처럼 모든 배정이 끝나자, 여러 두령은 각자 명령을 받들어 물러갔다. 모두가 군령을 엄격히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다.

때는 정월 초였다. 양산박의 호걸들이 차례로 산을 내려가 진격하는 것은 차치하고, 우선 북경의 양중서가 이성, 문달, 왕 태수 등 여러 관원을 불러 모아 등불 축제를 여는 일에 대해 상의했다.

양중서가 말했다.

"북경에서는 관례대로 등불을 크게 밝혀 정월 대보름을 축하하며 백성들과 즐거움을 나누는데, 이는 동경의 방식과 같다오. 그런데 지금 양산박 도적놈들이 두 차례나 국경을 침범했으니, 혹여 등불을 밝히다가 화를 당할까 두렵소. 소관은 이번에 등불 축제를 쉬어갈까 하는데, 여러 관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문달이 즉시 말했다.

"그 도적놈들을 생각해보십시오. 몰래 물러나면서 이름 없는 방을 마구 붙여놓은 것은 궁지에 몰려 내놓은 계책일 뿐이니, 분명 제대로 된 속셈은 없을 것입니다. 상공께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올해 등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저놈들의 세작들이 이를 알아채고 분명 비웃을 것입니다. 차라리 다음과 같이 공고를 내려 주민들에게 알리십시오. '작년보다 꽃등을 더 많이 설치하고 사화(社火, 민속놀이)를 더해 꾸미며, 저잣거리에는 오산(鰲山, 거북 모양의 산) 두 개를 세워라. 동경의 방식에 따라 밤새도록 축제를 멈추지 말 것이며, 13일부터 17일까지 다섯 밤 동안 등불을 밝히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부윤(府尹, 대명부의 수장)께서는 주민들을 잘 살펴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하시고, 상공께서는 직접 봄나들이를 나가 백성들과 함께 즐기십시오. 저 문달이 직접 군사 한 부대를 이끌고 성 밖 유호곡으로 나가 진을 치고 도적놈들의 간악한 계책을 막겠습니다. 또한 이 도감(都監, 군사 지휘관)에게 철기 마군을 거느리고 성 주변을 순찰하게 하여 주민들이 놀라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중서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여러 관리가 상의를 마친 뒤 즉시 방을 붙여 주민들에게 알렸다.

이 북경 대명부는 하북 지역에서 으뜸가는 큰 고을로, 여러 길에서 상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안개처럼 빽빽하게 모여드는 곳이었다. 등불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만 들리면 모두가 앞다투어 몰려왔다. 성 안의 구역과 골목을 담당하는 상관(廂官)들은 매일같이 점검하며 사화 장식을 잘 갖추도록 독려했다. 부유한 집안들은 저마다 꽃등 자랑에 나섰다. 먼 곳에서는 이 꽃등을 사기 위해 이삼백 리를 가서 사들이고, 가

까운 곳에서도 백여 리 밖에서 사 왔다. 매년 등불을 파는 객상들도 성안으로 들어와 물건을 팔았다. 집집마다 문 앞에 등불 울타리를 세우고, 모양이 예쁜 등불과 화려한 불꽃놀이 도구들을 걸어놓았다. 집 안에는 산 모양의 가설물을 세우고 오색 빛깔의 병풍과 폭죽 등을 배치했으며, 사방에는 유명한 서화나 기이한 골동품들을 걸어두었다. 성안의 큰길과 좁은 골목 할 것 없이 집집마다 등불을 밝혔다.

대명부 유수사 주교(州橋) 옆에는 오산 하나를 세웠는데, 그 위에는 빨강과 노랑 종이로 만든 용 두 마리가 휘감겨 있었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마다 등불을 한 잔씩 켜 놓았고, 입에서는 맑은 물을 뿜어냈다. 주교 아래 강 주변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등불이 켜졌다. 동불사 앞에도 오산을 세웠는데, 그 위에는 청룡 한 마리가 휘감겨 있었고 그 주변으로도 수천 개의 꽃등이 빛났다. 취운루 앞에도 오산을 세워 백룡 한 마리를 휘감게 하고 사방에 불을 밝히니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었다. 본래 이 주루는 하북 땅에서 이름이 자자한 제일가는 곳이었다. 지붕은 세 겹으로 되어 물이 잘 빠지게 되어 있었고, 들보와 기둥에는 정교한 조각이 되어 있어 지어진 모습이 매우 훌륭했다. 누각 위아래로는 백여 개의 방이 있어 온종일 북소리와 악기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고, 매일같이 생황과 노래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다. 성안 곳곳의 궁관(宮觀, 도교 사원)과 사원의 불전과 법당마다 등불을 밝혀 풍년을 경축했다. 삼와양사(三瓦兩舍, 여러 유흥가)야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양산박의 세작이 이 소식을 듣고 산으로 보고했다. 오용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송강에게 가서 세세한 내용을 고했다. 송강이

즉시 직접 군사를 이끌고 북경을 치러 가겠다고 하자, 안도전이 간곡히 만류하며 말했다.

"장군님,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으니 절대로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혹여 화가 치밀어 몸을 상하게 하시면 정말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오용이 말했다.

"형님을 대신해 소생이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오용은 곧바로 '철면공목' 배선을 비롯하여 여덟 부대의 군마를 배치했다.

제1진은 쌍편 호연작이 한도와 팽기를 앞세워 이끌고, '진삼산' 황신이 뒤에서 지원하는 마군이다. 지난번에 호연작이 진영에서 (관승과) 싸웠던 것은 거짓이었으니, 일부러 관승을 속이려고 이런 계책을 꾸민 것이다.

제2진은 표자두 임충이 마린과 등비를 앞세워 이끌고, '소이광' 화영이 뒤에서 지원하는 마군이다.

제3진은 대도 관승이 선찬과 학사문을 앞세워 이끌고, '병위지' 손립이 뒤에서 지원하는 마군이다.

제4진은 '벽력화' 진명이 구붕과 연순을 앞세워 이끌고, 청면수 양지가 뒤에서 지원하는 마군이다.

제5진은 보병 두령 몰차란 목홍이 두흥과 정천수를 이끈다.

제6진은 보병 두령 '흑선풍' 이규가 이립과 조정을 이끈다.

제7진은 보병 두령 삽시호 뇌횡이 시은과 목춘을 이끈다.

제8진은 보병 두령 혼세마왕 번서가 항충과 이곤을 이끈다.

이 여덟 부대의 마군과 보군은 각자 길을 잡아 즉시 출발해야 하며,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월 대보름 밤 2경(二更, 밤 10시경)을 기한으로 삼아 모두 북경 성 아래에 모여야 한다. 마군과 보군은 일제히 진격한다. 여덟 부대의 인마는 명령에 따라 산을 내려가고, 나머지 두령들은 모두 송강을 따라 산채를 지키기로 했다.

한편, 시천은 담장을 넘나드는 데 능한 자라 정식 통로로 성에 들어가지 않고 밤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 성안 객점에서는 홀로 묵는 손님을 받지 않았기에, 그는 낮에는 거리에서 한가로이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동악묘 신좌 아래에 자리를 잡고 몸을 숨겼다.

정월 열사흘, 그는 성안을 오가며 백성들이 등불 가설물을 세우고 불을 밝히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구경하던 중에 해진과 해보가 야생 고기를 짊어지고 성안을 오가는 것을 보았고, 또 두천과 송만이 와자(瓦子, 유흥가)에서 걸어 나오는 것과 마주쳤다.

시천은 그날 먼저 취운루에 올라가 상황을 살폈다. 그곳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양가죽으로 만든 낡은 옷을 입은 채,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왼손에는 사발을 든 공명과 마주쳤다. 공명은 몰골이 아주 초라하

여 구걸을 하고 있었다. 공명은 시천을 보자 그를 불러내어 뒤편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천이 말했다.

"형님, 형님 같은 장부가 얼굴색이 이렇게 붉고 생기가 도니 도저히 거지 같지가 않습니다. 북경에는 관원들이 많으니, 혹여 정체가 탄로 나면 큰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형님께서는 몸을 사려 피하셔야 합니다."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담벼락 쪽에서 거지 하나가 다가왔는데, 자세히 보니 공량이었다. 시천이 다시 말했다.

"형님, 형님 또한 얼굴이 눈처럼 하얘서 굶주린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분명히 들통날 것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뒤에서 두 사람이 달려들어 그들을 낚아채며 호통을 쳤다.

"너희들이 아주 큰일을 저지르는구나!"

돌아보니 양웅과 유당이었다. 시천이 깜짝 놀라 외쳤다.

"깜짝이야, 사람 잡겠네!"

양웅이 말했다.

"모두 나를 따라와라."

양웅은 그들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세 사람이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어찌 거기서 떠들고 있는 것이냐! 우리 둘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만약 눈치 빠른 관원들에게 들켰다면 형님의 큰일을 그르칠 뻔하지 않았느냐? 우리 둘은 이미 다 확인했으니, 형제들은 더 이상 거리로 나가지 마라."

그러자 공명이 말했다.

"추연과 추윤은 거리에서 등불을 팔고 있고, 노지심과 무송은 이미 성 밖 암자에 가 있다. 더 말할 것 없이 기한이 되면 각자 맡은 일을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

다섯 사람이 이야기를 마치고 어느 사찰 앞으로 나왔는데, 마침 한 선생이 사찰에서 나오는 것과 마주쳤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보니 바로 '입운룡' 공손승이었고, 그 뒤에는 능진이 도동으로 변장하여 따르고 있었다. 일곱 사람은 모두 고개를 끄덕여 뜻을 확인하고는 각자 흩어졌다.

다가오는 원소절을 앞두고, 양중서는 먼저 대도 문달에게 군마를 이끌고 성 밖 유호곡으로 나가 진을 치고 머물게 하여 도적의 침입에 대비하게 했다. 십사일에는 '이천왕' 이성에게 직접 명하여, 철갑을 온전히 갖춰 입은 기병 오백을 거느리고 성 둘레를 순찰하게 했다.

이튿날은 바로 정월 대보름인 원소절이었다. 날씨는 아주 맑고 화창했으며, 황혼이 되어 달이 떠오르자 육가(六街)와 삼시(三市)를 비롯

해 거리의 구석구석마다 꽃등이 밝혀졌다. 큰 길과 좁은 골목마다 축제 행렬인 사화(社火)가 펼쳐졌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북경의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에 봄기운이 일찍 찾아왔네.

은빛 불꽃이 나무처럼 피어오르니 밤에도 밝은 성이로다, 육지 위에 솟아오른 듯한 봉래섬 같구나.

촛불은 밤을 머금어 빛나고 찬 기운이 감도는데, 백성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태평성대를 즐기누나.

오봉우(五鳳羽) 장식의 문이 쌍궁(雙闕)을 받치고 있고, 여섯 마리 거북이 등을 진 수레가 세 신령스러운 산을 실어 나르는 듯하구나.

붉게 단장한 여인은 붉은 발 아래 서 있고, 하얀 얼굴의 낭군은 자줏빛 말에 올라탔구나.

피리 소리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푸른 하늘로 솟구치고, 맑은 달빛은 원앙 모양 기와 위로 깨끗하게 쏟아지는구나.

취운루는 높이 솟아 푸른 하늘에 맞닿아 있고, 즐겁게 노니는 미인들이 끊임없이 오가누나.

등불은 비단 자수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왕손과 공자들은 마치 신선이 된 듯하구나.

노니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아직 끊이지 않았건만, 높은 누각에는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누나.

그날 밤, 절급인 채복이 형제인 채경에게 대옥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며 말했다. “나는 집에 잠시 다녀오마.” 채복이 막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이 번개처럼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앞선 이는 군관 차림이었고, 뒤따르는 이는 하인 모습이었다. 등불 아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채복은 앞의 인물이 '소선풍' 시진임을 알아보고, 뒤에 있는 이가 '철규자' 악화라는 사실도 금세 깨달았다. 채 절급은 시진만은 알고 지내던 터라 그들을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마침 차려져 있던 술과 안주를 내어 대접했다. 시진이 말했다. “술은 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노 원외와 석수가 귀하의 보살핌을 입어 그 은혜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제가 대옥에 들러 원소절의 떠들썩한 분위기를 틈타 그들을 한번 보고자 하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절하지 마시고 안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채복은 공인(公人)인지라 이미 상황을 십중팔구 짐작하고 있었다. 만약 거절했다가는 성이 함락되어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다. 결국 그는 피바람이 불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낡은 옷 몇 벌을 가져와 시진과 악화에게 입혀 공인처럼 보이게 했다. 이어 두건과 건책(巾幘)을 바꿔 씌운 뒤, 시진과 악화를 데리고 곧장 대옥으로 달려갔다.

초경(初更, 저녁 7시~9시 사이) 무렵, 왕애호, 일장청, 손신, 고대소, 장청, 손이낭까지 세 쌍의 마을 부부들이 시골 사람처럼 보이도록 정성

껏 차려입고 인파 속에 섞여 동문으로 들어갔다. 공손승은 능진과 함께 가시나무 광주리를 메고 성황묘(城隍廟) 회랑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 성황묘는 주아(州衙, 관청) 바로 옆에 있었다.) 추연과 추윤은 등불을 들고 성안을 한가로이 거닐었다. 두천과 송만은 각자 수레를 한 대씩 끌고 양중서의 관아 앞으로 가서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에 몸을 숨겼다. (본래 양중서의 관아는 동문 안쪽 큰길가에 있었다.) 유당과 양웅은 각각 수화곤(水火棍, 검고 붉게 칠한 관아의 곤봉)을 들고 몸에 암기를 지닌 채 주교(州橋) 양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연청은 장순을 데리고 수문(水門)을 통해 성안으로 들어와 조용한 곳에 매복했다.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멈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각 위에서 이경(二更, 밤 9시~11시 사이)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편, 시천은 유황과 초석 등 불을 지를 때 쓰는 화약 재료를 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 그 위에 명절 장식물(鬧鵝兒) 몇 개를 꽂은 채 취운루 뒤편으로 몰래 스며들었다. 그가 누각 위로 올라가 보니, 방마다 생황과 퉁소를 불고 북을 치며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구름처럼 모여들어 신나게 노닐며 등불을 구경하고 있었다. 시천은 명절 장식물을 파는 장사꾼처럼 꾸미고 각 방을 돌아다니며 살폈다. 그러다 해진과 해보를 마주쳤는데, 그들은 강철 갈퀴를 끌고 그 위에 토끼를 꽂은 채 누각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시천이 다가가 말했다. “때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밖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까?” 해진이 대답했다. “우리는 방금 누각 앞에서 탐마(探馬, 정찰병)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네. 아마 병마가 도착한 모양이니, 자네는 그저 맡은 일을 처리하게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각 아래에서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외쳐댔다. “양산박 군마가 서문 밖에 들

이닥쳤다!" 해진이 시천에게 분부했다. "자네는 어서 가게. 나는 유수사(留守司) 앞으로 가서 맞이하겠네." 해진이 유수사 앞으로 달려가 보니, 패잔병들이 일제히 성안으로 도망쳐 들어오며 외치고 있었다. "대도(大刀, 관승)가 영채를 들이쳐 약탈했다 한다! 양산박 도적들이 군사를 이끌고 성 아래까지 들이닥쳤다!" 마침 성 위에서 순찰 중이던 이성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말을 달려 유수사 앞으로 왔다. 그는 즉시 군사들을 점검하고, 성문을 닫아 본주(本州)를 지키라고 명령했다.

한편, 왕 태수(大名府의 태수)가 백여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긴 가쇄와 쇠사슬을 든 채 거리에서 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황급히 유수사 앞으로 달려왔다.

한편, 양중서는 관아 앞에서 술에 취해 한가로이 앉아 있다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직 그리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 경(更, 약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유성처럼 빠른 정찰병들이 잇따라 달려와 급보를 전해왔다. 그제야 그는 혼비백산하여 황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취운루 위로 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으며 달빛마저 삼킬 듯 거세게 번져 나갔다. 양중서는 이를 보고 급히 말을 타고 달려가 살펴보려 했으나, 건장한 사내 둘이 수레 두 대를 밀고 길 한복판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들은 내걸려 있던 등불을 가져다 수레에 불을 붙였고, 곧바로 불길이 치솟았다. 양중서가 동문으로 나가려 하자, 두 사내가 "이응과 사진이 여기 있다!"라고 외치며 박도를 쥐고 성큼성큼 살기등등하게 달려들었다. 문을 지키던 관군들은 겁에 질려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십여 명이 다쳤다. 이때 두천과 송만이 기

다렸다는 듯 나타나 네 사람이 한데 뭉쳐 동문을 꽉 틀어쥐고 막아섰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양중서는 수행원들을 데리고 남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남문 쪽에서는 "덩치 큰 스님이 철선장을 휘두르고, 호랑이 같은 얼굴의 행자가 쌍계도를 뽑아 들고 고함을 지르며 성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다!"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양중서가 말머리를 돌려 다시 유수사 앞으로 달려가니, 해진과 해보가 강철 삼지창을 쥐고 이곳저곳을 들이받으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급히 주야(州衙, 관아)로 돌아가려 했으나 감히 그들 근처에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마침 왕 태수가 그쪽으로 다가오자, 유당과 양웅이 수화곤(水火棍)을 일제히 내리쳤다. 왕 태수는 머리가 터지고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얻어맞아 길거리에서 즉사했다. 우후(虞候)와 압번(押番)들은 저마다 제 목숨을 구하려 사방으로 달아났다. 양중서가 다급히 말머리를 돌려 서문으로 달아나려는데, 이번에는 성황묘 안에서 화포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며 울려 퍼졌다. 추연과 추윤은 대나무 장대를 들고 집 처마 밑에 불을 지르는 데 정신이 없었다. 남쪽 와자(瓦子) 앞에서는 왕왜호와 '일장청'이 몰려왔고, 손신과 고대수는 암기를 뽑아 들고 그들을 도왔다. 동불사 앞에서는 장청과 손이낭이 뛰어 들어가 오산(鰲山) 위로 기어 올라가 불을 질렀다. 이때 북경 성안의 백성들은 쥐새끼처럼 이리저리 흩어져 도망치기에 바빴고, 집집마다 곡소리와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 사방 곳곳에서 수십 군데의 불길이 하늘을 뒤덮어,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편, 양중서가 서문으로 필사적으로 달려가는데, 이어 이성의 군마가 몰려왔다. 그들은 급히 남문 성벽 위로 올라가 말을 멈추고 고루(鼓樓)에서 내려다보았다. 성 아래에는 병사들이 가득 메워져 있었는데,

깃발에는 "대장 호연작"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기세를 떨치며 용맹을 과시했다. 왼쪽에는 한도, 오른쪽에는 팽기, 뒤에는 황신이 뒤따르며 군마를 몰아 기러기 날개 모양으로 펼쳐 성문 앞까지 횡으로 들이닥쳤다. 양중서는 성 밖으로 나갈 길이 막히자, 이성과 함께 북문 성벽 아래로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 보니 불빛이 눈부시게 밝고 군마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바로 '표자두' 임충이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며 나타났는데, 왼쪽에는 마린, 오른쪽에는 등비가 있고 뒤에는 화영이 군마를 몰아 맹렬히 달려들고 있었다. 다시 동문을 보니 횃불이 무리 지어 일렁이는 가운데 '몰차란' 목홍이 보였다. 왼쪽에는 두흥, 오른쪽에는 정천수가 있었고, 세 명의 보병 호걸이 앞장서서 박도를 쥐고 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며 성 안으로 들이닥쳤다. 양중서는 목숨을 걸고 길을 뚫어 남문으로 직행했다. 조교(弔橋) 근처에서도 횃불이 일제히 밝아지며 '흑선풍' 이규가 나타났다. 왼쪽에는 이립, 오른쪽에는 조정이 있었다. 이규는 상체를 벗어젖힌 채 이를 악물고 양손에 도끼를 든 채 성곽 해자에서 날아오르듯 살기를 뿜으며 달려왔고, 이립과 조정도 함께 도착했다. 이성이 앞장서서 피로 물든 길을 열어 성 밖으로 달려 나가며 양중서를 호위했다. 그런데 왼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횃불 사이로 무수한 군마가 몰려오니, 바로 '대도' 관승이었다. 그는 적토마를 채찍질하며 청룡도를 휘두르며 양중서를 향해 곧장 들이닥쳤다. 이성이 쌍도를 치켜들고 맞서 싸우려 했으나, 당시 그는 싸움에 전념할 마음이 없어 급히 말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 이때 왼쪽에서는 선찬, 오른쪽에서는 학사문이 양옆에서 들이닥쳤고, 뒤에서는 손립이 군마를 몰아 힘을 합쳐 공격해 왔다. 한창 격전을 벌이던 중, 등 뒤에서 '소이광' 화영이 쫓아와 활을 당겨 화살을 쏘니, 이성의 부장이 화살에 맞아 몸을 뒤집으며 말에서 떨어졌

다. 이를 본 이성은 황급히 말을 달려 달아났다. 화살이 반쯤 날아갈 거리도 채 가지 못했는데, 오른쪽에서 징과 북소리가 어지럽게 울리고 불빛이 눈을 멀게 할 듯 번쩍였다. 바로 '벽력화' 진명이었다. 그는 말을 타고 곤봉을 휘두르며 연순과 구붕을 이끌고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양지가 또다시 살기를 띠며 달려들었다. 이성은 싸우면서도 계속 도망쳤으나 군사의 태반을 잃었고, 겨우 양중서를 호위하며 길을 뚫고 간신히 탈출했다.

이야기는 다른 쪽으로 흘러, 성 안의 상황은 이러하다. 두천과 송만은 양중서의 집안을 덮쳐 노비와 가솔들을 포함한 일가족을 몰살하러 갔고, 유당과 양웅은 왕 태수의 일가족을 죽이러 달려갔다. 공명과 공량은 이미 사옥사(司獄司, 감옥을 관리하는 관청)의 뒷담을 타고 넘어 안으로 잠입했다. 추연과 추윤은 사옥사 앞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았다.

한편, 대옥(大牢, 감옥) 안에 있던 시진과 악화는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채복과 채경에게 말했다. "너희 형제는 보고만 있을 셈이냐? 대체 언제까지 기다릴 작정이냐?" 채경이 문가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을 때, 추연과 추윤이 미리 옥문을 부수고 들어오며 크게 외쳤다. "양산박의 호걸들이 모두 여기 모였다! 노준의 원외님과 석수 형님을 어서 모셔 나가자!"

채경이 황급히 채복에게 알리기도 전에, 공명과 공량이 이미 감옥 지붕 위에서 뛰어 내려왔다. 채복과 채경 형제가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이, 시진은 곁에 두었던 무기를 꺼내 들고 곧장 칼(형틀)을 풀어 노준의와 석수를 풀어주었다. 시진이 채복에게 말했다. "어서 나를 따라 집

으로 가서 가솔들을 보호하게!" 그러고는 일행이 모두 옥문을 나섰다. 추연과 추윤이 그 뒤를 이어 함께 움직였고, 채복과 채경은 시진을 따라 (채복의) 집으로 가서 자기 가솔들을 안전하게 지켰다.

노준의는 석수, 공명, 공량, 추연, 추윤 다섯 형제를 데리고 곧장 집으로 달려가 이고와 가씨를 붙잡으려 했다. 한편, 이고는 양산박 호걸들이 군마를 이끌고 성안으로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자, 집안 형편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가씨와 상의하여 금은보화와 귀중품을 한데 꾸려 짊어진 채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 쪽이 무너져 내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떼를 지어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고와 가씨는 황급히 몸을 돌려 안쪽으로 뒷문을 열고, 담벼락을 돌아 강가로 내려가 몸을 피할 곳을 찾아 달아났다. 그때 강가에 있던 장순이 크게 외쳤다. "저 여편네가 어디를 가느냐!" 이고는 겁에 질려 얼른 배 안으로 뛰어들어 숨으려 했다. 그러나 배 선실 안으로 막 들어서려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뻗어 이고의 수염을 움켜쥐고는 호통을 쳤다. "이고, 나를 알아보겠느냐?" 이고는 그 목소리가 연청인 것을 알아차리고 황급히 소리쳤다. "연청 형님, 나는 형님과 아무런 원한도 없으니 제발 나를 끌어올리지 마시오!" 그사이 강가에서는 장순이 이미 가씨를 옆구리에 끼고 배가 있는 곳까지 끌고 왔다. 연청은 이고를 붙잡은 채 일행과 함께 동문을 향해 나아갔다.

한편, 노준의가 집으로 달려갔으나 이고와 그 여편네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노준의는 즉시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과 금은보화를 모두 가져오게 한 뒤, 수레에 실어 양산박으로 가져가

나누어 주라고 했다. 한편, 시진과 채복은 집으로 가서 가솔들과 재산을 챙겨 함께 산채로 올라갔다. 채복이 말했다. "대관인님, 성 안의 백성들을 구해 주십시오. 무고한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시진은 그 말을 듣고 곧장 군사 오용을 찾아갔다. 시진이 오용을 찾아내 급히 명령을 전하여 양민을 죽이지 못하게 했을 무렵에는, 성 안의 백성이 이미 절반 가까이 죽거나 다친 뒤였다.

시로 이르되:

시로 이르되:

연기는 성안 시가를 자욱이 덮고, 불길은 누대를 사르네. 붉은 빛 속에는 유리 조각이 부서지고, 검은 불꽃 속에는 비취가 타들어 가네. 사람을 즐겁게 하던 꼭두각시들은 얼굴이 앞인지 뒤인지 가릴 겨를도 없고, 밤을 밝히던 산붕(山棚, 등불 누대)에서는 누가 앞이 밝은지 뒤가 어두운지 따지랴. 얼룩진 백발의 노인은 미친 듯한 불길에 흰 수염이 다 타버리고, 푸른 머리의 젊은이는 화려한 일산(日傘)조차 거두지 못한 채 내달리네. 죽마(竹馬) 놀이를 하던 자들은 어둠 속에서 칼과 창에 찔리고, 포로무(鮑老舞)를 추던 자들도 날카로운 칼날과 창을 면치 못하네. 꽃 같은 여인들은 인파 속에서 금붙이가 떨어지고 옥이 부서지듯 스러지고, 경치를 즐기던 미인들은 순식간에 별이 흩날리고 구름이 흩어지듯 사라지네. 애석하구나, 천 년 동안 노래와 춤이 이어지던 이곳이, 한순간에 처참한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으니.

당시 하늘은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오용과 시진은 성내에 징을 울려 군대를 물러나게 했다. 여러 두령은 노준의와 석수를 데리고 유수

사(留守司, 지방 관청)로 가서 만났다. 그곳에서 노준의는 옥에 갇혀 있을 때 채복과 채경 형제가 보살펴 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연청과 장순은 이미 이고와 가씨를 붙잡아 끌고 온 상태였다. 노준의는 그들을 보자마자 연청에게 감시하게 하며, 직접 처벌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하니 더는 말이 필요 없었다.

한편, 이성은 양중서를 보호하며 성 밖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패잔병을 이끌고 돌아온 문달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두 사람은 군사를 합쳐 남쪽으로 급히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참을 가던 중 앞쪽 군사들 사이에서 함성이 일어나니, 바로 '혼세마왕' 번서가 왼쪽에 항충, 오른쪽에 이곤을 거느리고, 세 명의 보병 호걸이 비도(飛刀)와 비창(飛槍)을 휘두르며 곧장 무섭게 달려드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뒤쪽에서는 '삽시호' 뇌횡이 시은과 목춘을 이끌고 각각 천 명씩의 보병을 거느린 채 퇴로를 차단하며 들이닥쳤다. 이는 마치 옥에 갇힌 죄수가 사면을 받았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고, 병든 객이 의원을 만났다가 다시 병상에 드러눕는 격이었다. 결국 양중서 일행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7회 — 송강이 말보삼군을 상하고, 관승이 수화이장을 항복시키다

宋江賞馬步三軍 關勝降水火二將

이야기는 이러하다. 양중서와 이성, 문달은 황급히 패잔병과 말들을 찾아내어 남쪽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도망치던 중에 또다시 두 무리의 복병을 만나 앞뒤로 포위되어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성이 앞장서고 문달이 뒤에서 양중서를 호위하며 힘을 합쳐 필사적으로 싸운 끝에, 겨우 포위망을 뚫고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비록 인마를 많이 잃고 투구는 삐뚤어지고 갑옷은 너덜너덜해졌으나, 세 사람 모두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서쪽으로 도망쳤다. 한편, 번서는 항충, 이곤을 데리고 기세를 몰아 추격하려 했으나 따라잡지 못하자, 뇌횡, 시은, 목춘 등과 함께 북경성으로 돌아가 다음 명령을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군사 오용은 성안에 장령을 내려 명령을 전달하는 동시에,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불을 끄는 일에도 힘썼다. 양중서, 이성, 문달, 왕태수의 집안 식구들은 죽은 자는 죽고 도망간 자는 도망가 버려, 더 이상 따지러 오는 이도 없었다. 양산박은 대명부의 창고를 열어

금은보화와 비단, 능라 등 온갖 재물을 수레에 가득 실었다. 또한 곡식 창고를 열어 쌀을 온 성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남은 것은 수레에 실어 양산박의 창고로 가져갈 준비를 했다. 모든 두령과 군사들의 정비가 끝났다. 이고와 가씨는 죄수 수레에 가두어 묶고, 군마를 세 무리로 나누어 양산박으로 향했다. 그야말로 말 안장 위 장수들은 금등자를 울리고, 말 앞의 군사들은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왔다.

먼저 대종을 보내 송강에게 소식을 전하게 했다. 송강은 모든 장수를 불러 모아 산을 내려가 마중 나갔고, 모두 충의당에 모였다. 송강은 노준의를 보자마자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렸고, 노준의는 황급히 답례했다. 송강이 말했다. "우리 모두가 원외님을 모셔 산에 올라 대의를 함께 나누고자 했으나, 뜻하지 않게 이런 난리를 만나 거의 다 무너질 뻔했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우시어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평생의 한이 풀리는 듯합니다."

노준의도 절하며 감사 인사를 올렸다. "형님의 위엄 덕분에 살았고, 모든 두령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힘을 써주신 덕분에 이 천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은혜는 간담을 땅에 쏟아도 갚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어 그는 채복과 채경을 불러 송강에게 인사시키며 말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목숨을 부지하여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는 감사의 말을 다 하지 못했다.

송강은 노준의를 산채의 주인으로 모시려 했으나, 노준의는 절하며 거절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산채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그저 형님의 곁에서 말에 채찍을 휘두르고 등자를 밟으며, 한 명의 졸병이라

도 되어 이 구명지은을 갚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행입니다!" 송강이 거듭 간곡히 청했으나 노준의는 끝내 앉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 이규가 나서서 말했다. "형님, 만약 다른 사람을 산채 주인으로 세우신다면 저는 당장 칼을 들고 난리를 피울 겁니다!" 무송도 거들었다. "형님께서 자꾸 양보만 하시면 우리 형제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 버릴 것입니다." 송강이 크게 꾸짖었다. "이놈들, 너희가 무엇을 안다고 그러느냐! 더 이상 입을 놀리지 마라!" 노준의가 황급히 절하며 말했다. "형님께서 이토록 간곡히 양보하시니, 저로서는 도저히 몸을 둘 곳이 없습니다."

이규가 소리쳤다. "이제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으니, 형님께서 황제가 되시고 노 원외님을 승상으로 삼으십시다! 우리 모두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도성으로 쳐들어가 저 빌어먹을 자리를 빼앗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시시하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송강이 크게 노하여 이규를 꾸짖었다. 그러자 오용이 나서서 달랬다. "우선 노 원외님을 동쪽 곁방에 모셔 귀빈으로 대접합시다. 나중에 큰 공을 세우면 그때 다시 자리를 양보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제야 송강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연청을 불러 한곳에 함께 머물게 했다. 또한 별도의 방을 마련하여 채복과 채경의 가족들을 안돈시켰다. 관승의 가족들은 이미 설영이 데려와 산채에 안치해 둔 상태였다. 송강은 즉시 큰 잔치를 베풀어 마병·보병·수군 삼군을 격려하였고, 크고 작은 두목들과 모든 부하 군졸들에게 각자 무리를 지어 술을 마시게 했다. 충의당에서는 축하 잔치가 벌어졌다. 크고 작은 두령들은 서로 양보하며 즐겁게 술을 마시고 흥겨워했다.

그때 노준의가 일어나 말했다. "간사한 여편네와 간악한 놈을 잡아 두었으니, 처분을 기다립니다." 송강이 웃으며 말했다. "아차, 내가 깜빡했구려. 그 둘을 이리로 데려오시오." 군사들이 죄수 수레를 열어 당 앞으로 끌어냈다. 이고는 왼쪽 장군 기둥에, 가씨는 오른쪽 장군 기둥에 묶였다. 송강이 말했다. "이놈들의 죄는 물을 것도 없으니, 원외께서 직접 처분하십시오."

노준의는 단도를 손에 쥐고 당 아래로 내려가더니, 저 더러운 계집과 도적 놈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두 사람의 배를 가르고 심장을 도려내어 능지처참으로 처형했다. 그는 시신을 내버려 둔 채 다시 당 위로 올라와 사람들에게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모든 두령은 다 함께 축하하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양산박에서는 마병과 수군 삼군을 격려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한편, 북경의 양중서는 양산박의 군사들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 문달과 함께 패잔병들을 이끌고 성안으로 들어왔다. 성안을 살펴보니 죽거나 다친 자가 열에 여덟아홉은 되어, 사람들은 모두 통곡하며 슬퍼했다. 양산박을 추격하려던 인근 부대들이 이미 멀리 떠나버렸기에, 양중서는 각 부대에 군사를 거두라고 명령했다. 양중서의 부인은 뒷마당에 숨어 있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그녀는 남편에게 조정에 상소문을 올리고 태사에게도 편지를 보내, 하루빨리 군사를 동원하여 도적 떼를 토벌하고 원수를 갚으라고 재촉했다. 민간에서 죽은 자는 오천여 명에 달하고, 다친 자는 셀 수 없이 많았으며, 각 부대의 군마와 병사도 모두 삼만 명 넘게 손실되었다.

장수는 상소문과 비밀 편지를 품고 길을 떠나, 하루 만에 도성인 동경의 태사부 앞에 도착했다. 문지기가 보고하자 태사가 불러들였고, 장수는 절당 아래에서 엎드려 인사한 뒤 비밀 편지를 올리며 보고했다. 북경이 함락되었으며 도적의 세력이 너무 커서 도저히 대적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채경은 처음에는 적당히 양산박을 불러들여 항복시키는 조안(招安)을 통해, 공은 양중서에게 돌리고 자신은 영광을 누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일이 너무 커져 숨기기 어렵게 되자,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기로 마음먹고 크게 노하며 말했다. "장수는 물러가라!"

다음 날 새벽 다섯 시경, 경양종이 울리자 대루원의 문무 백관이 모여들었다. 채 태사가 앞장서서 옥계에 올라 황제에게 직접 아뢰었다. 천자는 상소를 보고받고 크게 놀랐다. 이때 간의대부 조정이 나아가 아뢰었다. "지난번에도 군사를 동원해 정벌하려 했으나 모두 병사와 장수를 잃었습니다. 이는 지형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차라리 조칙을 내려 죄를 사해주고 항복을 권유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들을 불러들여 어진 신하로 삼는다면 변방의 화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경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그대는 간의대부라는 자가 도리어 조정의 기강을 무너뜨리려 하다니, 간사한 짓을 일삼는 죄는 마땅히 죽임으로써 다스려야 할 것이다!" 천자가 말했다. "그럼 즉시 조정을 물러나게 하라." 그 자리에서 조정의 관직을 박탈하고 평민으로 강등시켰다. 조정의 그 누구도 감히 다시 입을 열지 못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임금의 조서로 달래는 것이 참된 방책이건만,
충직한 말들을 도적의 원수로 여기는구나.
어른스러운 큰 스승이 떠나간 뒤로,
양산의 군사들을 도무지 다스릴 길이 없네.

천자가 다시 채경에게 물었다. "이토록 도적의 세력이 날뛰는데, 누구를 보내 토벌하게 하겠는가?" 채 태사가 아뢰었다. "신이 헤아려 보건대, 저런 산야의 초적들을 잡는 데 어찌 대군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이 능주의 두 장수를 추천하나이다. 한 명은 성이 단이고 이름은 정규요, 다른 한 명은 성이 위이고 이름은 정국이라 하는데, 현재 본주의 단련사(군 지휘관)로 재직 중입니다. 부디 폐하께서 성스러운 뜻을 내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보내, 이들의 군마를 동원하여 하루빨리 양산박을 소탕하게 하소서." 천자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조칙과 명령서를 내려 추밀원(중앙 군사 기구)에 파견을 명했다. 천자가 환궁하고 백관이 퇴조하자, 여러 관리들은 속으로 비웃었다. 다음 날, 채경은 성원(중서성·추밀원)의 관리들을 불러 성지와 칙부를 받들어 능주로 보냈다.

한편, 양산박에서는 북경에서 얻은 창고의 금은보화와 재물을 마병·보병·수군 삼군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연일 소와 말을 잡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며 노 원외를 축하했다. 비록 봉황이나 용을 요리하는 진귀한 음식은 아니었으나, 참으로 고기가 산을 이루고 술이 바다를 이룬 듯했다. 모든 두령이 술에 취해 흥이 오를 무렵, 오용이 송강 일행에게 말했다. "이번에 노 원외님께서 북경을 격파하셨으나, 백성들이 죽고 창고가 털렸으며 양중서 일행이 성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었으니, 그

들이 어찌 조정에 상소문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의 장인이 조정의 태사인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정벌하러 올 것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군사님의 염려가 지극히 타당하오. 어서 사람을 보내 밤낮을 가리지 말고 북경의 형편을 살펴보고 오게 하여, 이곳에서 대비를 해야겠소." 오용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이미 사람을 보냈으니 곧 돌아올 것입니다."

연회 도중에 의논을 다 마치기도 전에, 마침 정찰을 나갔던 사람이 돌아와 보고했다. "북경의 양중서가 과연 조정에 상소를 올려 군사를 동원하려 합니다. 간의대부 조정이 조안을 청했다가 채경에게 꾸짖음을 듣고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천자에게 보고가 올라가, 칙부를 받든 사람이 능주로 가서 단정규와 위정국, 두 단련사를 움직여 본주의 군마를 이끌고 정벌하러 오게 했습니다." 송강이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을 맞이해야 하겠소?" 오용이 말했다. "그들이 올 때 한꺼번에 잡아버립시다." 그러자 관승이 일어나 송강과 오용에게 말했다. "저 관승은 산에 오른 뒤로 형님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으나, 아직 힘을 조금도 쓰지 못했습니다. 단정규와 위정국은 예전에 포성에서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어 잘 압니다. 단정규라는 놈은 물을 이용해 병사를 제압하는 법에 능하여 사람들에게 '성수장군'이라 불리고, 위정국이라는 놈은 화공에 정통하여 전장에서 화기를 잘 다루기에 '신화장군'이라 불립니다. 능주는 본거지로서 본주의 병마까지 아울러 관할하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휘하 장수로 있습니다. 소제가 재주는 없으나, 오천 명의 군사를 빌려주신다면, 그 두 장수가 출발하기도 전에 능주 길목에서 먼저 맞닥뜨리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항복한다면 산으로 데려오고,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로잡아 형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

하면 다른 두령들이 활을 메고 화살을 쏘며 힘과 정신을 허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형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강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선찬과 학사문 두 장수를 그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 관승은 오천 명의 군마를 거느리고 이튿날 산을 내려갔다. 그다음 날 새벽, 송강과 모든 두령은 금사탄 채 앞에서 관승 일행을 배웅하였고, 관승 세 사람은 군사를 이끌고 길을 떠났다.

모든 두령이 충의당으로 돌아오자, 오용이 송강에게 말했다. "관승이 떠났으나 그 마음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훌륭한 장수를 보내 뒤를 따르며 감독하고, 아울러 후원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내가 보기에 관승은 의기가 늠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니, 군사께서는 너무 의심하지 마시오." 오용이 말했다. "다만 그의 마음이 형님과 같지 않을까 두려울 뿐입니다. 차라리 임충과 양지를 장수로 삼고, 손립과 황신을 부장으로 삼아 오천 명의 군마를 이끌고 즉시 산을 내려가게 합시다." 이규가 나섰다. "나도 한번 가보겠소!" 송강이 말했다. "이번 일에는 네가 나설 필요 없다. 알아서 장수들이 공을 세울 것이다." 이규가 말했다. "아우가 한가하면 병이 날 것 같소. 나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갈 것이오!" 송강이 호통을 쳤다. "네가 내 군령을 듣지 않는다면 네 목을 베어버리겠다!" 이규는 그 말을 듣고는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으로 당을 내려가 버렸다.

임충과 양지가 군사를 이끌고 산을 내려가 관승을 맞이하러 가는 일은 차치하고, 다음 날 졸개 군사가 달려와 보고했다. "'흑선풍' 이규가 어젯밤 이경(밤 9시~11시 사이)에 도끼 두 자루를 챙겨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송강은 속을 끓이며 말했다. "어젯밤 내가

그놈에게 모진 말을 내뱉은 것이 화근이로구나. 분명 딴 데로 가버린 게 틀림없어!" 오용이 말했다. "형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거칠기는 해도 의리가 두터운 자이니, 다른 곳으로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틀 정도 지나면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송강은 마음이 초조해져 먼저 대종을 보내 서둘러 찾게 했고, 뒤이어 시천, 이운, 악화, 왕정륙 네 장수를 네 갈래 길로 나누어 찾아 나서게 했다.

한편, 이규는 그날 밤 도끼 두 자루를 챙겨 들고 산을 내려가 샛길을 통해 능주로 향했다. 길을 가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두 장군이라는 놈들이 대체 무슨 수로 저 많은 군사를 부려 우리를 치겠다는 거야? 내가 먼저 성안으로 쳐들어가서 도끼로 한 놈 한 놈 다 베어버리면, 형님도 깜짝 놀라겠지! 그러면 그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반나절을 걸었더니 배가 고파졌다. 급하게 산을 내려오느라 여비도 챙겨오지 못한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하지 않다 보니 그는 생각했다. '어디 가서 화풀이라도 할 데가 없나.'

길을 가던 중 길가에 있는 마을 주점을 발견하자, 이규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술 세 잔과 고기 두 근을 연달아 해치우고는 다시 길을 떠나려 했다. 그러자 주인이 앞을 가로막으며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 이규가 말했다. "앞으로 가서 돈벌이를 좀 한 다음에 나중에 갚겠소!" 말을 마치고 몸을 움직이려는데, 밖에서 체격이 건장한 사내 하나가 들어오더니 호통을 쳤다. "이 검은 놈아,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누구 허락을 받고 이 주점에 들어와 공짜로 처먹고 돈을 안 내겠다는 거냐!"

이규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영감님이 어디를 따지든 상관없소, 그냥 공짜로 먹은 거요!" 사내가 말했다. "내 말을 들으면 무서워서 오줌을 지리게 될 거다! 나는 양산박의 호걸 한백룡이다! 이 가게의 밑천은 모두 송강 형님의 돈이란 말이다!"

이규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다. '우리 산채에 저런 놈을 본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한백룡은 예전에 강호에서 약탈을 일삼던 자로, 양산박에 들어가기 위해 '한지홀률' 주귀를 찾아가 송강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당시 송강은 등에 종기가 나기도 했고, 산채에서 군사를 움직이느라 워낙 바빠서 그를 만날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주귀가 임시로 그에게 마을에서 술을 팔게 한 것이었다.

그때 이규가 허리춤에서 도끼 한 자루를 뽑아 들더니 한백룡을 보며 말했다. "도끼 좀 받아보겠나?" 한백룡은 그것이 함정인 줄도 모르고 손을 뻗어 받으려 했다. 그 순간 이규가 도끼를 치켜들더니 한백룡의 얼굴을 향해 단번에 내리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였다. 가련하게도 평생을 강자로 살아온 한백룡은 이규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주점에 있던 몇몇 부하들은 부모가 다리를 두 개만 만들어준 것이 한스러워, 깊은 마을 안쪽으로 도망쳐 버렸다. 이규는 바닥에 떨어진 여비를 챙기고 초가집에 불을 지른 뒤, 능주를 향해 길을 떠났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길을 가던 중, 관도 옆으로 한 건장한 사내가 이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다가왔다. 이규는 그 사내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자 말했다. "이놈아, 뭘 꼬라보느냐?" 사내가 대답했다. "네놈이

누구의 상전이라도 되느냐?" 이규가 즉시 달려들었다. 그러나 사내가 주먹을 휘둘러 이규를 단번에 바닥에 메쳐버렸다. 이규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놈, 주먹 한번 매섭구나!' 이규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치켜들고 물었다. "이놈아, 성이 무엇이고 이름이 무엇이냐?" 사내가 말했다. "상전 따위는 없다! 싸우고 싶으면 싸우자! 감히 일어나 볼 테냐!" 이규가 크게 노해 막 뛰어오르려는데, 사내가 옆구리를 발로 차서 다시 쓰러뜨렸다. 이규가 소리쳤다. "이놈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규는 기어코 일어나 길을 떠나려 했다. 그러자 사내가 불러 세우며 물었다. "이 검은 놈아, 네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 사람이냐?" 이규가 말했다. "말해줄 테니 놀라지 마라. 나는 양산박의 '흑선풍' 이규다!" 사내가 말했다. "정말이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규가 말했다. "못 믿겠거든 내 이 도끼 두 자루를 보아라." 사내가 물었다. "양산박 호걸이면서 어찌 혼자서 이곳에 왔느냐?" 이규가 말했다. "형님과 말다툼을 좀 하고 내려왔다. 단씨와 위씨 성을 가진 그 두 장수를 잡으러 능주로 가는 길이다." 사내가 말했다. "듣기로 양산박에서 이미 군사를 보냈다던데, 누가 갔느냐?" 이규가 말했다. "먼저 '대도' 관승이 군사를 이끌었고, 뒤이어 '표자두' 임충과 '청면수' 양지가 지원하러 갔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다. 이규가 다시 물었다. "너는 대체 성이 무엇이고 이름이 무엇이냐?" 사내가 대답했다. "소인은 본래 중산부 사람으로, 3대째 씨름(상박)을 업으로 삼아온 집안 출신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솜씨는 부자간에 대대로만 전해질 뿐, 외부 제자에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평생 면목이 없어 어디를 가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산동과 하북 사람들은 저를 '몰면목' 초정이라 부릅니다. 최근 구주 땅에 고수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 위에 평생 사람 죽이기만 좋아하여 세상 사람들이 '상문신'에 비기는 강인이 있는데, 성은 포요 이름

은 욱이라는 자가 거기서 약탈을 일삼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산에 들어가 한패가 되려는 참입니다." 이규가 말했다. "그 정도 재주가 있다면 어찌 우리 송강 형님께 찾아가지 않았느냐?" 초정이 말했다. "오랫동안 큰 산채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연줄이 없었습니다. 오늘 형님을 만났으니 기꺼이 형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규가 말했다. "나는 지금 송강 형님과 기 싸움을 하러 내려온 것이니, 사람 한 명도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너는 나와 함께 고수산에 가서 포욱을 설득해 데려오고, 능주로 가서 단·위 두 장수를 해치운 뒤에야 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초정이 말했다. "능주는 한 부의 큰 성이라 군사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둘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역부족일 것이고 공연히 목숨만 잃을 뿐입니다. 차라리 고수산에만 가서 포욱을 설득해 함께 큰 산채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두 사람이 한창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시천이 급히 달려오며 외쳤다. "형님, 고생하지 마시고 어서 산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네 갈래 길로 형님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규는 초정을 데리고 시천과 인사를 나누게 했다. 시천이 이규를 타일렀다. "송강 형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가시지요." 이규가 말했다. "잠깐 기다려라! 초정과 상의를 마쳤다. 먼저 고수산에 가서 포욱을 데려온 뒤에 돌아갈 것이다." 시천이 말했다. "안 됩니다. 형님이 기다리시니 어서 산채로 가야 합니다." 이규가 말했다. "네가 같이 가지 않겠다면 너 혼자 먼저 산채로 돌아가서 형님께 내 소식을 전해라. 그러면 나도 곧 돌아가마." 시천은 이규를 무서워하여 결국 산채로 돌아가 버렸다. 초정은 이규와 함께 구주를 향해 고수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야기는 양쪽으로 갈라진다. 한편, 관승이 선찬, 학사문과 함께 오천 군사를 이끌고 도착하니 능주 인근이었다. 능주 태수는 동경에서 내려온 병사 동원 칙령과 채 태사의 전갈(찰부)을 받자, 즉시 병마단련인 단정규와 위정국을 불러 상의하게 했다. 두 장수는 전갈을 받자마자 곧장 군사를 선발하고, 무기를 수령하고, 안장과 말을 채비하고, 군량과 마초를 정비하여 날을 정해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다.

그러던 중 갑자기 급보가 날아들었다. "포동의 '대도' 관승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 본주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단정규와 위정국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즉시 군마를 챙겨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했다. 양측 군대가 서로 가까워지니 깃발과 북이 서로 마주 바라보였다.

진문의 깃발 아래에서 관승이 말을 타고 나갔다. 저쪽 진영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성수장군'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 차림새는 이러하였다.

순철로 두드려 만든 사방형 철 투구를 쓰고, 그 꼭대기에는 됫박만큼 큰 검은 술 하나를 꽂았다. 곰 가죽을 덧대어 솔기를 박고 가장자리를 두른 검은 기름칠 갑옷을 걸치고, 그 위에는 비취색 둥근 꽃무늬를 점점이 수놓은 검은 비단의 소매 짧은 전포를 입었다. 발에는 비스듬한 가죽에 실선을 박아 구름무늬 굽을 댄 등자용 장화를 신었고, 허리에는 푸른 못을 박은 첩승 무늬의 사만대(사자 문양 허리띠)를 맸다. 활 한 장과 화살 한 통을 갖추고, 칠흑같이 검은 말을 타고 검은 자루의 창을 들었다.

앞장에는 군대를 이끄는 북쪽 방향의 검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은색 글자 일곱 자로 '성수장군 단정규'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이쪽 진영에서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신화장군 위정국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 차림새는 이러하였다.

금빛 장식이 박힌 붉은색 머리 투구를 쓰고,
그 위에는 길고 짧은 붉은 술이 달린 빗자루 모양 장식을 얹었네.
사자 얼굴이 새겨진 쇠사슬 갑옷을 걸치고,
구름과 괴수가 수놓아진 붉은 도포를 입었으며,
기린이 새겨진 비취색 구름무늬 비단 장화까지 신었네.
금빛 공작이 그려진 보물 같은 활을 차고,
봉황 깃털을 꽂은 늑대 이빨 화살통을 매달았네.
연지빛 말에 올라타 익숙한 구리 칼을 손에 쥐었네.

앞장에는 남쪽을 향해 펄럭이는 붉은 자수가 놓인 군기 하나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은색 글자 일곱 자로 '신화장군 위정국'이라고 적혀 있었다. 두 명의 용맹한 장수가 나란히 진영 앞으로 나아왔다. 관승이 이를 보고 말 위에서 말했다. "두 장군, 오랜만입니다!"

단정규와 위정국은 크게 웃으며 관승을 가리켜 꾸짖었다. "재주도 없는 애송이 놈이 반역을 꾀하는 미친놈이로구나! 위로는 조정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래로는 조상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 제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는구나!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면서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단 말이냐?"

관승이 대답했다. “두 장군께서 오해하셨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어리석음에 빠지셨고 간신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 친한 사이가 아니면 쓰지 않고 원수가 아니면 대화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형님 송강께서 인덕을 베풀어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고자, 특별히 저 관승에게 명하여 두 장군을 모셔 오라 하셨습니다. 만약 저희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함께 산채로 돌아가 주십시오.”

단정규와 위정국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말을 몰아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명은 북쪽에서 몰려오는 검은 구름 같았고, 다른 한 명은 남쪽에서 타오르는 불덩이 같았다. 두 장수가 진영 앞으로 들이닥치자 관승이 맞서 싸우려 하는데, 관승의 왼쪽에서는 선찬이 튀어나오고 오른쪽에서는 학사문이 달려 나와 두 쌍의 장수가 진영 앞에서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칼과 칼이 맞부딪칠 때마다 만 갈래의 차가운 빛이 번뜩였고, 창과 창이 서로 찌르고 찌를 때마다 하늘을 뒤덮는 살기가 일었다.

관승이 멀리서 보니 신화장군 위정국은 싸울수록 기세가 드높아졌고, 성수장군 단정규 또한 조금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한창 격렬하게 싸우던 중, 두 장군이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자기 진영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학사문과 선찬이 즉시 그 뒤를 쫓아 진영 속으로 돌진했다. 위정국은 왼쪽으로, 단정규는 오른쪽으로 몸을 틀었다. 선찬은 위정국을 뒤쫓고, 학사문은 단정규를 쫓아갔다.

한편, 선찬이 위정국을 뒤쫓던 중 보니, 사오백 명의 보병이 모두 붉은 깃발과 붉은 갑옷을 차려입고 일렬로 에워싸며 다가왔다. 그들이 일제히 갈고리를 내리고 올가미를 날려 사람과 말을 한꺼번에 낚아채니,

결국 선찬이 사로잡히고 말았다. 또한 학사문이 단정규를 쫓아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오백 명 남짓한 보병이 모두 검은 깃발과 검은 갑옷을 입고 일렬로 에워싸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뒤쪽의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학사문을 생포해 갔다.

영웅이라 불리던 두 장군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적들은 포로를 끌고 능주로 향하면서, 동시에 오백 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다시 몰아치며 공격해 왔다. 관승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패하여 뒤로 물러나는데, 곧이어 단정규와 위정국이 말을 달려 뒤를 쫓아왔다. 관승이 도망치던 중 눈앞에 두 장수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자세히 보니 왼쪽에는 임충이, 오른쪽에는 양지가 양옆에서 들이닥치며 능주의 군마들을 흩어놓고 있었다. 관승은 남은 병사들을 수습하여 임충, 양지와 만나 한곳에 군사를 합쳤다. 뒤이어 손립과 황신도 함께 만나 일단 진을 치고 머물렀다.

한편, '수(水)'와 '화(火)' 두 장군이 선찬과 학사문을 생포하여 승전보를 울리며 성안으로 돌아오니, 장태수가 마중 나와 술을 대접하며 축하해 주었다. 한편으로는 사람을 시켜 함정 차를 만들게 하여 두 사람을 그 안에 가두고, 편장(偏將, 부장급 장수) 한 명에게 삼백 명의 보병을 거느리게 하여 밤을 도와 동경으로 압송하게 한 뒤 조정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편장이 삼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선찬과 학사문을 압송하여 동경으로 향하던 중,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가다 어느 곳에 이르렀다. 산에는 말라 죽은 나무들이 가득하고 땅에는 갈대 싹이 무성했는데, 그때 징 소리가 한 번 울리더니 한 무리의 강도들이 튀어나왔다. 그 앞장선

자는 양손에 도끼를 들고 천둥 같은 소리로 호통을 치고 있었으니, 바로 양산박의 '흑선풍' 이규였다. 그 뒤를 따르는 호걸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다음과 같다.

씨름판 속의 사람들은 모두 엎드러지고,
주먹 휘두르고 발차기하는 기세는 칼날처럼 독하다.
못된 성질이 터져 나올 때는 산이 무너지는 듯하니,
그 형편이 어찌 꼴을 차릴 수 있겠는가.

이규와 초정, 두 호걸은 졸개들을 이끌고 가는 길을 가로막더니, 아무 말도 없이 곧장 함정 차를 습격했다. 편장이 급히 도망치려는데, 등 뒤에서 또 한 명의 호걸이 튀어나오니, 바로 다음과 같다.

험악하고 못생긴 얼굴은 가마솥 바닥 같고
부릅뜬 두 눈은 늑대 입술처럼 튀어나왔네
불을 지르고 사람 죽일 때 넓은 칼을 휘두르니
포욱은 '죽음을 몰고 오는 신'이라 불리네

이 호걸은 바로 '상문신' 포욱이었다. 포욱이 앞으로 나아가 편장을 향해 칼을 휘두르니 편장이 말에서 떨어졌고, 나머지 사람들은 함정 차를 버려둔 채 모두 목숨을 구하려 달아났다. 이규가 살펴보니 사로잡힌 이들이 선찬과 학사문인 것을 보고 자세한 사정을 물었다. 선찬 역시 이규를 보고는 "자네가 어찌 여기에 있는가?"라며 물었다. 이규가 대답했다. "형님께서 나를 싸움터에 보내주지 않으시기에, 나 혼자 몰래 산을 내려왔다네. 먼저 한백룡을 죽이고 나서 초정을 만났는데, 그가

나를 여기로 데려왔지. 포욱은 나를 보자마자 마치 친형제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네. 막 능주를 치러 가자고 의논하던 참이었는데, 졸개 하나가 산 위에서 이 무리를 보고 함정 차를 압송하며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군. 관군이 도적을 잡으러 오는 줄 알았더니, 뜻밖에도 두 분이 아니겠는가." 포욱은 이들을 산채로 초대해 소를 잡고 술을 대접하며 정중히 맞이했다. 학사문이 말했다. "형제께서 양산박에 들어올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이끄는 부하들을 데리고 함께 능주로 가서 힘을 합쳐 공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포욱이 말했다. "나도 이 형님과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던 참이었네. 그대의 말이 참으로 옳소. 우리 산채에도 좋은 말 이삼백 필이 있네." 그리하여 포욱은 오칠백 명의 졸개와 다섯 명의 호걸을 이끌고 함께 능주를 치러 나갔다.

한편, 도망치던 군사들이 달려와 장태수에게 보고했다. "길 중간에서 강도들이 함정 차를 빼앗고 편장을 죽였습니다!" 단정규와 위정국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이놈들을 잡아다가 여기서 바로 처형하겠다!" 이때 성 밖에서 관승이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단정규는 앞장서서 성문을 열고 도교(吊橋, 성문 앞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내린 뒤, 오백 명의 현갑군을 이끌고 성 밖으로 달려 나가 적을 맞이했다. 깃발이 펄쳐지며 '성수장군' 단정규가 출마하여 관승을 향해 크게 꾸짖었다. "나라를 욕되게 한 패장아, 어찌 죽음을 피하려 하느냐!" 관승은 그 말을 듣고 칼을 휘두르며 말을 몰았다. 두 사람이 쉰 합 넘게 싸우던 중, 관승이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황급히 달아나자 단정규가 즉시 뒤쫓았다. 십여 리쯤 쫓아갔을 때 관승이 뒤를 돌아보며 호통을 쳤다. "이놈아, 말에서 내려 항복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단정규가 창을 겨누며 관승의 등을 향해 곧장 찔러 들

어갔다. 관승이 신묘한 위력을 발휘하며 도의 등 부분을 들어 올려 한 번 내리치며 외쳤다. "물러가라!" 그러자 단정규가 말에서 떨어졌다. 관승은 말에서 내려 앞으로 다가가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장군, 죄를 용서하십시오!" 단정규는 겁에 질려 엎드려 절하며 목숨을 구걸하고 항복했다. 관승이 말했다. "나는 송강 형님 앞에서 장군들의 이름을 여러 번 거론한 적이 있소. 특별히 두 장군을 모셔와 대의를 함께하고자 왔소." 단정규가 대답했다. "부족한 몸이나마 힘을 보태어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고 싶습니다."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은 나란히 말을 타고 떠났다. 임충이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마중 나가 이유를 물었다. 관승은 승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대답했다. "외딴곳에서 옛 인연을 나누며 항복을 권유하러 왔소." 임충과 다른 이들은 모두 크게 기뻐했다. 단정규가 진영으로 돌아와 크게 소리치자 오백 명의 현갑군이 일제히 몰려왔고, 나머지 병사들은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들은 서둘러 태수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위정국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이튿날 군마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전투를 벌였다. 단정규는 관승, 임충과 함께 진영 앞에 늘어섰다. 깃발이 펼쳐지며 '신화장군' 위정국이 출마하더니, 단정규가 관승에게 귀순한 것을 보고 크게 꾸짖었다. "은혜를 잊고 주군을 배신한 의리 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관승은 크게 분노하여 말을 몰아 적을 맞이했다. 두 말이 마주치고 병기가 부딪쳤으나, 싸운 지 열 합도 되지 않아 위정국은 본진을 바라보며 황급히 달아났다. 관승이 뒤쫓으려 하자 단정규가 크게 외쳤다. "장군,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관승은 급히 전마를 멈춰 세웠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능주 진영 안에서 갑자기 오백 명의 화병(火兵)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붉은 옷을 입고 화기를 손에 든 채, 앞뒤로 오십 대의 화차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화차 위에는 불을 붙이기 위한 갈대가 가득 실려 있었다. 군사들은 등 뒤에 유황과 초석, 오색 연기가 든 철호로를 하나씩 매달고는 일제히 불을 붙여 달려들었다. 사람들이 부딪쳐 쓰러지고 말들이 상처를 입을 만큼 기세가 대단했다. 관승의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다 마흔여 리를 물러난 뒤에야 겨우 진을 쳤다.

위정국이 군마를 돌려 성으로 돌아가 보니, 이미 자기 고을은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알고 보니 '흑선풍' 이규가 초정, 포욱과 함께 고수산 인물들을 이끌고 능주 뒷길로 돌아가 북문을 부수고 성 안으로 난입한 것이었다. 그들은 성 안에 불을 지르고 창고의 돈과 식량을 약탈했다. 이 사실을 안 위정국은 감히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황급히 군사를 돌렸으나, 뒤쫓아온 관승에게 쫓기며 앞뒤를 돌볼 겨를도 없이 몰렸다. 결국 능주를 잃은 위정국은 어쩔 수 없이 퇴각하여 중릉현으로 도망쳐 주둔했다. 관승은 군사를 이끌고 현성을 사방으로 포위한 뒤, 여러 장수에게 군사를 움직여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위정국은 성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단정규가 관승과 임충 등에게 말했다. "저 자는 용맹한 장수라 맹렬히 공격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지, 결코 치욕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둘러 몰아붙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성 안으로 들어가 칼날을 피하지 않고 좋은 말로 달래서, 저 자가 순순히 항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승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단정규에게 혼자 말을 타고 현성으로 가라고 명했다. 관리가 보고하자 위정국이 나와서 만났다. 단정규가 간곡하게 말했다. "지금 조정은 어지럽고 천하는 혼란스러우며, 천자는 어리석고 간신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송강 형님께 귀순하여 양산박에 머물고 있습니다. 훗날 간신들이 물러나고 세상이 바로잡힐 때 그때 가서 정의를 따르더라도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위정국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정말로 나를 귀순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관승이 직접 와서 청해야 할 것이오. 만약 그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치욕을 당하지는 않겠소!" 단정규는 즉시 말을 타고 돌아와 관승에게 보고했다. 관승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대장부가 일을 함에 어찌 망설이겠는가?" 하며 단정규와 함께 말을 타고 단도를 든 채 홀로 떠났다. 임충이 간언했다. "형님,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우니 신중히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관승은 "호걸이 일을 하는 데 무엇이 걱정이냐"라고 답했다.

현청 관아에 도착하자 위정국은 크게 기뻐하며 항복하기를 청했다. 두 사람은 옛 인연을 나누며 잔치를 베풀어 대접했다. 그날 위정국은 오백 명의 화병을 이끌고 대채로 와서 임충, 양지 및 여러 두령과 모두 인사를 나누었고, 곧 군사를 거두어 양산박으로 돌아왔다. 송강은 일찌감치 대종을 보내 마중하게 한 뒤 이규에게 말했다. "자네가 몰래 산을 내려가는 바람에 형제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길을 달려왔는지 아는가! 이제 시천, 악화, 이운, 왕정륙 네 사람은 먼저 산으로 돌아갔네. 나는 우선 형님께 이 소식을 알려 기다리시지 않게 하겠네."

대종이 먼저 떠난 것은 차치하고, 한편 관승 일행의 군마가 금사탄 근처로 돌아오자 수군 두령들이 배를 저어와 군마를 돕고 차례로 건너오게 했다. 그때 한 사람이 몹시 다급하고 당황한 기색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이 살펴보니 바로 '금모견' 단경주였다. 임충이 물었다. "자네가 양림, 석용과 함께 북쪽 땅에 말을 사러 갔다가 어찌 이리 황급히 달려오는가?" 단경주가 몇 마디 말을 꺼내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큰일을 불러오게 되었다. 송강이 군사를 동원하여 이곳을 치러 가서 옛 원수를 갚고 이전의 한을 다시 씻으려 한 것이다. 이야말로 '말이 곧 낚싯바늘과 낚싯줄인 줄 알겠으니, 처음부터 시비를 낚아올리는구나'였다. 과연 단경주가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는 다음 회에서 풀어 설명하겠다.

제68회 — 송공명이 밤에 증두시를 습격하고, 노준의가 사문공을 생포하다

宋公明夜打曾頭市 盧俊義活捉史文恭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단경주가 달려와 임충 등에게 말했다. "제가 양림, 석용과 함께 북쪽 지방으로 말을 사러 갔습니다. 거기서 기운이 넘치고 털빛이 좋은 준마 이백여 필을 골라 샀지요. 그런데 청주 땅으로 돌아오던 길에 '험도신'이라 불리는 욱보사라는 자가 이끄는 강도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놈들이 이백여 명이나 모여서 저희 말을 모조리 빼앗아 증두시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석용과 양림은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저만 겨우 밤을 틈타 도망쳐 나와 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관승이 이 말을 듣고는, 일단 산채로 돌아가 형님(송강)을 뵙고 이 일을 의논하자고 말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와 충의당에 이르자 송강이 그들을 맞이했다. 관승은 단정규, 위정국을 이끌고 와 크고 작은 두령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누었다. 이규는 산을 내려가 한백룡을 죽

인 일과 초정, 포욱을 만나 릉주를 함락시킨 일을 한바탕 늘어놓았다. 송강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호걸이 네 명이나 더 늘어난 것에 기뻐했다.

그러다 단경주가 말을 빼앗긴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송강은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지난번에도 내 말을 빼앗더니, 이제는 이토록 무례하게 구는구나! 조개 형님의 원수도 아직 갚지 못해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이 원한을 갚지 않는다면 남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오용이 말했다. "마침 날씨도 따뜻하니 싸우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지난번에는 무작정 군사를 일으켰다가 지형의 이점을 잃었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지략을 써서 승리해야 합니다."

송강이 말했다. "이 원한은 뼈에 사무치니, 갚지 않고서는 결코 산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오용이 다시 제안했다. "우선 담을 넘나드는 재주가 뛰어난 시천을 보내 소식을 알아보게 한 뒤, 돌아오면 함께 대책을 세웁시다."

시천이 명을 받고 떠났다. 며칠 지나지 않아 양림과 석용이 간신히 산채로 돌아왔다. 그들은 증두시의 사문공이 큰소리를 치며 양산박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송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군사를 일으키려 했다. 오용이 만류했다. "시천이 돌아와 보고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강은 가슴속에 분노가 가득 차서 당장이라도 복수를 하고 싶어 잠시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대종을 날려 보내 소식을 알아보게 하고는, 선 채로 회보가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며칠 지나지 않아 대종이 먼저 돌아와 보고했다. "증두시 놈들이 릉주의 원수를 갚으려 군마를 일으키려 합니다. 지금 증두시 앞에는 큰 진영을 치고, 법화사 안에는 중군(中軍)의 막사를 세웠습니다. 수백 리에 걸쳐 깃발을 꽂아 두었으니, 어느 길로 진격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시천이 산채로 돌아와 자세히 보고했다. "제가 증두시 안까지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곳에는 다섯 개의 진영이 쳐져 있었습니다. 증두시 앞마당에는 이천여 명의 군사가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총진영은 교사 사문공이 맡고 있고, 북쪽 진영은 증도와 부교사 소정이, 남쪽 진영은 차남 증밀이, 서쪽 진영은 삼남 증색이, 동쪽 진영은 사남 증괴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진영은 다섯째 아들 증승이 아버지 증농과 함께 지키고 있었습니다. 청주의 욱보사라는 자는 키가 한 장(丈)에 허리가 몇 뼘이나 될 정도로 건장한데, '험도신'이라 불리며 빼앗은 말들을 모두 법화사 안에서 먹이고 있습니다."

오용은 보고를 다 듣고는 즉시 여러 장수를 모아 함께 의논하게 했다. "놈들이 다섯 개의 진영을 쳤으니, 우리도 다섯 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각 진영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자 노준의가 일어나 말했다. "저 노준의는 목숨을 구걸해 양산박에 올라온 뒤로 아직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 목숨을 바쳐 앞장서고 싶으니, 형님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원외께서 기꺼이 산을 내려가 주신다면, 바로 선봉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오용이 간언했다. "원외께서는 산채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전 경험이 없으신 데다, 산길이 험해 말을 타기도 불편하니 선봉으로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대신 별도의 군마를 이끌고 평탄한 길에 매복해 있다가, 중군에서 포성(砲聲)이 들리면 즉시 지원하러 오십시오."

사실 오용은 노준의가 사문공을 생포했을 때, 송강이 조개의 유언을 어기고 그에게 자리를 물려줄까 봐 걱정되어 그를 선봉으로 세우지 않으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송강은 별생각 없이 노준의가 공을 세우기만 하면, 이 기회에 그를 산채의 주인으로 삼을 생각이었다. 오용은 이를 용납할 수 없어, 반드시 노준의가 연청과 함께 보병 오백 명을 거느리고 평탄한 길에서 신호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오용은 군사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갈래로 나누었다.

증두시 정남쪽 대진영에는 기병 두령 '벽력화' 진명과 '소이광' 화영, 부장 마린과 등비가 이끄는 군사 삼천 명을 보내 공격한다.

증두시 정동쪽 대진영에는 보병 두령 '화화상' 노지심과 '행자' 무송, 부장 공명과 공량을 보내 군사 삼천 명으로 공격한다.

증두시 정북쪽 대진영에는 기병 두령 '청면수' 양지와 '구문룡' 사진, 부장 양춘과 진달을 보내 군사 삼천 명으로 공격한다.

증두시 정서쪽 대진영에는 보병 두령 '미염공' 주동과 '삽치호' 뇌횡, 부장 추연과 추윤을 보내 군사 삼천 명으로 공격한다.

증두시 중앙 총진영에는 도두령(都頭領, 전군의 총사령) 송공명과 군사 오용, 공손승이 나서고, 부장 여방, 곽성, 해진, 해보, 대종, 시천이 함께 군사 오천 명을 거느리고 공격한다.

그리고 후미를 맡은 보병 두령 '흑선풍' 이규와 '혼세마왕' 번서, 부장 항충과 이곤이 기병과 보병 오천 명을 이끈다.

그 외의 두령들은 각자 산채를 지키기로 했다.

한편, 송강이 이끄는 다섯 갈래의 군사들이 대대적으로 진격했다.

한편, 증두시의 정찰꾼이 세세한 사정을 알아내어 진영으로 보고했다. 증두시의 우두머리인 증 장관(증농)이 보고를 듣고는 교사 사문공과 소정을 불러 군사상의 중대한 일을 의논했다. 사문공이 말했다. "양산박 군사들이 올 때는 함정을 파놓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야 저들의 강한 병사와 용맹한 장수들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도적 놈들에게는 이 계책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증 장관(증농)이 즉시 장객(莊客)들에게 명령하여 괭이와 삽을 들려 보냈다. 그들은 마을 입구에 흙을 얇게 덮은 함정을 수십 군데 파놓았

다. 그리고 사방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적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또한 증두시 북쪽 길에도 함정을 십여 군데 더 팠다.

송강의 군사가 출발할 무렵, 오용은 미리 시천을 몰래 보내 다시 정찰하게 했다. 며칠 뒤 시천이 돌아와 보고했다. "증두시의 남쪽 진영과 북쪽 진영 모두 셀 수 없이 많은 함정을 파놓고 우리 군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용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 놀랄 일은 아니구나!" 오용은 군사를 이끌고 전진하여 증두시 근처에 이르렀다. 때는 한낮이었다. 앞쪽 부대가 말을 탄 한 명을 발견했는데, 그 말은 목에 구리 방울을 달고 꼬리에는 꿩 깃털을 매달고 있었다. 말 위의 사내는 푸른 수건을 쓰고 흰 도포를 입었으며 짧은 창을 손에 쥐고 있었다. 앞쪽 부대가 이를 보고 쫓아가려 하자 오용이 제지했다.

오용은 군사들에게 그 자리에 진을 치게 하고, 사방에 해자를 파고 철질려(철가시 못)를 뿌리게 했다. 이어 명령을 내려 다섯 갈래의 군사들에게 각자 진을 치게 하고, 똑같이 해자를 파고 철질려를 뿌리도록 했다. 그렇게 사흘 동안 머물렀으나 증두시에서는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오용은 다시 시천을 보내 길목을 지키는 소규모 군사로 변장시킨 뒤, 증두시 진영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왜 싸우지 않는지 떠보게 했다. 또한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진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총 몇 군데인지를 몰래 기록하게 했다. 시천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모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한 뒤, 몰래 표식을 남겨 군사에게 보고했다.

다음 날, 오용은 명령을 내려 앞쪽 보병 부대에게 철삽을 들려 두 팀으로 나누게 했다. 또한 백여 대의 식량 수레에 갈대와 마른 땔감을 가득 실어 중군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그날 밤 각 진영의 두령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내일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 사이)에 동쪽과 서쪽의 보병 두 팀이 먼저 진영을 공격하게 하라. 그 뒤에 북쪽 진영을 공격할 양지와 사진에게 명령하여, 기병들을 일렬로 늘어세우게 하라. 만약 저쪽에서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며 허세를 부리더라도 절대로 진격해서는 안 된다."

오용의 명령이 모두 내려졌다.

한편, 증두시의 사문공은 그저 송강의 군사들이 진영을 공격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진영 앞길이 좁으니, 일단 공격해 오면 함정에 빠뜨려 도망갈 곳을 없애버릴 심산이었다.

다음 날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 사이)경, 진영 앞에서 포성(砲聲)이 울리자 추격 부대의 대군이 남문까지 도달했다. 곧이어 동쪽 진영 쪽에서 급보가 날아들었다. "스님 한 명이 쇠 선장(禪杖)을 휘두르고, 행자 한 명이 쌍계도를 휘두르며 앞뒤로 공격해 옵니다!"

사문공이 말했다. "저 둘은 분명 양산박의 노지심과 무송일 것이다." 사문공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즉시 사람을 보내 증괴를 도우라고 명했다.

그러자 서쪽 진영 쪽에서 또 급보가 들려왔다. "수염이 긴 대한과 호랑이 같은 얼굴을 한 도적이 '미염공' 주동과 '삽치호' 뇌횡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매우 급하게 공격해 옵니다!"

사문공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사람을 나누어 증색을 돕게 했다. 이어 진영 앞에서 다시 포성이 울렸으나, 사문공은 병사들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는 적군이 함정을 밟아 빠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산 뒤에 매복한 병사들을 일제히 일으켜 적을 붙잡으려 했다.

이때 오용은 기병들을 몰아 산 뒤쪽 두 갈래 길로 돌아 진영 앞으로 몰래 접근시켰다. 앞쪽의 보병들은 진영을 살피느라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고, 양옆의 매복병들은 모두 진영 앞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 상황에서 뒤쪽에서 오용의 기병들이 들이닥치니, 적들은 속수무책으로 함정 속으로 빠져들었다.

사문공이 막 밖으로 나오려 하자, 오용이 채찍 끝으로 한곳을 가리켰다. 그러자 진영 안에서 징소리가 울리며 백여 대의 수레가 일제히 튀어나왔는데, 그 수레들은 모두 불을 붙인 상태였다. 수레 위에 실린 갈대와 마른 땔감에 유황과 초석을 섞어 불을 붙이니, 불길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사문공의 군사가 나오려 했으나, 불타는 수레들이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피할 수밖에 없었고 급히 군사를 물릴 수밖에 없었다. 공손승은 이미 진영 안에 자리 잡고 검을 휘둘러 법술을 부려 거센 바람을 일으켰다. 그 바람에 불길이 남문 쪽으로 휘몰아치며 적의 망루와 울타리들을 모조리 태워버렸다.

결국 승기를 잡은 양산박 군사는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어들였다. 양산박 군사들은 사방에 진을 치고 들어와 그날 밤 잠시 휴식을 취했다. 사문공은 밤을 새워 진영의 문을 수리하고 양쪽을 굳게 지켰다.

다음 날, 증도가 사문공에게 계획을 말하며 말했다. "적의 우두머리를 먼저 베지 않으면 저들을 완전히 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고는 사문공에게 진영과 울타리를 굳게 지키라고 당부했다. 증도는 군사를 이끌고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 출전하여 싸움을 걸었다.

중군에 있던 송강은 증도가 싸움을 걸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방과 곽성을 데리고 앞쪽 부대로 나갔다. 깃발 그림자 사이로 증도가 보이자, 송강은 옛 원한이 떠올라 채찍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누가 먼저 저놈을 잡아 내 옛 원한을 갚아줄 것인가!"

'소온후' 여방이 말을 박차며 손에 든 방천화극을 치켜들고 곧장 증도를 향해 달려들었다. 두 말이 맞붙고 무기가 부딪히며 서른 합 넘게 싸움이 이어졌다. 깃발 아래에 있던 곽성이 보니, 두 사람 중 한 명이 곧 패할 듯 보였다. 알고 보니 여방의 실력이 증도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서른 합이 되기 전부터 이미 버티기 힘들어하더니, 서른 합이 넘어가자 창법이 흐트러져 그저 막고 피하기에 급급했다. 곽성은 여방이 잘못될까 두려워 급히 말을 몰아 방천화극을 움켜쥐고 진영 밖으로 날아오듯 달려나가 증도를 협공했다. 세 명의 기병이 진영 앞에서 한데 뒤엉켜 싸웠다. 두 자루의 화극에는 모두 금전표범의 꼬리가 달려 있었다. 여방과 곽성이 증도를 잡으려고 두 화극을 동시에 치켜들자, 눈썰미가 좋은 증도가 창으로 그것을 쳐내려 했다. 그러나 두 개의 표범 꼬리가 창의 붉은 술을 휘감아버리는 바람에 서로 잡아당기느라 떼어낼 수가 없었고, 세 사람 모두 무기를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엉켜 버렸다.

진영 안에 있던 '소이광' 화영이 이 광경을 보고 두 사람이 질까 걱정되었다. 그는 즉시 말을 몰아 나와 왼손으로는 조궁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화살을 재빨리 집어 들었다.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활을 가득 당긴 뒤, 증도를 겨냥해 쏘았다. 이때 증도는 창을 빼내려 했으나 두 자루의 화극이 여전히 한데 엉켜 있었다. 찰나의 순간, 증도가 창을 빼내며 여방의 목을 찌르려 했다. 그러나 화영의 화살이 한발 앞서 날아가 증도의 왼쪽 팔에 정통으로 맞았다. 증도는 몸을 뒤집으며 말에서 떨어졌고, 투구는 거꾸로 처박히고 두 발은 허공을 휘저었다. 그 틈을 타 여방과 곽성이 양쪽 화극을 동시에 휘둘렀고, 증도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십여 명의 기병이 급히 달려가 사문공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소식은 다시 중채로 전해졌다. 보고를 받은 증 장관(아버지 증농)은 대성통곡했다.

한편, 옆에 있던 증승은 무예가 매우 뛰어난 장사로, 두 자루의 비도를 사용하여 아무도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형의 죽음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하여 이를 갈며 외쳤다. "말을 준비하라! 형님의 원수를 갚으러 가겠다!" 증 장관(아버지 증농)이 말렸으나 소용없었다. 증승은 즉시 갑옷을 갖춰 입고 칼을 찼으며 말에 올라 곧장 앞쪽 진영을 향해 돌진했다.

사문공이 그를 붙잡고 간곡히 권했다. "소장군, 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송강의 군대에는 지략과 용맹을 겸비한 장수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는, 그저 다섯 진영을 굳게 지키면서 몰래 사람을 릉주로 보내 조정에 급보를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정에서 군사와 장수를 뽑아 병력을 더 보낸 뒤, 두 갈래로 나누어 토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양산박을 치고, 다른 한쪽은 증두시를 지키게 하면, 적들은 싸움에 전념하지 못하고 반드시 퇴각하여 산으로 급히 돌아가려 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장군께서 형제분들과 함께 추격한다면 반드시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북쪽 진영의 부교사 소정이 도착했다. 그는 진영을 굳게 지키라는 사문공의 말에 동의하며 덧붙였다. "양산박의 오용은 간사하고 꾀가 많으니 결코 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저 물러나 지키면서 구원병이 오기를 기다려 다시 의논해야 합니다."

그러자 증승이 소리쳤다. "내 친형을 죽였는데 이 원한을 갚지 않고 또 언제 갚는단 말이냐! 적의 세력이 더 커지기만을 기다리면, 나중에 적을 물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사문공과 소정도 증승을 말리지 못했다. 결국 증승은 말에 올라 수십 명의 기병을 이끌고 진영 밖으로 달려 나가 싸움을 걸었다.

송강은 이 소식을 듣고 앞쪽 부대에 맞서 싸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마침 명령을 받은 진명이 낭아곤을 휘두르며 증승과 맞서 싸우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흑선풍' 이규가 판부(큰 쌍도끼)를 들고 앞장서서 사정은 묻지도 않고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해 들어갔다. 대치하던 병사들 중 그를 알아보는 이가 있었다. "저 자는 양산박의 '흑선풍' 이규다!"

증승이 이를 보고 즉시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다. 본래 이규는 전장에 나가면 늘 웃통을 벗어젖히고 싸우는지라, 전적으로 항충과 이곤이 방패로 그를 막아 보호해 주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돌진해

나갔다가 증승이 쏜 화살에 다리를 정통으로 맞았다. 이규는 태산처럼 무거운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증승의 뒤를 따르던 기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송강의 진영에 있던 진명과 화영이 말을 몰아 앞으로 달려 나가 필사적으로 그를 구했고, 뒤이어 마린, 등비, 여방, 곽성이 일제히 달려와 그를 구해 진영으로 복귀시켰다. 증승은 송강의 진영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는 더 싸우지 못하고 병사들을 이끌고 진영으로 돌아갔다. 송강 역시 군사를 거두어 주둔했다.

다음 날, 사문공과 소정은 맞서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형의 원수를 갚겠다며 몰아붙이는 증승을 어찌 막겠는가. 사문공은 어쩔 수 없이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탔다. 그가 탄 말은 바로 얼마 전 단경주에게서 빼앗은 천리마 '조야옥사자마'였다.

송강은 여러 장수를 이끌고 진형을 갖추어 적을 맞이했다. 사문공이 맞서 싸우기 위해 출전했는데, 그 차림새가 이러하였다.

머리에 쓴 금투구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몸에 걸친 갑옷은 얼음과 서리를 무색케 하는구나. 천 리를 달리는 용마에 올라타, 손에는 붉은 술이 달린 한 길 두 자(丈二)의 긴 창을 들었네.

이때 사문공이 말을 몰아 횡으로 베며 돌진해 오자, 송강의 진영에 있던 진명이 큰 공을 세우고 싶어 말을 몰아 맞서 싸우러 달려 나갔다. 두 기병이 맞붙어 무기를 휘두르며 싸우기를 스무 합 넘게 이어갔으나, 진명이 힘에 부쳐 본진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사문공이 용맹하게 뒤를 쫓으며 신묘한 창을 내지르니, 그 창끝이 진명의 뒷다리 허벅지에

그대로 박혔고, 진명은 결국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여방, 곽성, 마린, 등비 네 장수가 일제히 출전하여 목숨을 걸고 그를 구했다. 비록 진명을 구출해 내기는 했으나 군사들이 한차례 큰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패배한 군사들을 거두어 진영에서 십 리 떨어진 곳에 주둔했다.

송강은 수레를 불러 진명을 실어 보낸 뒤, 사람을 보내 양산박으로 돌려보내 쉬게 하고는 다시 오용과 상의하였다. "대도 관승과 금창수 서녕, 그리고 단정규와 위정국까지 네 사람을 산에서 내려오게 하여 함께 돕게 합시다." 송강은 직접 향을 피워 기도를 올리며 점을 쳤다. 오용이 괘를 살펴보더니 말했다. "비록 이곳에서 적을 꺾을 수는 있으나, 오늘 밤 반드시 도적 떼가 진영으로 들이닥칠 괘입니다." 송강이 "그렇다면 서둘러 준비를 해야겠군요"라고 하자, 오용이 대답했다. "형님께서는 안심하십시오. 그저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우선 삼채(三寨)의 두령들에게 보고하게 한 뒤, 오늘 밤부터 동서 두 진영에 해진은 왼쪽에, 해보를 오른쪽 배치하고, 나머지 군마들은 사방에 매복시키도록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날 밤은 하늘이 맑고 달빛이 하얗게 빛났으며, 바람도 잔잔하고 구름도 한가로웠다. 진영 안에 있던 사문공이 증승에게 말했다. "적군이 오늘 장수 두 명을 잃었으니 분명 겁을 먹었을 것이오. 허점을 틈타 지금 바로 진영을 습격합시다." 증승이 그 말을 듣고는 즉시 북채의 소정, 남채의 증밀, 서채의 증소를 불러 모아 함께 진영을 습격하기로 했다.

이경(二更, 밤 9시~11시) 무렵, 그들은 은밀히 군사를 이끌고 출진하여, 말의 방울을 떼어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부드러운 갑옷을 입은

채 송강의 중군 진영까지 곧장 잠입했다. 사문공 일행은 진영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빈 진영을 약탈하려 했으나, 이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급히 소리치며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그때 왼쪽에서는 '양두사' 해진이 튀어나오고, 오른쪽에서는 '쌍미갈' 해보가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소이광' 화영이 단숨에 뒤쫓아왔다. 어둠 속에 있던 증소는 해진의 강철 삼지창에 찔려 말 아래로 떨어졌다. 불길이 치솟고 뒤쪽 진영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자, 동서 양쪽에서 군사들이 쏟아져 나와 진영의 울타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밤중까지 이어진 혼전 끝에 사문공은 겨우 길을 뚫고 탈출했다.

증 장관은 증소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이 더욱 깊어지자, 이튿날 사문공에게 항복하겠다는 서신을 쓰라고 했다. 사문공 역시 겁을 잔뜩 집어먹은 상태라 즉시 글을 써서 사람을 시켜 송강의 대채(大寨)로 급히 보내게 했다.

소교(小校, 하급 군관)가 달려와 증두시에서 서신을 보냈다고 보고하자, 송강은 명령을 내려 그를 안으로 불러들였다. 소교가 서신을 올렸고, 송강이 그것을 뜯어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증두시의 주인 증롱이 송공명(宋公明) 통군 두령 휘하에 머리 숙여 거듭 절하며 올립니다. 어제 제 자식이 잠시 용맹을 믿고 날뛰다가 뜻하지 않게 장군님의 위엄을 범하였습니다. 지난번 천왕(天王)께서 무리를 이끌고 오셨을 때 마땅히 귀순했어야 하나, 까닭 없이 부하들이 멋대로 화살을 쏘고 말까지 빼앗는 죄를 저질렀으니, 백 번을 말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래 그럴 의도가 아니었음을 헤아려 주십시

오. 이제 그 미련한 자식놈마저 죽었으니, 사절을 보내 화해를 청합니다. 부디 전쟁을 멈추고 군사를 거두어 주신다면, 빼앗았던 말들을 모두 돌려드리고 금과 비단을 갖추어 삼군을 위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양쪽 모두 상하는 일이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삼가 이 글을 올리니 부디 살펴주십시오."

송강은 서신을 다 읽고는 크게 노하여, 종이를 찢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내 형님(조개)을 죽인 놈들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는가? 저 마을을 낱낱이 쓸어버리는 것만이 나의 본래 소원이다!" 서신을 가져온 자는 바닥에 엎드려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이때 오용이 황급히 만류하며 말했다. "형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은 모두 혈기 때문이 아니옵니까. 이미 증씨 집안에서 사람을 보내 화해를 청해오니, 어찌 일시적인 분노 때문에 대의를 저버리려 하십니까?" 오용은 즉시 답신을 써 내려간 뒤, 은 열 냥을 챙겨 사절에게 상으로 주었다. 사절이 다시 양산박 본채로 돌아와 서신을 올렸다.

증 장관과 사문공이 서신을 뜯어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양산박의 주장 송강이 증두시의 주인 증롱의 장막 앞으로 글을 보냅니다. 나라는 신의로써 천하를 다스리고, 장수는 용맹으로써 외방을 진압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예의가 없다면 무엇을 하겠으며, 재물은 의롭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 것이 도리입니다. 양산박과 증두시는 본래 원한이 없으며 각자 경계를 지키며 살아왔으나, 그대들이 일시적인 악행을 저질러 수년의 원한을 샀습니다. 만약 화해를 원한다면, 두 차례

에 걸쳐 빼앗았던 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말을 빼앗은 흉악한 자 욱보사(郁保四)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또한 군사들을 위로할 금과 비단도 갖추어 오십시오. 충성이 두텁다면 예우 또한 가벼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다시 약속을 어긴다면 그때는 따로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증 장관과 사문공은 서신을 읽고는 모두 놀라 근심에 빠졌다. 이튿날 증 장관이 다시 사람을 보내 말했다. "만약 화해를 원한다면, 서로 인질로 한 사람씩을 보내야 합니다." 송강은 이를 꺼렸으나, 오용이 "해될 것 없습니다"라며 응했다. 오용은 즉시 시천, 이규, 번서, 항충, 이곤 다섯 사람을 신표(인질)로 삼아 보냈다. 떠나기 직전, 오용은 시천을 불러 귓속말로 나직이 일렀다. "이러이러하게 하되,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

다섯 사람이 떠난 뒤의 이야기는 차치하고, 한편 관승, 서녕, 단정규, 위정국이 도착했다. 그들은 모여 있는 사람들을 만난 뒤 곧바로 중군(中軍)에 진을 쳤다.

한편, 시천은 네 명의 호걸을 데리고 증 장관을 찾아갔다. 시천이 앞에 나아가 말했다. "형님(송강)의 명을 받들어, 저 시천이 이규 등 네 사람을 데리고 화해를 청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사문공이 말했다. "오용이 다섯 명이나 보낸 것을 보니, 필시 무슨 계략이 있는 것이로군." 이 말을 들은 이규가 크게 노하여 사문공의 멱살을 잡고 때리기 시작했다. 증 장관이 황급히 말리며 중재했다. 시천이 거들었다. "이규가 비록 거칠기는 하나, 우리 송공명 형님의 심복입니다. 특별히 그를 보낸 것이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증 장관은 마음속으로 화해를 원했기에

사문공의 말을 듣지 않고, 술을 대접하며 그들을 법화사 진영으로 안내해 쉬게 했다. 그러면서 군사 오백 명을 풀어 앞뒤로 포위하게 했다.

이어 증승이 욱보사를 데리고 송강의 대채로 화해를 하러 갔다. 두 사람이 중군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이전에 빼앗았던 말들과 금은보화가 가득 실린 수레 한 대를 대채로 보냈다. 송강은 그것을 살펴보고 말했다. "이 말들은 모두 나중에 빼앗았던 것들이 아닌가. 예전에 단경주가 가져왔던 그 천리마, '조야옥사자마'는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가?" 증승이 대답했다. "그 말은 스승님인 사문공께서 타고 계시기에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강이 다시 말했다. "어서 빨리 서신을 써서, 그 말을 하루빨리 끌고 와 돌려주라고 전하라." 증승은 즉시 서신을 쓰고, 사람을 보내 대채로 가서 그 말을 가져오게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문공이 말했다. "다른 말들은 아낌없이 보내주겠지만, 이 말만큼은 줄 수 없다."

사람들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애를 썼으나, 송강은 기어코 그 말을 내놓으라고 고집을 피웠다. 결국 사문공이 사람을 보내 말했다. "만약 저 말을 반드시 돌려받아야겠다면, 그 즉시 군대를 물리고 떠나시오.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보내주겠소."

송강은 그 말을 듣고 오용과 상의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달려와 보고했다. "청주와 릉주 양쪽에서 군마가 도착했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저놈들이 눈치를 챘으니 분명 태도를 바꿀 것이로군." 송강은 즉시 명령을 내려 관승, 단정규, 위정국을 청주 군마를 맞이하러 보내고, 화영, 마린, 등비를 릉주 군마를 맞이하러 보냈다. 그러고 나서 몰래 욱보사를 불러내어 좋은 말로 달래며 지

극히 은혜롭게 대접하며 말했다. "그대가 만약 이번에 큰 공을 세운다면, 우리 양산박에서도 그대를 두령으로 삼아줄 것이오. 말을 빼앗았던 원한은 화살을 꺾어 맹세하며 모두 잊기로 합시다.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증두시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니 그대 마음대로 하시오." 욱보사는 이 말을 듣고 기꺼이 투항하여 송강의 휘하로 들어왔다.

오용이 욱보사에게 계책을 일러주며 말했다. "그대는 몰래 도망쳐 대채로 돌아간 뒤, 사문공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내가 증승과 함께 송강의 진영에 가서 화해를 논하다가 확실히 알아냈습니다. 지금 송강은 방심한 채 그 천리마를 가로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화해할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만약 말을 돌려준다면 분명히 약속을 어길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청주와 릉주 양쪽에서 구원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몹시 당황해하고 있으니, 지금이 바로 기회를 틈타 계책을 써야 할 때입니다.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이 말을 믿고 따른다면, 그다음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소."

욱보사는 오용의 말을 받들어 사문공의 진영으로 돌아가 앞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했다. 사문공은 욱보사를 데리고 증 장관을 찾아가, 송강이 화해할 마음이 전혀 없으니 지금이 기회다, 저들의 진영을 습격해야 한다고 상세히 일러주었다.

증 장관이 말했다. "내 아들 증승이 저곳에 있는데, 만약 일이 틀어지면 필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오."

사문공이 말했다. "저들의 진영을 깨부수면 어떻게든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각 진영에 명을 내려 모두 일어나게 하십시오. 먼저 송강

의 대채를 습격하는 겁니다. 만약 저들의 우두머리를 끊어버린다면 나머지 도적들은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니, 돌아와서 이규 등 다섯 명을 죽이는 것은 그리 늦지 않은 일입니다."

증 장관이 말했다. "스승님의 계책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북쪽 진영의 소정, 동쪽 진영의 증괴, 남쪽 진영의 증밀에게 명을 내려 함께 진영을 습격하도록 했다. 그사이 욱보사는 법화사 대채 안으로 몰래 스며들어 이규 등 다섯 명의 모습을 확인한 뒤, 시천에게 이 소식을 은밀히 전해주었다.

한편, 송강이 오용에게 물었다. "이 계책이 어떠할 것 같소?"

오용이 대답했다. "만약 욱보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 계책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밤 우리 진영을 습격해 온다면, 우리는 양옆에 매복해 있다가 노지심과 무송이 보병을 이끌고 그들의 동쪽 진영을 치게 하고, 주동과 뇌횡이 보병을 이끌고 서쪽 진영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양지와 사진에게는 기마병을 이끌고 북쪽 진영을 가로막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견복와지계(番犬伏窩之計, 사나운 개가 굴에 숨어 기다리는 계책)'로, 백발백중할 것입니다."

그날 밤, 사문공은 소정, 증밀, 증괴를 데리고 군사를 모두 일으켜 출정했다. 밤은 달빛이 희미하고 별빛마저 어둑어둑했다. 사문공과 소정이 앞장서고 증밀과 증괴가 뒤를 따랐는데, 말들은 방울을 떼어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모두 부드러운 갑옷을 입은 채 송강의 대채로 향했다.

막상 도착해 보니 진영의 문은 닫혀 있지 않았고, 안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사문공은 계책에 빠진 것을 직감하고 즉시 발길을 돌렸다. 급히 본진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증두시 안에서 징과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알고 보니 시천이 법화사 종루에 기어 올라가 종을 쳐서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그 소리와 함께 동서 양쪽 문에서 화포가 일제히 터지고 함성이 드높게 울리며, 얼마나 많은 군마인지 알 수도 없는 대군이 몰려들어 습격해 왔다.

한편, 법화사 안에서는 이규, 번서, 항충, 이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밖으로 들이닥쳤다. 사문공 일행이 급히 진영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증 장관은 진영 안이 아수라장이 된 것을 보고, 양산박 대군이 두 갈래로 몰려와 공격한다는 소식까지 듣자 절망하여 진영 안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결했다. 증밀은 서쪽 진영으로 급히 달아나려다 주동의 박도에 찔려 죽었다. 증괴는 동쪽 진영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난전 중에 말에 짓밟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소정은 목숨을 걸고 북문을 향해 달아났으나 앞에는 수많은 함정이 파여 있었고, 뒤에서는 노지심과 무송이 추격해 왔으며, 앞에서는 양지와 사진이 쏜 화살 세례를 맞아 결국 죽고 말았다. 뒤따라오던 인마들도 모두 함정 속으로 빠져들었는데, 겹겹이 쌓여 빠져 죽은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한편, 사문공은 천리마를 타고 빠르게 서문으로 빠져나가 들판으로 정신없이 달아났다. 이때 검은 안개가 하늘을 뒤덮어 남북을 분간할 수 없었다. 이십여 리쯤 달렸을까, 어디쯤인지도 모를 때 숲 뒤편에서 갑자기 징 소리가 일제히 울리더니 사오백 명의 군사가 한꺼번에 튀어나

왔다. 앞장선 장수는 몽둥이를 치켜들고 말의 다리를 향해 내리쳤다. 하지만 그 말은 천리를 달리는 용구(龍駒)라, 몽둥이가 날아오자 머리 위로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 사문공이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뭉게뭉게 깔리고 찬 기운이 으스스 일며 검은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광풍이 몰아치더니, 허공에서 누군가 길을 막아섰다. 사문공은 신병(神兵)이 나타난 줄 알고 말머리를 돌렸으나, 동서남북 사방이 모두 조개의 혼령에 휘감겨 있었다. 사문공이 다시 옛길로 되돌아가려 하자 이번에는 '낭자' 연청과 마주쳤고, 다시 돌아서니 '옥기린' 노준의가 나타났다. 노준의가 호통을 쳤다. "이 도적놈아, 어디로 달아나려느냐!" 그러고는 박도로 사문공의 넓적다리를 단숨에 찔러 말에서 떨어뜨린 뒤, 밧줄로 꽁꽁 묶어 증두시로 끌고 갔다. 연청은 그 천리마를 끌고 곧장 대채로 돌아갔다.

송강은 사문공을 사로잡았다는 소식에 마음속으로 기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기쁜 것은 노 원외(노준의)가 공을 세운 덕분이었고, 분노한 것은 사문공이 조 천왕을 쏘아 죽인 원한 때문이었다. 원수와 마주하게 되니 눈에 불을 켜고 노려볼 수밖에 없었다. 송강은 먼저 증승을 그 자리에서 참수하게 하고, 증씨 일가의 노소 모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처단했다. 또한 탈취한 금은보화와 쌀, 곡식 등을 모두 수레에 실어 양산박으로 가져가, 여러 두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삼군을 위로했다.

한편, 관승은 군사를 이끌고 청주 군마를 물리쳤으며, 화영 또한 병사를 이끌고 릉주 군마를 흩뜨려 놓고 모두 돌아왔다. 크고 작은 두령들 중 빠진 이가 하나도 없었다. 게다가 '조야옥사자'라는 이름의 천리

마까지 얻었으니 그 외의 전리품은 말할 것도 없었다. 사문공을 함거(陷車)에 가두어 압송한 뒤, 군마를 정돈하여 양산박으로 돌아왔다. 지나가는 주와 현, 마을과 동네에서는 그 누구도 괴롭히지 않았다. 양산박에 도착한 뒤에는 충의당으로 올라가 모두가 조개의 영전 앞에 나아가 참배했다. 송강은 명을 내려 '성수서생' 소양에게 제문을 짓게 하고, 크고 작은 두령들에게 모두 상복을 입히고 곡을 하게 한 뒤, 사문공의 배를 가르고 심장을 도려내어 조개에게 바치게 했다. 조개에게 제사를 모두 마친 후, 송강은 충의당에서 형제들과 함께 양산박의 새 주인을 세우는 일을 논의했다.

오용이 말했다. "형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노 원외를 그다음으로 모시며, 나머지 형제들은 각자 예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마땅합니다."

송강이 말했다. "예전에 조 천왕께서 유언을 남기시기를, '만약 사문공을 잡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양산박의 주인으로 삼으리라' 하셨소. 오늘 노 원외가 이 도적을 생포하여 산으로 가져와 조 형님께 제물로 바치고 원수를 갚았으니, 마땅히 으뜸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소."

노준의가 말했다. "이 아우는 덕도 부족하고 재주도 미천한데, 어찌 감히 이 자리를 맡겠습니까! 만약 맨 끝자리라도 앉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과분합니다."

송강이 다시 말했다. "내가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원외보다 못난 점이 세 가지나 있소. 첫째, 송강은 체격이 검고 왜소하며 외모도 보잘것없고 재주도 부족하오. 그러나 원외는 풍채가 당당하고 기

개가 넘치니 참으로 귀인의 상이오. 둘째, 송강은 하급 관리 출신으로 죄를 짓고 도망친 몸이나, 형제들이 버리지 않고 거두어 주어 잠시 이 자리에 머물고 있소. 그러나 원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예부터 호걸이라 칭송받았으며, 비록 험한 일을 겪긴 했으나 하늘의 도우심을 받았소. 셋째, 송강은 문장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고 무예로 사람을 휘어잡을 수도 없으며, 닭 한 마리 잡을 힘도 없고 화살 한 발 쏠 재주도 없소. 그러나 원외는 만 명을 상대할 힘이 있고 학식이 깊어, 천하의 누가 원외의 명성을 듣고 복종하지 않겠소? 형님처럼 이토록 재능과 덕망을 갖춘 분이야말로 마땅히 우리 산채의 주인이 되어야 하오. 훗날 조정에 귀순하여 공을 세우고 관직이 높아지면, 우리 형제들 또한 모두 빛이 날 것이오. 송강의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더는 사양하지 마시오."

노준의가 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형님께서 너무 과찬을 하시니, 노 아무개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명을 따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용이 권하며 말했다. "형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노 원외를 그다음으로 모시는 것은 모두가 따르는 일입니다. 형님께서 만약 이토록 재삼 사양하신다면, 자칫 형제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알고 보니 오용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신호를 보낸 뒤였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그러자 '흑선풍' 이규가 크게 소리쳤다. "내가 강주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며 형님을 따라온 뒤로, 모두가 형님께 한 걸음씩 양보해 왔소! 나는 하늘도 두렵지 않단 말이오! 그런데 자꾸 양보하고 또 양보하니, 대

체 무엇을 하자는 거요! 자꾸 이러면 내가 다 죽여버리고 각자 흩어져 버릴 테니 그리 아시오!"

무송 또한 오용이 눈짓하는 것을 보고는 화를 내며 외쳤다. "형님 휘하의 수많은 군관 중 조정의 관직을 받은 이들도 모두 형님께 양보하는 것인데, 어찌 남에게 양보하겠습니까?"

유당도 거들었다. "우리가 처음 일곱 명이 산에 올랐을 때부터 형님을 으뜸으로 모실 뜻이 있었거늘, 오늘에 와서 어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단 말입니까!"

노지심이 고함을 질렀다. "만약 형님께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신다면, 우리도 각자 갈 길 가겠소!"

송강이 말했다. "모두 그만하시오. 나에게도 생각이 있으니, 하늘의 뜻을 다하여 어떠한지 보고 나서 비로소 결정할 것이오."

오용이 물었다. "어떤 고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두 가지 일이 있소."

이것은 바로 양산박에 두 명의 영웅을 더하고, 동평부에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일이었다. 천강성 호걸들이 모조리 산채로 모여들게 하고, 지살성 호걸들도 한 명 남김없이 온 무리가 물가로 모여들게 할 일이었다.

결국 송강이 말한 그 두 가지 일은 무엇일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9회 — 동평부가 구문룡 사진에게 잘못 빠지고, 송공명이 의리로 쌍창장을 풀어주다

東平府誤陷九紋龍 宋公明義釋雙鎗將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은 조개의 유언을 저버리지 않고 노준의에게 우두머리 자리를 양보하려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송강이 다시 말했다.

"지금 우리 산채에 식량과 군자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양산박 동쪽을 보면 두 개의 주와 부가 있는데, 그곳에는 먹을 것과 돈이 넉넉합니다. 하나는 동평부이고, 다른 하나는 동창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곳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없으니, 가서 식량을 빌려달라 청한들 저들은 대놓고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비 두 개를 써 놓을 테니, 저와 노 형님이 각각 하나씩 뽑읍시다. 먼저 성을 함락시키는 쪽이 양산박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용이 말했다. "좋습니다. 하늘의 뜻에 따릅시다."

그러자 노준의가 말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형님께서 양산박의 주인이 되신다면, 저는 기꺼이 형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자 노준의로서도 더는 어쩔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철면공목' 배선을 불러 제비 두 개를 쓰게 했다. 향을 피워 하늘에 기도를 올린 뒤, 각자 제비를 하나씩 뽑았다. 송강은 동평부를 뽑았고, 노준의는 동창부를 뽑았다. 사람들은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던 도중에 송강이 명령을 내려 군사와 말을 배치하게 했다. 송강의 휘하에는 임충, 화영, 유당, 사진, 서녕, 연순, 여방, 곽성, 한도, 팽기, 공명, 공량, 해진, 해보, 왕왜호, '일장청' 호삼랑, 장청, 손이낭, 손신, 고대소, 석용, 욱보사, 왕정육, 단경주까지 대소 두령 스물다섯 명이 맡았으며, 이들은 보병과 기병 만 명을 거느렸다. 수군 두령 세 명은 완소이, 완소오, 완소칠로, 이들은 수군을 이끌고 배를 몰아 지원하기로 했다.

노준의의 휘하에는 오용, 공손승, 관승, 호연작, 주동, 뇌횡, 색초, 양지, 단정규, 위정국, 선찬, 학사문, 연청, 양림, 구붕, 능진, 마린, 등비, 시은, 번서, 항충, 이곤, 시천, 백승까지 대소 두령 스물다섯 명이 맡았으며, 이들은 보병과 기병 만 명을 거느렸다. 수군 두령 세 명은 이준, 동위, 동맹으로, 이들은 수군을 이끌고 배를 몰아 지원하기로 했다. 그 밖의 두령들과 부상자들은 산채의 성문을 지키도록 했다.

임무 배분이 모두 끝나자, 송강은 여러 두령을 데리고 동평부를 치러 떠났고, 노준의는 여러 두령과 함께 동창부를 치러 떠났다. 수많은 두령이 각자의 위치로 산을 내려갔다. 때는 3월 초하루였다. 날씨는 따

스하고 바람은 온화했으며, 풀은 푸르고 모래는 부드러워 한창 싸우기에 딱 좋은 날씨였다.

한편, 송강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동평부에 다다르니, 성까지는 불과 40리 떨어진 안산진이라는 곳이었다. 송강은 그곳에 군사와 말을 주둔시키고 말했다.

"동평부 태수는 정만리이고, 그 밑에 병마도감이 한 명 있는데, 이자가 바로 하동 상당군 출신이다. 그 병마도감은 성이 동씨요 이름이 평인데, 쌍창을 잘 다루어 사람들이 모두 '쌍창장'이라 부르며 만 명의 적도 당해낼 수 없는 용맹을 지녔다. 비록 적의 성을 치러 가는 길이지만, 그에게도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 사람 두 명을 뽑아 전서를 들려 보내라. 만약 항복한다면 병력을 움직이지 않을 것이나, 만약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대대적으로 살육을 벌일 것이니, 그래야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먼저 가서 글을 전하겠느냐?"

그때 부하 중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키는 한 장(丈)에 달하고 허리는 몇 아름이나 될 정도로 건장했다. 그가 누구인지 시로 이르되,

재물에는 관심 없고 오직 의리만을 좋아하며, 모습은 마치 고찰을 떠난 금강역사와 같구나. 키가 험악하여 험도신이라 불리니, 이 사람이 바로 청주의 욱보사로다.

욱보사가 말했다.

"소인이 동평을 잘 아는 사람이니, 기꺼이 전서를 들고 가겠습니다."

또 다른 부하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체구는 왜소하고 마른 편이었는데, 그가 외쳤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시로 이르되,

메뚜기처럼 머리는 뾰족하고 눈은 번뜩이며, 백로처럼 다리는 말라 살집이라곤 없구나. 길은 멀어도 걸음은 날아갈 듯 빠르니, 양자강 변의 왕정육이로다.

두 사람이 말했다.

"저희는 아직 양산박의 공을 세울 기회를 얻지 못했으니, 오늘 기꺼이 다녀오겠습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전서를 써서 욱보사와 왕정육 두 사람에게 들려 보냈다. 전서에는 오직 식량을 빌려달라는 내용만을 담았다.

한편, 동평부의 정태수는 송강이 군사를 일으켜 안산진에 주둔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본주의 병마도감인 '쌍창장' 동평을 불러 군사상의 중대한 일을 상의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관이 들어와 보고했다.

"송강이 사람을 보내 전서를 보냈습니다."

정태수가 그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자, 욱보사와 왕정육이 관아의 하인처럼 들어와 전서를 올렸다. 정만리가 전서를 다 읽고 나서 동 도감에게 말했다.

"본부의 식량을 빌려달라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소?"

동평은 그 말을 듣자마자 크게 분노하며, 저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즉시 목을 베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정태수가 말했다.

"안 됩니다. 예부터 '두 나라가 전쟁을 하더라도 사신은 베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는 예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저 두 사람을 각각 곤장 스무 대씩을 치고 원래의 산채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봅시다."

동평은 화가 풀리지 않아 욱보사와 왕정육을 꾸짖으며 한꺼번에 밧줄로 묶어 넘어뜨리더니, 살점이 터져 나가도록 매질을 한 뒤 성 밖으로 내쫓았다. 두 사람이 양산박으로 돌아와 송강에게 울며 고했다.

"동평 그놈이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양산박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송강은 두 사람이 매를 맞은 것을 보고 가슴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동평부를 평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우선 욱보사와 왕정육을 수레에 태워 양산박으로 돌려보내 쉬게 했다. 그때 '구문룡' 사진이 일어나 말했다.

"제가 예전에 동평부에 있을 때, 기루의 이서란이라는 기생과 정을 나누어 사이가 아주 돈독했습니다. 제가 지금 금은보화를 좀 챙겨서 몰래 성안으로 들어간 뒤, 그 집에서 하룻밤 묵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해두면 형님께서 성을 공격해 주십시오. 동평이 전투를 위해 성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제가 북루로 기어 올라가 불을 지르겠습니다. 안팎에서 호응하면 반드시 큰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것 참 좋구나."

사진은 즉시 금은보화를 챙겨 보따리에 넣고, 몸에는 암기를 숨긴 채 작별 인사를 하고 일어섰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가 아주 기막힌 방도를 찾아냈으니, 나는 일단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대기하겠네."

한편, 사진은 성안으로 들어가 곧장 서와자의 이서란 집으로 향했다. 이서란의 아버지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그를 안으로 안내하며 딸을 불러 나오게 했다. 이서란은 그 모습이 매우 빼어나고 고결하여, 시로 이르되 다음과 같았다.

만 가지 풍류를 어찌 다 감당하랴, 배꽃에 비 내린 듯 옥 같은 향기 흐르네. 푸른 새 울음소리에 나부 꿈 깨어나니, 매화꽃에 단장한 새벽빛인가 하노라.

이서란은 사진을 2층으로 안내해 앉힌 뒤, 사진에게 물었다.

"그동안 어찌 소식 한 자 없으셨어요? 양산박에서 대왕이 되셨다더니, 관가에서는 당신을 잡으려고 방까지 붙였다면서요. 요 며칠 거리에서는 송강이 성을 공격해 식량을 빌리러 올 거라는 말로 소란스러운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곳에 오신 건가요?"

사진이 말했다.

"사실대로 말해주마. 내가 지금 양산박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아직 공을 세우지는 못했다. 이제 형님께서 성을 공격해 식량을 빌리려 하시기에, 내가 (산채에) 너희 집안 사정을 자세히 말해 두었다. 이번에 특별히 첩자 노릇을 하러 왔으니, 이 금은 보따리를 네게 줄 터이니 잘 간직하고 절대로 소식이 새 나가지 않게 해다오. 내일 일이 다 끝나면, 너희 가족을 한꺼번에 산으로 데려가 즐겁게 살게 해주마."

이서란은 건성으로 알겠다고 대답하며 금은을 챙겼다. 그러고는 술과 고기를 차려 대접한 뒤, 어머니에게 와서 상의했다.

"예전에 손님으로 오셨을 때는 참 좋은 분이라 우리 집에 드나드셔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나쁜 무리가 되었으니 혹시라도 일이 발각되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 씨가 말했다.

"양산박 송강 무리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성을 공격했다 하면 깨뜨리지 못한 성이 없지. 만약 우리가 입을 놀렸다가 그들이 언젠가 성을 부수고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그땐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게다!"

그러자 어머니가 욕을 하며 말했다.

"이 어리석은 영감탱이야, 도대체 사람 사는 이치를 뭘 안다고? 예부터 '벌이 품속으로 들어오면 옷을 벗어서라도 쫓아내야 한다'고 했어. 천하의 통례가, 자수하는 자는 본래의 죄를 면해주는 법이야. 당신이 얼른 동평부에 가서 고발하여 그를 잡아가게 하면, 나중에 화를 입는 일이 없을 거야."

이 씨가 말했다.

"그가 우리 집에 그 많은 금은을 주었는데, 그를 위해 위험을 좀 떠맡아 주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우리를 돈으로 샀겠는가?"

어머니가 다시 욕을 퍼부었다.

"이 미련한 짐승 같으니, 그런 소리는 방귀 뀌는 거나 다름없어! 우리 같은 기루 집안은 천만 명도 넘는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려 왔는데, 어찌 저놈 하나를 아까워하겠어! 당신이 가서 고발하지 않겠다면, 내가 직접 관아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당신도 한패라고 일러바칠 테야."

이 씨가 말했다.

"성질부리지 말게. 우선 딸더러 그를 잘 붙들어 머물게 하고, 절대로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하듯' 그를 도망치게 해서는 안 되네. 내가 가서 포졸들에게 알려 먼저 그를 잡아오게 한 뒤에, 고발하러 가도록 하세."

한편, 사진은 이서란이 2층으로 올라올 때 얼굴색이 붉었다가 하얗게 변했다가 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왜 이리 얼굴이 창백하고 놀란 기색이 역력해?"

이서란이 대답했다.

"방금 계단을 올라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하마터님 크게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신이 없네요."

사진은 용맹한 장수였으나 이서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시로 이르되 다음과 같았다.

기루의 수법이 이토록 많으니 가련하구나, 화장한 여인네들이 결국 노파의 앞잡이라. 뒤에서 간사한 계책을 쓴 줄 미리 알았더라면, 금은보화로 웃음꽃을 사려다 헛수고만 했으리라.

그사이 이서란은 사진과 밀어를 나누며 정을 나누었는데, 채 한 시진도 지나지 않아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급히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났다. 창밖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수십 명의 관아 포졸들이 2층으로 들이닥쳤다. 사진은 전혀 손쓸 겨를도 없이, 마치 매가 산참새를 낚아채거나 화살이 비둘기를 맞히듯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포졸들은 사진의 머리를 짓누른 채 밧줄로 꽁꽁 묶어 그대로 아래층으로 끌고 내려가 동평부 관아의 정청으로 압송했다.

정 태수는 사진을 보고 크게 꾸짖었다.

"이놈, 간덩이가 부었구나! 어찌 감히 혼자서 첩자 노릇을 하러 왔단 말이냐! 만약 이서란의 아버지가 먼저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동평부의 선량한 백성들을 모두 망칠 뻔하지 않았느냐! 어서 네놈의 사정을 실토해라! 송강이 너에게 무엇을 시켰느냐!"

사진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동평이 말했다.

"이런 도둑놈 같은 놈은 매질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 태수가 호통을 쳤다.

"어서 이놈을 더 세게 때려라!"

옥졸들이 양옆에서 다가오더니, 먼저 찬물을 가져와 사진의 다리에 뿌리고는 양다리에 각각 곤장 백 대씩을 때렸다. 사진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실토하지 않았다. 동평이 말했다.

"이놈에게 무거운 칼을 씌우는 형틀을 채워 사형수 감옥에 가두어 두십시오. 나중에 송강을 잡게 되면 그때 한꺼번에 압송하여 경사로 보내 처형하겠습니다."

한편, 송강은 사진이 떠난 뒤, 그 일을 자세히 편지로 적어 오용에게 알렸다. 오용은 송강이 보낸 편지를 읽고, 사진이 기생 이서란의 집에 첩자로 들어갔다는 내용을 보고는 크게 놀랐다. 오용은 급히 노준의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그날 밤 바로 송강을 찾아가 물었다.

"누가 사진을 가라고 했습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본인이 자원해서 간 것이라네. 이서란이 사진의 옛 정인이라 정이 깊어 그리 갔다더군."

오용이 말했다.

"형님께서 생각이 조금 모자라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절대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흔히들 이르기를, '기루 집안이 꺼리는 것은 속이고(扯)·빌붙고(丐)·새고(漏)·달아나는(走) 짓이라'고 했습니다. 손님을 새로 맞고 옛 손님을 보내는 일에 능숙하여, 얼마나 많은 재사를 빠뜨렸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물처럼 정해진 데 없는 마음이라, 아무리 은정이 깊다 한들 노파(虔婆)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이 이번에 갔으니, 반드시 화를 입을 것입니다!"

송강은 즉시 오용에게 계책을 물었다. 그러자 오용이 고대소를 불러 말했다.

"번거롭겠지만 그대가 한 번 다녀와 주시오. 가난한 노파로 변장하여 구걸하는 척하며 성안으로 몰래 들어가시오. 만약 무슨 낌새가 있거든 급히 돌아오시오. 만일 사진이 옥에 갇혀 있거든, 옥졸에게 가서 '옛정과 은혜를 생각해 그에게 밥 한 끼 넣어주고 싶다'고 말하고 옥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시오. 그리고 사진에게 몰래 일러주시오. '우리가 그믐날 밤, 황혼 무렵에 반드시 성을 치러 올 터이니, 너는 변소에 가는 틈을 이용해 빠져나올 방도를 마련해 두어라'라고 말이오. 그믐날 밤이 되면 그대가 성안에서 불을 질러 신호를 보내시오. 그러면 이쪽에서 군사를 진격시켜야 일을 이루기 좋소. 형님께서는 먼저 문상현을 치십시

오. 그러면 백성들이 반드시 모두 동평부로 몰려갈 터, 그때 고대소를 그 무리 속에 섞어 보내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성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용은 계책을 다 세운 뒤, 곧바로 말을 타고 동창부로 돌아갔다.

송강은 해진과 해보를 앞세워 오백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문상현을 공격했다. 과연 백성들은 노인과 아이를 부축하며 쥐가 구멍을 찾아 달아나듯 혼비백산하여 모두 동평부로 도망쳐 왔다.

한편, 고대소는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누더기 옷을 걸친 채, 백성들 사이에 섞여 성안으로 비집고 들어와 거리를 돌며 구걸했다. 관아 앞까지 가서 알아보니 과연 사진이 옥에 갇혀 있었다. 그제야 고대소는 오용의 헤아림이 귀신처럼 신묘함을 깨달았다.

다음 날, 고대소는 밥통을 들고 사옥사(司獄司, 감옥을 관장하는 관청) 앞에서 오가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다 한 늙은 관원이 옥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그를 향해 절을 하며 눈물을 비 오듯 쏟았다. 그 늙은 관원이 물었다.

"이 가난한 노파야, 무엇 때문에 그리 우는 것이냐?"

고대소가 대답했다.

"옥에 갇힌 사 대랑은 제 옛 주인이십니다. 헤어진 지 어느새 십 년이 되었지요. 강호에서 장사를 하신다고만 들었는데, 무슨 일로 옥에 갇히셨는지요? 보아하니 밥 넣어줄 사람도 없는 듯하여, 이 늙은 몸이

빌어서 얻은 이 밥 한 그릇으로 그분의 허기라도 채워드리려 합니다. 나리, 부디 불쌍히 여겨 저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칠층 보탑을 쌓는 것보다 더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관원이 말했다.

"그자는 양산박의 강도라,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거늘 누가 감히 너를 들여보내겠느냐?"

고대소가 다시 말했다.

"설령 칼에 베이고 살이 발리는 형을 받더라도, 그분이 눈을 감고 편히 받아들이실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저 불쌍히 여겨 이 늙은 몸을 들여보내 이 밥 한 그릇만 전하게 해주시면, 옛 정이라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마친 고대소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늙은 관원은 속으로 생각했다.

'사내라면 데리고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아녀자 하나가 무슨 해를 끼치겠는가…….'

그리하여 관원은 고대소를 곧장 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보니 사진은 목에 무거운 칼을 쓰고 허리에 쇠사슬을 두른 채였다. 사진은 고대소를 보고 깜짝 놀랐으나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고대소는 한편으로 거짓 울음을 울며, 한편으로 밥을 떠먹였다. 그때 다른 절급(節級)이 다가와 호통쳤다.

"이놈은 죽어 마땅한 흉악범이다! '옥은 바람도 통하지 않는 법(외부와 연락이 금지된 법)'인데, 누가 너더러 밥을 가져오게 했느냐? 당장 나가면 매 두 대는 면해주마!"

옥 안에 사람이 많아 자세한 사정을 말할 수 없었던 고대소는 그저 한마디만 전했다.

"그믐날 밤에 성을 칠 것이니, 옥 안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방도를 마련하시오."

사진이 다시 물으려 했으나, 고대소는 하급 절급에게 떠밀려 옥문 밖으로 쫓겨났다. 사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믐날 밤'이라는 말만 맴돌았다.

알고 보니 그 삼월은 큰달(大盡, 30일까지 있는 달)이었다. 이십구일이 되자, 옥에 있던 사진은 절급 둘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고 물었다.

"오늘이 며칠인가?"

그런데 하급 절급 하나가 날짜를 잘못 기억하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오늘이 그믐이니, 밤이 되면 외로운 혼령들을 위해 지전을 사다 태워야 하네."

이 말을 들은 사진은 어서 밤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술이 반쯤 취한 하급 절급 하나가 사진을 변소(水火坑) 가로 데려가자, 사진이 그를 속여 말했다.

"등 뒤에 있는 자는 누구냐?"

절급이 뒤를 돌아보는 사이, 사진은 목의 칼을 벗겨내 그 칼끝으로 그 하급 절급의 얼굴을 정통으로 후려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어 벽돌을 집어 나무 수갑(木枷)을 깨부수고는, 송골매 같은 눈을 부릅뜬 채 옥 마당 한가운데로 뛰쳐나갔다. 술에 취해 있던 관원들은 사진에게 맞닥뜨려 얻어맞고, 죽는 자는 죽고 달아나는 자는 달아났다. 사진은 옥문을 열어젖히고 바깥의 호응을 기다렸다. 그러고는 옥에 갇혀 있던 죄수들을 모조리 풀어주니, 모두 오륙십 명이나 되었고, 그들은 옥 안에서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뛰쳐나갔다.

누군가 태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정만리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급히 병마도감에게 달려가 상의했다. 동평이 말했다.

"성안에 분명 첩자가 있을 것이니, 우선 많은 군사를 보내 이 도적놈들을 포위하십시오. 저는 이 기회를 틈타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송강을 잡겠습니다. 태수께서는 성을 굳건히 지키시고, 수십 명의 포교를 시켜 감옥 문을 겹겹이 에워싸 죄수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말을 마친 동평은 말을 타고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정 태수는 즉시 포교와 우후(虞候, 군사 지휘관), 압번(押番, 감옥 관리)들을 소집하여 창과 몽둥이를 들고 대옥 앞으로 달려가 함성을 지르게 했다. 사진은 감옥 안에 갇힌 채 감히 밖으로 나서지 못했고, 밖의 사람들도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고대소는 그저 애를 태우며 울부짖을 뿐이었다.

한편, 병마도감 동평은 군사를 소집하여 사경(四更, 새벽 두 시 무렵)에 말에 올라, 송강의 진영을 향해 맹렬히 쳐들어왔다. 길목을 지키던 소규모 부대가 이 소식을 송강에게 보고했다. 송강이 말했다.

"이것은 필시 고대소가 성안에서 또 일을 그르친 것이로구나. 그가 이미 쳐들어온다 하니, 적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송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군사가 일제히 일어났다. 마침 날이 막 밝아오던 참이라 동평의 군마를 맞이하기에 딱 좋았다. 양측이 진형을 갖추고 대치하자, 동평이 직접 말을 몰고 나섰다. 그는 참으로 세상을 덮을 만한 영웅이었으며, 지략과 용맹이 남달랐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양쪽의 깃발은 햇빛에 눈부시게 빛나고 은빛 갑옷은 서리가 내려앉은 듯 차갑구나 매끄러운 봉황 날개 모양 투구는 하얗고 비단 자수 놓인 기린 갑옷은 푸르러라 두 마리 백룡은 위아래로 요동치며 싸우고 두 마리 은빛 구렁이는 번갈아 날아오르네 하동의 용맹하고 풍류 넘치는 장수는 쌍창을 휘두르는 동평이라네

본래 동평은 재치와 기지가 뛰어나 세상의 온갖 잡학에 통달해 있었고, 악기를 연주하는 솜씨 또한 못 하는 것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산동과 하북 일대에서는 모두 그를 가리켜 '풍류 쌍창장'이라 불렀다. 송강은 진영 앞에서 동평의 이러한 풍모를 보고 첫눈에 그를 마음에 들어 했다. 또한 그의 화살통에 작은 깃발 하나가 꽂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영웅다운 쌍창장, 풍류 넘치는 만호후라네.'

송강은 한도에게 명령하여 적을 맞이하게 했다. 한도가 철삭(鐵搠, 쇠로 만든 창의 일종)을 들고 동평을 향해 돌격했으나, 동평의 쌍창은 귀신처럼 움직이며 종잡을 수 없어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 송강은 다시 '금창수' 서녕을 불러 갈고리 창을 들고 나가 한도를 대신해 싸우게 했다. 서녕이 말을 달려 나가 동평과 맞붙어 싸웠다. 두 사람은 전장에서 쉰 합에 이르도록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싸움이 길어지자 송강은 서녕이 위험해질까 걱정되어 명금을 울려 군사를 물러나게 했다. 서녕이 말을 돌려 돌아오는데, 동평이 쌍창을 높이 치켜들고 그대로 진영 안까지 추격해 들어왔다. 송강이 채찍 끝을 휘두르자 사방의 군사들이 일제히 그를 에워쌌다. 송강이 말을 몰아 높은 언덕 위에서 살피니 동평이 진영 안에 갇혀 있었다. 동평이 동쪽으로 도망치려 하면 송강이 깃발을 동쪽으로 가리켜 군마들이 동쪽에서 그를 에워싸게 했고, 서쪽으로 도망치려 하면 깃발을 서쪽으로 가리켜 군마들이 서쪽에서 그를 에워싸게 했다. 동평은 진영 안에서 좌충우돌하며 두 자루 창으로 싸우다가, 신시(申時, 오후 3~5시)가 지나서야 비로소 길을 뚫고 빠져나갔다. 송강은 굳이 뒤쫓지 않았다. 동평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그날 밤 군사를 거두어 성으로 돌아갔다. 송강은 밤을 도와 곧장 군사를 일으켜 성 아래에 이르렀고, 군사를 겹겹이 배치하여 성을 포위했다. 성안에 있는 고대소는 감히 불을 지르지 못했고, 사진 또한 밖으로 나올 수 없어 양측이 서로 대치하는 형국이 되었다.

본래 정 태수에게는 미모가 매우 뛰어난 딸이 하나 있었다. 동평은 아내가 없었기에 여러 사람이 그를 위해 혼처를 알아봐 주며 청혼을 권했으나, 정만리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평소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은근한 갈등이 있었다. 동평이 그날 밤 군사를 거느리고 성으

로 돌아왔을 때, 그는 심복 한 명을 시켜 이 혼사 문제를 슬쩍 떠보게 했다. 정 태수가 대답하기를,

"나는 문관이고 그는 무관이니, 사위로 맞이하는 것은 이치에 딱 맞는 일입니다. 다만 지금 도적 떼가 성까지 들이닥쳐 상황이 위급하니, 이 시점에 바로 허락한다면 남들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도적들을 물리치고 성을 안전하게 지켜낸 뒤에 혼사를 논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 심복이 이 말을 동평에게 전했다. 동평은 입으로는 "그 말이 옳습니다"라고 대답했으나, 속으로는 망설여지며 그리 기쁘지 않았다. 나중에 정 태수가 마음을 바꾸어 허락하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송강이 밤낮없이 몰아붙이며 공격하자, 정 태수는 출전할 것을 재촉했다. 동평은 크게 분노하여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 삼군을 거느린 채 성 밖으로 나가 맞서 싸웠다. 송강이 진영 앞 깃발 아래에서 호통을 쳤다.

"고작 너 같은 외로운 장수가 어찌 나를 당해내겠느냐? 옛사람이 말하기를, '큰 집이 무너지려 할 때 나무 한 그루로 어찌 버티겠느냐'라고 하였다. 보아라, 내 수하에는 십만 강병과 수천 명의 맹장이 있어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며 곤경에 처한 이를 돕고 있으니, 어서 항복하여 목숨을 보전하라!"

동평이 격노하여 대답했다.

"낯짝에 죄인의 글자를 새긴 하급 아전, 죽어 마땅한 미친놈이 감히 어디서 함부로 지껄이느냐!"

말을 마친 동평이 쌍창을 높이 치켜들고 곧장 송강을 향해 돌진했다. 왼쪽에서는 임충이, 오른쪽에서는 화영이 두 장수가 나란히 나서 각자의 병기를 휘두르며 동평과 맞붙었다. 그러나 몇 합을 겨루더니 두 장수는 곧바로 물러났다. 송강의 군마들이 패한 척하며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자, 동평은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말을 몰아 뒤쫓았다. 송강 일행은 마침 수춘현 경계까지 물러갔는데, 송강이 앞장서고 동평이 뒤에서 쫓는 형국이었다.

성에서 십여 리 떨어진 곳에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양옆에는 초가집이 늘어서 있고 가운데로 역로(驛路, 관청의 연락을 위한 길)가 나 있었다. 동평은 이것이 계략인 줄도 모르고 그저 말을 몰아 달려왔다. 송강은 동평의 실력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 이미 전날 밤에 왕애호, '일장청'(호삼랑), 장청, 손이낭 이렇게 네 사람에게 백여 명의 군사를 주어 초가집 양옆에 미리 매복시켜 두었다. 또한 길목에는 말의 다리를 거는 밧줄을 여러 가닥 설치하고 얇은 흙으로 덮어 감추어 두었다가, 적이 오면 징을 쳐서 신호를 보내 밧줄을 한꺼번에 끌어올려 동평을 잡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동평이 한창 달려오는데, 뒤에서 공명과 공량이 "우리 주군을 해치지 마라!" 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동평이 초가집 앞으로 다다랐을 때, 징 소리가 울리더니 양옆의 문이 일제히 열리며 밧줄이 당겨졌다. 말이 뒤를 돌아보려던 찰나, 뒤쪽의 밧줄이 일제히 솟구치며 말의 다리를 낚아챘고, 말은 그대로 고꾸라지며 동평은 땅에 떨어졌

다. 왼쪽에서는 '일장청'(호삼랑)과 왕애호가 튀어나오고, 오른쪽에서는 장청과 손이낭이 나타나 일제히 달려들어 동평을 사로잡았다. 투구와 갑옷, 쌍창과 말까지 모조리 빼앗았다. 두 여장부는 동평을 붙잡아 삼줄로 등 뒤를 꽁꽁 묶은 뒤, 각자 강철도를 들고 동평을 압송하여 송강에게 데려갔다.

한편, 송강은 초가집을 지나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추더니, 푸른 버드나무 아래 서서 두 여장부가 동평을 끌고 오는 것을 맞이했다. 송강은 즉시 두 여장부에게 호통을 쳤다.

"나는 동 장군을 정중히 모셔오라고 명했지, 누가 너희더러 그를 묶어오라고 했느냐!"

두 여장부는 "예" 하고 대답하며 물러났다. 송강은 황급히 말에서 내려 직접 동평의 밧줄을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과 비단 도포를 벗어 동평에게 입혀주며 머리를 조아려 절했다. 동평도 급히 답례를 했다. 송강이 말했다.

"장군께서 부디 이 미천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우리 산채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동평이 대답했다.

"소장이 붙잡힌 죄를 생각하면 만 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다만 용서하여 몸을 의탁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참으로 만행일 것입니다."

송강이 다시 말했다.

"우리 산채는 땅이 양산박과 맞닿아 있어 본래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없소. 다만 지금 식량이 부족하여 특별히 동평부에 식량을 빌리러 온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소."

동평이 말했다.

"정만리 그놈은 본래 동관의 문객이었는데, 그런 좋은 자리를 얻었으니 어찌 백성들을 해치지 않겠습니까? 만약 형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 동평이 성문을 열어젖히고 성안으로 쳐들어 가 돈과 식량을 탈취하여 그 공을 보답하겠습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동평에게 갑옷과 창, 말을 돌려주게 한 뒤 동평이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오르게 했다. 동평이 앞장서고 송강의 군마가 뒤를 따르며 깃발을 휘날리며 동평부 성 아래에 이르렀다. 동평이 군마를 몰아 앞장서며 크게 외쳤다.

"성에서는 어서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횃불을 비추어 보니 동평 도감임을 알아보고는 즉시 성문을 활짝 열고 현수교를 내려주었다. 동평이 말을 몰아 먼저 들어가 철쇄를 끊어버렸고, 그 뒤를 이어 송강 일행이 기세를 몰아 성안으로 쳐들어갔다. 성안에 들어서자마자 송강은 급히 군령을 내려, 백성을 살해하거나 민가를 불태우는 일을 엄격히 금했다.

동평은 곧장 관아로 달려가 정 태수의 일가족을 몰살하고 그의 딸을 빼앗았다. 송강은 먼저 감옥을 열어 시진을 구해낸 뒤, 관부의 창고를 열어 금은보화와 재물을 모조리 챙겼다. 이어 곡식 창고를 열어 쌀과

곡식을 수레에 가득 실은 뒤, 먼저 사람을 보내 양산박 금사탄으로 호송하게 하여 삼완 두령에게 넘겨준 후 산 위로 전달하게 했다. 시진은 사람들을 데리고 서와자의 이서란 집으로 가서, 그 집의 노인과 아이를 포함한 온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다. 송강은 태수의 사유 재산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거리마다 방을 붙여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 알렸다.

"백성을 해치던 주(州)의 관리는 이미 죽임을 당했다. 너희 양민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며 평안히 지내도록 하라."

방을 붙이는 일이 끝나자, 송강은 군사를 수습하여 회군했다.

대소 장수들은 다시 안산진에 이르렀다. 그때 '백일서' 백승이 급히 달려와 동창부에서 벌어진 전투 소식을 보고했다. 송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썹을 치켜뜨고 눈을 부릅뜨며 크게 외쳤다.

"형제들이여, 산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로써 양산박의 영웅들은 다시 한번 군사를 몰아, 동창부라는 아름다운 성을 탈취하려 하였다. 결국 송강이 다시 군마를 이끌고 어디로 향했을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0회 — 몰우전 비석이 영웅을 때리고, 송공명이 군량을 버리고 장사를 사로잡다

沒羽箭飛石打英雄 宋公明棄糧擒壯士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이 동평부를 함락시킨 뒤 군사를 거두어 안산진으로 돌아왔다. 막 양산박으로 돌아가려는데, 백승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노준의께서 동창부를 공격하러 가셨다가 연이어 두 번이나 패하셨습니다. 성안에 장청이라는 맹장이 있는데, 원래 창덕부(彰德府) 사람으로 호기(虎騎, 정예 기마부대) 출신이었습니다. 돌을 던져 사람을 맞히는 솜씨가 백발백중이라 사람들이 '몰우전'이라 부릅니다. 그 수하에는 부장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화항호' 공왕이라 하여 온몸에 호랑이 무늬 문신이 있고 목덜미에는 호랑이 머리 모양이 있는데 말 위에서 창을 잘 다룹니다. 또 하나는 '중전호' 정득손이라 하여 뺨과 목에 흉터가 있으며 말 위에서 삼지창을 잘 다룹니다. 노준의께서 군사를 이끌고 경

계에 임하셨으나 열흘 동안 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셨습니다. 그저께는 장청이 성 밖으로 나와 교전을 벌였는데, 학사문이 적을 맞으러 나갔다가 수없이 합을 겨루던 중 장청이 물러나자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다 장청이 던진 돌에 이마를 맞아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연청이 노(弩)를 쏘아 장청의 말을 맞히는 바람에 학사문은 목숨을 구했으나 결국 한 판을 내주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혼세마왕' 번서가 항충, 이곤을 데리고 출전했으나, 뜻밖에 정득손이 던진 삼지창이 항충의 옆구리에 정통으로 맞아 또 한 번 패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배 위에서 병을 치료하고 있으니, 군사님께서 급히 형님들을 모셔 구원하러 오라고 전하셨습니다."

송강이 이 말을 듣고 탄식하며 말했다.

"노준의가 참으로 운이 없구나! 오학구(오용)와 공손승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그가 전투에서 공을 세우기를 바랐다. 그래야 산채에서도 면목이 설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찌 이런 적수를 만난단 말이냐!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 형제들이 모두 군사를 이끌고 가서 구원해야겠다."

송강이 즉시 명령을 내려 삼군을 일으켰다. 여러 장수가 말을 타고 송강을 따라 동창부 경계에 이르렀다. 노준의 일행은 송강을 맞이하여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보고하고 우선 진을 쳤다.

한창 상의를 나누고 있는데, 소규모 정찰대가 달려와 '몰우전' 장청이 싸움을 걸어왔다고 보고했다. 송강은 즉시 장수들을 거느리고 일어나 드넓은 벌판으로 나아가 진을 쳤다. 크고 작은 우두머리들이 일제히 말을 타고 송강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다. 송강이 말 위에서 대치하는

적진을 살펴보니, 아군 진영은 일자로 길게 늘어서 있고 깃발은 다섯 가지 색으로 나뉘어 휘날리고 있었다. 북소리 세 번이 울리자 '몰우전' 장청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 위용이 어떠한지, 장청의 용맹함을 찬양하는 시가 있어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붉은 술이 달린 두건을 쓰고 늑대 같은 허리에 원숭이 같은 팔을 가진 체구는 건장하구나. 비단옷에 수놓은 저고리 사이로 짙은 푸른색 도포가 살짝 비치네. 조각된 안장에 비스듬히 앉아 푸른 말과 옥으로 장식한 고삐를 채우고 가볍게 맞이하네. 해바라기 무늬 등자에는 놋방울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고, 꿩 깃털을 뒤로 늘어뜨린 채 네 발로 달리는 모습은 바람처럼 가볍구나. 금고리가 흔들릴 때마다 옥빛 구렁이가 붉은 술을 뿌리듯 휘날리고, 비단 주머니 속의 돌멩이는 유성처럼 가볍게 날아오르네. 강한 활이나 노가 따로 필요하랴, 방울을 튕겨 맞힐 필요가 무엇이랴, 그 돌이 닿는 곳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동창부의 기병 장수, '몰우전' 장청이라네.

송강은 깃발 아래에서 그 모습을 보고 크게 환호하며 격려했다. 장청은 말 위에서 먼지를 휘날리며 이리저리 거침없이 달렸다. 펄럭이는 깃발 그림자 사이로 왼쪽에서는 '화항호' 공왕이 튀어나오고, 오른쪽에서는 '중전호' 정득손이 나타났다. 세 기사가 진영 앞으로 달려오자, 장청이 송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물웅덩이에 사는 풀떼기 같은 도적 놈들아, 오늘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송강이 물었다. "누가 장청과 싸우러 나가겠느냐?" 곁에서 분노한 한 영웅이 노하여 말을 박차고 뛰어나가, 갈고리 모양의 구겸창(鉤鐮鎗)을 휘두르며 진영 앞으로 나섰다. 송강이 살펴보니 바로 '금창수' 서녕이었다. 송강은 속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저 사람이라면 장청의 상대가 되겠구나." 서녕이 말을 달려 장청을 향해 돌진했다. 두 말이 맞부딪치며 쌍창을 치켜들고 싸웠으나, 다섯 합을 채 넘기기도 전에 장청이 달아났다. 서녕이 뒤쫓으려 하자, 장청은 왼손으로 창을 허공에 들어 올리는 척하며 오른손으로 비단 주머니 속의 돌멩이를 꺼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서녕의 얼굴이 가까이 온 것을 보고는 돌 하나를 던졌다. 용맹하던 영웅이 불쌍하게도, 돌이 미간에 정통으로 맞으면서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공왕과 정득손이 즉시 그를 잡으러 달려들었다. 하지만 송강의 진영에는 사람이 많아, 이미 달려 나온 여방과 곽성이 극(戟)을 들고 나타나 서녕을 구해 본진으로 데려왔다. 송강과 장수들은 크게 놀라 안색이 변했다. 송강이 다시 물었다. "어느 우두머리가 나가 창술로 싸워보겠느냐?" 송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 뒤에서 한 장수가 튀어나왔는데, 보니 '금모호' 연순이었다. 송강이 그를 막으려 했으나 이미 그는 멀리 가버린 뒤였다. 연순이 장청을 맞이하여 수많은 합을 겨루었으나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자, 말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 장청이 뒤쫓아오며 돌을 집어 들어 연순의 등 뒤를 향해 던졌는데, 돌이 갑옷의 호심경(護心鏡, 가슴 보호판)에 맞으며 쟁강 소리를 냈고, 연순은 안장에 엎드린 채 도망쳤다. 그때 송강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크게 외쳤다. "저놈 따위가 무엇이 두렵단 말이냐!" 하고는 말을 몰아 창을 휘두르며 진영 밖으로 튀어 나갔다. 송강이 보니 바로 '백승장' 한도였다. 그는 말 한마디 섞을 겨를도 없이 장청과 싸웠다. 두 말이 맞붙자 함성이 드높게 울려 퍼졌고, 한도는 송강 앞에서 공을 세우고자 기운을 북

돋우며 장청과 크게 맞붙었다. 그러나 열 합도 되지 않아 장청이 달아났다. 한도는 장청이 돌을 던질까 의심스러워 뒤쫓지 않았다. 장청이 뒤를 돌아보았으나 쫓아오는 이가 없자, 말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한도가 창을 앞세워 맞서려던 찰나, 장청이 숨겨둔 돌을 던져 한도의 코 부근을 명중시켰다.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본 한도는 본진으로 도망쳤다. 이를 본 팽기가 크게 분노하여, 송강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삼첨양인도를 휘두르며 말을 달려 장청을 향해 돌진했다. 두 사람이 채 맞붙기도 전에 장청이 손에 숨겨둔 돌을 던져 팽기의 뺨을 정통으로 맞혔다. 팽기는 삼첨양인도를 떨어뜨린 채 말을 타고 본진으로 도망쳤다.

송강은 여러 장수가 패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당황하여, 급히 군마를 돌려 퇴각시키려 했다. 그때 노준의의 뒤에서 한 사람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위풍을 꺾여버리면, 내일은 어찌 싸운단 말이냐! 저 돌멩이로 나까지 맞출 셈이냐?" 송강이 살펴보니 바로 '추군마' 선찬이었다. 선찬은 말을 박차고 칼을 휘두르며 장청을 향해 돌진했다. 장청이 비웃으며 말했다. "한 명이 오면 한 명이 달아나고, 두 명이 오면 두 명이 도망치는구나. 내 돌 던지는 솜씨가 어떤지 아느냐?" 선찬이 대꾸했다. "남들은 맞힐지 몰라도, 나를 어찌 맞춘단 말이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청이 돌을 던졌고, 그것이 선찬의 입가를 정통으로 맞히자 선찬은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공왕과 정득손이 그를 잡으려 달려들었으나, 송강의 진영에 사람이 많아 여러 장수가 달려들어 그를 구해 본진으로 데려왔다.

이를 본 송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검을 뽑아 들고 옷자락을 찢어 맹세하며 외쳤다. "내가 저놈을 잡지 못한다면, 결코 군대를 돌리지 않겠다!" 호연작이 송강이 맹세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형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면 우리 형제들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러고는 '척설오추'라는 명마를 몰아 진영 앞으로 나아가 장청을 향해 크게 꾸짖었다. "애송이 놈이 운 좋게 기세를 얻어 용맹을 떨치더니, 대장군 호연작이 누구인지도 모르는구나!" 장청이 대답했다. "나라를 욕보인 패장 놈도 내 독한 손에 당할 것이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 하나가 날아왔다. 호연작은 날아오는 돌을 보고 급히 채찍으로 막으려 했으나, 돌은 정확히 그의 손목을 강타했다. 손목을 맞은 호연작은 강철 채찍을 휘두를 수조차 없게 되어 본진으로 돌아갔다.

송강이 탄식하며 말했다. "마군(기병) 두령들이 이토록 상처를 입었는데, 보군(보병) 두령들 중 누가 감히 저 장청을 잡겠느냐?" 그때 부하인 유당이 박도를 손에 쥐고 몸을 날려 출전했다. 장청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웃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패장 놈아, 기병들도 다 졌는데 하물며 보병 따위가 어쩌겠느냐!" 유당이 크게 분노하여 곧장 장청을 향해 돌진했다. 장청은 싸우는 대신 말을 돌려 진영으로 도망쳤다. 유당이 뒤쫓아가자 두 사람의 인마가 맞붙었다. 유당이 재빨리 박도를 휘둘러 내리쳤으나, 장청의 말이 이를 피했다. 그러자 말이 뒷발을 들어 차올렸고, 유당은 말꼬리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아 눈앞이 번쩍거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장청이 던진 돌 하나가 유당을 명중시켰고, 유당은 땅바닥에 쓰러졌다. 유당이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진영에서 달려 나온 적군들이 그를 붙들고 끌고 가버렸다. 송강이 크게 외쳤다. "누가 유당을 구하러 가겠느냐?" 이때 '청면수' 양지가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장청을 향해 돌진했다. 장청이 창을 들어 맞서는 척하자, 양지가 칼을 내리쳤으나 장청이 등자 사이로 몸을 쏙 빼는 바람에 양지의 칼은 허공을 갈랐다. 장청이 돌을 집어 들고 "받아라!" 하고 소리치며 옆구리 쪽을 향해 돌을 날렸다. 이어 장청이 던진 또 다른 돌이 양지의 투구에 '쟁' 하고 맞으니, 양지는 간담이 서늘해져 겁을 먹고 안장에 엎드린 채 본진으로 도망쳤다. 이를 본 송강은 번민하며 생각했다. '이번 싸움에서 기세를 잃고 만다면, 대체 어떻게 양산박으로 돌아갈 것인가? 누가 나를 대신해 이 분함을 풀어줄 수 있단 말인가?'

그 소리를 들은 주동이 뇌횡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 명으로는 부족하니, 우리 둘이 함께 가서 협공하자꾸나." 주동은 왼쪽에, 뇌횡은 오른쪽에 서서 각자 박도를 휘두르며 진영 앞으로 살기등등하게 나아갔다. 장청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한 놈이 안 되니 또 한 놈이 더 왔구나! 열 명이 와도 별수 없다!" 장청은 전혀 두려운 기색 없이 말 위에서 돌멩이 두 개를 손에 감추었다. 뇌횡이 먼저 다가가자 장청이 손을 치켜들었다. 그 기세가 마치 '초보칠랑'이 공격하는 듯했으니, 날아오는 돌을 얼굴 앞에서 어찌 피하겠는가. 뇌횡이 급히 고개를 들어 확인하려 할 때, 이미 돌 하나가 그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혔고 뇌횡은 그대로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주동이 급히 구하러 달려들었으나, 이번에는 돌 하나가 그의 목덜미를 맞혔다. 진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관승이 위엄을 떨치며 청룡도를 휘두르고 적토마를 몰아 주동과 뇌횡을 구하러 달려나갔다. 관승이 두 사람을 겨우 구해 본진으로 돌아가려는데, 장청이 다시 돌을 던졌다. 관승이 급히 칼로 막아냈으나 돌은 칼날의 끝부분을 정통으로 때렸고, 그 순간 불꽃이 튀었다. 관승은 더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급히 말을 돌려 본진으로 돌아갔다.

'쌍창장' 동평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제 막 송강에게 귀순했는데, 여기서 내 무예를 좀 떨치지 못하면 양산박에 올라가서 체면이 서지 않겠구나.' 동평은 두 자루의 창을 치켜들고 말을 몰아 진영 밖으로 튀어나갔다. 장청은 동평을 보자마자 크게 꾸짖었다. "너와 나는 이웃 고을끼리 서로 돕고 사는 사이인데, 함께 도적을 물리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조정에 맞서 반역을 꾀한단 말이냐? 부끄럽지도 않으냐!" 동평이 크게 분노하여 곧장 장청을 향해 돌진했다. 두 말의 앞머리가 맞닥뜨리자 두 장수는 무기를 치켜들었다. 두 자루의 창이 진영 위에서 어지럽게 교차했고, 네 팔이 허공을 가르며 격렬하게 맞붙었다. 대략 대여섯 합쯤 싸웠을 때, 장청이 말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 동평이 외쳤다. "남들은 네 돌에 맞았지만, 나는 결코 당하지 않는다!" 장청은 창대를 붙잡은 채 비단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냈다. 그가 손을 치켜드는 기세가 마치 유성이나 번갯불이 번쩍이는 듯하여, 날아오는 돌은 귀신도 놀랄 만큼 무시무시했다. 동평은 눈이 밝고 손이 빨라 돌을 쳐내어 피했다. 장청은 돌이 맞지 않자 두 번째 돌을 꺼내 다시 던졌으나, 동평은 이번에도 몸을 놀려 피했다. 두 번이나 돌을 놓치자 장청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두 말이 서로 뒤엉키며 맞붙은 사이, 장청이 진영 왼쪽으로 물러나자 동평이 뒤를 노려 창을 찔러 들어갔다. 장청이 몸을 휙 피하며 등자 사이로 몸을 쏙 빼는 바람에 동평의 창은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창끝이 그대로 밀려 들어오면서 동평의 말과 장청의 말이 서로 뒤엉켜 버렸다. 장청은 창을 내던지고 두 손으로 동평의 창과 팔을 한꺼번에 낚아챘으나, 도저히 끌어당길 수가 없어 두 사람은 한데 뒤엉키고 말았다.

송강의 진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소초가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구하러 나섰다. 하지만 대치하던 공왕과 정득손이 두 마리의 말을 몰아 동시에 달려들어 소초의 앞길을 가로막고 싸움을 걸었다. 장청과 동평 역시 서로 떨어지지 못한 채 엉겨 붙어 있었고, 소초와 공왕, 정득손까지 합세하자 세 마리의 말이 한데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때 임충, 화영, 여방, 곽성 네 장수가 일제히 출전하여 두 자루의 창과 두 자루의 극을 들고 동평과 소초를 돕기 위해 달려들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장청은 동평을 버려둔 채 말을 돌려 진영 안으로 도망쳤다. 동평은 그를 놓치지 않으려 곧장 뒤쫓아 들어갔으나, 장청이 던질 돌을 경계하는 것을 깜빡하고 말았다. 장청은 동평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손에 돌을 몰래 숨겼다가, 그의 말이 가까이 다가오자 크게 외쳤다. "받아라!" 동평이 급히 몸을 피했으나, 돌은 그의 귓가를 스치며 지나갔다. 동평은 곧바로 말을 돌렸다. 소초 역시 공왕과 정득손을 뿌리치고 동평을 따라 진영 안으로 들이닥쳤다. 장청은 창을 멈추고 가볍게 돌을 집어 들어 소초를 향해 던졌다. 소초가 급히 피하려 했으나 돌은 그의 얼굴을 정통으로 맞혔고, 피가 울컥 쏟아지자 소초는 도끼를 든 채 본진으로 물러났다.

한편, 임충과 화영이 공왕을 한쪽으로 몰아붙여 막아섰고, 여방과 곽성은 정득손을 한쪽으로 몰아 막아냈다. 공왕은 마음이 급해져 날카로운 창을 휘두르며 공격해 보았으나, 화영과 임충을 맞히지는 못했다. 결국 공왕은 무기를 놓치고 말았고, 임충과 화영에게 붙잡혀 본진으로 끌려갔다. 이쪽에서는 정득손이 비차를 휘두르며 여방과 곽성을 상대로 죽기 살기로 버텼다.

진영 입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낭자' 연청은 속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저놈에게 순식간에 장수 열다섯 명이나 당했으니, 저놈의 부하 한 명이라도 잡지 못한다면 대체 무슨 면목으로 얼굴을 들겠는가!' 연청은 무기를 내려놓고 곁에 있던 노를 꺼내 시위에 화살을 걸더니 곧장 쏘아 올렸다. 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정득손의 말 발굽을 정통으로 맞혔고, 말이 그대로 쓰러지자 여방과 곽성이 그를 붙잡아 진영으로 끌고 갔다. 장청이 구하러 오려 했으나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유당을 포로로 잡아 동창부로 퇴각했다.

동창부 태수는 성 위에서 장청이 양산박 장수 열다섯 명을 차례로 쓰러뜨리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비록 공왕과 정득손을 놓쳤으나 유당을 생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태수는 관아로 돌아오자마자 유당에게 긴 칼을 씌워 옥에 가두고 나서 다시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송강이 군대를 거두어 돌아오자마자 공왕과 정득손을 먼저 양산박으로 압송했다. 송강이 노준의, 오용과 함께 이야기했다. "내가 듣기로 오대 시절 대량의 왕언장이 해 그림자가 움직이기도 전에 당나라 장수 서른여섯 명을 연달아 격파했다더군. 오늘 장청은 한 시진도 안 되어 우리 장수 열다섯 명을 연달아 쓰러뜨렸으니, 비록 그 사람(왕언장)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분명 대단한 맹장이라 하겠네."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송강이 다시 말했다. "내가 보기에 저자는 공왕과 정득손을 날개 삼아 버티고 있네. 이제 그 수족 같은 날개가 붙잡혔으니, 좋은 계책을 써서 저자를 잡아들이세."

오용이 말했다. "형님, 안심하십시오. 저 장수가 출몰하는 것을 보고 이미 대책을 세워 두었습니다. 다만, 부상을 입은 장수들을 먼저 산채

로 돌려보내고, 노지심, 무송, 손립, 황신, 이립에게 명하여 수군을 모두 이끌게 하십시오. 그리고 수레와 배를 준비하여 육로와 수로로 동시에 진격하며, 배로 마중하여 장청을 유인해낸다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용이 지시를 모두 내렸다.

한편, 장청이 성 안에서 태수와 상의하며 말했다. "비록 승리하긴 했으나 도적의 세력이 근본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몰래 사람을 보내 허실을 살피는 것이 도리에 맞겠습니다."

조사를 나갔던 사람이 돌아와 보고했다. "산채의 북서쪽 뒤편에 수많은 식량을 쌓아두었는데, 수레가 백여 대나 됩니다. 또한 강 안쪽에는 크고 작은 배가 오백여 척이나 되는 식량 수송선이 있습니다. 육로와 수로로 동시에 진격하며 군마와 배를 함께 끌고 오는데, 길목마다 장수들이 배치되어 감시하고 있습니다."

태수가 말했다. "저 도적놈들에게 무슨 계책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자칫 독수에 당할까 두렵구나. 사람을 더 보내서 그것이 정말 식량과 풀이 맞는지 확실히 알아보거라."

다음 날, 작은 군사 하나가 돌아와 보고했다. "수레에는 모두 식량이 실려 있고, 심지어 쌀이 길가에 흩어져 있습니다. 물 위의 배들은 덮개로 가려져 있으나, 쌀자루가 삐져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장청이 말했다. "오늘 밤 성 밖으로 나가 먼저 육지의 수레들을 가로챈 뒤, 그다음에 물 위의 배들을 빼앗읍시다. 태수께서 도와주신다면 단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태수가 말했다. "참으로 묘한 계책이로다. 다만 상황을 잘 살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태수는 군사들에게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한 뒤, 모두 무장을 갖추고 짐을 싣게 했다. 장청은 긴 창을 손에 쥐고 천 명의 군사를 거느린 채 몰래 성을 나섰다.

그날 밤은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별빛이 하늘에 가득했다. 열 리쯤 갔을까, 멀리 수레 무리가 보였는데 깃발에는 '수호채 충의량(양산박의 의로운 식량)'이라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장청이 이를 보고, 노지심이 선장(禪杖, 승려의 지팡이)을 짊어진 채 검은 장삼을 걷어 올려 동여매고 맨 앞에서 앞장서 가는 것을 발견했다. 장청이 말했다. "저 대머리 중놈 머리에 돌 하나를 박아주마."

노지심은 선장을 짊어진 채 멀리서 그들을 보았으나, 모르는 척하며 그저 성큼성큼 걸어갔다. 돌이 날아올 것이라는 방비는 미처 하지 못한 채였다. 한창 가던 중에 장청이 말 위에서 크게 외쳤다. "받아라!" 돌 하나가 날아와 노지심의 머리를 정면으로 강타했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며 노지심은 그대로 뒤로 고꾸라졌다. 장청의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무송이 급히 두 자루의 계도(戒刀, 승려가 쓰는 칼)를 치켜들고 달려가 노지심을 구출해낸 뒤, 식량 수레를 버려두고 급히 자리를 피했다.

장청은 식량 수레를 탈취한 뒤 그것이 정말로 쌀과 곡식인 것을 확인하고는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그는 노지심을 쫓아가는 대신 식량 수레를 압송하여 성 안으로 밀어 넣었다. 태수는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직접 관리를 맡았다. 장청이 말했다. "이제 강에 있는 쌀 배들도 빼앗읍시다." 태수가 말했다. "장군께서 참으로 기회를 잘 잡으셨소."

장청이 말에 올라 남문을 돌아 나갔다. 이때 강가 항구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식량 배들이 보였다. 장청이 즉시 성문을 열라고 명령하고는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강변으로 돌격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깔린 듯 검은 안개가 하늘을 뒤덮었다. 마병과 보병들이 뒤를 돌아보려 해도 서로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공손승이 도술을 펼친 것이었다. 장청은 이 광경을 보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되돌아가려 했으나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고, 사방에서 함성이 어지럽게 터져 나와 군사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때 임충이 철기군을 이끌고 나타나 장청과 그 말까지 통째로 강물 속으로 몰아넣었다. 강 안쪽에는 이준, 장횡, 장순, 완씨 삼형제, 그리고 동위·동맹 두 형제, 즉 여덟 명의 수군 두령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장청이 설령 삼두육비(三頭六臂)의 신통한 능력을 지녔다 한들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그는 결국 완씨 삼형제에게 붙잡혀 포박당한 채 산채로 압송되었다. 수군 두령이 이 소식을 송강에게 급히 보고하자, 오용은 즉시 크고 작은 두령들을 독려하여 밤을 도와 성을 공격하게 했다.

태수는 혼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겠는가. 성 밖 사방에서 포성(砲聲)이 울려 퍼지고 성문까지 열리자, 겁에 질린 태수는 도망갈 길조차 찾지 못했다. 송강의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이닥쳐 먼저 유당을 구출해낸 뒤, 곧바로 창고를 열어 돈과 식량을 나누어 가졌다. 그중 일부는 양산박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흩어져 살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

다. 태수는 평소 청렴한 관리였기에, 송강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송강 일행은 모두 주아(州衙, 관청)에 모여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때 수군 두령이 이미 장청을 압송해 온 것을 보았다. 수많은 형제가 장청에게 다쳤기에, 모두가 이를 갈며 장청을 죽이려 안달이었다. 송강은 포로가 끌려오는 것을 보고 직접 계단을 내려가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호랑이의 위엄을 잘못 건드렸으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오." 그러고는 장청을 대청으로 모셔 들였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계단 아래에서 노지심이 손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철선장(鐵禪杖, 철로 만든 승려의 지팡이)을 든 채 장청을 치려고 곧장 달려들었다. 송강이 앞을 가로막으며 연신 호통을 쳤다. "어찌 네가 손을 쓰게 두겠느냐!" 장청은 송강이 이토록 의리를 지키는 것을 보고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을 청했다. 송강은 술을 땅에 부어 제를 올리고 화살을 꺾어 맹세했다. "형제들이 만약 이 원수를 갚겠다고 고집한다면, 하늘이 돕지 않아 칼과 창에 맞아 죽으리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이는 천강성들이 마땅히 한 자리에 모여야 할 운명이었기에, 자연스레 의리가 통하는 것이었다.

송강이 맹세를 마친 뒤 말했다. "형제들이여, 너무 원망하지 마시오." 사람들이 크게 웃으며 모두 기뻐했다. 그들은 군사와 말을 정리하여 모두 양산박으로 돌아갔다.

장청은 송강 앞에서 동창부의 한 수의(獸醫, 말과 짐승을 고치는 의사)를 추천하며, 복성은 황보요 이름은 단이라고 말했다. "이 사람은

말을 살피는 솜씨가 뛰어나, 가축의 추위와 더위로 인한 병증을 잘 알아차립니다. 약을 쓰고 침을 놓으면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참으로 백락(伯樂)과 같은 인재입니다! 본래 유주 사람인데, 눈이 푸르고 수염이 노란 것이 마치 외국인처럼 생겨서 사람들은 그를 '자염백'이라 부릅니다. 양산박에서도 그가 쓰일 곳이 많으니, 이 사람에게 처자식을 데리고 함께 산으로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만약 황보단이 기꺼이 와서 함께한다면, 내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하겠소." 장청은 송강이 이토록 인심이 후한 것을 보고, 곧장 가서 의수(醫獸) 황보단을 불러와 송강과 여러 두령에게 인사하게 했다.

황보단의 의술을 찬양하는 칠언고풍(七言古風) 시가 있어 다음과 같이 읊었다.

가문에 전해 내려온 의술은 대적할 자가 없고 준마를 돌보는 솜씨는 신통한 힘이 있네 죽어가는 이를 살려내는 묘함은 말로 다 못하고 곤경에 처한 이를 구제함이 끝이 없구나

악공(鄂公)의 명마 오추를 사람들은 모두 칭송하고 곽공(郭公)의 명마 녹이도 악와(渥窪)에서 났다 하네 토번의 명마 조류는 신령한 말이라 불리고 북쪽 땅의 권모와 구도 또한 부러워하네 날뛰는 준마와 명마들을 수없이 보아왔고 안장과 등자 모양이 변하는 것도 많이 겪었으나 천한(天閑)의 열두 명마가 이름을 떨쳤던 것처럼 손만 대면 병이 낫는 재주는 참으로 놀랍구나

옛사람의 명성은 이미 변치 않는 것이 되었으나 오늘 다시 황보단을 만나게 되었네 사백여 가지 병을 다스려 고쳐내니 두 눈은 구슬이 굴러가듯 형형하구나 하늘이 충성스럽고 어진 이들을 모으려 하시는지 장청이 이토록 좋은 계책을 내놓았네 양산박에 한 사람이 더해졌으니 그 이름은 자염백이자 백락의 후예로다

송강은 황보단의 모습이 범상치 않음을 보았다. 푸른 눈에 눈동자가 겹쳐진 중동(重瞳)을 가졌고, 용처럼 구불구불한 수염이 배까지 내려와 있었다. 송강은 그를 칭찬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황보단은 송강이 이토록 의로운 인물임을 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대의를 따라가기를 원했다. 송강은 매우 기뻐하며 그를 다독여 안심시킨 뒤, 여러 두령에게 명령을 내렸다. 수레와 군장, 식량과 금은보화를 챙겨 동창부와 동평부의 재물과 군량을 모두 산채로 운반하라는 것이었다. 전후의 장수들이 모두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별다른 일 없이 일찍이 양산박 충의당에 도착했다.

송강은 공왕과 정득손을 불러내어 좋은 말로 달래니, 두 사람도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했다. 이로써 황보단이 산채에 합류하여 전문적으로 말과 짐승을 치료하게 되었고, 동평과 장청 또한 산채의 두령이 되었다. 송강은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잔치를 열어 축하했다. 모든 이가 충의당에 모여 차례대로 자리에 앉았다. 송강이 두령들을 살펴보니, 과연 정확히 백여덟 명이었다.

송강이 입을 열어 말했다. "우리 형제들이 산에 올라 모인 뒤로, 어디에서도 실수나 허물이 없었으니 이는 모두 하늘이 보살펴주신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오. 지금 나를 받들어 우두머리로 삼아

준 것도 모두 형제들이 용맹하게 앞장서준 덕분이오. 첫째는 마땅히 의리를 모아 모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다시 할 말이 있으니 형제들이 번거롭더라도 함께 들어주었으면 하오."

그러자 오용이 말했다. "형님, 부디 저희에게 명을 내려주십시오."

송강은 여러 두령을 향해 마주 앉아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대단한 가르침이었다. 서른여섯 천강성이 땅으로 내려오고, 일흔두 지살성이 중원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결국 송강이 어떤 방책을 내놓았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1회 — 충의당 석갈이 천문을 받고, 양산박 영웅들이 자리를 정하다

忠義堂石碣受天文 梁山泊英雄排座次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이 동평과 동창을 차례로 토벌하고 양산박으로 돌아와 대소 두령의 인원을 세어보니 모두 백여덟 명이었다. 송강은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강주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산으로 올라온 뒤로, 모두 형제님들이 영웅답게 도와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백여덟 명의 두령이 모두 모이니 참으로 기쁩니다. 조개 형님이 하늘나라로 떠나신 뒤로 우리가 군사를 이끌고 산으로 돌아와 이토록 당당하게 세력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보살펴주신 덕이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로잡혀 옥에 갇혔던 자나, 부상을 입고 돌아온 자들 모두 무사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백여덟 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예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예전에는 병장기를 휘두르며 무고한 생명을 죽였으니, 그 죄를 씻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지신명의 보살핌에 보답하고자 '나천대초(羅天大醮)'를 지

내려 합니다. 첫째는 우리 형제들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기를 빌기 위함이요, 둘째는 조정에서 하루빨리 은혜를 베풀어 하늘을 거스른 큰 죄를 사해주기를 바라기 위함입니다. 그리되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바쳐 충성을 다하고 나라에 보답하여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는 하늘로 가신 조개 형님이 천계에서 영생하며 세세생생 우리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천도하고, 비명횡사하거나 흉하게 죽거나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죽은 모든 무고한 이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빌고자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려 하는데, 형제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령들이 모두 찬성하며 말했다. "참으로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형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러자 오용이 말했다. "먼저 공손승 도사님께 제사를 주관해 달라고 청합시다. 그러고 나서 사람을 내려보내 사방의 덕 높은 도사들을 초빙하고, 제사에 쓸 기구들을 가지고 산채로 오게 합시다. 또한 향과 초, 종이 말, 꽃과 과일, 제사 음식과 정결한 음식 등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사 오도록 시킵시다."

그들은 상의 끝에 4월 15일을 시작으로 7일 밤낮 동안 제사를 지내기로 정했다. 양산박에서는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고 일을 감독하며 준비했다. 날짜가 다가오자 충의당 앞에 네 폭의 긴 깃발을 내걸고, 당 위에는 세 층 높이의 제단을 쌓았다. 당 안에는 칠보로 만든 삼청 성상을 모시고, 이십팔수와 십이궁의 별자리,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모든 별의 신들을 배치했다. 당 밖에는 제단을 지키는 최·노·등·두 네 신장을 세웠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제사 도구가 갖춰지자, 공손승을 포함

하여 총 마흔아홉 명의 도사가 모였다. 제사 지내는 날은 날씨가 맑고 화창했으며, 달은 희고 바람은 맑았다. 송강과 노준의가 앞장서고, 오용과 여러 두령이 뒤를 이어 향을 피웠다. 공손승은 고공(高功)을 맡아 재초 의식을 주관하며 각종 문서와 부적·부명(符命)을 발부하였는데, 그 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날의 제사 잔치 풍경은 이러하였다.

향 연기는 상서로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꽃들은 비단 병풍처럼 무리 지어 피어 있었다. 천 개의 그림 양초는 빛을 흘려보내고, 수백 개의 은등은 오색찬란한 빛을 흩뿌렸다. 짝을 지어 높이 세운 화려한 덮개와 겹겹이 늘어선 깃발들이 위용을 자랑했다. 맑은 바람은 삼계를 가로지르며 신선들이 걷는 소리를 실어 오고, 차가운 달빛은 구만리 높은 하늘에서 맑은 이슬처럼 내려앉았다.

금종을 울리자 높은 자리에 오른 도사가 황제께 올리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옥패가 쟁그랑 소리를 내면 도사들이 제단에 올라 옥제께 조례를 올렸다.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이들은 별빛처럼 찬란했고, 연꽃 모양 관을 쓴 이들은 금빛과 비취빛 옷을 입어 눈부셨다. 제단을 지키는 신장들은 험상궂고 위엄 있는 모습이었으며, 제사를 돕는 공조들은 용맹스럽게 자리를 지켰다.

도사들은 일제히 보물을 바치며 참회 기도를 올리고, 요대 위로 올라가 정결한 물을 따르며 꽃을 바쳤다. 진인들은 신비로운 주문을 나직이 외우며, 법도에 따라 검을 휘두르고 북두칠성의 형상을 그리며 발을 내디뎠다. 그러자 푸른 용이 은은히 황도를 따라 나타나고, 흰 학이 나풀나풀 자진성(紫宸)으로 내려앉았다.

그날 공손승과 마흔여덟 명의 도사들은 모두 충의당 위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매일 세 차례씩 의식을 거행하다가 일곱째 날이 되어서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송강은 하늘의 응답을 간절히 바랐기에, 특별히 공손승에게 하늘에 올리는 청사(靑詞)를 읽어 천제께 아뢰는 기도를 매일 세 차례씩 정성껏 올리도록 명했다.

그러던 중 일곱째 날 삼경(밤 11시~새벽 1시 사이) 무렵이었다. 공손승은 허황단 첫 번째 층에 있고, 도사들은 두 번째 층에, 송강을 비롯한 두령들은 세 번째 층에 자리 잡았으며, 여러 소두목과 장수들은 모두 제단 아래에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향해 간절히 매달리며 반드시 응답해 달라고 빌고 있었다.

그때 밤 삼경 무렵, 하늘에서 마치 비단이 찢어지는 듯한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는데, 바로 서북쪽 건방(乾方)의 천문(天門) 위였다. 사람들이 살펴보니, 금빛 쟁반을 세워놓은 듯 양 끝은 뾰족하고 가운데는 넓은 모양이었는데, 이를 두고 사람들은 '천문이 열렸다' 혹은 '천안(天眼)이 열렸다'라고 불렀다. 그 틈 사이로 눈이 부실 정도의 빛이 쏟아져 나오고 오색찬란한 구름이 휘감기더니, 가운데에서 불덩이 하나가 광주리 같은 둥근 형상을 한 채 허황단을 향해 굴러 내려왔다. 그 불덩이는 제단을 한 바퀴 휘감으며 구르더니, 이내 정남쪽 땅속으로 쑥 파고 들어 갔다.

그사이 하늘의 눈은 다시 닫혔고, 도사들은 제단 아래로 내려왔다. 송강은 즉시 사람들을 시켜 철삽과 괭이로 흙을 파헤치며 불덩이를 찾게 했다. 땅을 석 자(약 90cm)도 채 파 내려가지 않아, 천서(天書)의

글자가 앞면과 양옆에 새겨진 석갈 하나가 나타났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충의로운 영웅들 이곳에 높이 모였으니,
상제(上帝)의 마음을 감응시켰음이 참으로 기이하도다!
세상 사람의 선과 악은 모두 응보를 부르나니,
하늘의 눈이 어느 때인들 크게 열려 있지 않으랴!

그때 송강은 지전을 사르고 의식을 마무리하게 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이 되자 제사를 지낸 도사들에게 각자 보시(襯資)에 충당하도록 금과 비단 따위를 사례로 나누어 주었다.

방금 가져온 석갈을 살펴보니, 그 위에는 용과 봉황 무늬의 전서(篆書)와 올챙이 모양의 글자가 가득하여 아무도 읽을 수 없었다. 그때 도사들 가운데 성이 하 씨이고 법명이 현통인 이가 송강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희 집안 조상께서 대대로 내려오는 서책 한 권을 남겨 주셨는데, 천서를 판별하는 데 특효가 있습니다. 천서에는 예로부터 저런 올챙이 모양의 글자가 쓰였는데, 이 빈도가 그것을 잘 알아보고 풀이할 수 있으니, 번역해 내면 그 실체를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얼른 석갈을 받들어 하 도사에게 건넸다. 하 도사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 돌에는 의사(義士)들의 이름이 모두 새겨져 있습니다. 옆면 한쪽에는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한다'는 뜻의 '체천행도(替天行道)' 네 글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충성과 의리를 모두 갖추었다'는 뜻의 '충의쌍전(忠義雙全)' 네

글자가 있습니다. 윗부분에는 모두 별자리인 남두성(南斗)과 북두성(北斗)이 새겨져 있고, 아래쪽에는 존호가 적혀 있습니다. 혹여 꾸짖지만 않으신다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높은 선비께서 길을 밝혀 주시니 인연이 참으로 깊습니다. 가르침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만 하늘의 노여움을 살 만한 말이 있더라도 숨기지 마시고, 단 한 마디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전부 밝혀 주십시오."

송강은 '성수서생' 소양을 불러 황지에 옮겨 적게 했다. 하 도사가 말하기를, 앞면에는 천강성 서른여섯 명에 해당하는 천서 서른여섯 줄이 있고, 뒷면에는 지살성 일흔두 명에 해당하는 천서 일흔두 줄이 있으며, 그 아래에 의사들의 성명이 주석으로 달려 있다고 했다. 한참 동안 살펴본 뒤 소양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베껴 쓰게 했다.

석갈 앞면에는 양산박 천강성 서른여섯 명의 명단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천괴성 '호보의' 송강, 천강성 '옥기린' 노준의 천기성 '지다성' 오용, 천한성 '입운룡' 공손승 천용성 '대도' 관승, 천웅성 '표자두' 임충 천맹성 '벽력화' 진명, 천위성 '쌍편' 호연작 천영성 '소이광' 화영, 천귀성 '소선풍' 시진 천부성 '박천조' 이응, 천만성 '미염공' 주동 천고성 '화화상' 노지심, 천상성 '행자' 무송 천립성 '쌍창장' 동평, 천첩성 '몰우전' 장청 천암성 '청면수' 양지, 천우성 '금창수' 서녕 천공성 '급선봉' 색초, 천속성 '신행태보' 대종 천이성 '적발귀' 유당, 천살성 '흑선풍' 이규 천미성 '구문룡' 사진, 천구성 '몰차란' 목홍 천퇴성 '삽시호' 뇌횡, 천수성

'혼강룡' 이준 천검성 '입지태세' 완소이, 천평성 '선화아' 장횡 천죄성 '단명이랑' 완소오, 천손성 '낭리백조' 장순 천패성 '활염라' 완소칠, 천뢰성 '병관삭' 양웅 천혜성 '반명삼랑' 석수, 천폭성 '양두사' 해진 천곡성 '쌍미갈' 해보, 천교성 '낭자' 연청

석갈 뒷면에는 지살성 일흔두 명의 명단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지괴성 '신기군사' 주무, 지살성 '진삼산' 황신 지용성 '병울지' 손립, 지걸성 '추군마' 선찬 지웅성 '정목안' 학사문, 지위성 '백승장' 한도 지영성 '천목장' 팽기, 지기성 '성수장' 단정규 지맹성 '신화장' 위정국, 지문성 '성수서생' 소양 지정성 '철면공목' 배선, 지활성 '마운금시' 구붕 지합성 '화안산예' 등비, 지강성 '금모호' 연순 지암성 '금표자' 양림, 지축성 '굉천뢰' 능진 지회성 '신산자' 장경, 지좌성 '소온후' 여방 지우성 '새인귀' 곽성, 지령성 '신의' 안도전 지수성 '자염백' 황보단, 지미성 '왜각호' 왕영 지혜성 '일장청' 호삼낭, 지폭성 '상문신' 포욱 지연성 '혼세마왕' 번서, 지창성 '모두성' 공명 지광성 '독화성' 공량, 지비성 '팔비나타' 항충 지주성 '비천대성' 이곤, 지교성 '옥비장' 금대견 지명성 '철적선' 마린, 지진성 '출동교' 동위 지퇴성 '번강신' 동맹, 지만성 '옥번간' 맹강 지수성 '통비원' 후건, 지주성 '도간호' 진달 지은성 '백화사' 양춘, 지이성 '백면낭군' 정천수 지리성 '구미구' 도종왕, 지준성 '철선자' 송청 지락성 '철규자' 낙화, 지첩성 '화항호' 공왕 지속성 '중전호' 정득손, 지진성 '소차란' 목춘 지계성 '조도귀' 조정, 지마성 '운리금강' 송만 지요성 '모착천' 두천, 지유성 '병대충' 설영 지복성 '금안표' 시은, 지벽성 '타호장' 이충 지공성 '소패왕' 주통, 지고성 '금전표자' 탕륭 지전성 '귀

검아' 두흥, 지단성 '출림룡' 추연 지각성 '독각룡' 추윤, 지수성 '한지홀률' 주귀 지장성 '소면호' 주부, 지평성 '철비박' 채복 지손성 '일지화' 채경, 지노성 '최명판관' 이립 지찰성 '청안호' 이운, 지악성 '몰면목' 초정 지추성 '석장군' 석용, 지수성 '소울지' 손신 지음성 '모대충' 고대소, 지형성 '채원자' 장청 지장성 '모야차' 손이낭, 지열성 '활섬파' 왕정륙 지건성 '험도신' 욱보사, 지호성 '백일서' 백승 지적성 '고상조' 시천, 지구성 '금모견' 단경주

그때 하현통 도사가 천서의 내용을 판독하여 소양에게 옮겨 적게 했다. 다 읽고 나서 사람들이 살펴보니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송강이 여러 두령에게 말했다.

"미천한 아전이었던 내가 알고 보니 하늘의 별인 천괴성에 응하였고, 여러 형제 또한 모두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구나. 하늘이 이토록 응답하시니, 우리가 의리를 모아 모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인원도 충분하니, 하늘이 천강성과 지살성의 등급을 나누어 크고 작은 별의 자리를 정해주셨다. 모두 순서가 정해졌으니, 두령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서로 다투지 마라. 하늘의 말씀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다."

사람들이 모두 대답했다.

"천지의 뜻이고 자연의 이치로 정해진 것이니, 누가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송강은 곧 황금 쉰 냥을 꺼내 하현통 도사에게 사례했다. 그 외의 도사들도 제사에 쓰일 비용을 챙겨 제사 도구를 정리한 뒤 뿔뿔이 산을 내려갔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시로 이르되,

달 밝고 바람 찬 제단 깊은 곳에,
난새와 학이 허공에 아름다운 소리 전하네.
지살과 천강이 성씨와 이름을 늘어놓으니,
뜨거운 충의가 평생의 마음이로다.

한편, 도사들이 집으로 돌아간 일은 차치하고, 송강이 군사인 오용, 주무 등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겠다. 송강은 충의당 대청에 '충의당'이라는 세 글자를 크게 쓴 현판을 걸고, 단금정에도 커다란 현판을 새로 바꾸기로 했다. 충의당 앞에는 세 곳의 관문을 세우고, 충의당 뒤편에는 안태(雁臺)를 하나 건축한 뒤 그 꼭대기에 정면 대청을 하나 세우고 동서로 각각 두 개의 방을 두기로 했다. 정청에는 탁탑천왕 조개의 신주를 모셨다. 동쪽 방에는 송강, 오용, 여방, 곽성이 머물고, 서쪽 방에는 노준의, 공손승, 공명, 공량이 머물기로 했다. 두 번째 언덕 왼쪽 방에는 주무, 황신, 손립, 소양, 배선이 머물고, 오른쪽 방에는 대종, 연청, 장청, 안도전, 황보단이 머물기로 했다. 충의당 왼쪽에는 시진, 이응, 장경, 능진이 창고의 곡식과 재물을 관리하며, 오른쪽에는 화영, 번서, 항충, 이곤이 맡기로 했다. 산 앞쪽 남쪽 길의 첫 번째 관문은 해진과 해보가 지키고, 두 번째 관문은 노지심과 무송이, 세 번째 관문은 주동과 뇌횡이 지키기로 했다. 동쪽 산의 관문은 사진과 유당이,

서쪽 산의 관문은 양웅과 석수가, 북쪽 산의 관문은 목홍과 이규가 지키기로 했다. 여섯 관문 밖에는 여덟 개의 진영을 설치했는데, 네 개의 육지 진영과 네 개의 수로 진영이 있었다. 정남쪽 육지 진영에는 진명, 색초, 구팽, 등비가, 정동쪽 육지 진영에는 관승, 서녕, 선찬, 학사문이, 정서쪽 육지 진영에는 임충, 동평, 단정규, 위정국이, 정북쪽 육지 진영에는 호연작, 양지, 한도, 팽기가 배치되었다. 동남쪽 수로 진영에는 이준과 완소이가, 서남쪽 수로 진영에는 장횡과 장순이, 동북쪽 수로 진영에는 완소오와 동위가, 서북쪽 수로 진영에는 완소칠과 동맹이 맡기로 했다. 그 외의 인원들은 각자 맡은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또한 깃발과 같은 물품들을 새로이 갖추었는데, 산꼭대기에는 '체천행도(替天行道,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한다)'라는 네 글자가 쓰인 황금색 깃발을 세웠다. 충의당 앞에는 글자가 수놓아진 붉은 깃발 두 면을 두었는데, 하나에는 '산동 호보의', 다른 하나에는 '하북 옥기린'이라 적었다. 그 외에 비룡·비호기, 비웅·비표기, 청룡·백호기, 주작·현무기를 배치하고, 황월백모(黃鉞白旄), 청번조개(青旛皁蓋), 비영흑도(緋纓黑纛) 등 다양한 깃발과 의장을 갖추었다. 중군(中軍)의 병기들 외에도 사두오방기, 삼재구요기, 이십팔숙기, 육십사괘기, 주천구궁팔괘기, 백이십사면 진천기를 마련하였다. 이 모든 것은 후건(侯健)이 제작하였고, 금대견이 병부와 인장을 주조하였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길일과 좋은 시간을 택하여, 소와 말을 잡아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낸 뒤 충의당과 단금정에 현판을 걸고 '체천행도'라 적힌 황금색 깃발을 높이 세웠다.

송강은 그날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직접 병부와 인장을 받들어 들고 호령을 내렸다.

"크고 작은 아우들아, 각자 맡은 바 직무를 엄격히 관리하고 모두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결코 어기거나 잘못하여 의기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고의로 명령을 어기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군법에 따라 다스릴 것이니 결코 가볍게 용서하지 않겠다."

양산박 전체를 통솔하는 총병 도두령(都頭領, 우두머리 두령) 두 명:

"호보의" 송강, "옥기린" 노준의

기밀을 관장하는 군사(軍師) 두 명:

"지다성" 오용, "입운룡" 공손승

군무를 함께 논의하는 참찬(參贊) 두령 한 명:

"신기군사" 주무

군량과 재물을 관리하는 두령 두 명:

"소선풍" 시진, "박천조" 이응

마군(馬軍)의 오호장(五虎將) 다섯 명:

"대도" 관승, "표자두" 임충

"벽력화" 진명, "쌍편" 호연작

"쌍창장" 동평

마군(馬軍)의 팔호기(八虎騎)와 선봉사(先鋒使) 여덟 명은 다음과 같다.

"소이광" 화영, "금창수" 서녕

"청면수" 양지, "급선봉" 색초

"몰우전" 장청, "미염공" 주동

"구문룡" 사진, "몰차란" 목홍

마군(馬軍)의 소표장(小彪將, 하급 장수)이자 원탐출초(遠探出哨, 원거리 정찰·초소 담당) 두령 열여섯 명:

"진삼산" 황신, "병울지" 손립

"추군마" 선찬, "정목안" 학사문

"백승장" 한도, "천목장" 팽기

"성수장" 선정규, "신화장" 위정국

"마운금시" 구붕, "화안산예" 등비

"금모호" 연순, "철적선" 마린

"조간호" 진달, "백화사" 양춘

"금표자" 양림, "소패왕" 주통

보병 두령 열 명:

"화화상" 노지심, "행자" 무송

"적발귀" 유당, "삽시호" 뇌횡

"흑선풍" 이규, "낭자" 연청

"병관삭" 양웅, "반명삼랑" 석수

"양두사" 해진, "쌍미갈" 해보

보병 장교 17명:

"혼세마왕" 번서, "상문신" 포욱

"팔비나타" 항충, "비천대성" 이곤

"병대충" 설영, "금안표" 시은

"소차란" 목춘, "타호장" 이충

"백면낭군" 정천수, "운리금강" 송만

"모착천" 두천, "출림룡" 추연

"독각룡" 추윤, "화항호" 공왕

"중전호" 정득손, "몰면목" 초정

"석장군" 석용

사채(四寨)의 수군 두령 여덟 명:

"혼강룡" 이준, "선화아" 장횡

"낭리백조" 장순, "입지태세" 완소이

"단명이랑" 완소오, "활염라" 완소칠

"출동교" 동위, "번강신" 동맹

네 곳의 가게에서 소식을 탐문하고 찾아오는 손님을 영접하는 두령 여덟 명:

"소위지" 손신, "모대충" 고대수

"채원자" 장청, "모야차" 손이낭

"한지홀률" 주귀, "귀검아" 두흥

"최명판관" 이립, "활섬파" 왕정륙

총탐성식(총괄하여 소식을 살피는) 두령 한 명:

"신행태보" 대종

군중에서 기밀을 달려가 전하고 보고하는 보군 두령(步軍頭領, 보병 지휘관) 네 명:

"철규자" 악화와 "고상조" 시천

"금모견" 단경주와 "백일서" 백승

중군마군을 수호하는 용맹한 장수 두 명:

"소온후" 여방과 "새인귀" 곽성

중군보군을 수호하는 용맹한 장수 두 명:

"모두성" 공명과 "독화성" 공량

형벌을 집행하는 백정 두 명:

"철비박" 채복과 "일지화" 채경

삼군 안에서 정보 탐문(첩보 수집)을 전담하는 마군 두령 두 명:

"왜각호" 왕영과 "일장청" 호삼낭

제반 제조와 감독을 맡아 관리하는 두령 열여섯 명:

문서를 작성하여 군사를 움직이고 장수를 파견하는 업무를 맡은 두령 한 명:

"성수서생" 소양

공로를 정하고 상벌을 내리며 군정(軍政)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두령 한 명:

"철면공목" 배선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고 곡식과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두령 한 명:

"신산자" 장경

크고 작은 전선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두령 한 명:

"옥번간" 맹강

각종 병부와 인장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두령 한 명:

"옥비장" 금대견

각종 깃발과 관복, 겉옷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두령 한 명:

"통비원" 후건

각종 말과 짐승의 의술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두령 한 명:

"자염백" 황보단

각종 질병의 내과와 외과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의사 한 명:

"신의" 안도전

모든 군기와 철갑을 제작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 한 명:

"금전표자" 탕륭

모든 크고 작은 대포를 전담하여 제작하는 관리 한 명:

"굉천뢰" 능진

건물을 짓고 수리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 한 명:

"청안호" 이운

소나 말, 돼지와 양 같은 가축을 도살하는 일을 맡은 관리 한 명:

"조도귀" 조정

잔치를 차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맡은 관리 한 명:

"철선자" 송청

술과 식초 등 모든 주류를 준비하고 공급하는 일을 맡은 관리 한 명:

"소면호" 주부

양산박의 모든 성벽과 성곽을 쌓고 관리하는 일을 맡은 관리 한 명:

"구미귀" 도종왕

수帥(수) 자가 새겨진 깃발 한 개를 전담하여 받들어 모시는 관리 한 명:

「험도신」 욱보사

선화 2년 4월 초하루, 양산박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인원 배정 명단이 공고되었다.

그날 양산박의 송강이 명령을 다 내리고 두령들에게 맡길 직무와 인원 배정을 모두 정하자, 각자 병부와 인장을 받아 갔다. 연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모두 크게 취해 각자 배정받은 진영으로 돌아갔다. 아직 직무가 정해지지 않은 이들은 모두 안대 전후에 주둔하며 명령을 기다렸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양산박의 좋은 점을 말하자면 이러하다.

사방에서 모여든 이들이 한 울타리 안에서 성씨가 달라도 한 가족이 되었으니, 천지신명은 강렬한 기운을 드러내고, 인간 세상은 영웅들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도다. 천 리 밖에서도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한 치의 마음도 생사를 함께할 만큼 깊으니, 생김새나 말투는 남북과 동서로 제각각일지라도, 그 마음과 배짱만큼은 충성과 의리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구나.

그중에는 왕실의 자손과 부유한 집안의 자제, 장수와 관리도 있었고, 온갖 잡다한 직업을 가진 이들부터 사냥꾼과 어부, 백정과 도살업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형님 아우라 부르며 귀천을 따지지 않았다. 또한 친형제와 부부, 숙부와 조카, 처남과 매부, 그리고 주종 관계에 있는 이들까지,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똑같이 술잔을 나누며 즐거워하니 친소 관계를 묻지 않았다.

어떤 이는 영특하고 어떤 이는 거칠며, 어떤 이는 시골뜨기 같고 어떤 이는 풍류를 즐기지만, 서로 방해하기는커녕 각자의 성품대로 어울려 살았고, 어떤 이는 글재주가 뛰어나고 어떤 이는 칼과 창을 잘 쓰며,

어떤 이는 말을 잘 달리고 어떤 이는 남을 속이기도 하나, 저마다 장점이 있으니 참으로 재능에 따라 적재적소에 쓰였다.

가식적인 글쟁이들은 가증스러우나, 다행히 '성수서생' 소양 같은 이가 있어 풍류를 지켜주니 다행이요, 대두건을 쓴 위선적인 자들은 얄밉지만, 다행히 백의수사 같은 이들을 먼저 처단하여 인색하고 비겁한 기운을 씻어내었도다.

사방 오백 리 땅에 영웅이 백여덟 명이라. 예전에는 강호에 이름이 드높다 하면 마치 옛 누각의 종소리가 멀리 퍼지는 듯하더니, 이제야 비로소 별들의 명단이 염주알처럼 하나하나 이어져 있음을 알겠구나. 조개가 간담을 걸고 왕 노릇을 하다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오직 송강만이 두령들을 의리 있는 형제라 부르며 양산박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산림에 모여 은거한다 말하지 마라, 일찍이 조정의 품에 안기기를 염원하고 있나니.

양산박 충의당의 호령이 정해지자, 두령들은 각자 그 명령을 준수하였다. 송강은 길일을 골라 향을 피우고 북을 울려 사람들을 모았으니, 모두가 충의당으로 모여들었다. 송강이 두령들을 향해 말했다.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내가 몇 마디 하겠소. 오늘은 천강성과 지살성이 한자리에 모인 경사스러운 날이니, 반드시 하늘에 대고 맹세하여 누구 하나 딴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하오. 생사를 서로 맡기고 환난을 함께하며, 다 같이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안케 합시다."

모두가 크게 기뻐하였다. 사람들이 향을 다 피우고 나서 일제히 당 위에 무릎을 꿇자, 송강이 앞장서서 맹세하였다.

"송강은 비천한 하급 관리로서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나, 천지의 보살핌을 입고 일월의 비춤을 받아, 형제들을 양산에 모으고 영웅들을 이 물가에 모았소. 우리 백여덟 명은 위로는 하늘의 운수를 따르고 아래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었소. 이제부터 만약 누구라도 어진 마음을 버리고 대의를 저버린다면, 부디 천지가 벌을 내리고 신명과 사람이 함께 죽여, 만세토록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말세의 고통 속에 빠지게 하소서. 다만 우리 모두 마음속에 충의를 간직하고 나라를 위한 공훈을 함께 세우기를 바랄 뿐이오.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케 하겠소. 하늘이시여, 굽어살피시고 그 응보를 밝히 보여주소서."

맹세가 끝나자 모두가 한목소리로, 대대로 서로 만나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날 피를 나누어 맹세한 뒤, 모두가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서야 흩어졌다.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이곳이 양산박의 진정한 대의가 모인 곳임을 알겠소.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도다.

빛을 발하며 흙굴 사이를 날아오르니, 천강성과 지살성이 티끌세상에 내려왔도다.
말할 때면 호기가 살을 파고들 만큼 서늘하고, 이야기할 때면 영웅의 기개가 간담을 서늘케 하네.
의를 위해 재물을 아끼지 않고 물가(양산박)로 모여들어, 원수를 갚고 한을 풀고자 양산에 올랐도다.
당 앞에 놓인 하늘의 글(천문天文) 한 권은, 여러분께 굳이 자세히 보여주지는 않으리라.

직책과 임무를 나누는 일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다시 거듭 말할 필요는 없으리라. 원래 양산박의 호걸들은 한가할 때면 산 아래로 내려가곤 했는데, 어떤 이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두령 몇 명과 함께 각자 갈 길을 떠나기도 했다. 길을 가다 상인들의 수레나 말과 마주치면 그냥 지나가게 두었으나, 만약 부임하는 관리의 궤짝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면 그 가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고, 얻은 물건은 전부 산채로 보내 창고에 넣어 공용으로 썼다.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은 현장에서 즉시 나누어 가졌다. 백 리든 이삼백 리든, 만약 재물을 널리 쌓아두고 백성을 해치는 부호가 있다면 곧장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대놓고 산 위로 털어 왔으니 그 누가 감히 막아섰겠는가. 또한 선량한 사람을 억압하여 부를 축적한 소인배가 있다면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보내 가산을 모조리 산 위로 쓸어 왔다. 이와 같은 일이 크고 작은 것을 합치면 수백수천 곳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를 막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한 그들은 네가 하늘에 사무치는 억울함을 부르짖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그런 까닭에 이런 일들이 끝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전할 이야기가 없는 것이다.

한편, 송강은 맹세를 마친 후로 줄곧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가을이 찾아오며 중양절이 다가왔다. 송강은 송청에게 명하여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게 한 뒤, 형제들을 불러 모아 함께 국화를 감상하자고 하니 이를 '국화의 회(菊花之會)'라 불렀다. 산 아래로 내려가 있던 형제들은 거리가 멀든 가깝든 모두 산채로 불러들여 잔치에 참석하게 했다. 잔칫날에는 고기가 산을 이루고 술이 바다를 이루었다. 먼저 마군·보군·수군 삼군(三軍)의 여러 소두목들에게 술과 음식을 나누어 주어 각자 패를 지어 흥

겹게 먹고 마시게 하였다. 충의당 안에는 국화가 곳곳에 꽂혀 있었고, 두령들은 차례대로 자리에 앉아 술잔을 나누었다. 당 앞 양옆에서는 징을 치고 북을 울리며 요란하게 연주하였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술잔과 산가지가 어지러이 오갔다. 두령들은 모두 마음껏 술을 마셨다. 마린은 퉁소를 불고, 악화(樂和)는 노래를 부르며, 연청은 쟁(箏)을 타니 저마다 그 즐거움을 누렸다. 어느덧 날이 저물자 송강은 술에 크게 취해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하더니, 술기운을 빌려 《만강홍(滿江紅)》이라는 사(詞) 한 수를 지었다. 다 쓴 뒤에는 악화에게 이 사를 홀로 부르게 하였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양절에 기쁘게 만나니, 오늘 새로 익은 술이 더욱 달구나.
푸른 물과 붉은 산, 노란 갈대와 쓴 대를 마주하네.
머리 위엔 어느새 흰머리 가득하나, 귀밑머리엔 노란 국화 빠질 수 없네.
술잔을 앞에 두고 오래도록 이야기 나누며, 형제간의 정을 금과 옥처럼 나누고 싶네.

승냥이와 호랑이 같은 무리를 통솔하고, 변방을 지키며, 명령은 분명하고 군대의 위엄은 엄숙하네. 마음속으로는 오랑캐를 평정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를 보전하기를 원하노라. 해와 달은 늘 충렬의 기개를 비추고, 바람과 먼지는 간사한 눈길을 가로막으리니, 바라건대 천왕께서 조속히 조서를 내려 초안(招安)해 주신다면, 내 마음이 비로소 흡족하겠노라.

악사가 이 사를 노래하던 중, "바라건대 천왕께서 조속히 조안의 조서를 내려주신다면"이라는 대목에 이르렀다. 그때 무송이 소리쳤다. "오늘도 조안이라 하고 내일도 조안이라 하니, 형제들의 마음을 차갑게 식게 만드는구려!"

그러자 흑선풍 이규가 눈을 부릅뜨고 크게 외쳤다. "조안, 조안이라니, 조안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규는 발로 탁자를 걷어차서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송강이 크게 호통을 쳤다. "이 검은 놈이 어찌 이리 무례하단 말이냐! 좌우의 병사들은 저놈을 끌어내어 베어버리고 보고하라!"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이 자가 술에 취해 미친 것이니, 형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송강이 대답했다. "현명한 아우들은 모두 일어나시오. 다만 저놈은 일단 가두어 두도록 하시오."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다.

형벌을 맡은 소교(小校) 몇 명이 다가와 이규를 끌고 가려 했다. 이규가 말했다. "내가 발버둥 칠까 봐 겁나는 모양이구나. 형님이 나를 죽여도 원망하지 않고, 능지처참을 해도 한탄하지 않겠다. 저놈만 빼면 하늘도 두렵지 않다!" 말을 마친 이규는 소교들을 따라 감옥으로 가서 잠을 청했다.

송강은 이규의 말을 듣고는 술이 확 깨며 문득 슬픔이 밀려왔다. 오용이 위로하며 말했다. "형님, 이미 이런 잔치를 베푸셨고 모두가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놈은 성격이 거칠고 무딘 사람이니,

술에 취해 잠시 들이받은 것을 어찌 마음에 두시겠습니까. 그저 형제들과 함께 이 즐거움을 마저 누리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내가 강주에서 술에 취했을 때, 실수로 반역의 시를 읊었다가 저놈의 힘을 입어 목숨을 건졌지. 그런데 오늘 또 《만강홍》을 읊다가 하마터면 저놈의 목숨을 앗을 뻔했구나! 다행히 형제들이 간언하여 구해주었으니, 나와 정분이 가장 깊은 놈이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구나."

송강이 무송을 불러 말했다. "아우야, 너도 사리를 잘 아는 사람 아니냐. 내가 조안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국가의 신하가 되기 위함인데, 어찌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냐?"

그러자 노지심이 말했다. "지금 조정의 문무백관은 대부분 간사하고 사악하여 성상의 총명을 가리고 있습니다. 마치 내 직철(直裰, 승복)에 검은 물이 든 것과 같아서, 아무리 씻어내려 한들 어찌 깨끗해지겠습니까? 조안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 차라리 작별을 고하고 내일부터는 형제들 각자 갈 길을 찾아 떠나는 게 낫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형제들은 들어보시오. 지금의 황제께서는 지극히 성스럽고 명민하신 분이나, 간신들에게 막혀 잠시 어두워져 계신 것뿐이오. 머지않아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타나면, 우리가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며 선량한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음을 알게 되실 것이오. 그러면 죄를 사해주고 조안을 받아들이실 터이니, 함께 한마음으로 나라에 보답하고 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오. 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 그래서 나는 오직 조속히 조안하기를 바랄 뿐, 다른 뜻은 없소."

사람들이 모두 송강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그날의 술자리는 끝내 마음껏 즐기지 못한 채, 잔치가 끝나자 각자 자신의 채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이규를 보러 갔으나, 그는 여전히 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두령들이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어제 술에 취해 형님께 욕설을 퍼부었으니, 오늘은 네놈을 죽여야겠다."

이규가 대답했다. "꿈속에서도 감히 형님께 욕을 하지는 않았소. 형님이 나를 죽이려 하신다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오."

형제들은 이규를 데리고 대청으로 가서 송강에게 죄를 빌게 했다. 송강이 호통을 쳤다. "내 수하에 이렇게 무례한 놈이 많아지면 법도가 어지러워지지 않겠느냐? 형제들의 면면을 봐서 이번에는 네 목숨을 살려주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만약 또 죄를 범한다면 그때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

이규가 연신 대답하며 물러나자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다.

별다른 일 없이 시간이 흘러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다. 어느 날, 오랜 눈이 내린 뒤 날이 개자 산 아래에서 사람이 올라와 보고하기를, 채에서 7~8리 떨어진 곳에서 래주에서 동경으로 등불을 해송(解送)하던 일행을 붙잡아 관문 밖에 두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송강이 말했다. "억지로 결박하지 말고, 정중히 관문으로 데려오너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대청 앞으로 끌려왔다. 관원 두 명과 등불 만드는 장인 여덟아홉 명, 그리고 수레 다섯 대가 함께였다. 우두머리격인 사내가 고했다. "소인은 래주의 승차(承差) 공인이며, 이들은 모두 등불 장인들입니다. 연례로 동경(조정)에서 본주에 등 세 가(架)를 바치도록 부과해 왔는데, 올해는 두 가를 더 보태어, 옥붕(玉棚)에 영롱한 구화등(九華燈)을 만들어 올리는 길입니다."

송강은 즉시 그들에게 술과 음식을 상으로 내리고, 등불을 꺼내 오라고 일렀다. 등불 장인이 그 옥붕등을 매달고 사방에 끈을 묶어 고정하니, 위아래로 합쳐 모두 구구 여든한 개(81개)의 등불이 충의당 위에서부터 땅바닥까지 길게 늘어졌다.

송강이 말했다. "본래 너희 등불을 모두 남겨두고 싶으나, 그러면 너희가 고초를 겪을까 염려되어 마음이 편치 않구나. 이 구화등만 이곳에 남겨두기로 할 테니, 나머지는 너희끼리 관청으로 해송하거라. 수고한 값으로 백은(白銀) 이십 냥을 주겠다."

사람들이 다시 절하며 거듭 감사를 표하고 산을 내려갔다.

송강은 이 구화등을 조개(晁天王)의 효당에 걸어 불을 밝히게 했다. 다음 날, 송강이 두령들에게 말했다.

"나는 산동에서 자라 아직 도성에 가본 적이 없다. 듣자하니 지금 황제께서 성대한 등불 축제를 열어 백성들과 즐거움을 나누며 원소절을 축하하신다는데, 동지 이후부터 등불을 만들기 시작하여 이제야 겨우 완성되었다고 한다. 나도 이번 기회에 형제 몇몇과 함께 몰래 가서 등불 구경을 하고 바로 돌아오고 싶구나."

그러자 오용이 간곡히 말렸다. "안 됩니다. 지금 동경에는 관원들이 가장 많이 깔려 있는데, 만약 실수라도 저지르면 어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낮에는 그저 객주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밤에만 성안에 들어가 등불을 보고 올 것이니 무엇이 걱정이겠느냐?"

사람들이 간곡히 말렸으나 송강은 뜻을 굽히지 않고 반드시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시로 이르되, 사나운 호랑이가 단봉궐을 향해 곧장 달려들고, 살성(殺星)이 밤중에 와우성을 침범하듯 하구나.

결국 송강이 어떻게 동경으로 등불 구경을 가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2회 — 시진이 꽃을 꽂고 금원으로 들어가고, 이규가 정월 대보름에 동경을 뒤집어놓다

柴進簪花入禁院 李逵元夜鬧東京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날 송강은 충의당에서 등불을 보러 갈 인원들을 나누어 배정했다. "나와 시진이 한 길로 가고, 사진과 목홍이 한 길로 가며, 노지심과 무송이 한 길로 가고, 주동과 유당이 한 길로 가라. 이 네 무리만 다녀오고, 나머지는 모두 집에 남아서 진영을 지켜라." 그러자 이규가 나섰다. "동경의 등불이 아주 멋지다던데, 나도 한 번 가봐야겠다!" 송강이 말했다. "네가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규는 죽어도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니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다. 송강이 말했다. "정 가고 싶다면 사고는 치지 말거라. 수행원(伴當) 차림으로 꾸며 나를 따르도록 해라." 그러고는 연청에게도 함께 가자고 하여, 이규의 짝이 되어 동행하게 했다.

여러분, 들어보시라. 송강은 얼굴에 자자(刺字)가 새겨진 사람인데, 어떻게 도성(京師)까지 갈 수 있었을까? 사실은 이렇다. 신의 안도전이 양산박에 올라온 뒤에, 독한 약을 발라 그 자자 흔적을 지웠고, 그 후 좋은 약으로 정성껏 다스리니 붉은 흉터가 돋아났다. 다시 귀한 금과 아름다운 옥을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 매일같이 그 부위에 바르니 자연스럽게 닳아 없어졌다. 의서에 이르기를 '아름다운 옥은 반점을 없앤다(美玉滅斑)'고 하였으니, 바로 이 뜻이다.

그날 먼저 사진과 목홍을 손님 차림으로 보내고, 그다음 노지심과 무송을 행각승 차림으로 보냈다. 이어 송강과 주동, 유당도 객상 차림으로 길을 떠났다. 사람들은 저마다 허리에 도를 차고 손에는 박도를 들었으며, 암기도 숨겨 두었으니 말할 것도 없었다.

한편, 송강은 채진과 함께 한가로운 관리(閒涼官) 차림으로 변장하고, 대종에게는 승국(承局, 관청의 하급 관리) 차림을 시켜 함께 길을 가게 하였다.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곧장 소식을 전해오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이규와 연청은 수행원 차림으로 짐을 챙겨 산을 내려갔으며, 다른 두령들도 모두 금사탄까지 나와 배웅하며 작별의 술을 나누었다. 군사 오용은 이규에게 몇 번이고 신신당부했다. "자네가 평소에 산 아래로 내려가 사고를 치는 건 몰라도, 이번에 형님을 모시고 동경에 등불을 보러 가는 것은 평소와는 상황이 다르네. 길 위에서는 술도 마시지 말고, 매사에 극히 조심하며 평소의 성미를 죽여야 하네. 만약 자네가 사고라도 쳐서 큰일을 일으키면, 우리 형제들이 서로 얼굴을 보기도 어렵고 다시 모이기도 힘들 것이네." 그러자 이규가 대답했다. "군사님,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는 절대로 사고 치지 않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눈 뒤 길을 떠난 일행은 제주를 지나 등주와 단주를 거쳐 조주에 이르렀다. 저 멀리 동경의 만수문 밖이 보이자, 그들은 근처 객점으로 들어가 하룻밤 쉬어갔다. 때는 정월 열하루였다. 송강과 채진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송강이 말했다. "내일 낮에는 감히 성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네. 정월 열나흘 밤이 되어 사람들이 북적이고 떠들썩해질 때쯤에야 비로소 성안으로 들어가야겠어." 채진이 말했다. "그럼 내일 제가 먼저 연청과 함께 성안으로 들어가 길을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송강이 대답했다. "그러는 게 좋겠네." 이튿날, 채진은 옷매무새를 아주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띠도 깔끔하게 둘렀으며 신발과 버선까지 깨끗하게 갖추었다. 연청의 차림새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훌륭했다. 두 사람이 객점을 나서 성 밖 마을을 살펴보니, 집집마다 축제 분위기로 북적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모두가 정월 대보름을 축하하며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풍경을 준비하고 있었다. 성문 아래에 이르러서도 막는 사람이 없으니, 과연 동경은 즐길 거리가 넘치는 곳이었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주 이름은 변수요, 부의 이름은 개봉이라. 굽이굽이 오나라와 초나라 땅을 끼고 있으며, 끝없이 제나라와 노나라 경계까지 뻗어 있도다. 산과 강은 형세가 수려하고, 물길과 육로는 요충지라. 우왕이 예주라 이름 붙였고, 주나라가 정나라 땅으로 봉했도다. 층층이 겹친 와우의 형세는 하늘의 중앙을 누르고 있으며, 험준한 복호의 형상은 하늘의 이십팔수 성좌를 닮았구나. 금명지 위에는 봄날의 버들가지 흐드러지고, 작은 궁궐과 성곽 곁에는 사계절 꽃이 피어나네. 십만 리 땅에 물고기와 용이 변화무쌍하게 노니는 곳이며, 사백여 군주가 모여드는 요지

라. 상서로운 구름은 자줏빛 궁궐을 감싸 안고, 따스한 상서로운 기운은 누각과 대를 비추는도다.

한편, 채진과 연청 두 사람이 성안으로 들어와 어가(御街)로 향했다. 그들은 오가는 구경거리를 즐기며 동화문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비단옷을 입고 화려한 모자를 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저마다 색색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모두 찻집이나 술집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채진은 연청을 데리고 작은 주루 하나로 곧장 들어가 길가에 있는 누각 자리를 잡았다. 난간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니, 반직(班直)들이 안팎으로 드나들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머리 옆에 푸른 잎 모양의 꽃 장식을 하나씩 꽂고 있었다. 채진이 연청을 불러 귓속말로 은밀히 지시했다. "자네가 나를 도와 이렇게 이렇게 하게나." 연청은 눈치 빠른 사람이라 구구절절 물을 필요도 없이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가게 문을 나서는데 마침 중후한 인상의 반직 관원이 마주 오고 있었다. 연청이 예를 갖추어 인사하자, 그 관원이 말했다. "낯선 얼굴인데 본 적이 없는 듯하오." 연청이 말했다. "저희 주인어른과 관찰(觀察) 어른께서 오랜 벗 사이시라, 특별히 저를 보내 청하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반직의 성은 왕 씨였다. 연청이 "혹시 귀하께서 장(張) 관찰 어른이 아니십니까?"라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내 성은 왕 씨라오." 연청은 얼떨결에 "아, 제가 왕 관찰 어른을 모시러 오느라 그만 정신이 없어 성함을 잊었습니다"라고 둘러댔다. 왕 관찰이 연청을 따라 누각 위로 올라오자, 연청이 발을 걷어 올리며 채진에게 말했다. "왕 관찰 어른을 모셔 왔습니다." 연청이 손에 든 색(執色)을 건네자, 채진은 그를 누각 안으로 맞아들여 인사를 나누었다. 왕 반직은 채진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으나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고 말했다. "제가 눈이 어

두워 귀하를 잊었나 봅니다. 방금 저를 부르셨으니, 부디 함자를 알려 주십시오." 채진이 웃으며 말했다. "저와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니, 굳이 말할 것 없이 형님께서 천천히 생각해보십시오." 그러고는 곧바로 술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여 관찰과 함께 가볍게 술을 마셨다. 주인이 음식과 과일을 차려 내오자, 연청은 술을 따르며 정중하게 권했다. 술기운이 적당히 오르자 채진이 물었다. "관찰 어른, 머리에 꽂으신 저 푸른 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왕 반직이 대답했다. "지금 황제 폐하께서 정월 대보름을 축하하고 계시네. 우리 내외 관원 스물네 반(班), 모두 합쳐 오천 칠팔백 명에게 매일 옷 한 벌과 푸른 잎 금꽃 한 가지씩을 하사하시지. 거기에는 '여민동락(與民同樂,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한다)'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작은 금패가 달려 있다네. 그래서 매일 여기서 점검을 받지. 만약 궁궐의 꽃과 비단옷을 갖추면 그것으로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네." 채진이 말했다.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다시 술을 몇 잔 더 마신 뒤, 채진이 연청을 불렀다. "자네는 가서 따뜻한 술 한 잔을 데워 오게." 잠시 후 술이 도착하자, 채진은 일어나 왕 반직에게 잔을 권하며 말했다. "귀하께서 이 술 한 잔을 받아 주셔야 비로소 성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 반직이 말했다. "정말 기억이 나질 않는구려. 부디 함자를 알려주시오." 왕 반직은 술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술을 다 마시자마자 입가에는 침이 흐르고 두 다리는 허공을 헤매더니, 그대로 의자 위로 털썩 쓰러졌다. 채진은 황급히 자신의 머리띠와 옷, 신발과 버선을 벗고, 왕 반직의 몸에서 비단옷과 허리띠, 신발 등을 모두 벗겨 제 몸에 차려입었다. 그리고 화려한 모자를 쓰고 색을 손에 든 채 연청에게 분부했다. "주인이 와서 물으면, 관찰이 취했고 그 댁 어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만 하게." 연청이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알아서 잘 둘러댈 테니까요."

한편, 채진은 주루를 나와 곧장 동화문으로 향해 궁궐 안을 구경했다. 그곳은 참으로 인간 세상의 천상계와 같으니, 보이는 것은 이러하였다.

상서로운 구름은 봉황이 머무는 궁궐을 감싸고,
상서로운 안개는 용이 사는 누각을 뒤덮었네.
유리 기와는 원앙 무늬로 쌓여 있고,
거북등 모양 발에는 비취색 빛이 드리웠구나.
정양문 길은 황제의 길로 통하고,
긴 조정 전각은 자줏빛 담장 아래 곧게 솟았네.
혼의대는 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하며,
누각의 시계 앞에는 문무백관이 교대로 서 있네.
담장에는 향긋한 분가루가 발려 있고,
가느다란 버드나무 가지는 날아오르는 지붕을 스치네.
전각을 둘러싼 난간에는,
보랏빛 꽃들이 수레를 타고 오는 발걸음을 맞이하네.
마치 신선이 사는 섬에 와 있는 듯하고,
마치 하늘나라 궁전에 신선 놀음하러 온 듯하구나.

채진은 궁궐 안쪽으로 들어갔다. 금문(禁門)을 지날 때도 옷차림이 관원 같아 막는 이가 없었으니, 자진전(紫宸殿)을 지나 문덕전(文德殿)까지 무사히 이르렀다. 다만 전각의 문마다 금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다시 응휘전(凝暉殿)을 돌아 전각 옆길을 따라 들어가니 어느 편전이 나타났다. 그곳 현판에는 금색 글씨로

'예사전(睿思殿)' 세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곳은 황제가 글을 읽는 곳이었다. 옆으로 살짝 열린 붉은 문틈 사이로 채진이 몸을 숨겨 안을 들여다보니, 정면에는 어좌가 놓여 있고 양옆 탁자 위에는 상관(象管, 상아 붓대), 화전(花箋, 화려한 종이), 용묵(龍墨, 용 무늬가 있는 먹), 단연(端硯, 명품 벼루) 등 문방사보가 놓여 있었다. 서가에는 수많은 책이 꽂혀 있었고, 책마다 상아 꽂이가 끼워져 있었다. 정면에 놓인 병풍에는 푸른 산과 초록빛 강산을 그려 넣어 산하사직이 하나로 어우러진 그림이 펼쳐져 있었다. 채진이 병풍 뒤로 돌아가 보니, 깨끗하고 하얀 병풍 위에 황제의 글씨로 네 명의 큰 도적(四大寇) 이름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산동의 송강, 회서의 왕경, 하북의 전호, 강남의 방랍.

채진은 네 명의 대도 이름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라가 우리 때문에 어지러우니, 황제가 이를 늘 마음에 두고 이곳에 적어둔 것이로구나.' 그러고는 몸 곁에 품고 있던 암기를 꺼내 '산동 송강'이라는 네 글자를 깎아내었다. 채진이 황급히 전각을 빠져나오자 곧이어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채진은 즉시 내원을 벗어나 동화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채진이 주막으로 돌아와 보니, 왕 관찰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채 비단옷과 화려한 모자, 관복 등을 그대로 방 안에 두고 잠들어 있었다. 채진은 원래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은 뒤, 연청과 함께 술값을 계산했다. 남은 십여 관의 돈은 주막 주인에게 상으로 주며 아래층으로 내려와 이렇게 일렀다.

"나와 왕 관찰은 형제 같은 사이라네. 마침 그가 술에 취했기에 내가 대신 안으로 들어가 명단만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아직 깨어나지 않았더군. 나는 성 밖에 묵을 예정이라 성문이 닫히는 시간을 놓칠까 걱정되니, 남은 돈은 모두 자네에게 주겠네. 그의 관복과 옷가지도 모두 여기 있으니 잘 챙겨두게."

주막 주인이 대답했다. "나으리, 걱정 마십시오. 손님 대접은 저희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채진과 연청은 주막을 떠나 곧장 만수문 쪽으로 향했다. 왕 관찰은 저녁때가 되어서야 일어났는데, 관복과 모자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 영문을 몰라 했다. 주막 주인이 채진이 했던 말을 전하자, 왕 관찰은 마치 술에 취한 듯 멍한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누군가 찾아와 보고했다. "예사전에 적혀 있던 '산동 송강' 네 글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각 성문에서는 철통같이 경비를 강화하여, 출입하는 사람들을 매우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왕 관찰은 이것이 틀림없이 자신이 저지른 일임을 직감했으나, 감히 입을 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한편, 채진이 주막으로 돌아와 궁궐 안에서 황제가 대도들의 이름을 적어둔 '산동 송강' 네 글자를 깎아낸 일을 송강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 송강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탄식을 금치 못했다.

정월 14일 황혼 무렵, 밝은 달이 동쪽에서 떠오르니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송강과 채진은 한가로운 관리로 변장하고, 대종은

승국(承局, 관청의 하급 관리) 차림을 했으며, 연청은 하인처럼 꾸몄다. 이규에게는 방을 지키라고 맡긴 채, 네 사람은 축제 행렬 속에 섞여 봉구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여섯 거리와 세 시장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과연 밤공기는 따스하고 바람은 온화하여 유람하기에 딱 좋았다.

마행가 거리를 지나니 집집마다 문 앞에 등불 가설대를 세워놓고 불을 밝히느라 경쟁을 벌였는데, 그 빛이 마치 대낮처럼 환했다.

시로 이르되, 누각 위아래로 등불 빛이 넘실거리고 수레와 말 사이로 구경꾼들 가득하네.

네 사람은 어가를 지나니 길 양옆으로 연월패(煙月牌, 기생의 이름이나 집을 알리는 간판)가 줄지어 있었다. 길 한복판에 이르니 한 집 앞에 푸른 천으로 된 막이 드리워져 있고, 안에는 대나무 발이 걸려 있었으며, 양옆은 모두 푸른 비단 창문으로 되어 있었다. 그 밖에는 두 개의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간판에는 각각 다섯 글자씩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무하는 신선 여인, 풍류 넘치는 꽃과 달의 으뜸.'

송강은 이를 보고 찻집 안으로 들어가 차를 마시며 찻집 주인에게 물었다. "저 앞의 기생들은 어느 집 사람인가?"

주인이 대답했다. "저는 동경에서 으뜸가는 상청행수(上廳行首)로, 이사사라고 부릅니다."

송강이 다시 물었다. "혹시 요즘 황제와 가까이 지내는 그 여인인가?"

주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귀와 눈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송강은 즉시 연청을 불러 귓속말로 나직이 일렀다. "내가 이사사를 한번 만나 몰래 일을 도모하고 싶구나. 네가 완곡하게 말을 잘 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아라. 나는 여기서 차를 마시며 너를 기다리마."

말을 마친 송강은 채진, 대종과 함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기다렸다.

한편, 연청은 곧장 이사사의 집 문앞으로 가서 푸른 천 막을 걷어내고 대나무 발을 들춘 뒤 중문으로 들어갔다. 안을 보니 원앙 모양의 등불이 하나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코뿔소 가죽으로 만든 향 탁자 위에는 박산(博山) 모양의 청동 향로가 놓여 있어 향이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양쪽 벽에는 유명한 산수화 네 폭이 걸려 있었고, 아래에는 코뿔소 가죽으로 만든 일자형 의자 네 개가 놓여 있었다. 연청이 살펴보니 나오는 사람이 없기에 안뜰 쪽으로 더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는 또 다른 큰 손님용 방이 있었는데, 향나무를 정교하게 조각한 작은 침상 세 개가 놓여 있고, 그 위에는 꽃과 물결 무늬가 수놓아진 보라색 비단 요가 깔려 있었다. 또한 옥으로 만든 등갓을 씌운 등불이 걸려 있고 기이한 골동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연청이 가볍게 헛기침을 하자, 병풍 뒤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연청을 보고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물었다. "형님은 성함이 무엇이며 어디서 오셨나요?"

연청이 말했다. "누님, 번거로우시겠지만 마마를 좀 불러주십시오.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매향이 안으로 들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마마가 나왔다. 연청은 그녀를 앉게 한 뒤 머리를 조아리며 크게 절했다. 이 마마가 물었다. "젊은이, 성함이 어찌 되시오?"

연청이 대답했다. "제 이름을 잊으셨나 봅니다. 저는 장을 아들 장한입니다. 어릴 때부터 집을 떠나 있다가 오늘에야 돌아왔습니다."

본래 세상에는 장 씨, 이 씨, 왕 씨가 가장 흔한 법이라, 이 마마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등불 아래라 사람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다가 문득 깨닫고는 외쳤다. "자네, 태평교 아래 살던 그 소장한 아니냐? 그동안 어디 갔다가 이제야 나타난 게야?"

연청이 말했다. "그동안 집에 없어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지금 산동에서 귀한 손님을 모시고 있는데, 재산이 아주 많아 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연남북 지역에서 제일가는 부자로, 이번에 이곳에 온 이유는 첫째는 원소절을 즐기기 위함이요, 둘째는 경사(京師, 수도)에 친척을 보러 온 것이며, 셋째는 이곳에서 물건 장사를 하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는 낭자님을 한번 뵙고자 함입니다. 감히 댁에 드나들겠다고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저 한자리에서 술 한잔 나누며 마

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로 금은보화 수천 냥을 이 집에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마마는 워낙 이익을 밝히는 사람이었다. 금전이 목적임을 알아챈 그녀는 연청의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서둘러 이사사를 불러 연청과 만나게 했다. 등불 아래서 보니 과연 용모가 빼어났다. 연청은 그녀를 보고 머리를 조아리며 절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꽃다운 나이 기생집에서 이름이 가장 높으니,
옥 같은 얼굴과 꽃 같은 미모는 비길 데가 없구나.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것을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어찌 대장부로서 고개 숙이는 것을 부끄러워하랴.

이 마마가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자, 이사사가 물었다. "그 원외(員外, 재산이 많은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라는 분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연청이 대답했다. "바로 앞 맞은편 찻집에 계십니다."

이사사가 말했다. "부디 저희 집으로 오셔서 차를 한잔 나누시라 전해주게."

연청이 다시 말했다. "낭자님의 허락 없이는 감히 멋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마마가 외쳤다. "어서 가서 모셔 오너라!"

연청은 곧장 찻집으로 달려가 귓속말로 소식을 전했다. 대종이 돈을 챙겨 찻집 주인에게 차 값을 치르자, 세 사람은 연청을 따라 곧장 이사사의 집으로 향했다. 중문으로 들어서자 마중을 나온 이사사가 큰 손님용 방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이사사는 손을 모아 정중히 예를 갖추며 안부를 물었다. "조금 전 장한이라는 분께서 아주 고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렇게 귀한 분들을 뵙게 되니 기생의 집이 환해지는 듯합니다."

송강이 대답했다. "나는 산골 마을에 사는 식견이 좁은 사람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뵙게 되었으니 평생의 행운이오."

이사사는 그들을 자리에 앉도록 권하며 채진을 바라보고 물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송강이 말했다. "이분은 내 표제(사촌 동생)인 엽 순검(葉巡簡)이라네." 그러고는 대종에게 이사사에게 절을 올리게 했다.

송강과 채진은 왼쪽에 앉아 손님석을 차지했고, 이사사는 오른쪽에 앉아 주인으로서 그들을 대접했다. 시녀가 차를 가져오자 이사사가 직접 송강, 채진, 대종, 연청의 잔을 채워주었다. 그 찻물에서 풍기는 향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향긋했다. 차를 다 마시고 찻잔 받침을 거둔 뒤 서로의 신세를 나누려는데, 시녀가 들어와 보고했다. "황제께서 뒤편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사사가 아쉬운 듯 말했다. "차마 더 머물게 할 수가 없군요. 내일은 황제께서 상청궁으로 행차하셔서 분명 이곳에 오지 못하실 터이니, 그때 여러분을 이곳으로 모셔 술이라도 몇 잔 나누었으면 합니다."

송강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양하자, 그는 세 사람을 데리고 곧 자리를 떴다. 이사사의 집을 나와 작은 어가를 지나 천한교 쪽으로 향하며 오산의 경치를 구경하려 했다. 마침 번루 앞을 지나는데, 누각 위에서는 악기 소리가 귀를 울리고 북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했으며, 등불 빛은 눈이 부실 정도였다. 구경꾼들은 마치 개미 떼처럼 북적였다. 송강과 채진도 번루에 올라 어느 누각에 자리를 잡고 술과 음식을 차려 놓고는, 누각 위에서 등불을 감상하며 술을 마셨다. 술을 몇 잔 마시기도 전에 옆 누각에서 누군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운은 북두칠성까지 닿았는데,
영웅의 큰 뜻은 아직 다 이루지 못했구나.
손에는 세 자 길이의 용천검을 쥐고,
간사하고 사악한 무리를 베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

송강이 그 소리를 듣고 황급히 건너가 살펴보니, 바로 '구문룡' 사진과 '몰차란' 목홍이 누각 안에서 잔뜩 취해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내뱉고 있었다. 송강이 가까이 다가가 꾸짖었다.

"이 두 형제는 나를 놀라 죽게 만들 작정인가! 어서 술값을 계산하고 당장 여기서 나가게! 만약 나를 만난 게 아니라 관아의 관리가 들었다면 큰 화를 입었을 것이야. 어찌 두 형제는 이토록 무지하고 거칠단 말인가! 어서 성 밖으로 나가게, 지체해서는 안 되네. 내일 정등(正燈, 대보름의 큰 등불)을 구경하고 밤을 넘기지 말고 곧장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네. 일을 망쳐서 일을 그르치지 말게나!"

사진과 목홍은 아무 말 없이 술집 주인에게 술값을 치르게 했다. 두 사람은 누각을 내려와 곧장 성 밖으로 향했다. 송강과 채진 등 네 사람은 가볍게 술을 몇 잔 더 마시며 봄의 정취를 즐겼다. 대종이 술값을 계산하자, 네 사람은 소매를 털며 누각을 내려와 곧장 만수문 근처 객점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이규는 졸린 눈을 게슴츠레 뜨며 송강에게 말했다. "형님, 저를 안 데려오실 거면 차라리 안 데려오시지, 데려와 놓고는 방만 구경하게 하시니 답답해 죽겠습니다. 형님들끼리 알아서 즐겁게 노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네 성격이 워낙 거칠고 얼굴도 험악하니, 성 안으로 데려갔다가 혹여나 화를 부를까 염려되어 그러는 것이다."

그러자 이규가 대꾸했다. "안 데려가시면 그만이지, 어찌 그리 핑계를 대십니까! 제가 남의 집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내일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데려가 주마. 정등을 구경하고 나면 밤을 넘기지 말고 곧장 돌아오는 것이다."

이규는 허허거리며 크게 웃었다.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이 되니 마침 정월 대보름이었다. 하늘은 맑고 화창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원소절을 축하하려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모여들었다. 옛사람이 지은 「강도춘(絳都春)」이라는 사(詞) 한 편이 있어 오로지 원소절의 풍경만을 노래하였으니,

사로 이르되:

융화로운 기운이 처음으로 전해지니, 상서로운 안개가 걷히고 하늘이 맑게 개어 도성에 봄이 일찍 찾아왔구나. 비단 휘장을 드리운 수레들이 앞다투어 날아다니고, 옥으로 장식한 말들이 다투어 달리는구나. 사람들은 오산(鰲山)에 채색 비단이 얽혀 봉래도(蓬萊島)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저물어가는 저녁 빛 속에는 두 마리 용이 빛을 머금고 있구나. 강소루(絳霄樓) 위, 붉은 영지(芝草) 모양의 일산 아래에서 하늘의 모습을 우러러보네. 아득한 바람은 황제의 음악을 전하고, 옥전(玉殿)에 모인 이들은 함께 즐기며 온갖 신선들이 다 모여든 듯하구나. 임금의 향기가 길게 이어져 가득 퍼지니, 인간 세상에는 웃음꽃이 피어나네. 작은 별 모양의 등불 하나가 점차 멀어지더니, 어느덧 나뭇가지 끝에서 울리는 소리도 아스라해지네. 놀던 이들이 달빛 아래 돌아오니, 신선이 사는 동천(洞天)에는 아직 날이 밝아오지 않았구나.

그날 밤, 송강은 채진과 함께 예전처럼 한가로운 관리 차림을 하고 대종, 이규, 연청을 데리고 다섯 명이서 만수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은 비록 통행금지가 없는 날이었으나, 각 문의 두목과 군사들은 모두 무장을 갖추고 있었다. 모두가 군복을 입고 모자를 썼으며, 활에는 시위를 걸고 칼과 창은 칼집에서 뽑아 둔 채 매우 엄정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고 태위는 직접 철기 기병 오천 명을 이끌고 성 위를 돌며 순찰하고 있었다. 송강 일행 다섯 명은 인파를 헤치고 밀려들며 성 안으로 들어갔다. 송강은 먼저 연청을 불러 귓속말로 나직이 일렀다. 「나를 도와 이렇게 이렇게 해다오. 밤에 찻집에서 만나자꾸나.」

연청은 곧장 이사사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이 마마와 이 행수가 나와서 연청을 맞이하며 말했다. 「원외(부유한 손님)님, 부디 노여워 마십시오. 관가에서 때때로 허락 없이 이렇게 몰래 거둥하시는데, 저희가 어찌 감히 소홀히 대하겠습니까.」 연청이 말했다. 「저희 주인께서 거듭 마마께 말씀을 올리시며 화괴 낭자님께 폐를 끼쳤습니다. 산동의 외진 곳이라 별로 귀한 물건이 없습니다. 설령 토산물이 좀 있다 한들 가져와도 마음에 차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선 제가 황금 백 냥을 먼저 보내 예물로 삼고자 하니, 나중에 따로 진귀한 물건이 생기면 그때 다시 정중히 바치겠습니다.」

이 마마가 물었다. 「지금 원외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연청이 답했다. 「골목 어귀에서 제가 예물을 전해드리고 함께 등불을 보러 가기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노파들은 돈을 밝히는 법이라, 연청을 보자마자 숯덩이처럼 벌건 황금 두 덩이를 꺼내 앞에 놓으니 어찌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 마마가 말했다. 「오늘이 마침 정월 대보름 명절이니, 저희 모녀가 집에서 술 몇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혹 원외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저희 같은 가난한 집에서 잠시 담소를 나누어 주신다면야 좋겠습니다.」 연청이 말했다. 「제가 가서 청해 보겠습니다. 안 올 리가 있겠습니까.」 말을 마친 연청은 몸을 돌려 찻집으로 돌아가 송강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곧이어 모두 이사사의 집으로 향했다. 송강은 대종과 이규에게 문 앞에서 기다리라고 일렀다.

세 사람이 안쪽의 귀한 손님용 방으로 들어가니, 이사사가 나와서 절하며 감사 인사를 올렸다. 「원외께서 저를 처음 아셨을 때 어찌 이토록 두터운 예물을 보내주셨습니까.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요,

받는 것도 과분합니다.」 송강이 대답했다. 「산골 마을이라 귀한 물건이 전혀 없소. 그저 마음을 표하고자 작은 물건들을 보낸 것뿐이니, 화괴 낭자께서 굳이 감사를 표하실 것 없소.」 이사사는 그들을 작은 누각으로 안내하여 자리를 정해 앉혔다. 유모와 시녀들이 진귀한 과일과 정갈한 채소, 희귀한 안주와 달콤하고 맛있는 요리들을 받들어 올렸는데, 모두 정교한 그릇에 담겨 봄날의 화려한 잔칫상을 이루었다. 이사사가 잔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 절하며 말했다. 「전생에 인연이 있었는지, 오늘 밤 두 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초라한 술상이나마 어른들을 모시는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제가 산골에 살며 돈이 좀 있다고는 하나, 이토록 부귀한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화괴 낭자의 명성은 온 세상에 자자하여, 얼굴 한 번 뵙는 것이 하늘에 오르는 것만큼 어렵다 들었는데, 하물며 이렇게 직접 술과 음식을 대접해 주시다니요.」 이사사가 말했다. 「원외의 칭찬이 너무 과하십니다.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술을 다 권한 뒤, 유모를 시켜 작은 금잔을 돌리게 했다. 이사사가 거리의 재기 넘치는 말들을 늘어놓으면 채진이 대답을 이어갔고, 연청은 곁에 서서 맞장구를 치며 웃고 떠들었다.

술잔이 몇 차례 돌자 송강은 말솜씨가 살아나,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먹을 휘두르며 손가락질까지 해대며 양산박의 호탕한 기세를 뽐냈다. 채진이 웃으며 말했다. 「제 외사촌 형님이 원래 술만 들어가면 저러니, 낭자께서는 웃지 마십시오.」 이사사가 말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이 제각각인 것을요!」 시녀가 말을 거들었다. 「문밖에 있는 종자 두 명 중 한 명은 누런 수염을 가졌는데, 인상이 워낙 험악해서

밖에서 계속 투덜거리며 욕을 해대고 있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 두 사람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대종이 이규를 데리고 누각 안으로 들어왔다. 이규는 송강과 채진이 이사사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는,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올라 부릅뜬 괴상한 눈으로 세 사람을 빤히 노려보았다. 이사사가 물었다. 「이 사내는 누구인가요? 꼭 토지신당에서 판관 옆에 서 있는 꼬마 귀신처럼 생겼군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으나, 이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송강이 대답했다. 「이 아이는 제가 집에서 부리는 녀석, 소이(小李)입니다.」 이사사가 웃으며 말했다. 「저야 상관없습니다만, 태백학사(太白學士, 곧 이태백 이백)를 욕보일 뻔했군요.」 송강이 말했다. 「이 녀석이 무예가 아주 출중하여, 이삼백 근 무게의 짐도 거뜬히 짊어지고 서른에서 쉰 명은 거뜬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사사는 큰 은상잔(상으로 주는 큰 은잔)을 가져오게 하여 이규와 대종에게 각각 세 잔씩 주었고, 대종도 세 잔을 마셨다. 연청은 이규가 혹여나 헛소리를 내뱉을까 걱정되어, 미리 그와 대종을 달래서 먼저 문 앞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일러두었다. 송강이 말했다. 「대장부가 술을 마시는데 어찌 작은 잔을 쓰겠느냐!」 그러고는 상으로 주는 잔을 가져다가 연거푸 몇 잔을 들이켰다. 이사사가 나직한 목소리로 소동파의 '대강동거(大江東去)'를 노래하자, 송강은 술기운을 빌려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했다. 먹을 진하게 갈고 붓에 먹을 듬뿍 적신 뒤, 화려한 종이를 펼쳐 놓고 이사사에게 말했다. 「재주 없는 제가 멋대로 글을

지어 가슴속의 울분과 회포를 다 쏟아내려 하니, 부디 화괴 낭자께서 들어주십시오.」

그때 송강이 붓을 들어 글을 써 내려가니, 곧 한 수의 악부사(樂府詞)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천남지북(온 천지), 천지 어느 곳에 이 미친 나그네를 품어줄 곳 있으랴?
산동의 안개 낀 물가 산채를 빌려, 도성의 봄빛을 사러 왔노라.
푸른 소매는 향기를 두르고, 붉은 비단은 눈 같은 흰 살결을 감싸니, 한 번 웃음이 천금의 값어치로다.
신선 같은 저 자태를, 박정한 이 몸이 어찌 누릴 수 있으랴?

갈대 잎 무성한 여울가와 마디풀 꽃 핀 물가를 생각하니,
밝은 달만 허공에 푸르게 어려 있네.
서른여섯(천강)과 일흔둘(지살), 기러기 행렬처럼 이어진 (백여덟 호걸은),
그저 금계(金雞, 곧 대사면 조안)의 소식만을 기다릴 뿐이라.
의로운 담력은 하늘을 품고 충성스러운 간은 땅을 덮었으나,
천하에 알아주는 이 하나 없고,
만 가지 이별의 슬픔 속에, 취향(醉鄕)에서 하룻밤 새 머리가 하얗게 세었네.

송강이 글을 다 써서 이사사에게 건네주었으나, 그녀는 몇 번을 다시 읽어보아도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송강은 그녀가 자세한 뜻을 물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슴속에 맺힌 진심 어린 사정을 일러주려 했다. 그때 마침 시녀가 달려와 보고했다. "관가에서 뒷문을 통해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사사가 급히 말했다. "멀리까지 배웅하지 못하니 부디 용서하십시오." 하며 뒷문으로 마중을 나갔다. 시녀와 하인들은 서둘러 술잔과 음식 그릇, 여러 기물을 치우고 탁자를 들어냈으며, 정자 주변을 깨끗이 쓸고 닦았다. 송강 일행은 아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들은 이사사가 눈앞에서 절을 하며 황제에게 안부를 묻고, 황제의 옥체가 피곤하시다는 말을 올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황제는 머리에 부드러운 비단 수건을 쓰고 용 무늬가 수놓아진 포를 입은 채 말했다. "과인이 오늘 청궁에 갔다가 이제야 돌아오는 길이다. 태자에게는 선덕루에서 만민에게 어의(御酒, 황제가 내리는 술)를 내리라 일렀고, 어제(御弟, 황제의 동생)에게는 천보랑에서 장사를 하라 일렀다. 양 태위와 약속을 했는데 오래 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과인이 직접 왔다. 경은 가까이 와서 과인과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송강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어렵겠소. 우리 세 사람이 이참에 조안(招安, 항복하여 관직을 얻음)의 사면서를 받아낸다면 어찌 좋지 않겠소!" 채진이 말했다. "어떻게 하겠소? 설령 허락을 받는다 한들 나중에 또 뒤바뀔 수도 있는 법인데." 세 사람이 어둠 속에서 상의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한편, 이규는 송강과 채진,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신과 대종에게는 문이나 지키라고 시킨 것을 보고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이때 양 태위가 발을 걷

어 올리고 문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오다가 이규를 보고 호통을 쳤다. "이놈은 누구냐! 감히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규는 대답도 하지 않고는 옆에 있던 교의를 집어 들어 양 태위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다. 양 태위는 뜻밖의 습격에 깜짝 놀라 미처 손쓸 새도 없이 교의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대종이 구하러 왔으나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이규는 벽에 걸린 그림을 떼어다가 촛불에 붙여 이리저리 휘두르며 불을 질렀고, 향상과 탁자, 의자 등을 모조리 때려 부수었다.

송강 일행 세 사람이 소란을 듣고 급히 달려 나와 보니, '흑선풍' 이규가 옷을 반쯤 벗어 던진 채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네 사람이 그를 끌고 문밖으로 나갈 때, 이규는 길가에서 몽둥이를 하나 집어 들더니 소어가(小御街) 쪽으로 거침없이 휘두르며 나아갔다. 송강은 이규의 성질이 머리끝까지 뻗친 것을 보고, 성문이 닫혀 탈출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채진, 대종과 함께 먼저 성 밖으로 빠져나갔다. 연청에게만 이규를 지키라고 맡긴 채였다. 이사사의 집에 불이 나자 놀란 조 관가는 연기 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이웃 사람들이 불을 끄는 동시에 양 태위를 구해냈으니, 이 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성 안에서는 살기 어린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북문에서 순찰하던 고 태위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군마를 이끌고 추격해 왔다. 연청이 이규를 붙들고 싸우는 와중에 목홍과 사진을 만났다. 네 사람이 각각 창과 몽둥이를 들고 힘을 합쳐 싸우며 성 가장자리까지 밀고 나갔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급히 문을 닫으려 할 때, 밖에서 노지심이 철선장을 휘두르며 나타났고, 무송이 쌍계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으며, 주동과 유당은 박도를 손에 쥐고 성 안으로 들이닥쳐 안쪽에 있던 네

사람을 구해냈다. 겨우 성문을 빠져나오자마자 고 태위의 군마가 성 밖까지 들이닥쳤다. 여덟 명의 두령은 송강, 채진, 대종이 보이지 않자 마음이 몹시 불안해졌다.

알고 보니 군사 오용이 이미 이 일을 미리 알고, 동경에서 크게 난동을 부리도록 계획해 둔 것이었다. 오용은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다섯 명의 맹장을 선발하고, 갑주를 입은 기병 천 명을 거느리게 했다. 그들은 바로 그날 밤 동경 성 밖에서 일행을 마중하기 위해 도착해 있었는데, 마침 송강, 채진, 대종 세 사람이 데려온 빈 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말을 태웠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도착했다. 모두가 막 말에 올라타려 할 때, 안쪽에 있어야 할 이규가 보이지 않았다. 이때 고 태위의 군마가 무서운 기세로 달려 나왔다. 송강의 수하인 다섯 맹장, 즉 관승, 임충, 진명, 호연작, 동평이 성벽 근처까지 돌진해 오더니, 해자 위에 말을 세우고 크게 외쳤다. 「양산박의 호걸들이 모두 여기 있다! 어서 성을 바치고 항복하라! 그래야 너희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고 태위가 이 소리를 듣고 어찌 감히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었겠는가. 그는 황급히 현수교를 내리게 하고, 군사들을 성벽 위로 올려보내 방비하게 했다. 송강은 연청을 불러 분부했다. 「자네가 저 시커먼 녀석과 제일 친하니, 가서 이규를 잠시 기다려 주었다가 나중에 함께 오게나. 나는 군마와 여러 장수들과 함께 먼저 출발하여 밤길을 달려 산채로 돌아가겠네. 가는 길에 혹시 모를 변고가 생길까 염려되는구먼.」

송강 일행이 군마를 이끌고 떠난 뒤의 일이다. 한편, 연청이 어느 집 처마 밑에 서서 지켜보고 있으니, 이규가 가게에서 짐을 챙겨 들고는

커다란 도끼 두 자루를 쥔 채 크게 포효하며 가게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는 홀로 동경 성을 공격하러 가려는 기세였다.

"천둥 같은 포효가 가게를 뒤흔들고, 커다란 도끼를 치켜든 채 성문을 향해 돌진하네."

과연 '흑선풍' 이규가 대체 어떻게 성을 공격했을까.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